

광주 1백년³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박선희 지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한다. 빗고을의 유래에서부터 옛 광주의 상징과도 같았던 경양방죽과 태봉산, 운천저수지의 매립계획 반대운동을 통해 보존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경양방죽 매립이 남긴 상실감과 회환이 컸기에 사라져간 풍경과 풍속, 상부상조의 전통을 기록으로나마 복원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졌다.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광주 1백년³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광주 1백년³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박선희 지음



지켜내야 할 우리광주 모습 그리고 이야기

박선흥 선생님의 광주 이야기 『광주 1백년Ⅲ』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광주의 성장과 변화, 쇠퇴에 따른 부침의 기록과 함께 선생님의 현장 활동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더욱 선생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지역문화 및 환경단체 활동을 통해 경양방죽, 태봉산, 유림숲, 오치동의 연못 등 광주시민들의 품에서 사라진, 찾아볼 수 없게 된 자연 경관을 환기시키면서 가까스로 운천저수지를 지켜냈던 이야기를 박선흥 선생님은 지금도 생생한 듯 책 속에 담아냈습니다.

1910년대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운천저수지 보존문제는 매립과 개발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매립 반대 진영에 선 광주민학회 회장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던 선생님은 매립반대 입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낼 수 있었던 데에는 1960년대 경양방죽 매립이 남긴 상실감과 회한이 적잖은 교훈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회고하십니다.

오늘날 운천저수지는 연꽃과 수변누각 등이 어우러져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이는 운천저수지를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 거대한 생명의 일부로 믿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를 꿈꾼 선생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공원은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있고 맨해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공원으로 인해 뉴욕은 다른 도시와 구별되어 뉴요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여행자들의 발길을 모으는

도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광주 1백년』 세 번째 이야기는 『광주 1백년 I』(2012), 『광주 1백년 II』(2014)에 이은 후속작입니다. 90 노구를 이끄시고 그 어느 때 보다 면밀히 책 출판 진행과정을 살피시던 선생님,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애쓰신 사진가 신장용, 조광철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혼신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어 지켜내야 할 광주의 모습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더 이상 옛 자취를 찾을 수 없어 애석해 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광주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할 것이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광주의 인문과 역사가 담긴 광주학 총서 발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15년 12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 영 진

‘광주학^{光州學}’의 내일을 염원하며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만 열면 멀리 지구 반대편의 일이나 수백 수천 년 전의 문물들을 앉은 자리에서 손금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제 도서관이나 필요한 전문 자료를 찾아다닐 일도 없게 되었고 벌써부터 책이 없는 미래를 예언하는 이도 있다. 심지어는 종이의 무용론까지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문화와 역사와 지식을 담을 수는 있으나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어온 전통이나 정체성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실체적 진실을 기반으로 이어져 오고 이어져 갈 것이다. 누렇게 바랜 옛 사진 한 장, 수수께끼 같은 발굴기록이나 유물 유적들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전통가치를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라면서 광주의 옛 흔적들이나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 없었고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애정 때문에 이들을 모으고 간직해왔다. 이것이 초판 『광주 1백년』이다.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 어딘지 허전한 빈자리와 아쉬운 점을 떨칠 수 없었다.

증보판 『광주 1백년』도 우리 향토사학가들의 정성 어린 협조로 귀한 자료들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근대적 의미의 도시가 형성되었고 광주 도심도 지난 1백여 년간 수많은 변화를 거쳤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한다. 빗고을의 유래에서부터 옛 광주의 상징과도 같았던 경양방죽과 태봉산, 운천저수지의 매립계획 반대운동을 통해 보존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경양방죽 매립이 남긴 상실감과 회환이 컸기에 사라져간 풍경과

풍속, 상부상조의 전통을 기록으로나마 복원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졌다.

이번에 『광주 1백년』을 마무리하면서 못 다한 이야기도 몇 편 수록하였다. 항일의병운동, 광주학생운동에 가려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한 광주인권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사 운동이 그것이다. 향토기업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금호 박인천 회장은 나의 인^因과 업^業이다. 더 이상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오. 광주가 사랑의 도시로서 기억해야 할 분이 고아의 어머니인 박순이 원장이라면 언론인으로서 사표는 서두성 주필이다. 흩어지고 멸실될 뻔한 자료들이 모여 문장이 되고 책으로 묶여지게 되어 다행스럽다. 그동안 자료를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미수^{未收}에 시작한 작업이어서 걱정스러웠지만 행복한 경험이었다. 이제 못다 이룬 대목은 다음 세대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출저 『광주 1백년』 판권을 흔쾌히 받아주어 지금까지 세권의 연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준 광주문화재단에 경의를 표한다. 사진자료를 협조해주신 금호 아시아나 그룹, 충현원 관계자분, 서두성 선생 가족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부디 광주문화재단이 우리 광주 향토정신의 도도한 정통성과 문화자산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광주학’을 여는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년 12월

박 선 홍

■
제1장
상전벽해의
광주 1백년

책을 펴내며	4
지켜내야 할 우리광주 모습 그리고 이야기	
저자의 말	6
'광주학(光州學)'의 내일을 염원하며_ 박선희	
전설이 깃든 땅, 광주	12
빛고을의 유래 무진도독고성 담양군 대전면 무진고성 북구 누문동의 건물터	
경양방죽과 태봉산	22
광주고을을 적시던 호수 김방과 개미의 보은 경양방죽 매립 반대운동 태봉산 태봉산 전설 단사동과 학강	
운천저수지	36
광공간 도로변의 아름다운 호수 매립계획과 반대운동 가까스로 살아난 저수지	
유림숲	42
역사 속의 유림숲 유림숲의 훼손 사라져 가는 나무들	
사직공원에서 발산까지	52
광주천 좌안의 산줄기 사직단 사직공원 정업의 정려 충견상 성거산 전설 광주향교 광주신사와 광주공원 발산 덕림산	
예향의 젖줄 광주천	69
광주천의 옛 이름 조탄강 광주천의 변화 놀이터 겸 시민공원이던 천변 축제와 '말시바이' 그리고 나이롱 극장 항일운동의 중심지	

■
제2장
광주 1백년
못 다한
이야기들

광복 후, 광주의 행정구역 변천	79
북쪽의 신개발 택지 첨단지구 신도심의 대명사 상무지구 광주 최대의 택지 수완지구	

추억 속의 명절	86
새해를 여는 복조리 추석에 추석 같지 않다지만...	

상부상조의 구심점 위친계	90
농경 정착 문화의 마지막 유산 60년 이어온 누항계	

형평사 운동	96
신분 차별 혁파를 위한 저항 신분 해방 운동의 결사체 형평사 광주형평청년전위동맹 옥사사건 일제에 의한 강제 해체	

향토기업의 대들보 금호 박인천	101
그 텅 빈 세월이 속절없다 인과 업 상공회의소가 피해를 입어서야 제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 전국 최초의 주산 경기대회와 세계 제패 상공 장려관 개관과 상업은행 광주지점 유치 도의원 뺄을 때린 '너릿재 사건'의 파장 전남방직 본사 서울 이전 반대 나주 호남비료공장,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업단지 건설 국산품 장려운동과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전람회 호남선의 광주역 직통 실현 대전 변압기 이설 저지와 광주은행 설립 전남 근대화운동의 점화 좌절된 광주여자대학 설립의 꿈 무등산 사랑 운동의 아버지 “한눈팔지 마라, 한 우물을 파라” ‘월급은 받았느냐’	

고아의 어머니 박순이 원장 139

청년 음악가 김생옥과 결혼
박원장 남매도 고아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맺어

언론인 서두성 150

식민지시대 일본에서
전국을 휩쓴 '순풍에 돛을 달고' 노래
호남신문 개간을 단행하며
절로 가겠단 승부 건 광주천 복구 | 3년의 정치 생활
언론인장 | 신문의 날에 세운 묘비

되찾은 국토 산사랑 나라사랑 160

경찰 호위 받으며 지리산 등반 | 처음 본 버너와 코펠
폭풍우로 철수 | 잊을 수 없는 산악인 이남렬
초기 산악운동의 기억들 | 민간 산악회 활동

5·18광주민주화운동 169

가슴 아픈 이야기 | 광주 항쟁의 특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광주 1백년 연표 175

■
부 록
광주
1백년 연표



제1장

상전벽해의 광주 1백년



■ 전설이 깃든 땅, 광주

빛고을의 유래

광주의 옛 이름은 무진주^{武珍州}이다. 이 말을 언제부터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동성왕 20년인 서기 498년에 탐라가 공물 바치기를 거부하자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무진주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탐라가 놀라 공물 바치기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만 보면 백제시대에 이미 무진주라 불렀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시에는 광주를 부르는 특별한 지명이 없었는데 후에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통일신라시대의 지명에 맞춰 무진주라 했을 수도 있다. 『삼국사기』 중 통일신라시대의 지명을 다룬 부분에서 백제 때 광주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다만 신문왕 때 무진주라 했다가 경덕왕 때 무주^{武州}로 이름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무진주란 이름을 처음 쓴 것은 600년대 후반이다.

반면 역사상 광주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19년이다. 이때 빛고을이란 뜻의 光州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 뒤 고려시대 500여 년 동안 광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뒤이은 조선 500여 년 동안에는 무진^{武珍}, 광주, 광산^{光山}의 세 명칭 중 하나를 쓰는 골라 쓰는 정도였다. 그 가운데 무성할 무^茂를 쓴 무진은 고려 공민왕 때 쓰기 시작한 한자 표기로 武珍州의 군셀 무^武 자가 고려 2대왕인 혜종의 이름과 겹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바꿔 쓰

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비해 광주와 광산은 모두 빛을 강조한 지명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공교롭게도 고려시대 말엽 사람인 이색이 광주천에 있었던 석서정이란 정자를 짓게 된 과정을 다룬 기문을 쓰면서 첫머리에 광주를 光之州로 표현한 일이 있다. 광주의 한자를 한 글자씩 떼어 이렇게 표기하면 빛고을이란 의미가 한결 도드라지게 보인다.

그러나 왜 수많은 한자 가운데 빛고을이란 의미로 광주란 지명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다만 필자는 광주라는 지명이 빛과 관련된 데는 무등산이 적잖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본다.

예로부터 무등산은 광주의 수호신으로 경배의 대상이었다. 특히 이 산의 정상에는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가 즐비해 신비로움을 더했다. 광주의 별칭이 서석_{瑞石}이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무등산은 방위상 해가 뜨는 동쪽에 위치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사람들은 햇살이 쏟아지는 이 산을 바라보며 살아왔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고장을 빛고을로 의식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

광주시가지와 함께 무등산이 웅장하게 표현된 이 그림은 1935년경의 작품으로 작가미상이다.
(서석초교 소장)



무진도독고성

삼국통일 후 신라는 전국을 아홉 주로 나눴고 그 가운데 셋이 옛 백제 땅에 설치됐다. 지금의 부여를 중심으로 한 사비주, 전주를 거점으로 하는 완산주, 그리고 나주에 치소를 둔 발라주가 그것이다. 그 뒤 686년 사비주 대신 공주에 치소를 둔 웅천주가 설치됐고 발라주는 광주의 무진주에 자리를 내주었다. 완산주는 그대로 두었다. 이들 새롭게 재편된 3개 주는 경덕왕 때 웅천주를 웅주, 완산주를 전주, 무진주를 무주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이러한 주에는 장관으로 도독이 파견됐는데 그렇게 해서 각 주의 치소를 도독부라 부르게 됐다. 당시 무진도독부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를 훗날 무진도독성^{武珍都督城}이라 했다.

무진도독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초엽인 1481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나오고 이후 편찬된 『광주읍지』들은 그 기록을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내용은 이렇다. “무진도독고성은 고을 북쪽 5리에 있었다. 흙으로 쌓았으며 둘레가 3만 2,448척이었는데 지금은 없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대로라면 무진도독고성이 있었다는 북쪽 5리가 어디쯤인지 짐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같은 책에서 북쪽 5리에 있었다는 십신사^{十信寺}라는 절터와 누문원^{樓門院}이란 숙박시설의 위치를 대충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신사는 지금의 북구 임동 일대에 있었고, 누문원은 누문동 일대에 있었다.

이처럼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무진도독고성의 위치는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성의 둘레 3만여 척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거의 10km에 달하고 따라서 누문동, 유동, 임동, 신안동 일대가 성터에 포함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무진도독고성의 위치는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담양군 대전면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처음 의문을 표시한 것은 기타무라^{北村友一郎}라는 일본인이었다. 1917년 기타무라는 『광주지방사정^{光州地方事情}』이란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기타무라는 북쪽 5리에는 고성^{高城}의 흔적이 없고 성이 있었다는 구전도 없다며 조선시대 기록의 북쪽 5리는 북쪽 50리를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타무라가 말한 북쪽 50리는 담양군 대전면을 의미했다. 그가 이곳을 무진도독고성 터라고 주장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대전면에는 ‘무진^{武珍}’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주변에 흙으로 쌓은 성벽이 있으며 ‘감옥터’라 부르는 곳이 있고 땅에서는 기와조각도 나온다고 했다. 대전면의 산세도 뒤로는 불대산, 앞으로는 영산강이 흘러 전망이 트이고 담양, 창평, 장성, 나주와도 가까운 교통의 요지라 무진도독부를 두었을 만한 곳이라고 보았다. 또 통일신라시대 말엽 신라의 왕자가 대전면 평장동에 들어와 살았다는 말도 무진도독부가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기타무라가 무진도독고성 터로 주목한 대전면은 본래 광주 땅이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 전 이곳에는 광주에 속한 대치면과 갈전면이 있었는데 이 해에 그 동쪽을 흐르는 영산강을 경계로 그 서쪽의 2개면이 담양군에 편입되어 지금의 대전면이 만들어 졌다. 기타무라가 대전면을 광주 역사의 일부로 본 것은 이 때문이었다.

또 기타무라가 말한 신라왕자는 대체로 김흥광^{金興光}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데 김흥광의 후손들이 이후 이곳을 근거로 거족을 이루었고 그것이 광산 김씨 문중이다. 여담이지만 이처럼 광산 김씨의 발상지인 대전면이 1914년 담양군으로 넘어갈 때 광산 김씨 종친회가 맹렬하게 반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한편 기타무라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대에는 후백제의 건국자인 견훤의 출생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삼국유사』에는 견훤이 지령이와 광주 북촌의 여자가 관계하여 태어났다는 설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 견훤의 출생지를 대전면과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구 생룡동으로 추정했다. 먼저 용이 태어났다는 뜻의 생룡^{生龍}이란 지명이 예사롭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이 일대는 왕을 암시하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수다히 많다. 응룡^{應龍}, 복룡^{伏龍}, 오룡^{五龍}, 용전^{龍田}, 용두^{龍頭}, 용산^{龍山}, 용강^{龍江} 등이 그것이다. 또 생룡동에는 토성 터까지 있어 이런 추정을 더욱 굳히는 듯 했다.

지금도 대전면과 생룡동 일대에 무진도독고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대전면에 무진도독고성이 있었고 통일신라시대 말엽 이곳에 방수군으로 온 견훤이 이 지역의 세력과 결합해 후백제 건국의 토대를 다졌을 것으로 본다.

또한 대전면에는 아직도 무진도독성과 평장동에 얽힌 전설이 남아 있다. 대전면사무소 남쪽에는 ‘옥터가리’라고 부르는 지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옥터거리’가 와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옥터가리는 과거 무진도독성에 딸린 감옥이 이곳에 있었기에 생긴 지명이라고 믿는다.

또 평장동에 대해서도 많은 전설이 있다. 대개 평장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 광산 김씨 문중기록에는 신라 말엽 김홍광이 이곳에 정착했고 그 후손 가운데 다수의 평장사(고려시대 2품에 해당하는 벼슬)를 배출해 본래 서일동^{西一洞}이라 했던 동네를 평장동^{平章洞}이라 부르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또 대전면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는 김홍광이 어떤 과정을 거쳐 평장동에 정착했는지를 말해주는 일화도 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신라 헌강왕의 아들인 김홍광은 부인과 세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피난 왔다. 그런데 불대산 산신이 꿈에 나타나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후로 세 아들을 차례로 모두 호랑이에게 잃었다. 이에 부인은 이곳을 떠나자고 했으나 김홍광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부인마저 호랑이에게 화를 당했다. 이제 혼자가 된 김홍광이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고 불대산 산신도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 땅은 너의 것’이라며 물러났다. 그 뒤 김홍광은 이곳을 지나던 여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럿이 평장사에 오르자 동네를 평장동이라 바꿔 부르게 됐다고 한다.

무진고성

그런데 기타무라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 조상들이 과연 북쪽 50리를 북쪽 5리로 잘못된 기록을 수 백 년을 방치했겠느냐는 의문에서부터 기타무라가 무진도독고성의 흔적이라 주장한 무진이란 마을이나 감옥터가 있었다는 물증이 현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반론 내용은 다양하다.

그러던 중 잣고개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잣고개는 두암동에서 청풍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데 예로부터 이 일대에 성과 관련된 흔적들이 많아 관심을 끌었다.

우선 잣고개라는 지명이 성터의 존재를 말해준다. 잣은 성을 뜻하는 옛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잣고개 일원의 해발 200~300m 산자락에는 길이 3.5km의 성터 흔적이 완연하게 남아 있다. 또 성터 안에는 ‘도독골’ 또는 ‘도적골’이라는 지명도 있는데 이는 무진주의 장관인 도독과 발음이 비슷하다.

그러던 1980년대 후반부터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몇 차례의 발굴을 통해 이곳 성터의 실체를 확인했다. 성터에서는 관^官이나 국성^{國城} 등 명문이 새겨진 기와조각들이 발견됐고 상서로운 새나 도깨비 문양 등을 새긴 막새기와 조각들도



■ 1980년대 무진고성 터에서 출토된 수막새



■ 무진고성

жатгае илвнн еал 200~300m санзалае н глн 3.5kmн
снтер ннелн ванннхге наа нта.



나왔다. 대체로 이를 통해 이 성이 8세기 말엽에 축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늘날 이 성은 무진고성으로 불린다.

그런데 무진고성이 무진도독고성과 다른 성일지 모른다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기록상 무진도독고성은 흙으로 쌓은 성이라 했는데 무진고성은 처음부터 돌로 쌓음이 밝혀졌다. 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도 무진주가 설치되고 한참 지난 시점이었다.

북구 누문동의 건물터

무진고성의 발굴 후에 이 성터를 무진도독고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의 근거 중 하나는 이 성의 위치였다. 무진도독고성은 북쪽에 있었다고 했는데 옛 사람들의 관념상 무진고성은 동쪽, 다시 말해 동문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진도독고성의 위치를 고증하는데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근거였다.

그러던 1994년 누문동에 있는 광주제일고등학교는 교사 개축공사를 했다. 이때 공사현장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기와조각, 그리고 고려시대의 토기조각이 출토되었다. 이를 계기로 누문동 일대가 무진도독고성의 터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누문동 일대는 『동국여지승람』에서 무진도독고성이 있었다는 북쪽 5리에 해당하는 지점이었다. 이런 곳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터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이 일대는 격자형 토지구획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1910년대 광주는 최초로 근대적 토지측량이 근거한 지적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 작성된 지적도가 지금도 남아 있다. 이 지적도를 보면 누문동 일대는 유독 토지가 격자 형태로 구획된 것을 볼 수 있다. 누문동 일대를 무진도독성의 터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전남대학교 임영진 교수는 이런 격자형 토지구획이 격자형 도로망의 흔적일 것으로 보고 통일신라가 당나라의 도로망을 모델로 이곳에 무진도독성을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런 추정을 좀 더 강하게 입증할 발굴조사는 요원하다. 누문동 일대

는 오랜 도시개발로 토층의 교란이 매우 심한 지역이다. 1921년 광주일고의 전신인 광주고보가 이곳에 교사를 신축할 때도 1m 넘게 복토한 적이 있었다.



■ 잣고개에 세워진 무등산국립공원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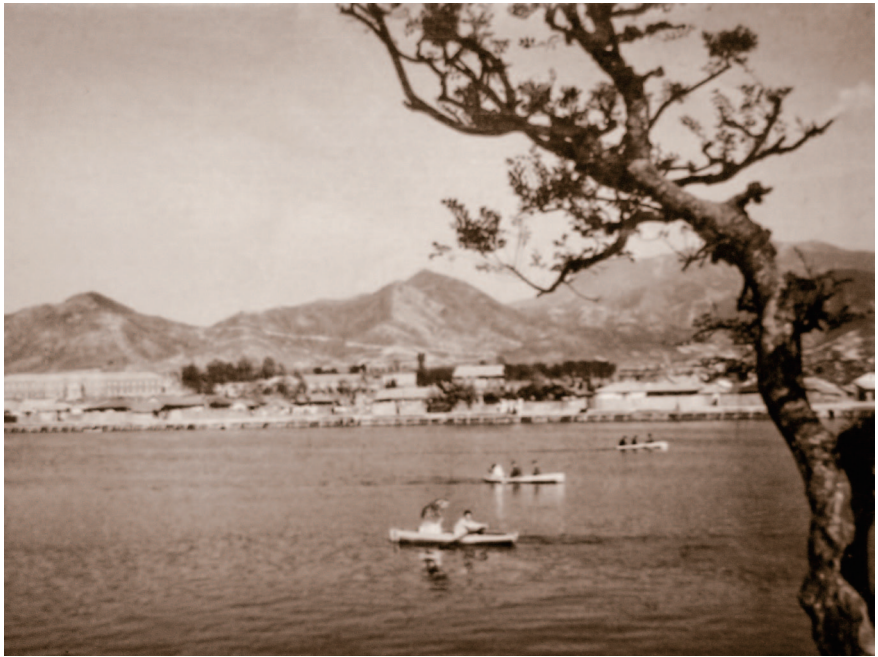
■ 경양방죽과 태봉산

광주고을을 적시던 호수

필자의 유년 시절에 광주시내에서 담양으로 가는 길, 현재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의 서편에는 드넓은 호수가 장관을 이루었다. 호수는 부채꼴 모양이었고 호수에는 두 개의 섬이 있었으며 맑은 물에는 잉어, 붕어, 가물치가 많아 먹이를 주면 물 위로 뛰어 오르곤 했다. 또 호수의 물을 가둔 독은 현재 유통업체인 계림동 홈플러스이자 몇 년 전까지 시청사가 있던 곳과 그 옆 광주은행 경양로지점 사이를 따라 대인동 쪽으로 길게 이어졌다. 호수의 면적은 4만여 평에 달했고 사람들은 이 호수를 경양방죽이라 했다.

경양방죽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이름난 호수 다섯 곳 가운데 하나로 거명했을 정도로 유명했다. 유명한 만큼 이름도 다양해 경양지(景陽池, 慶陽池), 경호(鏡湖), 연지(蓮池), 영지(影池), 경호영지(鏡湖影池), 서방지(瑞坊池) 등으로 불렸다. 가장 일반적인 이름인 경양방죽의 경양은 이 호수 북쪽에 있었던 경양역이란 역참에서 비롯됐다.

그 웅장한 크기 외에도 호수에는 감춰진 사실들이 많았다. 경양방죽 위쪽에는 이 호수에 물을 공급할 별다른 수원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호수는 어디서 물을 끌어다 채웠을까? 호수의 수원은 이곳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천이었다. 불로동 앞에는 광주천을 가로질러 서석교라는 교량이 있는데 원래 이 자



■ 경양방죽은 만수 댐 뱃놀이 장소였고 물이 빠졌을 때는 운동장과 같은 곳이었다.
 ©이경모

리에는 조탄보라는 취수시설이 있었다. 여기서 취수된 물은 광주읍성의 서쪽과 북쪽 성벽 앞을 지나 경양방죽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경양방죽을 채운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됐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경양방죽에서 물을 받아쓴 논의 면적만 1천여 마지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광주천의 물을 경양방죽으로 돌리면서 홍수 예방 효과도 있었다.

경양방죽은 또 다른 볼거리로도 유명했다. 방죽의 둘은 1km 남짓 됐는데 둑길 좌우편에는 아름드리나무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수종은 팽나무와 왕버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가장 큰 나무의 둘레는 1m 50cm나 됐다. 수백 년 된 거목들이 우거진 이 둑길에 대해 정약용이 18살 때 지은 시가 있다. ‘경양방죽을 지나며’라는 제목의 이 시를 소개하면 이렇다.

온갖 나무들이 큰길가에 길게 늘어서 있는데
경양역 누각 근처에는 꽃다운 저수지가 있네
봄날, 얼굴에 비치는 호숫물은 아득히 깊기만 하고
석양녘 구름은 두둥실 한가롭기만 하네
대나무가 성해 말을 몰고 지나가기 여의치 않으나
연꽃들은 만발해 뱃놀이하기에 제격일세
위대하도다, 호수의 관개능력이어
드넓은 논들이 그 덕분에 물이 가득하구나

김방과 개미의 보은

경양방죽에 대한 조선시대의 기록은 거의 없다. 그토록 거대한 호수였음에도 조선시대 최대의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경양방죽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대체로 이 호수에 대한 기록은 조선후기에 등장하며 관련된 여러 편의 시들도 대개 조선후기에 지은 것이다. 이처럼 기록이 일천함에도 광주에는 이 호수를 축조한 사람이 김방^{金放}이라는 믿음이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왔다.

김방은 대체로 조선 세종 때의 사람으로 광주의 덕림, 지금으로 하자면 월산동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수리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등산 자락의 증심사의 오백나한상을 조성했던 인물로도 전해진다. 대체로 김방은 세종의 중농정책을 받들어 2년여의 공사 끝에 경양방죽을 완공했다고 한다. 여기 이러한 경양방죽의 축조과정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 본다.

광주는 무등산의 물줄기를 받는 평원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가뭄이 들어 흉년이 거듭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광주 덕림 태생인 김방은 이 때마른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무등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기로 하고 경양방죽을 파게 되었다. 공사기간은 2년 남짓 걸렸는데 추산하건데 연인원 53만 명에 모든 농우와 제주도의 조랑말까지 투입된 대역사였다. 이 공사가 시작된 해에도 수년째 거듭되는 가뭄으로 공사장의 인부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허기져 쓰러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 경양방죽은 학생들에겐 우정을 약속하던 낭만의 공간이었다.
경양방죽의 뚝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들이 울창했다. 사진은 1930년대 1차 매립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방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인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어느 날 김방은 일터를 돌아보다가 개미집에서 수천 수만의 개미떼가 나와 우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하찮은 미물이지만 집을 잃고 흙더미에 깔려 죽게 될 것을 측은히 여겨 인부를 시켜 개미집을 떠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다.

이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김방은 새벽잠에서 깨어나 뒤뜰을 돌아보다 깜짝 놀랐다. 이게 웬일인가. 거기에는 하얀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를 않은가. 집안 식구들을 깨워 연유를 물었으나 아무도 이 까닭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김방은 우선 연유를 가릴 겨를도 없이 큰 가마솥에 밥을 짓게 하여 공사장의 인부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뒤뜰에 쌀이 쌓이는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김방은 자정께 뒤뜰로 숨어들어 동정을 살펴보았더니 수천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쌀알을 물어 날라다가 뒤뜰에 쌓고 있었다. 김방은 개미들이 집을 옮겨 살게 해준데 대한 보은임을 짐작하고 이 쌀을 단 한 톨도 다른데 허비함 없이 오로지 공사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인부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만 사용했다.



■ 겨울이면 경양방죽은 스케이트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경양방죽 매립 반대운동

일제강점 이후에도 경양방죽은 계속 농업용 수원으로 독특한 역할을 했다. 그 무렵에는 이 호수를 수원으로 하는 수리조합도 결성됐다. 특히 경양방죽은 호수 아래쪽인 중흥동과 신안동 일대의 농토에 없어서는 안 될 저수지였다.

이러한 호수를 매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1935년 10월 1일 가을 광주는 읍에서 지금의 시에 해당하는 부로 승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광주읍이 부가 되면 앞서 한 해 전에 공포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리고 부의 승격을 앞두고 광주읍은 주변지역을 편입했는데 그 편입지역 중에 경양방죽이 포함됐다.

이처럼 광주부 승격을 앞두고 있을 무렵 전남도의 야지마 지사는 광주지역의 일본인 관료들과 모여 비밀리에 경양방죽을 매워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광주고등학교와 계림초등학교가 들어선 경호대^{景湖臺}라는 언덕의 일부를 헐어내고 그 토사로 경양방죽을 매립, 염가로 택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계획을 1940년이 되는 일본건국 2,600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비밀리에 추진된 이 계획은 얼마 되지 않아 광주지역사회에 알려졌다. 당시 광주 부읍장은 박계일^{朴桂一}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서석의원의 의사 최영옥^{崔永旭}에게 알렸다. 최영옥은 최흥종 목사의 동생으로 훗날 미군정 시절에 전라남도지사를 지낸 사람이다. 최영옥은 박계일에게 전해들은 이 계획을 다시 광주의 조선인 유지들에게 전달했고 이로 인해 삼시간에 모든 시민들이 경양방죽의 매립계획을 알게 됐다.

분개한 광주시민들은 곧 김용환^{金容煥} 당시 동아일보 광주지국장 등을 중심으로 ‘경양방죽 매립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최흥종 목사를 위원장으로 뽑고 조직적인 반대투쟁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가 매립을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경양방죽은 광주지방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농업경영의 원천으로 그로부터 많은 논의 관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2. 홍수 때 수량을 조절하여 그 피해를 줄여준다.
3.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 사정이 나쁜 광주에서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 방죽을 메우지 않더라도 광주 시내에 주택지를 조성할 만한 땅은 많다.
5. 대대로 이어온 농경문화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말살하는 것은 문화인의 수치이다.
6. 장차 광주가 대도시로 발전할 때를 대비해 경관이 수려한 풍치지구로 아름답게 보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냈고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전달했다. 반대여론이 이렇게 급박하게 확산되자 일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경양방죽 중 3분의 2만 매립하고 나머지는 호수 상태로 남겨두기로 했다. 매립공사는 1938년에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1만 6,000여 평을 제외하고 모두 육지가 됐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호수 면적은 후지와와^{藤川} 등에게



■ 1930년대 경양방죽

경양방죽에는 두 개의 인공섬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사진에서 수목이 울창한 인공섬을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1차 매립 이후 인공섬들은 모두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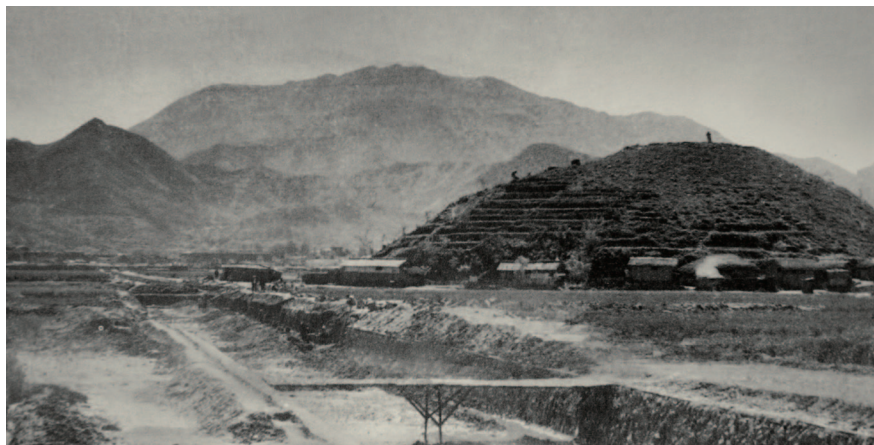
■ 1940년 경양방죽의 뱃놀이

경양방죽은 1930년대 1차 매립 후 남은 호수 면적을 이용해 뱃놀이 등을 즐기는 유원지가 됐다.

맡겨 뱃놀이 유원지로 사용하게 했다.

해방 후에도 이런 역할은 계속돼 경양방죽은 여름이면 보트장과 수영장이 됐고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으로 변해 젊은이들에게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됐다. 또 매립지에는 어린이 골프장도 생겨 이채로움이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이 남은 호수마저도 1960년대 우리 손으로 매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1966년 광주시는 경양방죽이 더 이상 관개용수 기능을 할 수 없고 방죽 안으로 주변 민가에서 내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악취가 진동하고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 차라리 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1966년 공사를 시작해 1968년 매립을 완료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매립지의 대부분은 택지로 사용됐고 그 중 일부에 시청사를 세웠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경양방죽 매립공사는 이후 광주에 깊은 통한의 기억을 남겼다. 특히 1960년대 최종 매립은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이었다.



■ 태봉산

용의 여의주 형상인 태봉산은 광주시민에게겐 뒷동산과 같은 공간이었으나 1967년 이 산을 깎아 경양방죽을 매립하여 흔적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태봉산

그런데 1960년대 경양방죽의 매립에는 막대한 토석이 필요했고 이런 토석 중 일부는 태봉산을 헐어 충당했다. 이 때문에 경양방죽의 매립은 늘 태봉산이 헐린 일과 연결 지어 이야기되곤 한다.

그런데 본래 광주에는 태봉산이라 일컬어지는 산이 둘이었다. 하나는 동구 소태동에 있고 다른 하나는 북구 신안동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태봉산은 신안동의 태봉산을 말한다.

신안동 태봉산은 광주역 근처로 현재 대한통운 주유소 자리 일대에 위치했다. 높이는 해발 약 50m이었고 넓이는 3,000평쯤 됐다. 산은 신안동과 중흥동의 너른 들 한복판에 서 있었고 둥그스름한 모습 때문에 일명 ‘만두산’이라고도 했다.

산의 꼭대기에는 비스듬하게 비석이 서 있기도 했다. 나중에 이것은 이곳에 묻은 태의 주인공에 관한 태실비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헐리기 전까지 이를 눈 여겨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 중 천계칠년^{天啓七年} 등 몇 글자만 간신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천계는 중국 명나라 때 연호이니 천계 7년은 서기년도로 1627년에 해당된다.

이 산을 태봉산이라 부르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대개 왕실에서는 특별한 산을 선정해 태를 묻던 풍습이 있었고 이렇게 태를 묻은 산을 태봉 또는 태봉산이라 했다. 그런데 태의 주인공이 일찍 죽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거나 하는 경우 태봉산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신안동 태봉산도 1872년에 그려진 광주지도에는 고려왕자태봉^{高麗王子胎封}이라고 기록했다. 뒤에 소개하겠지만 이는 당시 태봉산에 누구의 태가 묻혔는지 몰랐음을 말해준다.

이 태봉산에 담긴 비밀이 풀린 것은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다. 1928년 7월 심한 가뭄이 들자 주민들은 태봉산에 누군가 몰래 무덤을 쓴 것이 원인이라고 믿어 이를 파헤쳤다. 그러던 중 거대한 돌함과 그 안에 담긴 유물들이 발견됐다. 종래 막연하게 태봉산으로 알고 있던 산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발견과정과 당시 수습된 유물은 1934년 출판된 야마모토 데스타로^{山本哲太郎}의 『광주군사^{光州郡史}』에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2004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펴낸 『일제강점기 광주문헌집』에 전문이 국역, 소개된 바 있다. 필자는 그 전에 읽어판 『광주군사^{光州郡史}』를 구해 당시 출토된 유물들을 파악한 바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태봉산에서 출토된 태실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뜰에 전시되어 있다.

태실^{胎室}은 태를 담은 항아리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석물이었다. 석질은 화강암이며 형태는 위아래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각의 짝은 지름이 120cm 정도이며 돌을 포개 세운 높이는 1m 가량 되었다. 1968년 8월 광주공원에 있던 광주시립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었는데 현재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뜰에 전시되어 있다.

태항아리는 태를 담은 것으로 야마모토는 이를 석감^{石罐}이라고 표현했다. 재질은 순백자이며 항아리 어깨에 네 개의 귀가 달려 있다. 야마모토에 따르면 발견 후에 경찰당

국을 거쳐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이관됐다고 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금박^{金箔}은 발견 당시 태항아리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가로 세로가 각각 9cm와 3cm 가량 되는 크기였다고 한다. 이 금박도 최종적으로 총독부 박물관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현재 그 소재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태지석^{胎誌石}은 태의 주인공과 태를 묻은 시기 등을 기록한 반반한 돌이다. 야마모토는 이를 명기석반^{銘記石盤}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석에는 모두 32개의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봉산 전설

신안동 태봉산은 들녘에 호젓하게 자리 잡은 모습 때문에 오랫동안 광주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래서 이 태봉산의 유래에 대한 전설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전설의 생성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둘 것이 있다. 조선시대 인조임금은 1623년 반정을 통해 등극했는데 당시 반정에 참여했던 이괄이 충분한 대접을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1624년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이 도성을 위협하자 인조는 서둘러 충청도 공주로 피신했다. 태봉산 전설은 이런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생겨났다. 다음은 1994년 필자가 『광주1백년』Ⅱ권에 소개했던 태봉산 전설이다.

인조대왕과 인열왕후는 피난길에 얻은 왕자(용성대군^{龍成大君}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잔병이 끊이지 않아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온 궁중이 수심에 잠기고 인열왕후는 근심 끝에 왕자를 안고 백일기도에 나섰다. 몇날 며칠을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데 하루는 백발도승이 나타나 이르기를 “음악한 지기가 충동해서 계룡산에 묻힌 왕자의 태를 괴롭히니 이대로 두면 수는 돌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왕후의 불심이 가륙하여 이르노니 왕자의 태를 이장하되 광주고를 북쪽에 여의주 모양의 둥글고 작은 산이 있을 것이니 손바닥만 한 금 조각을 태와 함께 넣어 그곳



■ 태봉산 앞 기름진 옥토에서 농사짓는 모습

에 안장하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인열왕후는 필시 왕자를 위해 하늘이 보낸 도승이라 여기고 즉시 도승의 분부대로 거행할 것을 하명했고 왕자의 태는 아기가 태어난 이듬해 봄 1625년 3월 25일 옮겨졌다.

이 전설은 큰 줄거리로 봤을 때 1928년 파묘소동 중에 발견한 태지석의 명문과 일치한다. 그러나 태지석의 내용을 보다 중시한다면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태지석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天啓 五年 三月 二十五日 藏 皇明 天啓 四年 九月初三日 辰時 誕生 王男大君 阿只氏 胎

이를 우리말로 바꾸면, 이곳의 태는 명나라 연호인 천계 4년 음력 9월 초3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태어난 대군 아기씨의 태이며 그 이듬해인 천계 5년 3월 25일에 이곳에 태를 묻었다는 것이다.

대군이 태어난 시점이 천계 4년, 즉 1624년 9월이므로 대군이 공주에서 태어났을 지는 의문이다.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공주에 머문 시기는 그해 2월로 10여일 만에 환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태의 주인공인 대군이 누구인지는 태지석으로 충분히 확인되는데 이는 전설이 말하듯 인조가 인열왕후 한씨 사이에서 낳은 넷 아들인 소현세자, 봉림대군, 인평대군, 용성대군 중 막내인 용

성대군이었다. 그런데 용성대군은 만 다섯 살이 된 직후에 죽었다. 그래서 후사가 끊겼던 것을 고종 때에 이르러 인평대군의 아들인 복평군을 양자로 삼아 그 계보를 잇게 했다고 한다.

한편 이런 사실과 무관하게 태봉산은 광주사람들에게 많은 풍수적인 영감을 준 산이기도 했다. 광주사람들은 예로부터 동구 단사동^{丹蛇洞}이란 동네에는 용이 되려는 이무기가 살고 있고, 이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데는 여의주로서 이 둥그스름한 태봉산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이 산을 헐어 경양방죽을 메우려 할 때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다. 당시 시민들은 여의주인 태봉산이 있어야만 용이 하늘로 오르고 광주가 탈 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태봉산은 무참하게 헐리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단사동과 학강

태봉산 전설처럼 광주에는 자연과 관련된 풍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이런 풍수 이야기는 자연을 생명의 일부로 믿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을 보호하려고 했던 옛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런 풍수 이야기 속에서 광주의 자연은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됐다.

앞서 언급한 단사동 전설도 그 중 하나인데 단사동은 동구 지산동에 속하는 마을이다. 무등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산줄기 아래에 위치한 이 동네는 이무기가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 오르려는 화룡승천^{化龍昇天}의 형국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붉은 이무기가 사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단사동이라 했다.

그런데 이 이무기가 용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 그 하나가 여의주였고 다른 하나가 물이었다. 이 때 여의주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안동의 태봉산이었고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양방죽이었다. 옛 광주사람들은 이처럼 단사동, 태봉산 그리고 경양방죽을 하나의 연결된 생명체로 여겼던 것이다.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으로 본 사례는 또 있다. 증심사에서 제1수원지 뒤편 바람재와 조선대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를 예전에는 학처럼 생겼다 하여 학강^{鶴岡}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동구 학동이란 지명도 여기서 비롯됐다.

그런데 1930년 광주~여수를 잇는 철도를 놓으면서 이 학강의 일부이자 사람들이 학의 목이라 여기는 부분을 절개했다. 대체로 그 지점은 조선대장례식장에서 전남대병원으로 이어지던 능선의 끝자락이다. 당시 이 공사과정을 지켜본 광주 사람들은 절개공사 도중에 산등성이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필자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들으며 성장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을까? 아마도 그 사실여부는 그렇게 중요치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연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지키고 싶어 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여담이지만 일제강점기 말엽 광주 시내에서는 화재가 잦았는데 이런 화재가 자주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원인이 철도를 놓느라고 학강을 자른 업보일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 남광주역 일대

1930년대 학동 쪽에서 남광주역을 내려다 본 모습으로 남광주역 주변은 아직 허허벌판이고 양림리 마을 앞으로 군데군데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 운천저수지

광송간 도로변의 아름다운 호수

상무지구 남단 쌍촌동 869-9번지에는 그림처럼 펼쳐진 2만여 평의 운천저수지가 있다. 초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호수 안 흙으로 쌓은 아담한 섬의 버드나무는 한가로움을 뽐낸다. 주변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휴식공간이며 송정리에서 광주시내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해 운전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이 저수지는 1910년대 축조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처음 이 저수지는 작은 농업용수원이었다. 1915년에 작성된 토지대장에 따르면 당시 저수지는 쌍촌리 868번지에 있었고 면적은 2,318평이라 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역사가 훨씬 깊다. 조선시대 『광주읍지』의 기록을 보면 이 저수지는 내정제^{內丁堤} 또는 하촌제^{荷村堤}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내정은 당시 이 일대가 속한 내정면에서 따온 이름이었고 하촌은 저수지 북쪽에 있었던 마을이었는데 훗날 상무대가 건설되면서 사라졌다.

일제강점기에 운천저수지는 몇 차례 확장공사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일제 말엽인 1944년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운천수리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천수리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해방 후 이 수리조합은 인근 북촌마을의 김동호^{金東浩}라는 독지가가 조합장을 맡았는데 그는 사비를 들여 길이 420m의 기존 둑을 3m 더 높여 저수량을 15

만 6,000톤으로 늘렸고 30만평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했다고 한다. 이후 이 수리조합은 서창수리조합에 흡수됐다.

운천저수지는 1956년 다시 확장공사를 했으며 1967년에는 저수지 일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듬해인 1968년 광송간 도로가 뚫리면서 보트장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았다.

매립계획과 반대운동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저수지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생활하수가 흘러들면서 운천저수지의 오염도가 심각했고 농업용수원이란 기능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이 무렵 시중에는 운천저수지를 매립, 택지로 개발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이런 소문에 편승해 운천저수지 매립불하 사기 사건이 터졌다.

1991년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는 자들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맞아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운천저수지를 매립 불하하기로 했다.’며 허위로 택지분양계획서와 농림수산부 차관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6명으로부터 20여 억 원을 편취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는 1991년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운천저수지 옆으로 상무지구에서 금호지구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운천저수지를 매립해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며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했다. 또 이듬해에 시 당국은 당초 운천저수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발과 유지관리에 많은 자금이 들 것으로 판단해 포기했다며 이를 대체할 인공호수를 인근 마북동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발표를 전후로 시내에는 운천저수지가 매립되면 그 자리에 광주시청사가 들어설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인근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1992년경 이곳 땅값은 평당 1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천저수지 매립계획에 필자가 관여하고 있던 광주민학회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지역 문화 및 환경단체에서는 매립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 운천저수지

상무지구 남단 쌍촌동 869-9번지에는 그림처럼 펼쳐진 2만여 평의 운천저수지가 있다. 주변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휴식공간이며 송정리에서 광주시내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해 운전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내기 시작했다. 이들 문화·환경단체들은 지난 30여 년간 경양방죽, 태봉산, 유림숲, 오치동의 연못 등 광주시민들의 품에서 사라진 자연경관을 환기시키면서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에 앞서 도시의 미래를 생각해 운천저수지를 마땅히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천저수지 보존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욱 꼬였다. 주민들은 저수지 매립과 개발로 땅값이 치솟아 그 덕을 볼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이에 쌍촌동, 치평동, 마록동 주민 1천여 명은 서명을 통해 매립 촉구 건의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매립 찬성 주민들은 생활하수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토사의 유입으로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조속히 매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매립 찬성론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매립 반대론자들을 상대로 항의 전화를 하는가 하면 시의원들을 압박했다. 필자도 당시 매립 반대 진영에 선 광주민학회 회장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던 터라 시청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매립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매립 추진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용해 광주시가 이들의 부추겨 매립 후에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광주시는 매립 후 개발에만 매달려 그동안 운천저수지의 정화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곳이 오염물질과 쓰레기 투기장으로 악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또 광주의 도시경관에 중요한 장소임에도 공청회 등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해 그 저의를 의심케 했다.

가까스로 살아난 저수지

사업추진배경에 대한 의혹과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시민여론은 점차 매립반대와 보존 쪽으로 기울었다. 보존여론은 이제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했다. 이에 시 당국도 예상 외로 거센 반대여론에 사업추진에서 발을 뺐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운천저수지 매립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가까스로 운천저수지 매립계획은 철회됐고 광주시는 저수지의 보존과 정화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1999년 서구청은 운천저수지 안에 있던 섬들을 다리로 연결하고 인공폭포를 조성하며 휴게공간과 보트장을 마련해 저수지를 위락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2001년 서구는 다시 위락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 보다 생태에 초점을 맞춘 공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날 운천저수지는 연꽃과 수변 누각 등이 어우러져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이 저수지의 보존에는 지역 문화 및 환경단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양식있는 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 아마도 운천저수지 매립 반대 운동은 앞으로 무등산 보존운동과 함께 광주지역 환경운동의 중요한 성과로 기억될 것이다. 동시에 운천저수지 매립 반대 운동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1960년대 경양방죽 매립이 남긴 상실감과 회한이 적잖은 교훈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 유림숲

역사 속의 유림숲

예전 광주는 숲으로 뒤덮인 도시였다. 경양방죽은 거대한 호수뿐 아니라 그 독길에 늘어선 거목들로도 유명했다. 이 거목들은 1960년대 경양방죽이 최종 매립되기 전까지 남아 있었다. 광주천변에도 거목들이 많았다. 조탄보 근처 하루노야^{春乃家}라는 일본요정 주변에도 제법 거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또 시내 남동에서 화순으로 가는 도로변에도 오래된 나무들이 가로수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과거 광주에 숲이 많았다는 정황은 동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월산동에는 덕림^{德林}이란 곳이 있었고, 지금의 유덕동의 일부가 된 유촌^{柳村}이 있으며, 요즘 근대문화공간으로 부상 중인 양림동^{陽林} 역시 본래 버들나무가 많았던 동네였지 않나 싶다. 이밖에 홍림^{洪林}, 방림^{芳林}, 운림^{雲林} 등 숲이나 거목을 기억하는 지명이 많다. 또 이런 변두리 지역 외에 1920년대에는 시내 곳곳에서도 아름드리나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 광주는 한마디로 전원도시였던 셈이다.

이런 광주의 숲 가운데 압권은 유림숲이었다. 유림수^{柳林數}라고도 했던 이 숲은 1872년 그려진 광주지도에도 묘사돼 있고 1910년대 조선총독부 기록에도 경주의 논호수^{論虎數}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숲으로 꼽았다. 논호수는 경주 황성동에 있는 숲으로 고양수^{高陽數}라고도 하며 현재는 황성공원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유림숲이 얼마나 큰 숲이었기에 누대에 걸쳐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것일까? 유림숲 본래의 규모는 현재 정확히 알기 어렵다. 대체로 유동과 임동을 가로질러 광주천 지류인 서방천까지 펼쳐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유동^{柳洞}이니 임동^{林洞}이니 하는 동네 이름은 유림숲에서 생겨난 것이다.

원래 이 숲은 주로 버드나무로 구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유림숲이란 이름도 여기서 비롯됐을 것이고 예전에 이 일대를 순 우리말로 ‘버드리’라고도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후 수중에 변화가 생겨 1930년대에는 팽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버드나무 등 80여종으로 다양했다. 이들 나무 중 오랜 된 것은 수령이 수백년이 넘었고 거목 중에는 가슴높이 둘레가 1m가 된 것도 있었다.

유림숲이 어떤 배경에서 조성됐는가는 『광주읍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숲을 ‘광주의 수구막이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약간의 부연 설명이 덧붙이자면 이렇다. 예로부터 광주는 무등산이 지켜선 동쪽은 물론이고 북쪽과 남쪽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고을이었다. 그런데 유독 서쪽만은 드넓은 벌판을 이루고 있었다. 그로 인해 옛 사람들은 풍수상 이 서쪽으로 고을의 좋은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믿어 숲을 일궈 좋은 기운의 유출을 막고자 했으



■ 광주의 풍치를 한층 더해주었던 유림숲

이 유림숲은 교통장애가 된다하여 1968년에 모두 베어버렸다.

니 그 숲이 유림숲인 것이다.

이 숲 안에 석옹중^{石翁仲}을 두었다는 기록도 이런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 『광주읍지』는 유림숲에 대해 소개하고 곧이어 숲 안에 석옹중^{石翁仲} 두 개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 연못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석옹중은 돌로 만든 조형물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에는 분묘 앞 문관석 등 석상 혹은 장승을 옹중이라 했다. 이 옹중들은 유림숲과 마찬가지로 수구막이 목적으로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옹중들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아직 규명하기 어렵다. 1990년대 광주일고 교정에서 문관석을 닦은 석인상 한 개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광주읍지』가 말한 옹중인지는 분명치 않다. 현재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 십신사지 석불과 석비
일제 강점기 임동의 광주농고 교정에 있을 당시의 십신사지 석불(좌), 석비(우)



십신사지^{十信寺址} 석불이나 석비도 본래 유림숲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석불이나 석비가 이 웅중들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1938년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이 펴낸 『조선의 임수^{林叢}』란 책에 의하면, 유림숲의 조성 배경에 대해 다른 몇 가지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중 하나는 유림숲이 본래 제방림으로 조성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광주천을 끌어들이어 신안동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입탑보^{立塔漕}라는 수로가 있었다. 이 수로는 유림숲을 가로질러 놓여 있었는데 이 수로를 굴착할 당시 수로 좌우편에 독을 쌓고 그 독을 보호하기 위해 심은 나무들이 자라 유림숲



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선의 임수』에서는 유림숲이 본래 군사적 목적에서 조성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숲의 바닥에 탱자나무가 무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후기 『관방집록關防集錄』이란 책에는 탱자나무 등을 빼곡하게 심어 놓으면 하나의 방책이 되어 적군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글이 있는데 『조선의 임수』는 이 글에 주목해 유림숲을 군사적 방호 목적에서 조성한 숲일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조선의 임수』는 유림숲 일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무진도 독고성 자리가 일치하므로 숲이 무진도독부 시절에 조성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조선의 임수』의 주장들은 앞으로 그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유림숲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림숲의 훼손

그런데 오늘날 광주에서 유림숲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길이 없다. 필자의 젊은 시절만 해도 집이 충장로 5가에 있어 이른 새벽이면 유림숲까지 운동 삼아 땀박질을 하곤 했다. 그 때 본 유림숲은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거목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지들은 하늘을 가득 메울 정도로 울창했다. 그 장대함에 필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숙연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유림숲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도시개발에 의해 조금씩 훼손되어 오다가 1960~70년대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유림숲을 개발해 이익을 취하려던 시도는 1890년대부터 있었다. 이 무렵 광주에 온 오쿠무라 이요코奥村五百子 등 일본인들은 몰래 조선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유림숲을 점유해, 개간하려고 했다. 그때마다 전라남도관찰부나 광주군청은 이런 점유나 개간이 관계법령에 저촉될 뿐 아니라 유림숲이 광주의 오랜 자연 유산이고 기우제를 지내온 장소 등 신성한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지했다.

그러나 1910년 강점을 전후로 일제는 유림숲을 본격 개발했다. 1900년대 양림동 일대에 있던 광주농업학교의 실습지를 이곳으로 이전했고 나중에는 불

로동의 교사를 옮겨왔다. 이밖에 임업묘포^{林業苗圃}, 종묘장^{種苗場}, 누에 종자를 생산하던 원잠종제조소^{元蠶種製造所} 등도 모두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림숲을 조금씩 베어냈다. 1930년대에는 이런 농업시설의 밀집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군데 군데 고목의 형태로 남아 있었던 유림숲의 흔적마저 종연방직^{鍾淵紡績} 전남공장이 들어서면서 거의 사라지게 됐다. 이후 유림숲은 광주시내에서 장성방면으로 가는 국도 1호선 주변에 가로수 형태로만 볼 수 있었다. 이런 가로수 형태의 유림숲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해방 후 이곳이 택지로 조성되면서 부터였다.

한편 이처럼 유림숲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십신사지 석불과 석비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1912년 광주농업학교가 임동으로 이전해 온 뒤부터 1970년대 이 학교의 후신인 광주농업고등학교(광주농고)가 오치동으로 다시 옮겨갈 때까지 석불과 석비는 이 학교 교정에 있었다.

그 중 석불은 처음 광주농고 정문 근처에 있다가 6·25전쟁 뒤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석불은 높이 4.5m로 한 개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얼굴은 길쭉하고 여느 불상과 달리 머리카락 부분에 보이는 육계가 없이 밋밋하다. 본래 머리에 보관을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에도 이 보관은 사라지고 없었다. 손은 오른손으로 둥근 무엇인가를 들고 있고 왼손은 오른팔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석비는 본래 광주농고의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실습지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석불과 같이 본관 앞으로 옮겨왔다. 높이 5m 남짓한 이 비석은 오랫동안 범자비^{梵字碑}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1970년대 당시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던 고고학자 최몽룡 교수가 이 비석은 다라니경을 새긴 것임을 처음 밝혀냈다. 비문 상단에도 대불정존승다라니당^{大佛頂尊勝陀羅尼幢}이란 글귀가 보이고 그 아래 내용도 다라니경을 옮겨 새긴 것이었다. 다시 말해 비문은 범자, 즉 산스크리트 문자가 아니라 한자였다. 다만 비석 맨 위에 새겨진 것은 ‘옴’을 뜻하는 산스크리트 문자였다. 이 글귀를 읽기만 해도 번뇌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세운 것이었고 따라서 이 석조물은 엄밀하게 말해서 비석이 아니라 다라니석당^{陀羅尼石幢}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라니석당으로는 남한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

아 있는 사례다.

그런데 석불과 석비는 광주농고가 오치동으로 옮겨가고 텅그러니 옛 교정에 남게 됐고 그 주변에는 새로 주택들이 들어섰다. 이렇게 택지 한복판에 놓이게 된 석불과 석비의 주변에는 생활쓰레기가 쌓여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고 택지개발업자도 문화재가 택지 한복판에 있어 개발에 장애가 된다 싶어 다른 곳으로 이설을 은근히 원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석불과 석비는 일부 문화계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지금처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으로 이전됐다.

사라져 가는 나무들

유림숲이나 경양방죽 독길의 숲 외에도 광주에서 사

■ 1946년의 금남로 4가 중앙교회 앞 거리

사진 속의 나무는 수령 350년이 된 거목이었으나 교통에 장애가 된다하여 베어버렸고 건너편으로 도로가 확장되었다. ©이경모



라진 숲이나 나무는 하나둘이 아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연 고사한 나무들도 적잖다. 사라진 나무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것으로는 궁수^{弓樹}라는 거목을 들 수 있다. 이 나무는 조선 초엽 꽤나 높은 유명세 때문인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소개된 바 있다. 지리지에 따르면 봄에 이 나무의 잎이 나는 모양에 따라 그해 광주에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를 점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나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다시 소개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말라 죽었다고 했다.

이처럼 자연 고사한 거목들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도시개발이란 미명으로 베어내면서 사라진 거목들이 많았다. 금남로 4가의 옛 중앙교회 앞에 있던 나무가 대표적이다. 수령 350여년 쯤 되었던 이 고목은 1968년 금남로를 확장하면서 차량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베어졌다. 그 뿌리 부분만이 현재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남동천주교회 근처의 거목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예전 이곳은 서남리^{瑞南里}에 속했던 동네였고 이 나무는 이 동네의 당산나무로 신목^{神木}이라 불렸다. 그런데 그 자리로 1970년대 도로가 개설될 때 교통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벌목되고 말았다.

이렇게 도심에서 사라진 나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다행히 몇몇 나무는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정 안의 느티나무도 그 중 하나다. 이 나무는 오랫동안 그 일대 마을주민들이 신성시 해왔다. 특히 이



■ 수령 350년된 거목은 1968년 당시에 베어져 지금은 밑둥이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정 안의 느티나무

나무 아래에는 신익전^{申翺全}의 선정비가 있어 이채롭다. 신익전은 1640년대 광주목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런데 비석에는 목사신공익전선정비^{牧使申公翺全善政碑}라는 아홉 글자만 새겨져 있을 뿐 선정내용을 따로 새기지 않아 비석을 세운 직접적인 이유를 알기 어렵다. 『광주읍지』에도 그가 인조^{仁祖} 을유년^{乙酉年}, 즉 1645년에 부임했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의 문집 『동강유집^{東江遺集}』에 광주목사로 재임 중 군사행정과 재정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와 관련해 광주 사람들이 세운 선정비가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이 선정비 뒷면에는 천년완골^{千年頑骨}이란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어 더욱 이채롭다. 이 글귀는 수천년 동안 이곳을 굳건히 지켜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동네주민들이 이 비석을 진남비^{鎭南碑}란 별칭으로 불렀다는 구전도 이런 추

정을 뒷받침해 준다.

그럼에도 몇 안 되는 도심의 거목들마저 이제 노목^{老木}이 되어 도시개발뿐 아니라 자연재해에도 쉽게 생명을 다할 운명에 놓여 있어 각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13년 태풍 볼라벤으로 고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회화나무가 대표적이다. 격동의 광주현대사를 지켜봐 온 나무라는 점에서 이 나무가 시민들에게 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다. 그런데 태풍 볼라벤 때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를 드러낸 채 전복되고 말았다. 이를 애석하게 여겨 시당국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되살려보려고 애썼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현재 회화나무는 고사목 상태로 옛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행히 그 후계목으로 알려진 나무들이 있어 훗날 그 자리에 이식되기를 기다리며 육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

세 차례에 걸쳐 베어질 뻔 했던 이 나무는 광주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 고사한 회화나무

2013년 태풍 볼라벤으로 쓰러졌고 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고사하고 말았다.

■ 사직공원에서 발산까지

광주천 좌안의 산줄기

광주의 지형은 대체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동고서저형의 지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광주천 좌안에는 방림동의 치마봉에서 양동의 발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기다랗게 내달린다.

이 산줄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데 송의고와 설월여고가 들어선 치마봉은 해발 2백여m로 제법 웅장함을 뽐내다가 방림초교 뒷산에 이르면 1백여m로 낮아진다. 여기서 옛 사람들이 오래전 바다의 흔적이었을 것이라 믿는 방림동과 봉선동의 ‘밋밋들’을 지날 때쯤에는 해발고도는 50여m로 떨어진다. 그러다 사직공원이 들어선 산에서 다시 1백여m로 치솟고 광주공원에 이르면 70여m, 그 서쪽 양동초교 뒤편의 제봉산에 오면 90여m, 다시 양동의 발산에 이르러 60여m의 능선을 이루다가 광천동에 달할 즈음에는 산줄기의 흔적이 사라지고 해발 20여m의 반반한 들판으로 바뀐다.

오늘날 이 산줄기는 각종 도시개발로 옛 자취를 거의 잃어가고 있지만 원래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곳이다. 우선 원도심보다 높아란 지대를 이룬 덕분에 광주천과 함께 원도심의 남쪽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보루 역할을 했다. 또 산이 주는 신성한 기운과 고즈넉한 분위기에 힘입어 성거사와 사직단, 문묘 등 광주의 각종 제사공간들이 밀집해 있었고 향교와 사마재 등

교육기관도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무상한 세월 탓에 오늘날 이 산줄기에 얹힌 전설뿐 아니라 산줄기를 구성하는 산들의 이름조차 잊혀져가는 것 같아 아쉬움을 준다. 이제 이 산줄기를 따라가며 그곳에 담긴 옛 이야기를 되짚어보자.

사직단

현재 양림동, 사동, 서동 등 세 동네에 걸쳐 있는 사직공원은 원래 사직제^{社稷祭}를 지내던 곳이다. 사직공원이란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 사직제는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지내던 제사로 농업이 나라의 최대 산업이었던 전통시대의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직제를 지내기 위해 설치한 것이 사직단이었다.

조선시대에 광주에서는 목사가 제관이 되어 1년에 몇 차례 사직단에 올라 제사를 거행했다. 1900년대 전라남도관찰부가 작성된 『전남수록^{全南收錄}』이란 책을 보면 매년 3월과 8월 그 달의 첫 번째 무일^{戊日}에 사직제를 거행했다는 기록

■ 사직단

사직단은 고을의 풍년을 기원하며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곳이다.



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례적인 제사 외에 사직단에서는 큰 가뭄이나 홍수, 역병 등 재난이 생겼을 때도 제사를 지냈다. 이런 사직제는 1900년대 초엽까지 거행하다가 중단됐다.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사직단은 그 후로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 필자는 일제강점기에 이 사직단의 흙을 쌓아 올린 단 위에서 사람들이 씨름하는 광경을 여러 차례 본 기억이 있다. 그렇게 신성함을 잃어버린 사직단은 해방 후에도 방치됐고 1970년대 그 일대에 동물원까지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공원 내 동물원이 주변주민들에게 민원을 사고 동물원 자체도 비좁아 1990년대 초엽 지금의 우치동 동물원 자리로 이전했다. 이후 광주시는 1993년 사직단을 복원했고 그 이듬해에는 당시 최기영^{崔奇泳}(대성여중·여고 설립자)이 회장으로 있던 광주향우회에 의해 실로 1백여 년 만에 사직제가 부활하기도 했다. 여하튼 현재 사직단은 그때에 복원된 것이다.

그런데 복원된 광주 사직단은 원형과 많이 달라 안타까움을 준다. 현재 사직단은 제단이 하나로만 되어 있으나 원래 제단은 사단과 직단 등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모습은 1872년에 그린 광주지도에도 묘사되어 있다. 가운데에 두 개의 제단이 있고 그 주변으로 홍살문 네 개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사직단에는 제사와 관련된 건물인 재사^{齎舍}도 있었으며 이 재사는 이민서^{李敏敘}가 광주목사를 지내던 시절에 세웠다는 기록도 보인다.

비록 이 재사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1970년대 초 사직단이 옛 모습의 흔적을 간직할 무렵 때까지 제단이 둘이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아마도 당시 제단이 두 개였던 사실을 본 사람들은 필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에 설치된 사직단은 제단이 하나라는 일부 주장에 의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하루 빨리 사직단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 복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사직단 외에 조선시대 광주에는 관아에서 제사를 지내던 다른 두 개의 제단이 있었다. 그 하나는 여제단^{厲祭壇}이었다. 여제는 몃쓸 병으로 죽은 사람이



■ 해방 직후 사직공원에서 무등산 쪽으로 바라본 시가지
오른편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송일학교가 보이고 그 주변으로 학강
초교와 초가집들이 펼쳐져 있다. ©이경모



■ 양파정 양파정
광주의 부호였던 양파 정낙교가
1914년에 사직공원에 세운
개인정자로 당시 광주유지들의
교류장소였으며, 1932년에
중건하였다.

나 제사 지내 줄 후손이 없어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을 달래기 위한 제사였다. 여제단은 지금의 광주고와 계림초교가 들어선 경호대^{景湖臺}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제단은 성황단^{城隍壇}이었다. 성황은 읍성의 성벽과 해자를 칭하는 말인데 고려시대 이후로 고을을 지켜주는 신을 일컫는 말이 됐다. 여러 정황상 광주의 성황단은 학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직공원

대한제국 시절 사직단은 군사 훈련장으로 쓰기도 하였는데 이때 군인들은 신식 양복에 모자를 썼으나 머리는 상투를 올렸고 신발은 짚신을 신었다. 이곳은 1924년 일본 황태자(뒤에 소화천황)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처음에 신공원이라 했다가 광주사직단이 있는 곳이어서 해방 후에 사직공원이라 했다.

원래 화전놀이 터라고도 했던 사직공원은 광주공원과 이어지고 있었는데 중앙로가 개설되면서 두 공원은 나뉘어지고 말았다. 각종 수목이 무성하고 특히 4월 10일을 전후하여 이곳에 야전등^{夜電燈}을 가설하여 찬란한 ‘밤 벚꽃’을 즐길 수 있었다.

사직공원에는 한때 KBS광주방송국 등이 있었고, 현재도 사장^{射場}인 관덕정, 양파정(정낙교가 1914년 석서정 자리에 건립하여 광주시에 기증), 광주시 향토문화전승위원회가 건립한 시비, 순직경찰관 위령탑, 사직도서관 등 많은 시설이 들어서 있다.

특히 광주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상의 팔각정은 2015년 3월 광주시가 20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높이 34.7m, 연면적 399㎡ 규모의 전망타워를 지었다.

정엄의 정려

사직공원 아랫동네인 양림동에는 정엄^{鄭淹}의 정려^{旌閭}가 있다. 정엄의 본관은 광주이며 문과에 급제해 여러 벼슬을 지냈다. 그는 조



■ 1935년 사직공원 양파정 뒷길
지금 이 자리에는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서 있다.



■ 사직공원 전망대
시민들의 휴식처였으나 1972년 철거되었다. ©이경모

선 중종 때 예조참판을 지내고 『중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정만중^{鄭萬鍾}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효성이 지극했는데 어머니가 병중에 있을 때 밤에도 허리띠를 풀지 않고 배설물을 입으로 맛보며 병세를 살피면서 어머니의 병을 대신 앓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상을 당한 후 그는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병을 얻어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라에서는 그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1611년 정려^{旌閔}를 내려 세웠는데 1705년에 개수했다. 정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孝子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 兼 經筵參贊官春秋官知製敎 修撰官 贈嘉善大夫 司
憲府大司憲 兼 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 成均館事 弘文官提學 藝文館提學 世子左副
賓 鄭淹之間

萬曆 辛未建

上之三十一歲乙酉重建



■ 양림동 정암의 정려

효성이 지극했던 정암을 기리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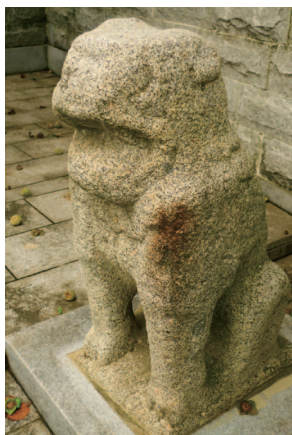
충견상

정엄의 정려 앞에는 개 모양의 석상이 있다. 양림동 일대의 주민들은 이것을 속칭 개비^碑라고도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4백여 년 전에 한양 천리를 달려 조정에까지 주인의 심부름을 하였던 충견을 기리기 위해 세웠기 때문이다.

양림동 오거리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50m지점에 있는 이 개비는 전설에 의하면 정엄이 자기 명견의 뉘를 달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 개는 어찌나 영민했던지 집을 지키는 일은 물론 주인과 그 가족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그때는 한양과의 통신을 역마^{驛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정엄은 급한 통신에 이 개를 이용하였다. 그가 써주는 상소문이나 각종 문서를 보자기에 싸서 목에 걸고 조정을 내왕했던 것이다.

정엄은 개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전대에 엽전을 넣어서 따로 목에 걸어주며 한양까지 가고 오는 길에 밥을 사먹도록 했는데, 이 개도 주막집 아낙이 밥값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서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심부름으로 조정을 다녀오던 개는 전주 부근의 강변 다리 밑에서 새끼 9마리를 낳았다. 개는 새끼들을 한 마리씩 집으로 물어 날랐는데 9번째 마지막 새끼를 물고 오다 그만 지쳐 길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 충견상

주인의 심부름을 충직하게 수행하다
죽은 개를 위로하기 위해 세운 석상

정엄은 사랑하는 개가 새끼를 낳을 때가 닳친 것도 모르고 심부름을 보냈다가 죽게 되자 개의 석상을 세우고 충견의 죽음을 슬퍼하여 그 냇을 위로했다는 것이다. 이 석상은 정엄 사후 후손들이 그의 정려 앞에 옮겨 세워 주었다.

그의 정려가 양림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정엄은 양림동에 살았던 것 같다. 그의 호가 양촌^{楊村}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의 부친 정만중의 호가 조계^{槲溪}인 점도 주목된다. 조계는 광주천의 옛 이름인 조탄^{漕灘}을 연상시킨다. 아버지가 광주천의 옛 이름에서 호를 취하고 아들이 광주천 옆 자신이 살던 동네이름을 따서 호를 삼을 것을 보면 이 가족은 대대로 광주천변이자 양림동에 거주했던 것 같다.

성거산 전설

성거산^{聖居山}은 광주공원이 들어선 산의 본래 이름이다. 성거산은 옛날에 성구산^{聖龜山}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형국이 마치 거북과 같아서 거북 구^龜자를 써서 구강^{龜岡}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그 기슭의 동네 이름까지 구동 또는 일제 때에는 구강정이라 했다. 성거산도 원래 성구산이 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지세를 살펴보면 양동 쪽을 향해 길게 뻗은 끝머리 즉, 예전 안중근의사탑이 서 있는 곳이 거북의 머리인데 신역 부근에 있던 태봉산을 향해 고개를 번쩍 들고 움직이는 것 같은 형국을 하고 있었다. 오층석탑이 서 있는 곳이 거북의 목덜미이며 현충각이 세워진 곳이 거북의 등인 귀갑^{龜甲}에 해당된다. 거북의 네 발은 동쪽으로 한때 어린이 놀이터가 바른 편 뒷발, 남쪽으로 광주향교의 뒤편이 왼편 뒷발, 서쪽으로 구 사장^{射場}터가 왼편 앞발, 광주문화재단쪽이 바른편 앞발로 사지가 분명했다.

거북은 원래 느리면서도 매사에 꾸준하고 뜻이 확고할 뿐 아니라 슬기롭고 영민해서 위기를 느끼면 머리와 사지를 움츠려 쏙처럼 틈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광주의 이 거북은 사지를 펴고 머리를 뺀어 광주의 시가 쪽을 그윽이 감싸듯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거북은 두 번에 걸쳐 그 원형이 훼손됐다.

광주사람들은 예부터 구강을 끔찍이 사랑했다. 원래 상서로운 동물인 거북은



■ **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1920년대
 광주공원에 있는 고려초기의 탑으로 해방 이전부터 기울어진 채 서있었는데, 1962년
 해체복원 공사를 할 때 사리장치, 동경, 옥구슬 등이 나왔다.



■ **현재 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수壽와 복福을 상징하기도 한다. 조상들은 거북이 광주의 정기를 안고 있어 만일
 멀리 떠나버린다면 광주는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거북의 목덜
 미에 해당하는 곳에 성거사를 세우고 오층석탑으로 눌러 거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광주가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그 첫째는 과연 거북을 매어둔 보람이 있어 광주시의 발전 추세는 거북의 전진 자세 방향으로 북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남공단 건설에 이어 첨단 산업단지 건설로 장성군이 광주시와 맞닿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둘째는 거북이 상징하는 수壽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하게도 광주공원에는 해방 후부터 신사 사무소 건물이던 곳에 노인당이 들어섰으며 노인당이 아니더라도 하루면 수백 수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곳에 모여서 날마다 하루해를 보내고있다.

당초 시민회관 광장에 있던 어린이 놀이터가 옮기게 된 것도 생각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어린이들이 자리를 물려준 셈이 되었다. 명절이면 노인들의 장수를 축원하는 공개행사 이외에도 평소에 이런저런 경로행사가 빈번하다. 그래서 한때 구강을 ‘노인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이 돌기도 했지만 오늘 날에 와서는 각 구청의 복지회관과 노인건강타운 등이 생기면서 별로 노인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광주향교

성거산의 이러한 변모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가장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곳이 서남쪽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광주향교다.

이 지방의 교육도량인 향교는 원래 1398년 무등산 장원봉 아래 세워졌으나 호환^{虎患}(호랑이의 출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이 잦다고 하여 광주 동문 밖(지금의 동명동)으로 이전했는데 1488년(성종 8년) 홍수로 수해를 입게 되어 광주현감 권수평^{權守平}이 지금의 구동으로 옮겨 세웠다. 그 뒤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불타버렸는데 대성전 안의 위패는 다행히 권일제^{權一齊}가 화를 피해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다가 건물을 재건한 뒤 다시 봉안했다.

광주향교가 구동으로 옮겨온 내력에 관한 기록으로는 1488년 성현^{成僉}이 쓴 이건기^{移建記}와 1563년 기대승^{奇大升}이 쓴 향교중신기^{鄕校重新記}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대성전을 중수할 때 기대승이 스스로 상량문을 썼다고 하였다. 광주향교



■ 광주향교

부지는 원래 광주공원 일대에 걸친 넓은 땅으로 모두 향교 재산이었는데 일제 때 이곳에 광주신사^{光州神社}를 짓는 바람에 많이 줄어들어 현재는 1,582평이다.

광주향교는 전통적인 유교의 전당으로서 뿐만 아니라 1906년 11월 서석초등학교의 전신인 광주공립보통학교가 바로 이곳 사마재^{司馬齋, 文會齋}에서 개교한 유서 깊은 곳이다. 광주향교는 1986년 10월 24일 지방문화재 제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봄·가을의 제사를 모시는 일 말고도 전통혼례의 예식장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예절 및 한문교육의 도량으로 활용되는 등 청소년들의 윤리 교육과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다.

광주신사와 광주공원

일제 때 광주공원은 두 차례 큰 변화를 맞았다. 첫째는 1914년 일본인들이 그들의 수호신인 국조대신^{天照大神}과 한일합병 당시 천황이던 메이지의 위패를 안치하는 신사를 짓느라고 산을 깎아냈을 때이다. 두 번째는 1940년 그들의 기원 2600년 기념사업을 했을 때이다. 그들은 종래 지

방이 관리하던 광주신사를 총독부 관리인 국폐소사^{國幣小社}로 승격시키고 이를 계기로 광주공원을 대대적으로 개수하면서 거북 등허리를 파헤치고 원형을 많이 망쳐놓았다.

일명 구동공원이라고 하는 광주공원은 부지 5만1,730㎡(1만5,400평)로 이 안에는 해방 후 많은 시설이 들어섰는데 1963년 5월 29일, 신사 자리에 세운 현충탑을 비롯하여 1965년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삼화식물원^{三和植物園}이 있었던 자리에 실내체육관(건평 1,283평)이 들어섰다.

1959년 5월 5일 중앙광장에 세워졌던 어린이 현충탑은 1975년에 옛날 금융조합 창설 기념탑이 있었던 자리에 옮겨졌다. 시내 여러 곳에 흩어져 광주의 역사를 알려주는 옛 비석들도 1957년 광주공원 입구에 옮겨 세웠다가 다시 1975년 광주향교로 옮겼다. 1971년 4월에는 시민회관(건평 1,100평)이 들어섰고 1979년 7월에는 무진회관(건평 213평)이 세워졌으며 용아 박용철^{龍兒 朴龍喆}과 영랑 김윤식^{永郎 金允植}의 시비, 4·19 기념비 등이 세워졌다. 또한 1982년에는 종합체육회관(건평 1,283평)을 지으면서 거북의 머리 쪽이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 **광주신사**

지금은 이 자리에 충혼탑이 서있다.

이처럼 각종 시설물이 들어섬에 따라 성스러운 거북이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광주공원에는 1940년 신사를 개수할 당시 한국의 각도와 일본의 각 지방은 물론 멀리 몽골·만주·대만·남태평양 등의 아시아 여러 곳에서 많은 종류의 나무를 옮겨 심어 광주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수종과 희귀한 나무가 밀집하여 마치 식물원을 방불케 했었다.

그러던 것이 해방 후 사회의 혼란을 틈타 많은 희귀수목이 도난당하거나 도벌되고 공원도 황폐하여 옛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발산

성거산 말고도 광주천과 관련된 풍수설이 있다. 광주의 어른들은 광주천에 면한 산을 모두 거북 형국으로 보고 상류인 사직산에서 시작하여 성거산을 거쳐 하류인 발산^{髮山}에 이르는 지형을 두고 광주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양파정과 옛 KBS광주방송총국이 있었던 사직산이 상구^{上龜}인데 구 전남도청·구 광주시청 그리고 충장로·금남로 1~2가와 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충장로 3가 지역까지 그 지기^{地氣}가 뻗쳐있다. 또 성거산의 안중근의사탑이 있던 부분이 중구^{中龜}인데 그 지기는 충장로·금남로 4~5가·대인동·구 광주여객(금호고속의 전신)정류장에서 구 광주역과 계림동까지이다. 그리고 하구^{下龜}는 양동·발산인데 임동의 일신·전방공장에서 광천동의 기아 자동차공장 그리고 멀리 광산구의 첨단지구까지 그 지기가 뻗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구는 중구만 못하고^{不如中龜} 중구는 하구만 못한 곳이라서^{不如下龜} 하구에 해당하는 지역이 광주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발산은 현재 인구 밀집지역으로 재개발 대상이지만 옛날에는 경관이 수려한 언덕이었다. 여기에는 석하정^{石下亭}이라는 우아한 정자도 있었다. 양동이나 유동 쪽에서 보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 정자는 1935년 심덕선^{沈德善}이 세웠다. 심덕선은 『광주1백년』 2권에서 소개한 충장로 4가의 포목점 남창상회를 경영했던 그 사람이다. 심덕선은 이 정



■ 광주공원 안중근의사기념탑이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양동과 수기동의 옛 풍경 가운데 광주천변의 하얀 건물이 철공소인데 훗날 한일극장이 들어섰다. ©심양섭

자를 ‘석하’라 한 것은 그의 할아버지 심의종^{沈宜鍾}의 학덕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석하는 심의종의 호였다. 석하정은 1950년대 철거되면서 사라졌다.

덕림산

광주 시내 중심지에서 보면 동쪽에 솟은 산은 무등산이며 서쪽이 덕림산(94m)이다. 덕림산은 돌고개^{石峙}에서 서남쪽인 월산초등학교로 뻗은 산으로 지금은 주택가에 에워싸여 있지만 광주성 안쪽 사람들은 무등산 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하루를 시작하고 덕림산 쪽에 해가 지면 하루 일을 마쳤다고 한다.

덕림산은 원래의 행정구역이 광주군 도천면^{陶泉面}인데 1914년에 광주군 효천면^{孝泉面}이 되었다가 1935년 광주읍이 부로 승격되면서 처음으로 월산^{月山}이란 동명을 얻게 되었다. 산이 달덩이처럼 둥글고 덕스럽게 생겼을 뿐 아니라 달맞이

하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옛날부터 그 기슭에 있는 동네도 월산마을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월산 1동부터 5동까지 있다.

1932년 2월 덕림사란 사찰이 이 산에 창건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지금의 무진중학교인 남^南중학교와 월산초등학교 그리고 1988년에는 광주문화방송이 들어섰다.

덕림산과 돌고개의 동북쪽으로 이어져 양동초등학교 뒤에 솟아 있는 산을 제봉산^{祭峯山}이라고 한다. 해발 91.2m의 낮은 산으로 이 고을 사람들이 국태민안을 빌었고 기우제도 여기서 지냈는데 그 제터가 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을 어른들은 속칭 잿봉산이라고 흔히 불렀는데 이 고장 민요가운데 김매는 부녀자들이 부르는 밭 노래가 있다.

잿봉산 물랭이 비 온둥 만둥

어린 가장 품 안에 잠 잔둥 만둥



■ 1956년 덕림산에서 바라본 백운동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천주교 월산동 성당이다.

가뭇통에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비가 잿봉산을 스치고만 지나가니 비는 오나 마나이고 옛날 조흔 풍습으로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으니 철도 들지 않은 어린 신랑 품 안에 잠자나 마나 하다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노래다. 이 노래의 대구^{對句}로 덕림산 민요가 있는데 이 또한 재미있다.

덕림산 물랭이 쇠 장구소리

도시공장 큰 애기 치맛바람 소리

덕림산은 시가지에서 가깝고 전망도 아름다운 곳이라 광주 시민들의 화전놀이터였기 때문에 이곳에선 늘 쇠·장구 소리가 흥겹게 들려왔다. 또한 산기슭에 광주 최초의 전남도시제사공장(지금의 양동 금호맨션 자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처녀들이 당시로서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여성들이라 그 치맛바람 소리가 동네 총각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덕림산에는 이제 주택이 밀집하고 달맞이와 화전놀이를 즐기던 정상에는 광주문화방송이 들어서 있어 호젓한 숲길의 옛 자취는 찾을 길 없다.

■ 예향의 젓줄 광주천

광주천의 옛 이름 조탄강

광주천은 한말 때까지 건천^{巾川} 또는 조탄강^{曹灘江}이라 불리던 것을 일제가 들어온 뒤 광주천이라 했다.

광주의 진산 무등산을 원류로 하는 광주천은 장불재 밑, 관목숲 사이의 샘골에서 발원하는데 이곳의 물은 언제나 마르지 않았다. 이 물은 용추계곡^{龍秋溪谷}을



■ 광주천과 광주 모습

1926년에 발행된 그림엽서로 광주천변에서 시내를 바라본 총장로 3가 일대의 모습이다. 왼편 멀리 보이는 2층 벽돌건물이 호남은행 본점이고 오른편 담장으로 둘러싸인 기와집이 무송 현준호의 집이다.

흘러 제2수원지에 고였다가 광주천의 주류를 이루고, 중머리재의 중심사 계곡과 새인봉의 약사계곡^{藥師溪谷}을 비롯한 무등산의 서쪽 여러 골짜기 물이 합쳐진 지류가 원지교^{院旨橋}에서 주류와 만나게 된다. 여기서부터 광주천은 서북쪽으로 광주시가지의 중심부를 흐르고 누문동에서 동계천과 만난다. 동계천은 지산동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동명동·북동 등 시가지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광주천은 광천동에서 또 서방천과 만나 다시 극락강과 어우러져 영산강으로 이어진

■ 광주천 물놀이

1930년대 광주의 인구는 5만~6만 명에 달했고, 이 시기에는 미역을 감고 빨래를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했다.



다. 무등산 샘골에서부터 극락강에 이르는 거리는 대략 18km가 된다.

광주 사람은 예부터 해발 1,187m의 무등산 심산유곡에서 흘러내리는 이 맑고 깨끗한 물을 젓줄로 하여 풍요로운 고을을 이루었으며 자랑스러운 예향으로서의 시민문화를 이룩해왔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광주천은 명실공히 시민생활의 터전이었다. 어린이 놀이터를 겸한 체육공원 구실을 했으며 또 자연 학습의 도장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천은 농업용수의 공급원이었다. 매립되기 전까지 광주 고을의 옥토를 적셔주던 경양방죽의 물은 광주천의 금교^{錦橋}와 부동교^{不動橋} 사이에 취수구를 만들어 끌어갔었다. 따라서 광주천은 5백여 년 동안 경양방죽의 물을 공급해 왔을 뿐더러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조참보, 용천보, 임동의 세보 등 수많은 봇물들도 모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또 일제 강점기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체였던 가네보종방^{蠶紡}공장(현 일신·전방공장)를 비롯한 도시^{道廳}, 와카바야시^{若林}, 가네보 제사공장(학동) 등도 모두 광주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썼는데 방적이나 제사용으로 가장 알맞은 물이었다고 한다.

광주천의 변화

지금의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천변 좌우의 제방은 192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조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강둑이나 석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동·금동 근처에서부터 불로동·호남동·수기동 일대와 물 건너 쪽으로는 방림동·양림동·사구동·양동에 이르기까지 광주천의 강가에는 팽나무와 미루나무·실버들나무의 숲이 우거진 모래사장이었으며, 물 흐름도 굽이굽이 용틀임하듯 돌아나가고 있었다.

광주천 연변은 해마다 홍수 피해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광주천에 홍수가 지면 그 넓은 백사장이 삼시간에 물바다가 되어 지금의 충장로는 물론 광산동까지 침수가 되었다. 1925년의 대홍수 때는 옛 전남도청 근처 옛 상무관 일대까지 범람한 일도 있었다.

한말 광주천에 대한 최윤상의 회고담을 들어본다.

당시 광주천을 조탄강이라고 하였는데 제방을 쌓기 이전이라 꼬불꼬불 99곡을 이루었으며 강폭은 지금의 5배도 더 넓었다. 다리라곤 등성등성 엮은 나무다리, 그것도 광주대교 근처에 하나뿐이고 모두 징검다리였다. 따라서 사직공원 동편 양림동 오거리 근처와 옛 한일극장이 있던 양동 일대가 모두 하천부지였으며 추석이나 정월 보름이면 강변 백사장에서 줄다리를 했고, 불놀이·농악놀이 등의 민속잔치가 펼쳐졌다. 큰 장과 작은 장이 이 강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상류 일대가 모두 벌판인데 우마^{牛馬}의 방목지^{放牧地}요 시민들의 놀이터였다. 보^漕의 주변에 고목이 늘어서 있어 여름철엔 광주시민들의 유일한 납량지^{納涼地}가 되었다.

직장 공사가 되기 전 불로동 옛 적십자병원 자리 앞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일본인 주객들은 여기에 배를 띄어놓고 밤새 술을 마시다가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 조탄보 일대 (1920년대)

중앙에 보이는 강물이 고인 곳이 조탄보이며, 그 옆의 숲으로 쌓인 건물이 '하루노야'라는 유명한 일본식 요정이다. 조탄보 아래의 초막들이 있는 곳이 작은 장터였고 그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다리가 광주교이다.

놀이터 겸 시민공원이던 천변

옛 KBS 광주방송총국이 있던 사직공원에서 양림 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를 ‘꽃바심’이라고 했다. 꽃바심 모퉁이와 옛 적십자병원 앞의 조참보, 양동과 제일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용천보와 개뚝병 그리고 광천동의 처암바위는 어린이들이 수영과 물놀이를 즐겼던 곳이다. 또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이었으며 강변 백사장은 일 년 내내 하루(야구와 비슷한 놀이)와 축구놀이터로 붐볐다.

여름방학이면 어린이들이 광주천에 나가 할 일이 많았다. 우선 물놀이도 즐거웠지만 피리통을 놓아 피라미를 잡거나 잠자리채를 들고 뛰노는 어린이들, 과제물인 곤충이나 식물 채집, 풍경화를 그리는 어린이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동화책을 읽거나 글짓기에 골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어른들은 선풍기도 귀하고 에어컨도 없던 삼복더위에 천변의 우거진 나무숲 사이를 산책하거나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서 팔덕선^{八德峯}을 부치며 더위를 식혔



■ 옛 적십자병원에서 바라본 1940년의 금교
천변의 노거수에는 눈이 덮여있다. ©최동

고, 달 저문 밤에 그늘진 곳에서는 아낙네들이 숨어서 땀에 젖은 몸을 씻기도 했다.

광주천은 또한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생활의 터전이었다. 정월 대보름날 다리 밟기와 어린이들의 쥐불놀이가 시작되고 봄철이 되면 아낙네들의 나물 캐는 풍경이 한가로웠다. 겨울 내내 밀렸던 빨래를 하기 위해 광주천은 봄비가 시작하고 낚시 줄을 던지는 강태공이나 투망질로 천렵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철따라 밥상에 오르던 광주천의 싱싱한 들나물과 물고기 맛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 광주교

광주교를 지나는 일본인들의 가장행렬. 그들은 매년 4월 15일 광주신사의 봄 제사 때 그들 고유의 의상을 입고 시가를 누볐다.



당시 충장로에는 매일 광주천의 붕어, 잉어, 가물치, 자라 등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다니는 단골 어부가 몇 사람 있었다. 이 가운데 일제 때부터 1960년대 말까지 광주천의 물천어 행상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침 일찍 학동상류에서부터 투망질을 시작하여 석양 무렵이면 누문동 쪽에 다다랐다. 지금의 제일고등학교 앞을 지나 충장로를 거슬러 올라가며 그는 “붕어요~붕거~”라고 외치며 팔고 다녔는데 그 “붕거~”라는 발음이 우습게 들려 어린이들이 곧잘 흉내 내곤 했었다.



축제와 ‘말시바이’ 그리고 나이롱극장

해방 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쓰다 버리고 간 물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 금동과 양동쪽 천변에서 성시를 이루었으며 그 뒤에는 미군물자나 구호물자의 집산지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충장으로 상가가 조성되기까지는 메리야스 등 의류와 일용품을 비롯한 혼숫감까지도 그 거래의 대부분이 양동 천변의 가설 점포에서 이루어졌다.

광주천은 또한 시민의 위락장소이기도 했다. 정월 보름날이면 천변의 높은 언덕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줄다리기는 당초 인가가 드문 성안(지금의 황금동 옛 제일극장을 중심으로) 사창^{社倉}마당의 빈터에서 했는데 점차로 시내에 인가가 밀집하게 되어 광주천변으로 옮겼다.

그런데 홍수를 겪을 때마다 물줄기가 바뀌고 강바닥이 변하므로 넓은 광장을 찾아 광주대교 근처나 금동시장 앞의 강변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줄다리기의 편 가름은 옛 현대극장 앞을 중심으로 남북이 갈라졌다. 굵은 새끼줄이 미리 준비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고을 사람이 몰려나오는데, 남쪽 편은 옛날부터 광주성을 중심으로 ‘남밖’(남문밖)에 쪽 사람들이요 북쪽 편은 ‘북밖’(북문밖) 쪽 사람들이다.

남문밖은 지금의 남동·금동에다 양림·사구동까지 포함되었고 북문밖은 누문동·북동·유동에다 양동까지 합세했다. 줄다리를 앞두고는 ‘결궁’이라고 하는 농악패거리들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흥을 돋았다. 이 농악놀이 는 또 그해의 풍년과 국태민안을 축원하는 큰 제전이기도 했다. 정월 대보름의 줄다리기 외에도 정월과 추석 명절에는 어김없이 난장을 트고 남사당패들도 들어와 각종 놀이판을 벌였으며 이 난장이야말로 당시 민중의 축제였다. 씨름판, 노름판, 마당놀이, 그네뛰기 등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열을 빼놓는 그야말로 ‘난장^{亂場}’이었다.

또 강변 백사장에는 ‘말시바이곡마단’의 천막이 들어서는데 트럼펫의 구슬픈 가락이 온 동네 사람들의 가슴을 들먹이게 했다. 해방 후에는 천변에서 가설무대를 차리고 약장수들이 만담과 노래로 손님들을 끌었고 인근의 한가한 노인들

과 부인들까지 모여들게 되었다. 가설무대가 점점 커지자 나중에는 대규모 천막을 치고 가수와 악사들까지 동원되었었다. 이것이 소위 ‘나이롱극장이다. 나이롱이란 신소재인 나일론 섬유를 총칭하는 말로 신식 대중문화를 흉내 내는 사이비 문화를 뜻했다.’

항일운동의 중심지

광주천은 또한 개화의 밀물과 함께 몰려온 일본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 그리고 신문화와 문물의 건널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일제 때 민중의 항일독립운동은 대체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의 3·1운동도 1919년 3월 10일 광주천변의 작은 장날에 거사되었다. 이날 송일학교 종각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와 사직산 사직공원에서 울리는 나팔소리를 신호로 오후 3시 반이 되자 남에서 북에서 광주천 백사장의 작은 장터로 온 광주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터졌구나 터졌구나. 조선독립성/삼천리강산에 이천만 민족/10년을 참고 참아/이제 터졌네.’라는 독립구호와 독립만세를 우렁차게 외치며 행진해갔다.

일반시민들, 농업학교·송일학교·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순식간에 구름처럼 모여들고 장터의 장꾼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날품팔이, 지게꾼들마저 떼 지어 합세했다. 이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대는 우체국 앞을 지나 충장로 파출소에서 구 법원 앞으로 돌아 금남로에서 다시 광주경찰서(현 광주 동부경찰서)로 행진해 들어갔다. 이것이 광주의 3·1독립만세운동이었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도 일제가 부동교 근처의 작은 장터에서 개최한 ‘전남산 누에고치 6만석 돌파 도민경축 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이 학생독립운동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더욱 가열되었던 것이다.

훨씬 옛날인 구한말에는 광주천이 의병들의 처형장이어서 시민들의 울분과



■ 제방공사 중인 1940년 무렵의 부동교
강둑의 아름드리 나무가 인상적이다. ©심양섭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고장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해온 광주천이 한때 생활하수의 무분별한 방류로 얼음조차 얼지 않는 죽음의 하천이 되기도 했으나 시민들과 광주시의 정화 노력으로 차츰 개선되어가고 있다.

어린 시절 내가 헤엄치며 뛰놀던 광주천. 붕어와 잉어, 가물치를 잡던 그 맑고 깨끗한 광주천의 옛 추억들이 나이 들수록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 광복 후, 광주 행정구역 변천

1935년 광주가 부로 승격되면서 시내를 제외한 근교 지역은 광산군^{光山郡}으로 분리됐다. 그러나 행정업무는 여전히 광주가 중심이 되었으며 그래서 광산군청도 해방 뒤까지 대의동 43번지에 있다가 1949년 8월에야 송정리(지금의 송정동 34-1)로 옮겨갔다. 아울러 군청 소재지가 된 송정면은 그때 송정읍으로 승격했고 1986년 송정읍이 다시 송정시가 되면서 송정시와 광산군이 분리됐다.

하지만 송정시의 역사는 겨우 13개월에 불과했다. 1986년 11월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광주는 옛 광주목의 광활한 행정구역을 다시 복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49년 광산군이 나주로부터 흡수했던 평동면^{平洞面}, 삼도면^{三道面}, 본량면^{本良面} 등 3개 면, 약 100km²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사상 최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광주는 직할시 승격 9년 뒤인 1995년 광역시로 바뀌었고 전라남도도는 2005년에 광산동 13번지의 청사를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로 이전했다. 그동안 비록 광주와 전남이 행정상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도청 청사가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 공동체라는 오랜 전통을 이어 왔으나 도청 청사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109년 간의 공존체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날 광주의 모습을 1백여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크게 변했다. 도시경관이나 인구 등 여러 측면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

다. 1896년 광주가 전남도청 소재지가 될 무렵, 광주군의 전체 인구가 약 3만 명 규모였는데 비해 백이십 년이 지난 오늘날은 140만 명을 넘어서 있다. 이런 변화는 최근 40여 년간 광주를 에워싸고 형성된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일제시대에 광주의 시가지는 주로 광주천 주변에만 형성돼 있었다. 광복 직후와 한국전쟁을 통해 전재민^{戰災民}이 대량 유입되면서 1950년대에 지금의 제1순환도로 안쪽으로 점차 큰 동네들이 형성됐다. 하지만 도시의 기본적인 축은 여전히 광주천을 따라 유지됐다. 그 동쪽 끝은 광주천 상류인 학동의 옛 가네보^{蠟紡} 광주제사공장(삼익세라믹 아파트 자리) 앞이었고 서쪽 끝은 광주천 하류인 임동의 전남방직^{全南紡織} 공장 앞이었다. 1935년 광주에 처음 시내버스가 등장했을 때 동서 축을 잇는 1번 버스의 시·종점이 이들 두 공장 앞이었다.

광주천을 중심으로 했던 시가지는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장됐다. 취업과 학업 등의 이유로 이른바 이농향도^{離農向都}가 시작될 무렵이었고 인구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제1순환도로 밖으로 주택지가 확장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면서부터 제1순환도로 주변을 따라 대규모 택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형성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는 봉선1, 두암, 주월, 월산, 동림1지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어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제2순환도로 주변으로 확장되어 첨단지구를 기점으로 시계방향을 따라 용두, 양산, 일곡, 용봉, 문흥, 봉선2, 진월, 상무, 금호, 풍암, 수완, 운남, 신가지구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오랫동안 저습지로 남아 있던 동림2지구도 이 시기에 개발됐다. 이 가운데 주요 개발 지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북쪽의 신개발 택지 첨단지구

호남고속도로의 광주 들머리에 있는 첨단지구^{尖端地區}

는 영산강을 끼고 광활하게 펼쳐진 강변지역이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된 월계동, 산월동, 쌍암동은 원래 천곡면^{泉谷面}에 속했고, 일부 옛 마을들이 아직 남아 있는 대촌동과 월출동을 비롯하여 광주과학기술원과 몇몇 공장들이 들어선 오룡동 일대는 삼소지면^{三所旨面}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이 지역은 크게 비아면과 지산면^{芝山面}으로 양분되어 옛 천곡면은 비아면에 속하게 됐고 옛 삼소지면은 지산면에 포함됐다. 광주시문화재로 지정된 월계동 장고분은 그 무렵만 해도 울창한 대숲에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물개^{勿介}방죽(응암제) 등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농사를 지었다.

1927년에는 광주의 옛 동창^{東倉}(동쪽에 있는 관아의 창고터)에 탐진 최씨 문중에서 최원택^{崔元澤}(최남주의 조부)이 중심이 되어 무양서원^{武陽書院}을 건립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광주의 외진 북쪽인 이 지역이 ‘테크노폴리스(첨단기술 산업도시)’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990년대에는 국가지정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배후택지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붐이 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이 시작되면서 오늘날에는 옛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첨단지구를 관통하는 첨단로를 기준으로 그 북쪽인 쌍암동 전체와 비아동, 월계동 일부는 행정구역상 광산구 첨단1동, 첨단로 남쪽인 월계동 일부와 산월동은 첨단2동, 첨단택지지구 외곽인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주변 대촌동 일대는 북구 건국동에 속한다. 2014년 현재 이곳 첨단지구의 인구는 약 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신도심의 대명사 상무지구

광주 북쪽의 새로운 생활거점인 첨단지구에 이어 광주의 신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상무지구^{尙武地區}다.

상무지구는 2014년 인구 8만여명으로 광주 전체의 5.5%에 미치지 못하지만 광주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밀집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신도심이자 최대의 상권이다.

원래 상무지구는 1952년 1월, 당시 육군 보병, 통신, 포병학교가 있던 곳이었어서 이 지역을 통틀어 ‘상무대^{尙武臺}’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광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격리되어 있던 공간이었다. 실제로 상무대가 옮겨가기 전인 90년대 이전에 발간된 지도들에는 이 일대가 늘 ‘보안지구’라는 표기와 함께 새하얀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내정면^{內丁面}에 속해 있었다. 영산강과 광주천, 저 멀리 남구 진월동과 봉선동에서 발원한 극락천 등 크고 작은 하천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하촌과 평촌, 유촌마을이 너른 강변 들녘에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었다.

하촌^{荷村}은 내정면의 최남단 지금의 롯데마트와 운천저수지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광주읍지』 등 옛 기록을 보면, 운천저수지의 본래 이름도 하촌제였다는 점에서 그 축조 시기도 익히 알려진 1940년대 중엽이 아니라 조선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촌마을 북쪽으로는 들판 한가운데로 평촌^{坪村}마을이 펼쳐져 있었다. 동쪽으로는 노치^{老維}마을, 서쪽으로는 영산강 건너 우산리^{牛山里}(현 광산구 우산동). 남쪽으로는 마록^{馬勒}마을, 북쪽으로는 광주천 너머 유촌^{柳村}을 잇는 길이 모두 이곳에서 만났다. 오늘날 상무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평동^{治平洞}이란 지명도 사실은 평촌마을의 별칭인 치평리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5·18기념문화센터 북쪽에는 계수^{桂樹}마을이 있었다. 이 계수마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하촌마을에 이르는 길 중간쯤, 대략 롯데마트 일대쯤에 노치마을이 있었다. 노치는 내정면과 이웃한 군분면^{軍盆面}에 속한 동네였지만 하촌과 유촌을 잇는 길 중간에 있었던 탓에 내정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이었다.

1914년 이후로 내정면은 지금의 유덕동에 해당하는 덕산면^{德山面}과 동림동·운암동을 일컫던 황계면^{黃界面}, 그리고 쌍촌동·내방동·화정동 일부를 아우르던 군분면과 함께 극락면^{極樂面}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의 상무지구는 여느 강변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가한 농촌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이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일본군이 ‘모라 대들’이라 불리는 이 일대에 비행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1937년 비행장의 확장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11월에는 민간 비행장으로 개장했다. 이 비행장에 최초로 착륙한 민간비행사는 고창 출신의 신용옥^{愼鍾玉}이었다. 매일신보 1938년 5월 15일자에 따르면, 신용옥의 경비행기가 서울에서 승객 세 명을 태우고 네 시간 만에 광주비행장에 도착했고 이를 보기 위해 10만 명의 관중이 운집했다는 다소 과장 섞인 기사를 싣고 있다. 이후 광주비행장은 서울과 이리 사이를 주2회, 나중에는 주3회씩 정기적으로 승객과 우편물을 수송했다. 광주비행장의 민간 항공영업은 1942년까지 계속됐다.

그 뒤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면서 비행장 관리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일본군으로 이관됐다. 1945년 3월에는 이곳에 일본 해군의 요카렌^{豫科練} 부대가 주둔하기도 했다. 요카렌은 일본 해군의 비행예과연습생^{飛行豫科練習生}의 약칭인데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자 자살특공대인 가미가제^{神風}의 양성기관으로 운영되었다.

광복 후에도 이곳은 군용 및 민간 비행장으로 운영되다가 1951년 미군 공병대에 의해 이 일대가 육군훈련소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부산 동래에 있던 육군 교육총감부(훗날 전투병과 교육사령부로 개칭)와 육군보병학교, 통신학교, 진해의 포병학교가 이곳으로 옮겨왔고 이듬해인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개소식에 참석, 이때부터 이곳이 상무대로 명명되었다.

상무대에는 그 뒤로 육군의 기갑, 항공, 화학학교 등이 창설되어 국내 최대의 군사교육 기관이 됐다. 상무대 안에 있던 비행장은 1965년 광산구 신촌동에 광주공항이 생기면서 폐쇄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5·18자유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옛 비행장터다.

상무대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때 계엄사령부 전남분소가 되었다가 이

듬해인 1981년에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교육사령부로 바뀌고 1982년에는 충남 유성으로 이전했다. 상무대는 1984년 장성군 삼계면과 삼서면 일대로 이전이 결정됐고, 1995년까지 이전을 완료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상무대는 광주의 신도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상무대^{尙武臺}’의 옛 터였음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치평동 1258번지 옆을 지나는 도로 한 가운데에 서 있다.

광주 최대의 택지 수완지구

광주 최대의 택지인 수완지구^{水莞地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하남공단 서편에 140만평 규모로 조성되었는데 2009년부터 입주자가 시작됐다.

광주의 도시개발사를 보면, 수완지구는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된 뒤에 마치 숨겨둔 카드처럼 꺼내든 곳이다. 북쪽으로는 도촌동 너머 첨단지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첨단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신창·신가지구와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역시 90년대 조성된 운남지구와 맞닿아 있고, 80년대에 이미 조성된 하남공단과 이웃하고 있다.

수완이란 이름은 법정동명인 수완동에서 비롯됐다. 수완동은 상완^{上莞}과 하완^{下莞}, 즉 우리말로 웃통머리와 아랫통머리를 합해 통머리라 부르던 동네와 그 남쪽의 수문^{水門}마을을 일컫는 이름이다. 하지만 실제 수완지구는 장덕동^{長德洞}의 일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장덕동은 수완지구 내 신완^{新莞}과 성덕^{成德}, 장자^{長者}마을을 아우르는 지명이다.

이들 수완동과 장덕동을 나누는 지리적 경계선은 풍영정천^{諷泳亭川}이다. 장성군 진원면에서 발원한 이 개천은 수완지구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며 남쪽 운남지구에서 영산강 본류와 만난다. 풍영정천이란 이름은 16세기에 칠계 김언지^{漆溪金彦瑞}가 세운 정자인 풍영정에서 연유한 것이다.

일찍이 조선시대에도 풍영정천은 수완동의 전신인 마지면^{馬池面}과 장덕동의 전신인 흑석면^{黑石面}의 경계선이었다. 그 후 1914년에 마지면과 천곡면 등 풍영정

천의 동쪽지역이 비아면^{飛鵝面}으로 묶이고 흑석면과 거치면^{巨峙面}, 와곡면^{瓦谷面} 등 서쪽지역이 하남면^{河南面}으로 통합되었을 때도 풍영정천은 그 지리적 경계선 역할을 했다.

개발 전 수완지구는 지붕이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바뀌고 구불구불한 농경지를 반듯한 장방형으로 편 것을 빼면 태곳적 모습을 거의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은 50여m 남짓한 성덕마을 뒤편의 원당산^{元堂山}이다. 산간지역에서라면 겨우 언덕 축에나 들 산이지만 원당산은 이곳에서는 영험한 봉우리였다. 그래서 옛 수완동과 장덕동 사람들은 가뭄 때면 이 산에 올라가 무제(기우제)를 지냈다. 원당산을 일러 ‘무젯등’이라 불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풍영정천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자주 기우제를 지낼 만큼 물이 귀했다. 그나마 이곳저곳에 마련한 소규모 수리시설로 혹독한 가뭄을 이겨내곤 했다. 하완마을 앞에는 수완1제(옛 완동제), 수문마을 남쪽의 세종고등학교 옆에는 신가제^{新佳堤} 같은 저수지가 있었고 성덕마을 동쪽에는 풍영정천의 물을 임시로 가둬두던 보^湫도 있었다. 성덕마을의 별칭인 ‘봇머리’도 여기서 비롯됐다.

가뭄과 범람 등으로 시달리던 이곳 수완지구는 개발 직전인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인구가 1,5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 이곳은 이제 인구 8만 명을 수용하는 대단위 주택단지로 탈바꿈했다.

추억 속의 명절

새해를 여는 복조리

어린 시절에 우리는 선달로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설 기분에 들뜨곤 했다. 이때쯤 충장로 거리에는 포목전, 양품전, 고무신 가게들이 물건을 쌓아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점차 붐볐다. 딱히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기보다 다가오는 설빔을 요량하기 위해 기웃거리고 값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때도 충장로는 가장 변화한 곳이긴 했지만 대부분 단층집이었고 초가집도 많았었다. 지금은 무척 좁은 그 길이 그때는 어찌나 넓게만 느껴지던지……. 충장로5가에서 피복상을 보던 우리 집에도 장꾼들의 내왕이 부쩍 늘어났다.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떼다가 날마다 이 장 저 장 장터를 도는 붓짐장수들의 왕래도 빈번해지면서 한결 설 기분이 고조된다. 우리 집은 상점이어서 전 등불이었지만 광주 변두리는 모두 등잔불을 켜던 시절이었다.

설날이 다가올수록 부엌에서는 정성들여 장만해 놓은 가을 산채며 나무새·밤·대추·곶감·어물 따위로 차례 준비가 한창이고 마당에서는 떡을 치는 장정들과 아낙들의 웃음판이 울 밖에까지 떠들썩했다.

그름 대목 장날에는 우리 가게와 거래하던 장꾼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데, 이들은 대목장 물건도 떼지만 그 동안 밀린 외상값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 짧게는 한달 된 것도 있지만 두 달 또는 지난 추석 이후의 묵은 빚들인데 꼭 선달그름 대목에 갚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증서나 어음을 주고받은 일도 없

지만, 그때 상거래의 관례로는 대목을 넘기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속어에 ‘똥 묻은 속곳을 팔아서라도 그름 빛은 갚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대목이면 우리 가게에 많은 돈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안방에 나를 불러 말로만 듣던 백 엔^ㅁ짜리 지폐를 남몰래 보여주시면서 “봤다는 말을 말라.”는 엄한 함구령을 내리셨다. 그름날 저녁에는 온통 집안이 잔치판이어서 나는 밤늦도록 잠들 수가 없었다.

부엌과 대청마루, 안방 할 것 없이 전을 부치고 생선을 굽고 유과·약과를 빚고 조청을 달이고 하여 맛있는 음식 내음이 진동했다. 어머니는 점원들에게도 모두 새 옷을 해 주었고 떡과 고기, 술을 담은 이바지 보파리와 요즈음으로 말하면 ‘보너스’격인 후한 노자를 주어 고향으로 내려 보냈다.

설날 아침 충장로 거리를 누비는 북조리 장사들이 외치는 소리에 잠을 깨면 머리맡에 개어진 새 바지저고리, 조끼, 대님, 그리고 마루에는 새 고무신이 놓여있어 나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새 옷을 갈아입고 차례를 모시고 떡국을 먹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를 드리고 성묘를 다녀온다. 그리고 나면 으레 아이들과 어울려 동네를 돌며 세배를 다녔는데, 공책이나 연필을 받기도 했지만 대개 떡이나 과일을 받았다. 지금처럼 세뱃돈을 주는 경우는 없었고 새해는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덕담을 들었다.

집집마다 떡과 음식을 주고받는 것이 옛 명절 인심이였다. 그래서 동네일이 라면 진일 마른일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돌보아 주던 마음씨 좋은 우리 집 짝 어머니 ‘영암댁’은 음식을 장만할 만한 형편이 못되었지만 온 동네에서 갓다 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푸짐하고 다양했다.

우리 가게에서는 초이들이 되면 어머니는 또 바쁜 하루를 보냈다. 초사흘 차례 준비 때문이었다. 상가에서는 초사흘을 중요시하여 초사흘을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집집마다 대보름까지 참으로 한가하고 또 가족적인 나날을 보내게 된다. 초사흘부터 서로 먼 친척을 찾아보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해서 일가집 식구들이 함께 만나는 때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갔던 동네 젊은이들이 돌아와 느긋한 나날을 즐기고, 특히 방방곡곡 장터를 도는 봇짐장수들도 모처럼 식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다. 동네에는 옷판이 벌어지고 사랑방마다 먼 객지의 화제들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때쯤이면 광주천에는 어김없이 말시바이(말의 묘기를 보여주는 서커스라는 일본말)가 들어와 어린이들을 들뜨게 했다. 한국인 상가이던 충장로 4~5가 쪽은 초사흘이 넘어서까지 거의 철시하고, 일본 상가가 자리 잡고 있던 충장로 1가에서 3가 쪽만 가게 문을 열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일본설(양력설)과 우리설(음력설)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당시 우리들의 유일한 놀이터는 수기동에 있었던 옛 아카데미극장 근처로 그 일대가 채소밭이었다. 겨울에는 이곳에 아이들이 모여들어 연을 띄우고 제기를 차며 팽이를 치고 갖가지 놀이를 벌였다. 덧없는 세월 속에 모든 게 엇그제 일처럼 정겹기만 하다.

추석이 추석 같지 않다지만...

물난리와 태풍 그리고 무덥고 긴 여름 끝에 맞는 추석은 좀 쓸쓸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장터와 상가와 슈퍼에 쌓이는 선물 꾸러미와 오곡백과 그리고 봄비는 밭걸음 속에서 추석의 풍요로움과 함께 들뜬 동심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사실 우리 세대를 살아온 연배들은 혹심한 물자난으로 끼니마저 어려워지만 그럴수록 이날 만큼은 더욱 풍요로웠던 일제시대의 어릴 적 추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충장로의 우리 집은 밀린 외상 빚을 갚고 또 추석 물건을 떼어가는 보부상들로 붐볐으며 종방(가네보 방직공장) 아가씨들과 모처럼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추석빔을 위해 가게를 꼭 메웠다. 그러다보면 열나흘 밤까지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렇게 눈 붙일 사이도 없이 추석날이 밝으면 오곡백과로 차례를 모시고 일가친척들과 손을 잡고 가는 들길 산길의 성묘도 즐거웠거니와 왁자한 한가위 달맞이 또한 즐거웠다.

객지의 일가친척들은 물론이려니와 멀리 일본, 만주에서까지 돌아오는 사람들로 온 마을이 한마당 잔치판이 되었다. 광주천 백사장에는 난장을 트고 씨름판과 남사당 놀이패들의 뿔소리 소리가 온 고을을 들끓게 했으며 말시바이의 구슬픈 나팔소리가 아가씨들과 어린아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때는 사내아이든 계집아이든 색동옷을 입었는데 감사(옛날의 고급 옷감)의 고까(호사스런 어린이옷을 이르는 말)를 입은 마을 아이들이 고삿길을 떼지어 몰려 다녔으며 더러는 무등산으로 톨밤을 주우러 가기도 했다. 뿔소리패들이 집집마다 누볐으며 이러한 흥겨운 추석놀이는 9월 9일 중구^{重九}까지 이어졌다.

추석이야말로 단순한 추수감사의 뜻 말고도 헤어져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한데 모이는 날이며 언짢았던 모든 일을 서로 씻어 내리고 진 빚과 외상값을 정리하는 날이다. 뿐만 아니라 몸을 정갈히 하여 성묘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먼 이웃들과도 정답게 어울리고 그러고는 얼마동안 폭 쉰다.

이러는 동안 농부들은 본격적인 추수와 보리갈이 그리고 겨우살이를 준비한다. 상인들 특히 보부상들은 설 대목까지의 먼 행상길을 채비했다. 그래서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에너지 충전을 위한 날이었으며 모든 언짢았던 인간관계를 삭혀내고 조상을 기리는 날이었다.

세상이 하도 각박해져서 추석이 추석 같지 않다는 푸념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신문과 텔레비전에 비치는 귀성객들의 그 즐거운 표정과 함께 손에 들린 그 소박한 정성의 선물꾸러미에서 우리는 많은 위안을 느끼고 우리 민족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

상부상조의 구심점 위친계

농경 정착 문화의 마지막 유산

우리가 예로부터 아끼고 가꾸어 온 미풍양속들 중 지금은 유명무실하거나 사라져간 것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위친계’이다. 더러 그 명맥을 유지하는 계들이 있기는 하나 요즘의 일반적인 친목계로 전락해버렸고 위친계 본래의 성격은 거의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원래 위친계는 우리 전통 가치관의 근본인 ‘효’를 바탕으로 하는 상부상조의 모임으로 지역단위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호유대 결속의 구심점이고 농경사회 정착문화의 마지막 남은 유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원이 되면 조직원 상호간에 형제의 의^義를 맺어 엄격한 수직의 상하관계를 이루고 한 가족과 같은 혈족감으로 개개인의 애경사를 함께 치렀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결집력은 그 규모나 인적 구성에 따라 한 지역사회의 세력 집단으로 큰 흐름을 이루기도 했으며 이러한 세력들이 어우러져 지역적 특성으로 뿌리 내리면서 한 취락이나 고을의 도도한 향맥을 형성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에도 크고 작은 이러한 위친계들이 이어져 왔다. 필자는 ‘누항계^{陋巷契}’에 속해 있었다.

60년 이어온 누항계

지금의 수창초등학교 학구인 북동, 누문동, 유동 일대의 지명이 원래 누항촌으로 이 지역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다하여 누항위친 계라 했는데 그보다도 이 계의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 원래 이 누항이라는 말은 공자의 수제자인 안회(顔回)가 자기 사는 곳을 누추하고 좁은 길목 이라고 낮추어 말한 데서 연유한 것인데 누항 계원들도 비록 누추한 곳에 머물러 살더라도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계 명칭을 누항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말뜻과 달리 실제 누항촌은 반촌(半村)이었다.

이 누항촌 청년들은 일제 강점기에 징병이나 징용으로 뿔뿔이 헤어져 살다가 광복이 되자 고향을 찾아 하나 둘씩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된 감격과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되자 1946년 10월, 43명이 모여 누항계를 만들었고 그 해 12월 송년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누항계의 첫 모임이 된 것이다.

필자도 이 누항계의 계원이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우리들은 엄한 형제의 도리를 지키며 서로의 애경사를 돕고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부모들을 찾아 합동으로 세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병중인 부모들을 문병하는 등 형제의 우애를 다졌다.

누항계가 가장 역점을 두는 일은 계원이 친상을 당할 때의 공조 활동이다. 이것이 위친이라는 계의 으뜸가는 목적사업일 뿐만 아니라 계의 존립 명분이기도 했다.

조문객을 맞는 일부터 시작하여 엄(嚴)과 출상, 하관은 물론 3년상을 마칠 때까지 제반 대소사를 주재했다.

초상이 나면 우선 당장 제단을 차리고 차일과 평상과 덕석 등의 준비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술독과 마포, 무명배, 광목 등을 장만한다. 계원의 부인들은 콩나물 시루들을 들여오고 죽을 쑤어오기도 한다. 밤을 세워 전을 부치고 나무 새를 무치는 한편으로 상주 가족수대로 상복 바느질 등 일손을 나눈다.

3일장의 경우 밤낮으로 상가를 떠나지 않으며 출상에 이르면 전 계원들이 두건을 쓰고 제복을 입고 운구 행렬을 짓는데 상여가 소리를 메기며 만장의 물결 속에 총장로를 지나가면 온 고을이 들썩거렸다. 장지에 따라서는 상여길이 20리 30리에 이르기도 했는데 지나는 마을마다 구경꾼들이 상여길을 메웠다.

사람들은 모두들 누항계원들을 부러워했으며 그럴수록 우리들의 결속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제2장

광주 1백년 못 다한 이야기들





■ 광주의 품안에서

무등을 바라보며 살아온 지도 어언 90여 정상인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늘 가슴에
고여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분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자꾸만 생각난다.



■ 형평사 운동

신분 차별 혁파를 위한 저항

오늘날 우리 사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이나 납세, 국방, 근로 등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제약받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신분의 차별이란 있을 수 없고 허용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혁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 신분 차별이 광복 후에도 바위처럼 완고하게 엄존해 왔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딛고 1920년대 초,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인권운동이 곧 형평사^{衡平社} 운동이다.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인 이 형평사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획기적인 인권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까지 합세함으로써 항일운동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했다. 특히 광주에 형평사 운동 탄압의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원래 백정^{白丁}은 고려 때부터 이주민이나 유민을 뜻하는 양수척^{楊水尺}, 수척^{水尺}, 무자리 등으로 불려 왔으며 주로 사냥과 도축, 갯바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이들은 대부분 고려와의 전쟁으로 포로가 되었거나 귀화한 거란과 몽골 등의 유목민족으로서 고려의 농경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조선조에 이르러 세종은 이들에게 양인을 뜻하는 백정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유랑을 막고자 정착지를 주었으나 이 동화정책은 실패했으며 차별과 규제를 피해 도적이 되기도 했다. 조선의 대도 임꺽정도 이 백정 신분이었다.

1923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전국의 백정 수는 약 3만 3,700명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서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백정의 수가 들쭉날쭉했던 것은 백정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였다. 백정은 몇 대에 걸쳐 백정 일을 해온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도축업이나 육류판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백정으로 분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백정으로 낙인찍히면 그들이 받아야 하는 명예나 고통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형평사 운동에 뛰어들어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신분 해방 운동의 결사체 형평사

형평사 운동은 1923년 4월 2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된 백정들의 인권 존중과 신분 해방을 주창한 운동이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 사회에서 백정은 최하층 천민이었다. 그들은 도살이나 정육·피혁제품의 가공·제조 등의 일에만 종사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사는 마을 밖에서 따로 집단 거주했다. 일반인들과 담배를 피울 수도 술을 마실 수도 없었고 두루마기를 입을 수도 상투를 틀수도 가마를 탈 수도 없었다.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존댓말을 써야하고 어린아이라도 백정에게는 나이를 막론하고 하대를 했다. 기와집을 지을 수 없었고 길을 갈 때도 일반인을 앞설 수 없으며 일반 가정에는 부를 때만 가되 마당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이런 반인륜적인 불평등한 신분 질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경장 이후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그 뒤로도 이 폐습은 사회 전반에 남아 있었다. 형평사^{衡平社} 운동은 그들의 상거래 도구인 저울^{衡平}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모든 차별적 폐습을 타파하고 ‘저울처럼 공평한 사회’를 이루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형평사 운동은 3·1운동 이후 국민 계몽과 인권 운동에 앞장선 지식인들이 가세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1926년에는 전국에 지사가 130개에 이르렀으며 1930년에는 165개로 늘어났다.

일본 경찰의 조사 기록에는 1928년 제6회 전국 형평사 대회는 항일 민족중

교인 천도교의 서울 교당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저기 나붙은 포스터에는 ‘천차 만별의 멸시를 철폐하라.’, ‘전조선^{全朝鮮}에 산재한 형평 계급아 단결하자.’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 형평사 운동은 청년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1924년 3월 이 운동의 발상지인 진주에서 형평사 청년회가 발족된 것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전국 도 단위 연맹과 중앙본부, 전위 단체인 정위단^{正衛團}, 형평 학우회, 형평 여성 동우회 등을 결성하여 민족주의 운동에 동참, 기관지인 세광^{世光}을 창간하여 일정에 몰수 당하기도 했으나 뒤에 이름을 바꾸어 정진^{正進}이라는 잡지를 냈다.

형평사원들은 홍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와 복구에 나서는 등 인권운동 외에도 사회봉사에 앞장섰으며 특히 항일 독립운동에도 깊숙하게 간여했다.

광주형평청년전위동맹 옥사사건

진주에서 형평사 운동이 시작된 지 4개월 뒤인 1923년 8월 광주에서도 형평사 운동의 싹이 튼다. 전북 정읍지사에서 온 3인의 선전원이 광주 북문동 만세암^{萬世庵}에 백정 30여 명을 모이게 하고 형평사의 취지를 설명하여 광주지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사장에는 남상도^{南相度}(가명), 고문에 서정희^{徐廷禧}를 선출했다. 고문에 위촉된 서정희는 노동공제회 회장 겸 광주소작인회 집행위원장으로서 광주 노동계의 형평운동 지지 세력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항간에서는 이를 두고 달성 서씨 종가의 후예가 ‘신백정’이 되었다는 일부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당시 광주에는 3·1 독립운동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탄압을 받고 있던 지식인들이 노동공제회를 결성, 인력거꾼·짐꾼·잡역부는 물론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소작농과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 및 인권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1926년에는 광주 청년회의 간부이며 당시 광주 제2보통학교(현 수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갑수^{金甲洙}가 2월 18일 회원 50명을 규합하여 광주형

평청년회를 결성했다. 그는 1931년 8월 광주 양동의 도시 제사공장에 격문을 붙인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했다.

광주형평청년회는 발족과 함께 조우회^{朝友會}라는 형평사 축구팀을 창단, 축구를 통한 인권 형평의 가치를 내걸었다. 조우회는 당시 조선일보 주최의 남조선 축구대회에 출전한 것을 비롯하여, 도 내외의 대회에 빠짐없이 출전하여 ‘스포츠 형평’을 통한 인권운동을 선도했다. 이 축구팀은 형평사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대동단으로 개편된 후에도 계속 존속했으며 광복 뒤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졌다.

형평사 운동은 1931년 9월의 만주사변을 겪으면서 일제에 의한 수난을 겪게 된다. 형평사원들은 구두와 혁대를 비롯한 군수물자의 원료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죽 원재료를 일본 군부에 공급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경은 백정들이 세력을 형성하거나 조직화하는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청년동맹사건의 옥사사건이 일어났다.

일제에 의한 강제 해체

1933년 경찰은 1백여 명의 형평청년전위동맹 회원들을 특별한 혐의도 없이 검거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검거 선풍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체포된 형평사원들은 7개월에 걸친 혹독한 고문 끝에 14명이 구속 기소되고 27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옥사사건이었으나 구속 된지 3년 2개월 만에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음부터 경찰은 항일 세력화를 차단하기 위해 무고한 혐의를 걸어 옥살이의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경의 감시와 탄압으로 힘을 잃어가던 형평사 운동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위축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형평사는 사원들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 상호부조 등을 위한 동인^{同人}공제사 설립, 피혁조합과 수육 판매조합 설립, 비 백정 출신업자의 참여 저지 등의 활동으로 형평사 부흥을 꾀했으나 퇴조의 추세는 막을 길이 없었다.

결국 1935년 4월 24일 형평사 전국대회에서 조직의 명칭이 대동사^{大同社}로 바뀌게 되고 이후 일제에 군용 비행기 ‘대동호’를 헌납하는 등 친일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형평사 운동은 갑오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신분 계급의 혁파를 주도한 근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1920~30년대 광주 형평사 운동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1940~50년대에 광주를 떠났다. 극히 일부 인사들만 광주에 남아 활동했는데 그 무렵에는 도축업이나 육류판매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상업분야에 종사했다. 그 무렵 그들은 자신들이 교육받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지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성을 쏟았다. 그 덕분에 그 자녀들은 부모세대의 백정이란 굴레를 벗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친이 백정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세대가 지나도록 백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제강점기 형평사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활동을 했고, 그 중 한 사람은 충장으로 일대에서 광주의 대표적인 요정을 경영하며 어엿한 사업가로 성공하기도 했다.

■ 향토기업의 대들보 금호 박인천

그 텅빈 세월이 속절없다

그해 여름, 그러니까 1984년 6월 15일이었다. 서울 출장을 마치고 광주로 내려가는 길에 불현듯 금호 회장을 뵈고 싶었다. 용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포 전에도 찾아뵈고 안부를 살폈기 때문에 그리 오랜만이랄 것도 없지만 어쩐지 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불시에 내 발길을 붙잡았다.

10시쯤 그룹회장실로 전화를 했더니 곧 나오신다는 응답이었다. 언제나 내가 찾아뵈는 때면 자리에 앉자마자 주로 회장님께서 이런저런 광주 사정을 물으셨다. 나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앉은 채 묻는 말씀에 대답만 하다가 돌아오곤 했다. 누가 보면 싱겁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 오랫동안 뵈지 못하게 되면 불현듯 뵈고 싶어진다. 찾아뵈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일찍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한다. 늘 그렇듯 내가 자리에 앉자 이것저것 물으셨다. 주로 전남의 가뭄 걱정이셨다.

“비가 안와서 큰일이다. 그래도 물길에 닿는 데는 모를 심었더냐?” 딱히 내 대답을 듣기 위해서보다는 그저 걱정스러운 독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무심히 회장님 앞 탁자에 펼쳐진 신문에 내 눈길이 머물렀다. 그 날짜 한국일보였다. 거기에는 국내 재벌 순위가 실려 있었는데 금호그룹이 16위였다.

“회장님, 금호그룹이 여기 16위로 돼 있습니다.”

나는 반가워 신문을 펼쳐들었다.



■ 금호 박인천 회장

“아니네, 내가 아직 그런 힘이 있단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 게야.”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먼 곳을 바라보셨다. 좀 피곤해 보이신다 싶어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는데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일어서시다가 그만 주저앉으셨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하셨다. 언제나 문 앞까지 나와 손을 잡아 주시던 어른이 그날은 거동이 힘들어 보이었다. 회장실을 나와 돌아서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해졌다.

광주에 내려와 그날 밤 내자에게 “오늘 뵈니 어르신이 좀 기력이 쇠해 보이시데.” 하며 서울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첫새벽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다. 금호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였다. 꼭 꿈만 같고 거짓말 같았다. 좀 피곤해 보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 집무중인 회장님을 내가 직접 뵈고 오지 않았던가.

나는 신태호^{申泰浩} 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다. 사모님 말씀이 어제 저녁 진지를 드시면서 “오늘 선홍이가 와서 광주 소식 좀 들었다.”며

이런저런 광주이야기를 하시다가 잠자리에 드셨다는 것이다. 나는 임종 전후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금호 회장님이 운명하시기 전 가족 외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업(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6·25전란이 한창이던 1951년 겨울 광주상공회의소에 들어가서 내가 한 일은 임의단체이던 광주상공회의소를 공법인으로 발족시키는 업무였다. 이때 광주상공회의소는 금호 회장님을 그 공법인의 초대 회장님으로 맞아들였다. 말하자면 나는 그 어른이 오시는 길을 내고 길목을 빗자루로 쓸 셈이다. 그리고 30여 성상을 그늘에서 그분을 모셨다. 더러는 나를 친자식처럼 대하면서 모진 말 씀으로 매질도 하시고 또 흔적도 없이 속 깊은 사랑을 껴 주시면서 늘 손닿는 데다 나를 두셨다.

나는 그 어른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영육과 좌절과 승리의 물살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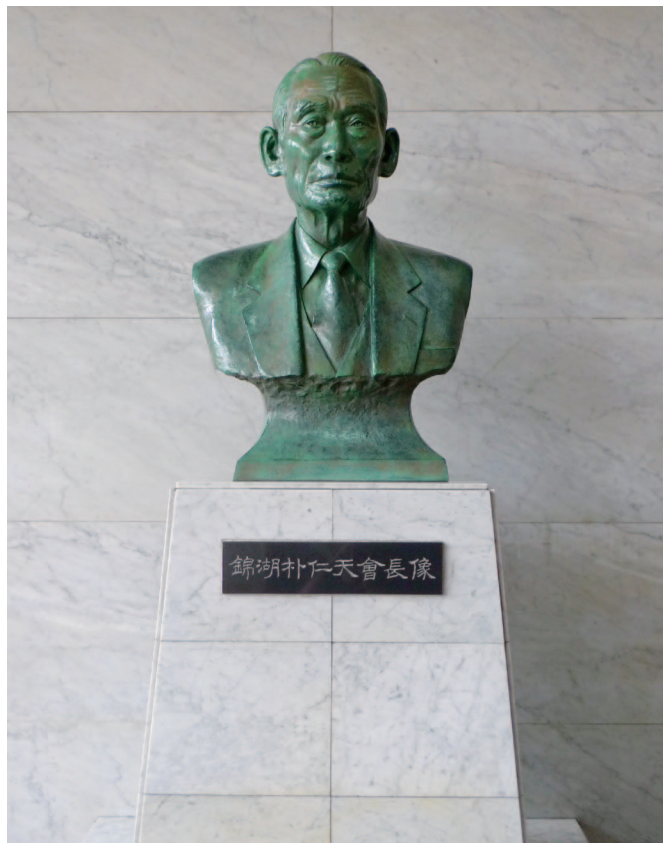


■ 이순정 여사와 금호 박인천 회장

겪었다. 그래서 세상을 하직하시는 마지막 길목에서 불러 주셨을 것이다. 어쩔
지 찾아뵈어야 한다는 생각이 불시에 발길을 붙잡은 것도 그 어르신의 심령이
마지막으로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과 업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보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재직 기간 대부분이 금호 회장님을 모시는 일이었다. 1976
년 회장직을 물러나신 후로도 금호 회장님은 광주에 오실 때마다 으레 자식 집



■ 광주상공회의소 1층 로비에 있는 금호 박인천 회장상

드나드시듯이 상공회의소에 들르셨다. 아무 기별도 없이 또 수행 비서를 대동하시는 법도 없이 뒷짐을 지시고 계단을 오르셨다. 그래서 언제나 직원들의 급한 전갈을 받고서야 달려가 모시기 일쑤였다. 어쩌다 서울에 가도 뭘 일이 있건 없건 찾아뵙고 꾸벅 절을 하고 돌아와야만 불일을 다 보았다는 느낌이었다. 금호 회장님이야말로 나의 사회생활과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아버지며 내 생애의 구심적인 기둥이었다.

나는 광주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사회를 맡았다. 금호그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상공회의소의 내가 공교롭게도 극락왕생의 길을 여는 문잡이를 한 셈이었다.

내가 광주상의^{商議} 반세기의 생애를 마감했던 퇴직 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도 감회가 새롭다. 마지막 날, 내방을 나와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서 계단으로 내려왔다. 어쩐지 걸어서 내려오고 싶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반백년 가까운 광주 상의^{商議} 인생을 한 꺼풀씩 벗어 놓으면서 1층까지 내려와 금호 회장님 흉상 앞에 섰다. 전날 꽃집에 부탁해 두었던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 선홍이 이제 떠납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꽃바구니의 꽃들이 눈물이 글썽이는 듯 안개처럼 얼룩지고 있었다. 다 허물어진 광주상공회의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 우리 고장에서 무등산 사랑운동을 맨 먼저 펴신 분, 외제가 시장을 휩쓸던 자유당 시절 귀빈 접대용마저 국산 담배와 생소한 우리 녹차를 내놓으시던 분, 전국 최대 규모의 물산공진회와 산업박람회를 열어 우리 고장 생산품과 국산품 애용 운동에 불을 붙이신 분, 송정리에서 갈아타던 기차를 광주 직통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 이리-남원-순천으로 바꾸려던 호남고속도로 노선을 기어이 광주쪽으로 되돌려 놓으신 분, 호남 푸대접 시비의 단초가 되었던 10만 도민 서명운동과 전남근대화운동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신 분, 그리고 전국의 여객운수를 제패하신 버스 운송의 대부이신 분…….

이 모든 일들의 애환과 영욕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 그분의 그림자처럼 그분

의 옷자락을 붙들고 곁에서 내 인생의 고비 고비를 헤쳐 왔다. 그리고 지금은 반백년 생애를 몸담았던 광주상공회의소를 나서고 있다. 그 어른의 심령은 광주상공회의소에 계시는데 나만 집을 버리고 떠나는 가출아 같은 허전함과 애석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

금방이라도 “선홍아”하고 부르실 것 같았다. 언제나 말씀을 내리시는 법이 없이 ‘하계’를 하셨지만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더러 기분이 좋으실 때는 “선홍아 애썼다.”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곤 했다.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른다. 마지막 뵈고 나올 때 아무 말씀 없이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인^因과 업^業. 나는 그 어르신을 생각할 때마다 전생에서의 인연과 현생에서의 업을 떠올리곤 한다.

상공회의소가 피해를 입어서야

내가 맨 처음 그분을 뵈게 된 것은 6·25전 광주시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다. 광주택시를 경영하면서 민원업무 때문에 간간이 시청에 들르셨는데 그분은 아랫사람을 대신 보내는 법이 없었다. 으레 당신이 직접 오셔서 대소사를 청겼는데 그 일들이 공교롭게도 내가 맡고 있는 일과 관계가 있어서 그때마다 그분을 모셨다. 일일이 직원인 내게 정색을 하며 민원사항을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치밀하고 진지하신지 그분 일을 밀쳐 두고 다른 일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뒤 1951년 12월부터 나는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당시 광주상공회의소는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옛 광주문화방송 자리에 있던 광주상공회의소 건물은 6·25전란 중 군부에 의해 병사부 사령부로 징발 당했고 그 바람에 옛 전남도의회 자리에 있던 상공장려관 전열장 뒤 골방 같은 곳에 책상 몇 개를 놔두고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상공회의소 간판이 걸려 있기는 했으나 비품은 고사하고 양면지 한 장, 잉크 한 방울이 귀한 처지였다. 전쟁 중에 사무용품들이 바닥난 데다 수복 후에는 청

년단체들이 와서 “책상이 필요합니다, 걸상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쓸 만한 것들은 모두 들어 내갔다. 거기다 상공회의소 의원들은 전쟁 와중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부역한 사람, 공장이 폭격을 맞아 기업이 거덜 난 사람들로 상공회의소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

이렇게 되자, 광주 유지들 사이에 광주상공회의소 재건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전시의 혼란 속에서 무엇인가 상공인들의 구심체가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사무국장으로 영입된 분이 영암 출신으로 광주의 유지이던 박찬직씨였다. 왜정 때 보성전문학교를 나왔으며 광주시 총무과장을 역임한 분이였다. 나는 이분의 부름을 받아 광주상공회의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내가 충장으로 토박이라 상가에 밝고 또 상공행정에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게 본 듯했다. 이분은 상공회의소가 임의단체에서 공법인으로 발족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분이 중심이 되어 1952년 10월 금호 박인천 회장을 광주상공회의소 제3대 회장으로 옹립하게 된 것이다. 내가 금호 회장님을 직접 모시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제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

광주상공회의소 제3대 의원선거는 여러모로 광주상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 전후의 폐허에서 1970년대 중반의 고도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광주상공회의소를 중흥한 지역경제계의 대부 박인천 회장님의 등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선거는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당시는 지방의회가 있을 때여서 광주상공회의소 의원이 곧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예비단계로 인식되어 큰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규복^{黃奎福}, 이필호^{李弼鎬}씨를 비롯한 일곱 분이 광주시의원으로, 양권승^{梁權承}씨는 도의원으로 진출했으며, 이형모^{李炯模}씨는 뒤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이때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입후보한 사람은 서재홍^{徐在弘}씨와 박인천 회장님 외에 몇 분이 더 있었다. 회장후보들은 자기 쪽 사람을 의원으로 입후보시켰는

데, 정족수 40명에 의원 입후보자가 62명으로 약 1.5대 1이상의 경쟁률을 보여 전국 최대의 격전지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쟁을 거쳐 광주상공회의소 제3대 의원 총회가 구성되었고 이 총회에서 금호회장님이 압도적인 표차로 회장에 취임했다.

금호 회장님이 취임해서 맨 먼저 한 일은 상공회의소 업무를 집행하는 사무국 기능의 정상화였다. 그러자니 우선 당장 책결상이나 사무용지를 마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했다. 당시 광주상공회의소의 재정은 회비 수입이 재원의 전부였다.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는 상공인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을 했는데, 전시라 가입하려는 사람도 없고 기왕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회비 징수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모든 사무용구나 비품 구입비를 금호 회장님이 전액 사비로 냈는데, 그 액수가 약 8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로서는 큰돈이었다.

금호 회장님의 취임 초기는 휴전이 성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전시 경제체제 하에서 전쟁복구를 위한 건의 활동이 상공회의소 업무의 주류였다. 생산 시설의 90%가 파괴되었고 광주의 섬유공장과 화순탄광을 비롯한 산업시설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전력이나 산업시설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이나 조세감면, 교통수단의 복구, 긴급구호물자의 지원 요청 등 상공회의소의 건의 활동은 끊임 없이 없었다. 그때 금호 회장님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업무상 지시 사항은 으레 사무실로 나와 내게 직접 분부하셨다. 전화로 하명하시거나 회사로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만 급한 보고사항이나 건의문 초안을 보여드려야 할 경우는 회사에 계시건 집에 계시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찾아가 뵈었는데 그걸 오히려 흠족하게 여기시고 내 등을 두드리면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셨다. 그러나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미루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찌나 엄하게 나무라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몰아치셨다.

무슨 일이나 맺음이 분명하셨으며 큰일을 치른 뒤에는 직원들을 불러 노고를 치하해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에는 그냥 입발림이 아닌 진실하고 따뜻한 정이 배어 있었다. 안에서는 공사^{公私}가 서릿발 같으셨지만 대외적으로 부하직원

어려움을 당하면 단호하게 맞서 이를 막아주셨다.

금호 회장님은 언제나 새벽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주여객(광주 고속의 전신)에 나와 첫 차의 운전기사에게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고 무사히 잘 다녀오라며 차가 큰길을 돌아설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내가 급한 보고사항이 있어 새벽에 찾아뵈어야 할 경우 광주여객으로 찾아가면 어김없이 거기 계셨다. 경이로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셨으며 전화를 걸도록 지시할 때도 가령 “상공부를 대라.” 하지 않고 반드시 전화번호를 불러 주며 “몇 번을 불러라.”, “광주의 몇 번을 불러라.”는 식이다. 두 달, 석 달 전 장부 잔액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한번 인사를 나눈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전국 최초의 주산 경기대회와 세계 제패

금호 회장님이 취임하여 전재 복구를 위한 건의 활동 외에 맨 먼저 한 행사가 ‘전남주산경기대회’였다. 지금에야 컴퓨터에 밀려 관공서나 학교는 물론이고 은행에서조차 주판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유일한 계산 수단이었다.

취임한지 두 달 만인 12월에 이 전남주산경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6·25후 전국 최초 대회이며 ‘전국주산경기대회’보다 9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금호 회장님은 계산 사무능력과 기업경영의 능률화를 위해 이 대회를 착안한 것인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남이 계산교육의 붐을 일으켰다.

결국 금호 회장님에 의해 시작된 주산경기대회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9년 뒤인 1961년에는 전국대회와 제1회 국제주산경기대회로 발전하였다. 한·중·일 3개국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발족시킨 이 국제대회에서는 전남주산경기대회에서 선발된 별교중학교 3학년생 박만석^{林萬石}군과 별교상고 3학년생 박서원^{朴西源}군이 개인 종합성적에서 1위와 5위를 하였고 2회, 3회는 물론 그 뒤까지도 우리 고장 선수들이 정상을 제패했다.

전남주산경기대회가 우리나라 계산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위업을 달성한 것은 그 바탕에는 금호회



■ 주산경기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박인천 회장에 의해 시작된 주산 경기대회는 1961년에는 전국대회와 제1회 국제 주산경기대회로 발전 하였다. 일본에서 개최한 주산대회에 참석한 선수들, 지도교사와 함께(가운데가 박인천 회장)

장님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다. 첫 대회를 기획했을 때 소요 경비가 2백만원에 달했으나 상공회의소의 사업비 지원액은 12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때 금호 회장님은 사재로 50만원을 쾌척하셨다. 이것이 기금이 되어 한국은행 지점과 상업학교, 사세청(국세청), 금융계 등에서 3만원, 5만원, 혹은 10만원씩 거출함으로써 그 뒤 30여 년 동안 이어진 주산경기대회와 사무기능 검정시험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상공장려관 개관과 상업은행 광주지점 유치

금호 회장님의 취임 초기 업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공장려관’의 개관이었다. 이 상공장려관은 도에서 관리 운영해 왔는데 원래는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제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도내 특산품이나 토산품의 견본을 진열해 놓고 일본 상인이나 외지 상인에 대한 거래나 구매의 편의를 봐주던 것인데 해방과 6·25후에도 그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 취임한 금호 회장님으로서는 상공장려관의 개관이 중요한 과제 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라남도 상공장려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전라남도로부터 이관받아야 되고 그러자면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했다. 당시 전라남도 상공과장이 최광호^{崔光鎬}씨였는데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령^{道令}으로 전라남도 상공장려관 조례를 폐기하여 광주상공회의소로 이관했을 뿐만 아니라 도청 소유이던 지금의 도의회 자리인 상공장려관 건물의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금호 회장님은 광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라남도 상공장려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적인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이 상공장려관이 상공회의소 관리로 넘어오기는 했으나 전시품은 하나도 없었다. 말하자면 껍질만 넘어온 셈인데 6·25 전란이 한창이던 그 당시로서는 전시품을 확보하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노산 이은상씨가 발행인으로 있던 호남신문이 전란 중의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전남의 산물을 선전하기 위해 ‘전라남도 특산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금호 회장님은 전시회가 끝난 뒤 이 전시품을 인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 단순한 발상으로부터 시작된 교섭은 뜻밖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교섭이 매듭지어지기가 무섭게 즉각 금호 회장님의 명을 받고 밤중에 부산으로 달려가 전시장의 전 품목을 인수 받아 트럭에 싣고 왔다. 전시품이 확보되자 금호 회장님은 이번에도 또 사재를 들여 진열 시설을 갖추었으며 상공부

에 특별히 부탁하여 마카오에서 수입해 온 유리를 배정 받아 그럴듯한 진열장을 만들게 되었다.

이 상공장려관은 6·25전쟁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그것도 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민영으로 문을 연 장려관으로서 금호 회장님의 관심이 대단하였다. 그때 우리는 밤을 세워가며 빈 귀짝에 흰 종이를 입히고 색종이를 오려 붙여서 그 위에 상품을 진열하고 색색의 차트를 그려 벽을 꾸몄다. 금호 회장님은 큰 잔치를 앞둔 집안 어른처럼 늦은 밤에도 불쑥 불쑥 작업장에 나오셔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듬해인 1953년 4월 23일에는 호남신문사로부터 인수한 것 이외에도 도내 농산물과 공산품을 부족함이 없이 수집하여 개관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전국 초유의 일이어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상공부장관이 직접 광주에 내려와서 축사를 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으며 금호 회장님은 두고두고 이를 큰 보람으로 여겼다.



■ 한일경제협회 방한(1964. 10. 30)

취임 이듬해인 1953년으로 접어들면서 광주 금융계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선식산은행이 산업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식산은행이 취급했던 일반 금융업무가 조선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 산업은행은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에만 투자하는 특수은행이 되었다. 따라서 그때까지 식산은행을 거래했던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금호 회장님은 지역 상공인들의 총역량을 결집해서 대대적인 새로운 금융기관의 유치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그 대상 은행으로 상업은행을 지정했다. 그때 광주에는 식산은행, 조흥은행, 상공은행, 저축은행 등 네 곳이 있었지만 상업은행은 없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상업은행 지점이 전주, 군산, 이리 등에 세 곳이나 진출해 있었다.

금호 회장님은 거의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와 상업은행장, 재무부장관 등을 하루걸러 방문하여 맹렬한 유치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당시는 은행들의 지점 증설이 통제되고 있어서 상업은행은 공여지책으로 그동안 경영이 부진했던 경남 울산의 방어진^{方魚津} 지점을 폐쇄 하는 조건으로 광주지점 설치에 대한 인가신청을 제출하여 재무부의 가인가를 얻어냈다.

상업은행 광주지점 유치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금호 회장님은 경쟁 은행과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우리들에게 합구령을 내렸다. 특히 임시점포를 물색하는 데 있어서는 본점 인사들과 우리 직원이 극비리에 움직였다.

그러나 당시는 인플레이가 극심하여 충장로 요소에 점포를 흥정해 놓고도 막상 계약을 할 때쯤이면 가격이 치솟아 계약이 어긋나기도 했다. 또 이때만 해도 충장로에 은행이 들어설 만한 건물이 한정돼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점포를 물색한다는 사실이 중개인이나 건물주에게 알려져 나중에는 시가보다 2~3배나 호가하는 바람에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점포 설치의 기일은 촉박하여 1954년 4월 1일까지 개점을 못할 경우 인가가 취소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금호 회장님은 절박한 단안을 내렸다. 궁리 끝에 상공회의소가 쓰고 있던 전라남도 상공장려관 한쪽 20여 평을 치우고 상업은행 광주지점과 한술밥을 차

리기로 한 것이다. 자기 소유 건물을 징발 당하고 더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상공회의소는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터에 상은 지점마저 입주하는 바람에 북새통을 떨었다.

이러한 웃지 못 할 우여곡절 끝에 상업은행 광주지점은 이 골방 같은 남의 셋방 한편에다 간판을 걸고 1954년 4월 1일 드디어 개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주 출신 행원이 없어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호 회장님은 부득이 거래처 알선까지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독려하며 동분서주했다. 다행히 식산은행이 산업은행으로 개편되면서 일반은행 업무를 저축은행으로 이양하게 되어 이들이 가장 우선적인 고객 확보 대상이 되었다.

금호 회장님은 상업은행 광주지점을 유치한 당사자로 점포 개설과 거래처 알선, 그리고 뒤에 점포 건물의 확보 등에 최선의 협조를 다했다. 그러나 지점유치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금호 회장님은 개점 첫날 축하 예금을 했다가 얼마 지난 뒤에 다시 찾아 원래의 거래 은행인 조흥은행 지점에 옮겨 버렸다. 그것에 대해 “나는 공인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상업은행 유치운동을 벌였지만 사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은행과의 인연을 버릴 수 없다.”고 잘라 말함으로써 공사가 분명한 강직한 성품을 엿보이게 했다.

공과 사를 엄밀히 구분하는 금호 회장님의 공인정신은 광주상공회의소를 이끌어 온 4반세기 동안 추호도 변함이 없는 일관된 신조였다. 상공회의소 일로 서울을 가거나 지방 출장을 가거나 해외 나들이를 갈 때도 상공회의소의 출장여비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여비까지 사비로 지급했다. 특히 광주상공회의소의 취약한 재정을 염려하여 판공비를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고 대소 행사나 물품구매 등에 사재를 내놓았다. 재정이 그런 대로 기반을 닦은 후에도 상공회의소 의원 총회나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때나 손님이 올 때는 회식비를 전액 사비로 냈다.

도의원 뺨을 때린 ‘너릿재 사건’의 파장

금호 회장의 성정을 잘 설명하는 에피소드가 있

다. 1954년 화순 너릿재에서 광주여객 버스가 어린애를 친 교통사고가 났다. 금호 회장은 즉각 수습에 나서 유족을 위로하고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과 장례전반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판인데 뒤늦게 먼 친척뻘 된다는 전남도의원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회사에 나타나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하며 “사장놈 나와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안하무인격으로 덤벼들자 금호 회장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가족도 아닌 제3자가 끼어들어 왜 이리 악담이요,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해야지 왜 욕설을 퍼부어 대는 거요.”

그러자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급기야는 삿대질을 하며 “너 잘 걸렸다. 사장이면 다냐.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까부느냐.”며 막무가내로 대들었다.

참을 수 없게 된 금호 회장은 그만 이 사람의 뺨을 때리고 말았다. 만일 이 사람이 도의원이 아니었다면 금호 회장은 어떻게든지 참고 달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권 행세를 부리며 안하무인격으로 달려드는 바람에 불같은 성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은 마치 별집을 쑤신 결과가 되었다. 도의원을 폭행했다 하여 도의원 모두가 분개하여 들고 일어난 것이다. 국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관계 요로에 엄벌에 처해 달라고 진정서를 돌렸다. 세무서에는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신문사들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당시 지방지의 도내 수송은 광주여객이 무료로 운송해 주었는데 어느 운전기사가 ‘신문들이 광주여객만 비난한다.’며 차에다 올려놓은 신문 뭉치를 발로 찼다. 이것이 또 빌미가 되어 ‘광주여객이 이제 신문 수송까지 거부한다.’며 신문사들이 들고일어났던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국회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오는 등 우여곡절 끝에 1개월의 영

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막상 영업정지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자 그 피해는 전남도민이 둘러쓰게 되었다. 도내 방방곡곡의 노선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던 터라 일시에 전 노선이 운영을 중단하자 도민들의 발이 묶여 일상적인 생활 활동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과 경제의 움직임이 마비되고 말았다. 결국 전라남도는 이미 취한 행정조치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매듭지어진 이 사건은 그 후유증이 엉뚱한 데서 불거져 나왔다.

1955년 전라남도 예산에서 나오기로 돼 있었던 전라남도 상공장려관 보조금이 전라남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거부되고 말았다. 상공장려관이 광주상의로 이관되면서 당연히 지원하기로 된 재정 보조금이 토의과정조차 없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111만환으로 기억되는데 그 돈을 금호 회장님이 사비로 냈다.

“나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화를 입었으니 내가 쥐야지, 회장한다는 사람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는가.”

그분의 투철한 공인정신과 인품을 말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남방직 본사 서울 이전 반대

해방 직후의 혼란과 6·25의 고비를 극복하고 대규모 방직공장으로 자리 잡아 가던 전남방직이 1956년 여름 들어서부터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모든 상공행정이 중앙집권이어서 원료의 구입이나 전력확보, 자금조달, 시설도입, 판로 등이 오로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금호 회장님의 충격은 컸다. 그것은 이 공장이 전남의 면화와 인력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성장한 전남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체일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분리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본사가 서울로 이전할 경우 이 지방 금융기관은 약 6천만환의 예금감소와 9억여환의 대출금 감소(당시 전라남도 금융기관의 대출 총액 40억7천4백만환)를 가져오고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도 연액 3천여만원(당시 광주시 지방세 총액 1억3천7백만2천환)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 같은 엄청난 파장 때문에 지역민들은 거도적으로 전방 본사의 서울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 운동은 금호 회장이 중심이 되어 광주상공회의소가 주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방은 그 해 10월 끝내 서울로 이전하고 말았다. 이전 후에도 금호 회장은 도내 80여 기관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보내고, 진정단을 서울로 보내는 등 1958년까지 3년에 걸쳐 본사의 광주 회원운동을 벌였으나 끝내 그 실행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나주 호남비료공장,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업단지 건설

금호 회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공업화를 위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중의 하나가 나주 호남비료공장의 건설이다. 원래 이 지역은 곡창지대로서 비료 소비의 본고장이라는 점에서 일찍이 공장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었다.

이러한 터에 IBRD(세계개발은행) 차관에 의해 충주에 비료공장이 건설되자 금호 회장은 순수한 지역자본을 동원, 자력으로 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57년 4월 20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 의원, 정당, 언론사, 금융기관장, 기업인이 총망라된 호남질소비료주식회사 건설추진위원회를 거도적으로 결성했다.

금호 회장은 이 추진위를 중심으로 범도민적인 투자운동을 선도하여 갖은 애로와 공사지연 등 수 차례나 좌절과 실의에 젖기도 했으나 1962년 12월 28일, 추진위가 발족한지 5년여 만에 드디어 호남비료공장의 준공을 보기에 이르렀다.

금호 회장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시아자동차 공장과 지역 최초의 공업단지인 광주공업단지 건설이다. 아시아자동차 공장은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의 원조이며 오늘날에 와서는 군용차와 상용차, 승용차를 생산하는 종합

공장으로서 기아와 현대자동차의 기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장의 설립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순수 민간인 외자도입으로 정부의 시설 승인을 얻는 일에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부지의 선정 등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관계당국과의 마찰을 조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금호 회장이 이를 주도했다.

아시아자동차 공장은 1962년 7월 6일 건설추진위원회의 발족에 이어 기술 제휴 및 시공자를 프랑스의 FIAT SIMCA로 정하고 1969년 10월에 준공, 1973년 3월부터 피아트 차의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또 광주공업단지는 1966년 5월20일 유치추진위원회 발기인회가 발족된 이래 박정희 대통령의 확약으로 1969년 5월 말에 착공되었으나 공사의 지연으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의 광주고속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일대가 바로 최초의 광주공업단지였다.

국산품 장려운동과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전람회

금호 회장이 특히 싫어하는 것은 허세와 사치였다. 허세는 인간관계나 처신에 있어서도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사치는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았다. 이 같은 금호 회장의 생활신조는 그의 국산품 장려운동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산품 애용, 외래품 배격 운동’은 사사로이는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철두철미했다. 사무실에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귀빈에게 권하는 담배도 국산이요, 차도 커피가 아니라 녹차였다. 그때만 해도 차란 커피를 뜻하는 것이었지 녹차라는 우리 전통차가 있는지조차 모르던 시절이었다.

금호 회장의 국산품애용에 관한 에피소드 한 토막이 있다. 상공회의소 직원 중에 집에서 농사도 꽤 많이 짓고 생활도 그런 대로 괜찮았던 직원이 있었다. 그가 돈 많은 멋쟁이들이나 입는 마카오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하루는 출근

을 하자마자 그 직원을 불렀다.

“자네 월급이 얼마데 그런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가?”

그 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네 집에서 농사도 짓고 쌀도 대주니 어렵지 않게 사는 줄 알고 있네만 그러나 사람이란 자기 신분이나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네. 더구나 자네는 국산품 장려운동을 이끌어야 할 상공회의소 직원이 아닌가.”

이 일이 있은 후 직원들은 사소한 신변 장신구라 할지라도 외제는 서로 삼갔다.

국산품 장려와 애용은 금호 회장의 생애를 통한 일관된 신조였다. 특히 해



■ 전라남도 물산 공진회에서 축하하는 박인천회장

방 후의 혼란과 6·25로 산업의 토대가 파괴되고 그 빈자리를 외제품들이 밀고 들어와 국가 산업이 설 자리조차 없던 1950년대는 더욱 그랬다.

금호 회장님의 이 같은 국산품 장려운동이 빛을 본 것이 전라남도 물산공진회이다. 1957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주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물산공진회에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그리고 서울, 충청, 영남의 찬조 출품을 합쳐 총 3천8백 종에 1만5천 점이 출품돼 전국 산업박람회를 능가하는 규모를 이루었다. 학생과 단체를 포함한 도민 등 무려 60여만 명의 관람객이 줄을 이었으며 특히 전국 각지에서 각 급 학교의 수학여행단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광주공원 공진회 연예관에서는 명창 임방울까지 초청되어 남도 명창 대회와 종합예술대회, 군악연주회 등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베풀어졌다. 이밖에도 향토작가의 미술전, 강강술래대회, 농악대회, 씨름대회, 미인선발대회, 4H경진대회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상 유례없는 도민 축제의 장이 된 이 물산공진회는 당초 30일간으로 예정했던 대회기간을 40일간으로 연장하는 등 대 성황이었다.

전남은 자고로 비옥한 농토와 전국 최대의 수산자원, 그리고 풍부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겪어오는 동안 산업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고 해방 후에는 여순사건과 6·25라는 이중의 고난 속에서 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당했다.

따라서 종래의 물산공진회가 일제의 압정과 해방 후 십여 년의 고난 속에서 몸부림쳐 온 전남 산업의 흔적을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도전과 생산의욕에 불을 댕긴 것이었다면, 1965년에 개최된 전라남도산업전람회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제3공화국의 경제 개발계획에 부흥하여 일차산업에 치우친 가난의 굴레를 벗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함으로써 전남의 산업근대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광주상공회의소와 금호 회장님이 의도하는 바였다.

1965년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된 이 산업전람회에는 전남을 포함해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4만5천 점이 출품돼 첫 번째 물산공진회의 1

만5천 점보다 3배 이상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외국의 비교상품과 재일교포의 특별 창조출품도 포함돼 있었다.

마침 전국체전 기간과 맞물려 광주공원 일대 1만5천여 평의 대회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뒤덮였다. 부흥관·수산물·공산물·축산물·농산물 등 주요 전시관 외에도 교육관·공군관·문화방송관 등 무려 25개 전시관에서 과거·현재·미래의 분야별 발전상을 전시했다. 고래관에서는 그해 여름 포항 앞 바다에서 잡은 무게 6톤에 길이 9m나 되는 27년된 숫고래가 전시되기도 했다. 또한 장기영 부총리, 농림·상공부장관 등을 비롯하여 도내는 물론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당시 양희수, 정성태, 정래정, 신형식 등이 고장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하여 국비 지원을 얻어내기도 했다.

금호 회장님은 두 번에 걸친 이 엄청난 규모의 전람회를 맨주먹으로 해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일에 몰두했으며 거의 날마다 관계기관을 돌며 시비보조와 도비보조를 얻어냈다. 서울에서 상주하다시피 관계 부처 장관과 상공분과 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국비보조를 얻어냈다.

또 호남 출신 기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대기업들을 찾아다녔다. 그때는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흔치 않은 데다 대개 사장실이나 회장실이 5층이나 6층에 있기 마련이어서 8월 엽천의 더위 속에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때 나와 광주상의 부회장이던 신태호 회장이 금호 회장님을 수행했는데 춘추 65세의 노구를 아끼지 않으시던 일이 지금도 내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호남선의 광주역 직통 실현

금호 회장님의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수송력의 증강이고 호남선의 광주역 직통 실현이다. 원래 호남선 철도는 장성-송정리-목포로 이어져 있어 광주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거나 서울이나 목포쪽에서 광주로 올 경우 송정리에서 내려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불과 8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광주역이 호남선과 연결되지 못한 채 섬처럼 외떨어져 있어 사람은 물론이고 화물도 으레 정체되기 마련이어서 어떤 때는 송정리

역에 묶인 채 몇 날이 걸리기도 했다.

여객이나 화물의 이동에 있어서의 이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송정리 왕복에 소비되는 유류, 승객들의 버스비, 철도수입, 화물 적체의 손실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금호 회장님의 호남선 광주역 직결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호남선의 광주 직결 노선안은 하남 장수리에서 송정리로 가지 않고 곧바로 장성리를 가로질러 극락역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이 안이 평야지대를 가로지르는 가장 경제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노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금호 회장님도 친구이신 최태근(전 국세청장)과 함께 현지를 답사해 보고 제일 좋은 안이라며 흡족히 여기셨다.

그때가 1959년 5월인데 이때부터 금호 회장님은 이 일에 밤낮으로 골몰했다. 무슨 일이나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이일 보고 저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번 추켜잡은 일만 아침저녁으로 골몰하고 사비를 들여가며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이 금호 회장님의 성정이셨다. 이 철도 직결 건의운동도 그랬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시민들의 오해를 받거나 일부 시기하는 측의 모함을 받기도 했다. 당시 금호 회장님은 광주여자대학교 설립을 목표로 동운동(지금은 금호고등학교 일대)에 땅을 사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 여자대학을 설립하고 금호고등학교와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등을 옮길 계획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호남선 직통노선에 금호 회장님이 땅을 산 저의는 광주역을 그곳에 옮기도록 하여 부동산 이득을 취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금호 회장님은 한때 큰 곤욕을 치렀다.

그 후 이 하남-극락 노선계획안은 철도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여 현재의 소촌동 노선으로 낙착된 것이다. 지금 광주 사람들이 서울 방면을 오고감에 있어서 멀리 송정리로 돌아 차를 갈아타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된 것은 순전히 금호 회장님에 의해 광주상공회의소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호 회장님이 호남선 광주역 직통운동과 함께 추진했던 호남선 철도의 복선화 운동은 생전에 그 끝맺음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 변압기 이설 저지와 광주은행 설립

60년대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해방 후 북한에 의존하던 전력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소위 특선편택을 받는 관공서나 특수산업, 특권층 가정을 제외하고는 호롱불 신세를 면치 못했다. 남의 전깃줄에 몰래 잇대어 쓰는 도둑 전기가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전기가설도 수용자가 전깃줄과 전주를 사서 대야 하는 시절이었다.

금호 회장이 최초로 전력난 타개 운동에 나선 것은 1958년으로, 광주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화순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건의 운동을 전개했다. 전남은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 송전 손실이 많고 전압이 낮으니 화순탄광에 화력발전소를 세우면 발전 연료 확보는 물론 채광시설의 전력화로 석탄 증산뿐 아니라 지역 전력난을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요지였



■ 산업시찰단을 맞이하여 나주에 있는 호남비료 공장을 설명한 이후 기념 촬영

다. 이 화력발전소 건의운동은 그 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산동교 옆에 터빈식 화력발전소(9,170kw 출력)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광주의 전력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기 전인 1960년 6월 이 지역 전력수급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수색변전소의 화재로 변압기가 소실되자 정부는 호남지방에 전력을 공급하던 대전변전소의 변압기를 수색으로 옮기려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호 회장은 격노했다.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7월 들어 변압기이설 결사반대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거리 시위를 전개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상공부장관, 조선산업(발전전담회사, 지금의 한국전력은 발전회사인 조선전업, 배전회사인 경전과 남전 3사의 합병회사임) 사장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이러한 상황을 충남북과 전남북의 상의회장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광주에서 시위를 벌였던 7월 13일 윤승호 광주상의 부회장을 비롯한 상공인들이 대전으로 올라가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금호 회장은 호남지방 상의회장단과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조선전업사장을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농성현장을 찾아 농성단을 위로하고 농성단을 교체해가며 밀고 나갔다. 그리하여 7월 17일 농성 5일 만에 드디어 정부는 대전변압기 해체공사를 중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금호 회장은 일찍이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계기를 맞게 된 것은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관계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방은행의 설립을 허가하기로 밝히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상공회의소의 주도하에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월 7일 광주상의에서 상공인 및 유지들 20여명이 '광주지방은행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금호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한도 출자액인 2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였다. 위원회

는 앞장서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출자 권유에 골몰했다. 그러나 때마침 불어 닥친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이 지방 기업과 상가가 직간접으로 큰 타격을 입고 경기가 위축돼 주식공모가 한때 난관에 부딪쳐 좌절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금호 회장은 지역 유력 인사들을 설득하여 가까스로 그 해 12월 29일 내인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때까지의 출자액 규모가 1억4천여만원에 불과해 5천여만원이 모자란 실정이었다. 금호 회장은 이러한 담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1968년 6월 17일 서울 녹양식당에서 설립 발기인들의 모임을 갖고 재경 실업인 15명의 발기인을 모아 5천7백만원(주당 1천원)을 투자케 함으로써 법정 한도액을 채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8년 9월 17일에 지방은행으로는 대구, 부산, 충청은행에 이어 네 번째로 광주은행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남근대화운동의 점화

금호 회장의 광주상공회의소 재임기간 중 영광과 좌절이 가장 극명하게 두드러진 이슈가 바로 전남근대화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광주·전남지역 사회 간접자본이나 산업기반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는 데에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좌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전남근대화운동은 기존 2차선 호남고속도로의 건설을 전후한 지역민의 정서에서 연유한 것이다.

1969년 1월 17일 주원 건설부장관은 “금년 안에 정부고속도로가 완공됨으로써 대전-광주-순천-여수를 잇는 339km의 호남고속도로를 1970년 초에 착공 1972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발표가 있는 지 얼마 안 되어 아무런 해명도 없이 대전-전주-광주-여수의 노선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대전-전주-남원-여수로 변경해 버렸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인구 밀도나 투자가치를 외면하고 내륙산악지대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와 호남의 거

점도시인 광주권의 발전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금호 회장님은 즉각 광주상공회의소 임시 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연변 각 도시의 정·재계 대표인사를 망라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 목포, 김제, 정읍, 장성, 광산, 나주 등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선 환원을 위한 대대적인 진정 날인 운동을 전개했다.

1969년 5월 12일 금호 회장님과 장경순 국회부의장, 정래정 공화당 전라남도 도당위원장, 김남중 전남일보 사장들을 포함한 7명의 건의단 일행이 연도 주민 4만 6천여 명의 진정 날인을 받아 상정했다. 건의단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노선 환원을 진정했다.

이같은 건의운동이 줄기차게 지속되자 6월 29일 광주에 들른 이한림 건설부장관은 호남고속도로의 노선을 당초의 계획대로 대전-전주-광주-여수로 환원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1970년 4월 15일 드디어 호남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되기에 이르렀다.

금호 회장님이 주도한 호남고속도로 노선 환원 건의운동은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호남고속도로의 노선 시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호남푸대접론’의 시비를 불러일으킨 전남근대화운동을 점화하게 되었다.

1970년 7월 18일 금호 회장님은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등 도내 4개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열어 낙후된 이 고장의 산업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전남근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표사업의 실현을 위해 도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전남도민 1인당 소득이 전국 11개 시·도 중 최하위로서 196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부터 쌓여 온 ‘낙후된 전남’의 소외감과 호남고속도로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의 노골적인 지역 차별에 자극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전남근대화의 목표사업으로 호남고속도로 조기완공, 광주-목포간 고속화도로 노폭 확장 및 포장공사 조기완공, 영산포-해남간 도로 포장공사 조기완공,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의 조속한 실현, 전라남도 내 항구에 임해수출자유지역 지정, 방위산업의 유치, 광주 연초제조창 유치 등 7개

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도로 문제에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전남이 도로 총연장 5,003km 중 포장도로는 겨우 125km여서 포장률이 2.5%로 전국 최하위였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 7개항의 관철을 위해 즉각 10만 서명운동에 나섰는데 불과 1주일만인 7월 25일 서명운동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인 금호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은 7월 29일 이한림 건설부장관과 남덕우 재무부장관을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간청했다. 31일에는 청와대를 방문 김상복 정무수석을 만나 10만 명의 전남도민이 서명 날인한 진정서를 전달하고 목표사업의 실현을 촉구했다.

10만 명이 서명한 진정서는 약 5천매에 달하는 분량으로, 나는 그때 이 진정서를 큰 가방 3개에 나누어 들고 금호 회장님을 수행하느라 진땀을 뻘었다.

상경 다음날 금호 회장님이 나를 불러 이 진정 내용을 신문에 보도할 수 있는 방도를 알아보라고 분부하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진정서를 신문사에 배포했으며 동아일보 기사와 조선일보 사설로 보도함으로써 여론화를 촉발하게 되었다. 지역 문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전남근대화운동에 대한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못했다. 1971년 11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전주·광주·순천의 인터체인지들이 아무런 사전 해명도 없이 평면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이 뒤늦게야 밝혀졌다. 주요 도시의 진입로에 신호등을 세워 평면 교차로로 만든다는 것은 고속도로라고 할 수조차 없는 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즉각 전북의 전주, 정읍 그리고 도내 상공회의소의 연명으로 정읍, 장성, 광주, 순천 등의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건의운동에 돌입해 결국에는 이를 관철했다.

몇 고비의 좌절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금호 회장님의 집념은 열매를 맺게 되어 1973년 11월 14일 전장 358km에 달하는 대망의 호남·남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에 이르렀다.

전남근대화운동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광주 연초제조창의 유치였다. 당

시 전남 지방은 전국 최대의 엽연초 생산지역일 뿐만 아니라 품질이 가장 우수한 벌리(Burley)종^種으로 전국 생산량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전량이 수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장이 없는 탓으로 멀리 옥천, 김천, 신탄진, 예산 전주 등지로 싣고 가서 건조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그 불편함은 물론 엄청난 수송비 낭비와 국고 손실을 보고 있었다.

따라서 전남에 엽연초 건조장을 유치하면 막대한 수송비의 절감은 물론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목포·여수항이 근접해 있어 수출 운송비도 대폭적인 절감과 생산자들의 수납 경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었다.

나는 밤을 새워 이러한 요지의 건의문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건의문 초안을 받아 든 금호 회장은 “아, 이 사람이 사정이 이렇다면 아예 연초제조장을 지어달라고 해야지, 명색이 엽연초의 본고장이라면서 체면이 이게 뭔가 안 되겠네 아예 담배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세.”

이렇게 즉석에서 이루어진 금호 회장의 단안은 뜻밖에도 전매청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대어를 낚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빛을 보게 된 광주연초제조장은 1972년 11월 11일 본촌동 양지부락 현지에서 착공되어 1976년 5월 27일 전국 최대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게 된 것이다.

좌절된 광주여자대학 설립의 꿈

금호 회장은 당시 정부가 광주권을 호남고속도로 노선에서 제외시키려 했던 일이나 도로 연변 도시 진입로를 평면화하려던 그 의도에 반하여 끝내 요구 사항을 관철함으로써 이 고장의 지역개발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남 푸대접론’의 불씨를 키운 결과를 빚었으며 집권 공화당 정부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후유증은 엉뚱하게도 금호 회장의 일생일대의 소망인 광주여자대학의 설립과정에서 그 부작용이 드러났다. 금호 회장은 원래 여성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광주중앙여자중고등학교를 세운 것도 광주여자대학 설립을 위한 한 과정이었다. 당시 광주에는 전남여고와 광주여고, 수피아,

사레지오 등 여자고등학교가 10여개에 달했으며 광주·전남을 합쳐 한해에 3천5백명 가량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2년제 초급대학을 제외하면 여자종합대학은 없었다.

그때만 해도 보수적이어서 다 큰 딸자식을 남녀공학인 전남대와 조선대에 보내기를 꺼렸고, 서울에 이화여대와 숙명여대가 있었지만 객지에서 하숙시키기가 곤란하여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으로 학업을 끝내고 말았다. 따라서 금호 회장님은 여자대학을 만들어 이들에게 향학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었다.

더구나 부산, 대구 등 주요도시 모두 여자대학이 있었지만 광주·전남에만 없었다. 그래서 1964년부터 운암동 일대에 학교부지 3만8천평을 마련하고 1966년부터 기초공사에 착수하는 한편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번번이 반려되다가 1971년 5월 17일 드디어 가인가를 받았다.

■ 학교법인 죽호학원 학생들과 함께(가운데 박인천 회장, 왼쪽은 최태근 이사장)



이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고 1972학년도 학생모집 조정인가 신청 등 본인이 신청을 하는 한편, 그해 8월 1일 광주여자대학 신축기공식을 가졌다. 11월 30일에는 본부 건물과 기타 강의실 등을 완공했고 교수진 확보에 이어 학생모집 광고를 냈다.

그러나 1971년 12월 28일 문교부는 문교정책에 의하여 대학 설립을 승인할 수 없다며 본인이 신청서를 반려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문교행정 사상 이러한 억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금호 회장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처사에 아연해 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진정서를 올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왔을 때도 여자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결국 전남근대화운동에서 금호 회장님은 지역사에 빛나는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

무등산 사랑 운동의 아버지

무등산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의 원조 역시 금호 회장님이다. 50년대의 무등산은 일제의 산림 수탈과 6·25로 인한 황폐화에도 불구하고 전인미답의 원시림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당시 호랑이가 나온다는 이원시림을 헤치며 6·25이후 첫 탐사가 금호 회장님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원효사 골짜기 등 천혜의 비경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세상에 빛을 보게 한 것도 금호 회장님이다.

전라남도 물산공진회를 개최한 이듬해인 1958년 여름 금호 회장님은 무아 최태근 선생과 함께 원효계곡에서 며칠 동안 휴양을 했다. 자동차편이 없던 때라 걸어서 그곳까지 갔으며 숙박은 원효사에서 했다.

그때 금호 회장님은 그 절경에 탄복했다. 이렇게 좋은 절경을 헛되이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조사단을 만들어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발굴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작은 결심이 씨앗이 되어 1959년 5월 무등산개발추진위원

회가 구성되었다. 거도적인 추진기구로 발족된 이 추진위에서 금호 회장님은 무등산개발조사대를 파견하기로 하고 직접 조사대장을 맡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무등산 전역을 답사했다.

이 조사대에는 명승고적반, 녹화반, 토목반, 건축반, 등산관광반, 사진반 등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나는 그때 이 조사대의 총무를 맡아 금호 회장님을 수행했다. 육순을 바라보는 춘추였지만 증심사 주지 종상 스님의 안내로 길도 없는 숲과 골짜기를 헤쳐 나가며 오히려 젊은 대원들을 이끌었다.

■ 무등산을 전부 돌고 난 이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가운데 박인천 회장, 맨 왼쪽이 필자)



이 조사 활동은 그 뒤로도 계속돼 모두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고적보존에 대한 대책, 삼림녹화계획, 도로개발에 대한 설계, 등산로의 개척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수백 면에 달하는 무등산 사진집 발간도 실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뒤로도 조사대원들은 염색한 군용점퍼에 주먹밥을 허리에 차고 숲과 골짜기를 누볐다. 그리고 조사대의 차원을 넘어 동지적인 우정으로 결속되었다. 마구 나무를 베어내는 수백 명의 나무꾼을 설득하고 감시하고 붙들어 나무라기도 했다. 더러는 나무꾼들로부터 단속원으로 오인 받기도 했고 학동 출신 시의원으로부터 “동네 주민의 살길을 막는다.”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산림보호를 위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초소의 설치운영비나 경찰관의 숙박비는 금호 회장이 사비로 부담했다. 이로 인해 원효계곡과 윤필봉 일대의 아름다운 적송림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조사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통부로부터 무등산을 관광지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주 시내와 원효사간 도로의 개설이었다. 시·도비 보조금 약 6백만원을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공사 소요액이 8백만원에 이르러 2백만원이 모자랐다. 금호 회장은 궁리 끝에 이 부족액을 사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는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이던 호남토건(주) 사장 남용진^{南容鎭}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때만 해도 공공의 건설공사에는 울력이라고 해서 노임도 없이 수혜 지역민의 노동력을 동원했는데 이 노력동원에 참여한 충효동 주민들의 열성이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냐하면 잣고개가 이들 부락과 광주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고개에 큰 길을 내는 게 이들의 한 맺힌 소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이 추진위를 이끄는 금호 회장님에게 깊은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사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항간에서는 금호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싹트었으며 시의회에서는 한때 수의 계약이 위법이

라 하여 문제를 삼았고 광주시장이 계약무효를 선언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다.

오늘날 광주-원효사를 잇는 쾌적한 관광도로는 이러한 우여곡절의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어쨌든 오늘날의 무등산에 관한 문화자원이나 사료, 유적, 유래, 전설, 자연지리 등에 관한 지식의 모든 근간은 금호 회장님의 무등산개발추진위원회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초대 광주·전남학 생산악연맹 회장과 전라남도관광협회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는데 이때 이 고장의 문화 관광자원을 망라한 「전남관광자원」이라는 책자가 간행되었고 한려수도, 지리산, 백양사·내장사 등이 대한8경으로 선정되어 전남관광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줄거 『무등산』도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밝혀둔다.

“한눈 팔지 마라, 한 우물을 파라”

금호 회장님은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었다. 광주상의 사무국장이던 박찬직씨를 비롯해서 최경식, 김희성, 국채정, 송화식, 최태근, 최상채, 최동문 제씨들이 그분들인데 일정하게 만나 는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충장로5가 삼산당약국에 모여 매일같이 식사를 함께 하거나 차를 마셨다. 이들의 모임은 말하자면 이동사랑방이었던 셈이었다.

이 이동사랑방은 금호 회장님의 씽크탱크이기도 했다. 이런 저런 대화 속에 지역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서로 토론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때마다 금호 회장님은 엄지와 중지를 딱 치면서 “됐다, 한번 해 보자.” 하고 일어서서는 상공회의소로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 호남선 철도 광주역 직통 문제나 전남근대화운동 등이 이동사랑방에서 나온 아이템들이었다.

그때마다 우선 그 아이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건의문 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건의서가 작성되면 금호 회장님은 서류만 그냥 관계당국에 보내는 법이 없었다. 반드시 직접 부처 장관이나 관계 기관장을 찾아가 만나시는데 으레 건의문을 2부 작

성해야 했다. 한 부는 건네주고 다른 한 부는 들고 보시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광주상공회의소의 건의활동은 상당한 위력이 있었다. 자유당 때 잠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다 박정희정권 때는 폐지된 터여서 민의를 전달하는 기관이 사실상 없었던 때였다. 당시는 시민운동도 활발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시청이나 도청에서도 쓴 소리는 아예 덮으려만 들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는 상의법 제4조에 의해 상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자문에 응하게 돼 있었다. 따라서 금호 회장님은 이것을 십분 활용한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종필 총리, 송호림 전남지사 등 누구를 막론하고 지역경제 문제에 관한 한 면전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석에서의 이 같은 건의는 사실상 많은 실효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것이 호남푸대접 시비의 단초가 되기도 했고 서슬이 퍼렇던 그때 정권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 나주-목포를 잇는 최신 버스를 전라도에 처음 도입해 운행했다.

주변 측근들이나 의원들이 은연중 염려하며 자제를 권유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금호 회장님은 “관공서에서는 몸을 사리니 내가 나설 수밖에 더 있는가.” 하며 개의치 않았다.

금호 회장님은 상의회장 재임 중 각 분야에 걸쳐 그 많은 건의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세금 부분에 대한 건의는 거의 없었다. 기업하는 사람이 나라에 바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며 원칙에 위배되는 사적인 이익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호 회장님의 신조였다.

그의 철도수송 개선운동도 그의 공인정신을 돋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육로 운송업자인 금호 회장님이 취임 이후 계속된 건의활동 중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철도수송의 개선운동이었다. 주위에서는 “철도수송이 원활하면 버스운송이 지장을 받을 텐데 왜 저리 철도운송에 매달리는지 알 수 없다.” 고들 수군거리기도 했다.

금호 회장님은 기업인으로 입신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기회마다 스스로 정도라고 생각하는 본업 이외의 분야에서 투자 유혹을 많이 받아 왔다. 당시만 해도 극장이라면 수익성이 좋은 기업에 속했다. 실제로 극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쓸어 모은다고들 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극장 운영을 권했다. 또 너릿재 사건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신문에 시달리게 되자 회사 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신문사를 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금호 회장님은 언제나 단호하게 “한눈 팔지 마라, 한 우물을 파라.”는 것이었다.

각 분야의 사회단체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섭을 받았고 한때는 국회의원 공천을 제의받기도 했지만 일언지하에 이를 사양했다. 다만 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이 상공인으로서 이를 떳떳이 여기고 있었다.

금호 회장님이 기업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우물 정신’ 외에도 철두철미한 차량 정비점검과 정시 운행의 원칙이었다. 이것은 뒤에 금호그룹의 기업정신으로 승화되어 고객만족 경영으로 정착되었다. 아시아나가 신설사로서 경쟁사와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하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월급은 받았느냐’

지금도 내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새겨져 있는 금호 회장의 모습은 광주상의회가 어려웠던 때의 일이다.

“월급을 받게 되겠느냐, 어떻게 월급은 받았느냐?” 이것이 금호 회장의 통상적인 관심사였다. “전남방직에 가 보라, 회비를 줄 것이다. 그걸로 이 달치 월급을 줘라.” 월급날이 다가오면 금호 회장은 고액의 회비를 내는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어주시곤 했다.

한번은 걸어서 전방까지 갔다가 허탕을 친 적이 있었다. 월급이 없이는 하루가 막막한 직원들이 실의에 젖어 있을 때 광주여객 경리과에서 전화가 왔다. 광주상의회에 돈을 입체^{立替}해 주라는 회장의 전화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뛰는 듯이 달려가 돈을 타다가 직원들의 월급을 해결했다.

1965년 가을 전남산업박람회를 마치고 났을 때 금호 회장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동안 어려운 일 치르느라 애 많이 썼제.” 하시며 “양복점에 부탁해 놓았으니 가서 옷 한 벌 맞춰 입소.” 하시는 것이다. 전남근대화운동 때도, 그 뒤로도 때때로 그러셨다. 또 전남제사에서 양단(고급 실크 옷감)을 생산했을 때는 나의 어머니와 내자에게 주라고 옷감 두벌을 주셨다. 나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당시 기관장들이나 기업인 사이에 최고급 선물이 양복이나 양단 옷감이었다.

금호 회장님께서 무슨 큰일을 치르게 되면 으레 가만히 불러 반드시 치하를 해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셨다. 내가 1972년 사무국 차장으로 승진했을 때 사령장을 주시면서 “그동안 자네가 쓴 건의서가 수백 통은 될 것이네.” 하시면서 치하해 주셨다.

나는 그 어르신인 업무상 분부를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단 두 번 그분의 사사로운 말씀을 거스른 적이 있다. 언젠가는 광주여객에 와서 “내 일 좀 봐주소. 영업과장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네.” 하시면서 내 의향을 물으셨다. 뜻밖의 말씀이어서 잠시 망설이기는 했으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광주상의회에 계시는 동안만은 그냥 이대로 계속 모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시 월급으로 치면 광주상의보다 광주여객이 월등히 나왔기 때문에 회장님은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자 마땅치 않게 여기시는 눈치였다.

그 뒤 삼양타이어가 미국 유니로얄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타이어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금호가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은 것이다. 이때 금호 회장님이 또 나를 불러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셨다. “자네가 영업부장을 좀 맡아줄 수 없겠는가.” 나는 이 말씀에 또 심정이 착잡해졌다. 회장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았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판을 굳히고 있는 회사의 영업부장이라면 기업의 야전군 사령관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런 훈련을 쌓은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공익단체에서 정해진 일만 하다가 대기업 영업부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또 국제감각이나 외국어 실력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신이 없었다. 회장님에게 이러한 나의 심경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때도 회장님은 나를 바라보시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다. 두 번이나 몹시 섭섭하게 여기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1974년 6월 2일 나의 큰 아이 상철이 혼례 때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전날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있었다. 광주상의로서는 최고의 행사였다. 온 직원들이 정신없이 뛰고 있는 판인데 나는 큰아이 예식이 있어 서울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 회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자네 큰 놈 여우는데 꼭 들여다봐야겠지만 자네가 알다시피 오늘 늦게나 일정이 끝나게 되어 있으니 어찌겠는가, 자네한테 미안하게 됐네.” 그러고는 축의금을 건네주셨다. 나는 바쁘신 중에 우리 아이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는 그날 늦게 서울에 도착해서 다음날 식구들과 예식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금호 회장님이 미리 나오셔서 식장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못 가게 되었다고 집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하

면서 이십여 년 동안 한 식구처럼 일을 봐준 직원이 아들 첫 개혼을 한다는데 당신이 안가면 쓰겠느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고 내 등을 마구 떠밀어서 밤에 차 타고 왔네.” 나는 말문이 꼭 막혔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서 가서 일 보소.” 나는 그저 인사를 올리고 돌아섰지만 가슴이 저리는 듯했다. 그분 가신지 어언 31년, 그 텅 빈 듯한 세월이 그저 속절없기만 하다.



■ 창업 당시 택시

■ 고아의 어머니 박순이 원장

1950년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모 잃은 고아들이 늘어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고아원들이 곳곳에 들어섰다. 이들 고아원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막대한 구호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빼돌려 사육을 채우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진정한 고아의 어머니로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친 분이 바로 광주 충현^{忠峴}영아원 원장 박순이^{朴順伊}(1921~1995) 여사다. 이 영아원은 일반 고아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찌꺼기만을 받아들여 보살피고 양육하는 영아 보육원이었다.

박순이 원장은 1921년 광주시 양림동에서 태어났다. 나주군 반남면에서 태어난 아버지 박태삼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 박애신은 우월순(Robert M. Wilson) 선교사댁에서 일하게 되어 박순이는 어머니를 따라 광주 양림동 선교부로 이사해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08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파송된 우월순 선교사는 일곱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와 광주 양림동에서 복음 전파와 치료를 위해 광주기독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자녀들을 돌보고 함께 동역할 한국 사람을 찾다가 박애신을 침모로 채용하였던 것이다. 박순이 원장의 어머니 박애신은 우월순 선교사의 가족을 위해 한복과 세라복 등을 만들었는데 일곱 자녀들이 박애신을 아주 잘 따라 ‘애신’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박순이 원장은 선교사들과의 생활을 통해 영어도 능통했기에 선교사들에게는 한국말 선생이기도 했고 성경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양림 교회에서 반주 활동을 했으며 오웬기념각에서 여성교육자 김필레 선생의 성악 발표회 때 반주를 맡을 만큼 피아노에도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1937년 그녀가 수피아여학교 4학년생 때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폐교되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전남여고에서 학업을 마쳤다. 1968년 수피아 개교 60주년 때에는 수피아여고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청년 음악가 김생옥과 결혼

박순이 원장은 1944년 동경도 나가노구에 있는 일본고등음악학교에서 성악(바리톤)을 전공한 김생옥(金生錫)과 결혼하였다. 그는 신안 안좌도 출신으로 음악을 사랑한 청년이었다. 김생옥은 1944년 경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목포에 돌아와 1945년 11월 1일 목포중학교 (현 목포고등학교)에 부임했다.

동경 유학생 성악가와 신여성 피아니스트와의 결혼이라고 화제가 되었던 행복한 결혼생활은 안타깝게도 4년밖에 가질 못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일어나 남편은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남편과 함께 유럽 유학의 꿈에 부풀어 있던 박순이 원장의 당시 나이는 27세였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박순이에게 미국으로 철수하던 선교사들이 함께 가자고 제안 했지만 거절했다. 박순이는 당시 밥을 먹을 수 있는 고아들을 누군가 돌볼 수 있었지만 젖먹이 영아들은 돌보지 않아 신생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때마침 선교사의 철수로 사택이 비어가자 그녀는 양림동 선교부 건물을 빌려 달라고 요청해 1949년 ‘충현 영아원’을 설립해 젖먹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6·25한국전쟁으로 고아들이 넘쳐나게 되고 날이 갈수록 영아들이 불어나 수용인원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박순이 원장은 결국 어머니 박애신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 양림동 210번지, 210-1번지 부지와 건물 3동을 광주YWCA 김정현 회장과 장장로 부부로부터

오천만환에 매입하여 1952년 5월 1일 이사하였다.

유화례 선교사를 후원 회장으로,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광주지구 선교사 커밍스, 녹스, 카딩턴, 윌슨루트 및 백영흠 목사, 김상옥 한의사, 광주 보이스 카우트 창설자인 김학준 선생이 후원 회원이 되었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 왔다. 그 무렵 박순이 원장이 돌보던 아이들은 120명이나 되었다. 그녀는 젖먹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는 절대 눕히지 않고 반드시 가슴에 꼭 안고서 우유를 먹이는 등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 충현아동병원

1976년 박순이 원장은 네덜란드 아동재단 후원으로 충현원 안에 아동전문병원을 세워 보육시설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박원장 남매도 고아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박원장은 영아들을 친자식처럼 정성들여 보육하였는데 자기자식 남매도 고아들과 똑같이 먹고 자게 했던 이야기는 지금도 유명한 일화이다. 박순이 원장은 1남 2녀(입양딸 1명 포함)의 자녀를 두었다. 첫째 아들 김양겸은 노래를 아주 잘해 당시 음악선생에게 발탁될 정도였다. 하지만 박순이 원장은 아들이 음악을 전공하는 것을 원치 않아 공과대학에 진학하게 하였다. 김양겸은 유혜량을 서울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면서 만나 1974년 결혼해 2남 1녀를 두었다. 한편 불의의 사로로 인해 1989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던 유혜량은 시어머니 박순이 원장이 작고하자 미국 생활을 접고 광주로 돌아와 현재까지 충현원을 맡고 있다.

광주청년회의소는 박순이 원장의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60년 창립 기념식수를 했다. 지난 세월만큼이나 크게 자란 나무는 오늘도 한여름에 짙푸른 잎을 드리운 채 서 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육원을 운영하던 박순이 원장은 정부의 지원에 한계를 느끼게 되자 네덜란드 아동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영아들의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아 이때부터 영아원은 모든 원아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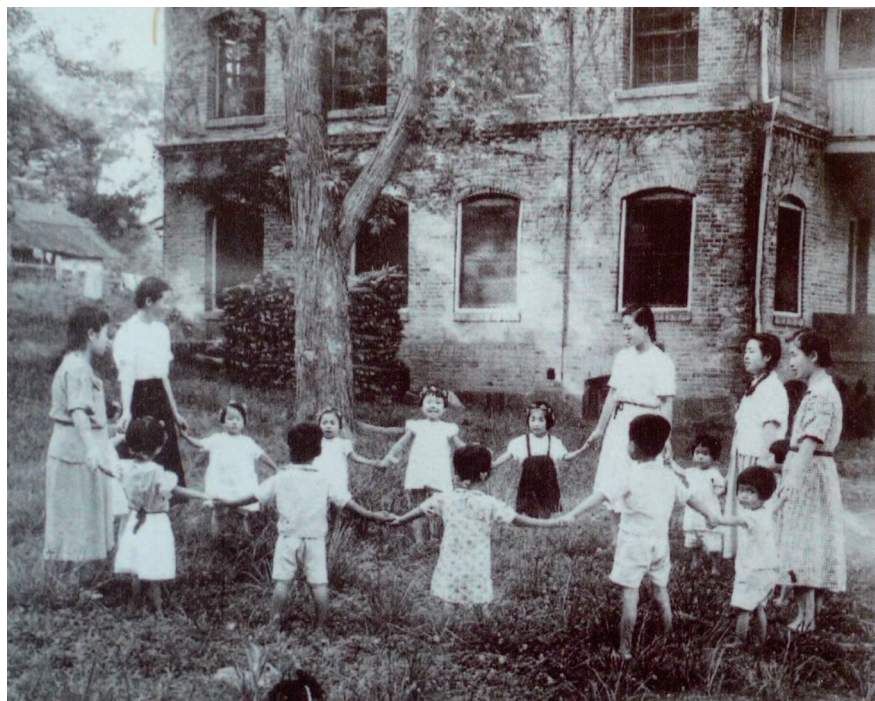
1971년에는 충현아동상담소를 개설하여,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한편 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입양시키는 등 특히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길러낸 원생 중 국내외에 4,700여명을 입양시켰으며 이들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국내외에 정착하고 있다.

1972년부터는 충현어린이집도 시작했다. 박순이 원장은 1976년 네덜란드 아동재단 후원으로 충현원 안에 아동전문병원을 세워 보육시설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였다.

70년대 이후 국내 경제 발전에 따라 고아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미혼모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되자 ‘충현아동상당소’와 ‘충현영아일시보호소’를 개설하여 미혼모와 그들의 출산영아들을 돌보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1981년 1월에는 양림동에서 지방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해 1984년에는 쌍촌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통합 운영하였다. 또한 쌍촌노인정을 설립하여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종합적인 사회교육기능을 갖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2013년 8월 자진 폐쇄하였다. 1992년부터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설하여 거동을 못하는 노인과 소외계층을 가정으로 방문하여 이들을 돌보았다.



■ 우월순 사택에서 시작한 충현원 원생들과 함께한 박순이 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박순이 원장은 영아들을 친자식처럼 정성들여 보육하였는데 본인의 자녀도 고아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하게 했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 JCI 창립기념식수

광주청년회의소는 증현원의 봉사와 헌신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60년 2월 23일 창립 기념식수를 했다.

당시 충현영아원은 어린이 사업뿐 아니라 광주의 청소년들이나 YMCA, YWCA, 청년회의소(JCI)들의 집회 장소로도 활용되었는데 필자는 이곳에서 ‘씨알의 소리’를 창간한 함석헌 선생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곧은 성품과 광주 고아의 어머니로서 존경을 받아오던 박원장은 74세이던 1995년 2월 1일 고인이 되었다.

1990년과 1991년 필자가 제창하여 ‘광주시민대상’ 수상자로 두 번이나 직권 추천되었으나 본인의 완강한 사양으로 상을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섭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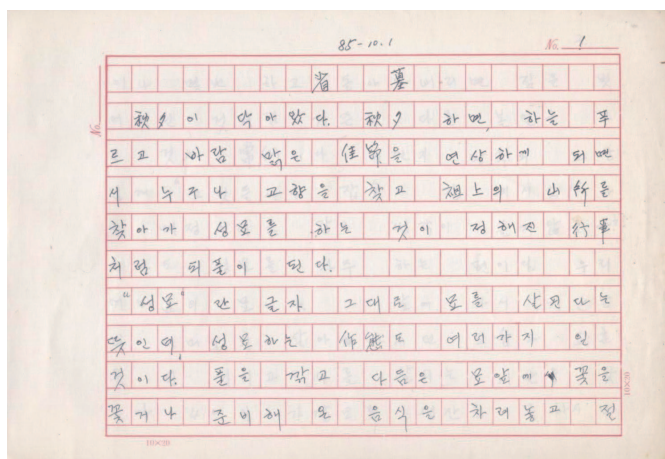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맺어

생전의 박순이 원장은 이렇게 회고하였다.

“한국 전쟁의 고아들은 몸도 마음도 성치 않았죠. 저는 여자이고, 미망인이었고, 연약했어요. 이 과업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죠. 하지만, 전 지난 36년 동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고, 저 또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인이 된 지금은 충현원에 묘석이 세워져 어머니 애신, 남편 김생욱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있다.



■ 생전의 육필원고

또 박순이 원장은 1985년 10월 1일 육필원고 ‘성모^{省墓}’에서 다음과 같이 적어두고 있다.

나는 성모를 자주하는 편이다. 우리 어머니의 묘이다. 그 앞에 가서 지난날의 어머니의 살아가시던 모습과 교훈을 되새기고 나를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40이 가깝도록 생산을 못하시다가 딸을 하나 얻었으니, “불면 날까 쥐면 깨질까”의 소중한 아기였으리라. 강아지처럼 사랑해 주시고 공주처럼 참하게 길러주시고... 었을 것인데 그런 표현은 조금도 안하시고 때로는 엄격한 얼굴을 하실 때가 더 많이 느껴졌다. 그런데 웬일일까? 내가 자라고 성인^{成人}이 되면서 내가 몰랐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내 가슴속 깊은데서 쉬지 않고 곱게 흐르는 계곡물처럼 흘러 넘쳐 온 몸에 담뱃 느끼게 된다. 그 사랑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는 내게 큰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갈등으로 방황하게 될 때는 소리 없이 나를 도리켜 세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무량^{無量}한 어머니의 사랑의 반침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바로 서서 반평생^{半平生}을 그늘진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傳達}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외로움에 떠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있는 힘을 다 해 왔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과 같이 공유^{共有}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무척 애를 써 왔다. 내가 자신^{自信}이 없어 질 때는 어느 사이 내 곁에 어머니의 손길이 와 닿는다.

고아들의 어머니로,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의 친구로 한평생을 보낸 박순이 원장은 이렇게 때때로 어머니의 묘^墓 앞에 서서 어머니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나 다시 살펴보고 자신의 ‘사람 사랑’ 마음을 다짐 하였던 것이다.

박순이 원장이 고인이 된 이후 방치되었던 충현원은 개원 60년 만에 복원 공사를 실시해 지난 2012년 새롭게 재탄생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광주광역시의 도움으로 국내 현존 보육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충현원이 이제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생명존중의 역사체험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으며, 사회문제 예방 사업인 제중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필자는 광주를 ‘사랑의 도시 광주’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가 생전에 누님, 누님하고 불렀던 박순이 원장은 사랑의 도시 광주의 씨앗과 같은 분이었다.



■ 충현어린이집 · 호남사회복지관의 오래된 현판이 광주청년회의소의 창립수기기념비와 함께 나란히 있다. 지난 세월만큼이나 크게 자란 나무는 오늘날 한여름에 질푸른 잎을 드리운다.



충현영아원 건물 좌측 벽을 따라 송악이 무성하다.

■ 언론인 서두성

식민지시대 일본에서

광복 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험난한 시절에 내가 집안어른이나 형처럼 의지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있다. 서두성^{徐斗星}과 박인성^{朴仁成}이다. 모두 언론인이면서 이 고장 지식인 층의 선도적인 엘리트였다. 서두성은 마치 한말의 선비처럼 꼬장꼬장하면서도 성정에 군살이 없는 맑고 곧으신 분이었고, 박인성은 태생이 귀공자 품모인데다 외양으로나 품성으로나 군자의 덕을 지니신 분이였다. 두 분 모두 『광주 1백년』에 새겨져야 할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평양 출신인 박인성은 가족이나 활동 영역에 대해서 별반 자료가 없어 정리하여 기록하는 일은 훗날로 미뤘다. 다만 서두성은 4남 2녀의 유족을 남겼는데 그의 둘째아들 영진군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전남일보(이후 광주일보) 기자로 활약하고, 광주매일신문 사장 등을 지내면서 모으고 간직한 기록을 협조 받아 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1907년에 화순에서 태어난 서두성은 숭일중학교 재학 중 일본에 건너갔다. 약관 20대에 동경외국어대학교 전문부 불문과를 졸업했다. 이듬해는 동경 연예통신 기자로 입사했고 한때는 동경 송죽^{松竹} 영화사 조감독 생활도 했다.

서두성이 식민지시대 일본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음미하곤 했다는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의 시^詩 ‘동방의 등불’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인으로서 타고르의 조국 인도 역시 식민지 상태였으니 조국을 향한

이심전심의 마음이었으리라. 우리에게 친숙한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이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대엔 한 개의 등불이었던 코리아 / 다시 한번 그 등불 켜지
는 날에 / 그대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두려운 마음없이 / 머리높이 쳐들은 곳 /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성벽으로 / 세계를 조각조각 갈라놓지 않은 곳 / 진실의
심연에서 / 말씀이 용솟음치는 곳 / 끊임없는 노력 / 완성을 향해 팔을 펼치는 곳 /
우리들 마음을 이끌어 주는 곳 /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시인 타고르는 동양 최초로 1913년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인으로서 노벨문학
상 수상자가 되었다. 동방의 등불은 1929년 타고르가 일본에 들렀을 때 동아
일보 기자가 한국 방문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여겨 그 대신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이다.



■ 전남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교육 모습

서두성은 정신의 근대화, 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이런 깊은 관심은
여타 다른 언론인들과 차별화된 요소로 평가
된다.

전국을 휩쓴 ‘순풍에 돛을 달고’ 노래

서두성은 당시 일본에서 겪었던 온갖 설움을 노래로 승화시켜 ‘순풍에 돛을 달고’란 대중가요의 작사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 노래는 은방울 자매 등이 불러 전국을 휩쓸며 사람들을 눈물짓게 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뱃머리를 돌려서 외로히 저어가니 외로히, 외로히 저어가니 이밤
처량해 / 지난해 원망하며 속을 태운 옛사랑 흐르는 물결위에 흐르는, 흐르는 물결
위에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수필집 『시대보행^{時代歩行}』, 『생활염불』을 향문사에서 잇달아 출간 정신의 근대화, 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이런 깊은 관심은 한 자루의 붓으로 반평생을 이어온 그가 여타 다른 언론인들과 차별화된 요소로 평가된다. 타고르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고, 인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계몽, 의식의 변혁에 힘썼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서두성은 신문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향상 발전은 그 사회의 끊임없는 개혁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국민 교육의 재건, 시급한 문맹퇴치 운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함을 줄기차게 역설했다.

서두성이 고향에 돌아와 언론계에 첫발을 딛은 것은 1946년 4월, 서두성의 나이 40세였다. 조선중보^{朝鮮衆報} 사회부 기자로 입사, 그 후 48년 7월에는 호남신문 편집국장, 56년 8월 전남일보 편집국장, 60년 8월 전남매일 주필, 61년 호남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호남신문 개간을 단행하며

이은상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김남중이 주간 겸 편집국장을 맡았던 ‘전남신보’가 제호를 ‘호남신문’으로 바꾸고 사옥과 운전기를 이어 받았다. 호남신문은 1947년 8월 15일 해방 기념일을 기하여 전국 최초로

가로쓰기의 순 한글판 발행을 단행, 일간신문으로서 한글로만 쓰기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의 시작과 함께 광주·전남의 지역신문의 구도도 크게 바뀌었다. 1961년 5월 23일 시설미비를 이유로 전국에 걸쳐 1,200여 개의 정기간행물이 폐간되었는데 광주·전남에서도 광주신보, 남도일보, 순천일보 등이 폐간되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호남신문,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 그리고 목포일보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여기에 해방 이래 광주 지역의 대표적 언론으로 군림해 왔던 호남신문은 1961년 6월 21일 휴간되었다가 1962년 3월 31일 속간, 다시 1962년 8월 30일 지령 4,783호를 끝으로 종간했다. 귀속재산이었던 사옥과 운전기는 경매처분을 통해 전남일보로 낙찰되었다.

서두성이 필자에게 언론인의 길에 대해 강조했던 말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직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어야 할 직업이기에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전남일보 편집국장 시절

맨 오른쪽이 서두성 바로 옆이 사장 김남중이다.

이는 호남신문을 복간할 당시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의반 타의반 사장이 되어 경영을하기로 결심한 속내를 내비친 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그는 순간일자 신문 사설에 다음과 같이 심정을 토로했다.

과거 운영자들은 언론기관 운영자의 대원칙을 망각하여 적어도 정신적 환경을 표상하는 신문의 기능을 운영자 자신이 똑바로 이해치 못하고 그저 사업욕, 정치 도구화하여 그로 말미암아 종국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언론기관이란 정치적으로 철저한 독립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개혁운동의 내연^{內燃}기관이랄 수 있다.

언론 대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동인들은 업디어 아뢰옵건대 조국재건이란 우리 공동 목표 밑에서 향토사회 속에 생생한 공적 책임 의식의 향상을 기하는 하나의 발판 되기를 기약해야 한다. 오늘자로 개간을 단행한 호남신문이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여야 만이 진실로 본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시대의 젊은 신문을 자처하면서 이 고장 지역사회 발전의 하나의 동력체로 새 국면을 발휘하여야 할 것인데 기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서 자기 능력이 두려웁고 호남신문을 개간한 오늘 오직 한 자루 붓만이 무겁게 여겨짐을 고백한다.

절로 가겠다 승부 전 광주천 정비

서두성은 해방의 소리를 들은 수주 후, 광주서 백리가량 먼 화순 산촌에서 소소한 가사 도구를 마차에 싣고 광주천변으로 이사를 했다. 일제 때 중학을 광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무척 반가워했고 무등산 정기가 어린 광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환한 기분에 잠겼던 것이다. 면민, 읍민 보다는 시민이라는 칭호에 이유 없이 매력을 느꼈다.

서두성은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광주의 한복판을 가로 질러 흐르는 광주천의 환경을 깨끗이하도록 역대 시장에게 권장하였다. “광주시장은 광주천 행정만 잘한다면 전체 광주도시 행정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절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5·16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정비되기 전의 광주천의 모습은 쓸쓸하

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는 결코 도시미관만을 운운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광주천은 쓰레기 투기와 오물 유입으로 악취가 심각했다. 특히 양림교나 부동교, 광천교의 다리 밑에는 움집을 짓고 생활하는 교하촌^{橋下村}이 생겨 위생적으로 큰 문제였다. 그러나 이후 광주천이 정비되어 다행히 그가 절로 들어가는 일은 없게 되었다.



■ **서재에서의 한 때**

어디까지나 언론인이었던 서두성은 신문기사 뿐 아니라 '순풍에 돛을 달고'란 대중가요를 작사하고, 수필집도 잇달아 출간했다.

3년의 정치 생활

서두성은 어디까지나 언론인이었다. 그는 마지막 직책이 공화당 광주을구 사무국장이었다. 그러나 끝내 그의 정필만은 직책을 떠나 초당적 입장에서 원고지에 쏟아야 하는 생리를 어찌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글은 ‘대일해태분규^{對日海苔紛糾}의 조속해결을 바람’이라는 제목의 1965년 10월 23일자 전남일보 사설이다. 이 사설에서 그는 해태분규의 원인제공자가 일본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제적 상도의를 무시한 일본을 수수방관한 정부의 무능도 성토했다.

그는 밤새도록 쓴 전남일보 사설원고를 가지고 신문사로 가다가 금남로 YMCA앞에서 뇌일혈로 쓰러졌다. 사람이 58세라면 환갑이 가까운 나이로서 정신력이 쇠퇴해 글을 쓴다는 것이 여간한 고역이 아닐 터인데 서두성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원고를 써서 신문에 기고했던 것이다.

그 시절 언론인이자 정당 활동을 함께 했던 김재희는 “시절의 부침으로 질질 끌려가다시피 공화당에서의 정당 활동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당무에 아주 열정적이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고생도 팔자라고 아랫사람에게 시켜서 될 일까지도 스스로 맡아서 하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었다. 그리고 정당을 하면서 비로소 사람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당사회에 있어보니 언론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인간성의 다양한 측면을 새로 알게 됐다는 뜻으로 그는 평소에 신체가 허약한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가운데 3년 가까운 정당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언론인장

1965년 10월 28일 오전 9시 50분, 향년 58세를 일기로 운명한 서두성의 장례식은 31일 오후 1시 전남언론인장으로 거행됐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조화가 식장을 메운 가운데 신용우 지사, 안용백 교육감 등 시내 각 기관장과 조객, 언론인은 애도사를 통하여 ‘언론인의 귀감인 고인의 생애는 너무도 가시밭길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날 유해는 고인의 후배들이 발인하는 가운데 평생동안 그가 거닐던 광주의 거리에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를 맞으며 시내 방림동 유택으로 향해 떠나갔다.

기자 30년에 굵이굵이 아로새겨진 짜릿짜릿한 애환이 있다. 그는 셔츠 목 둘레가 14인치 반으로 허약한 체질에 고혈압마저 겹쳐 항상 걷기에도 부자연하였다. 붉은 줄무늬테 안경이 늘상 얼굴에 붙지를 않아 콧잔등을 손가락으로 밀



■ 전남 언론인장으로 집행

1965년 10월 31일 오후 1시, 서두성의 장례식은 전남 언론인장으로 집행됐다. 이날 유해는 그가 거닐던 광주의 거리를 거쳐 방림동 유택으로 향해 떠나 갔다.

어 올리던 서두성은 이 고장 언론인들과 친자들에게 서주필, 서국장으로 불리우며 생을 마쳤다.

시간이 지나도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갔다. 시인이자 언론인이었던 허연^{許演}은 1965년 11월 25일 전남공론^{全南公論}에 추모시를 실었다.

아, 슬픈 강물은 굽이치다가
오늘은 어디메로 흘러가려오
은물결 거친물결 넘나드는데
멀리고 떠다밀린 그리운이여
우리는 이강산도 울어예리다
斗星님 붓끝처럼 지켜주소서

아, 아픈 마음은 굽이치다가
내일은 어디메서 쉬어가려오
비바람 하늬바람 몇을새없이
몇리고 휘뿜리던 그리운이여
우리는 이강산도 울어예리라
斗星님 붓끝처럼 지켜주소서

서두성에 대한 슬프고 착잡한 심정과 함께, 같은 언론인으로서 지키고싶은 시대적 아픔과 정신이 배어 있는 애달픈 노래이다.

신문의 날에 세운 묘비

제18회 신문의 날 행사가 하루 앞당겨 치러진 1974년 4월 6일, 그가 작고한지 10년 후 되는 해에 서두성의 묘비 제막식이 있었다. 한식날 오후 2시, 방림동 뒷산 골짜기 한적한 곳에 자리한 그의 묘앞에는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인사 2백여명이 모여 고개를 숙였다.

그의 비문에는 노산 이은상^{蘆山 李殷相}의 시가 새겨져 있다.

그대 병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으로 어려운 고비 이겨
깨끗이 살고 간이라 그댄 참사람이었네
그대 몸은 비록 약하고 여위었어도
붓은 어찌 그리 곧고 강하던고
굽힘도 꺾임도 없이 그댄 참 언론인이었네
머리를 서로 맞대고 같이 지내던 인연이라
남은 동지들 모여 앉으면 그대 이야기
내 이제 시를 바치고 두손 모아 명복을 비네

■ 되찾은 국토 산사랑 나라사랑

1956년 봄에 홍종인 한국산악회장과 이승녕^{李崇寧} 교수 일행이 광주에 왔다. 산악회 결성 1주년을 축하할 겸 무등산에 처음 오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한라산 적설기 등반 사진과 산악장비 전시회, 산악강연회, 간담회 등 대규모 산악행사를 개최하였다.



■ 원효사에서 원효계곡을 바라보며 (1957년)

오늘날 이 계곡은 집단시설 지구가 되어 많은 상가와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를 통하여 산악운동이 곧 국토의 보존과 애호운동이요 자연보호운동이라는 인식을 복돋워 주었는데 이것은 광주지방으로서의 최초의 산악행사가 된 셈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홍회장 일행은 이 고장 회원들과 함께 무등산 친목 등반을 했다. 이때 홍회장은 우리에게 지리산 등반을 제안했는데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즉석에서 4월 하순 곡우날로 등반 일자를 정했다.

경찰 호위 받으며 지리산 등반

광주에서는 김학준, 강동수(전 일신방직 전기과장), 강희복(무안군 교육감 역임)과 필자가 약속된 날 하루 앞서 구례에 도착하여 이튿날 구례구역에서 홍회장 일행을 맞았다. 이때 홍회장과 함께 온 사람으로는 김근원^{金槿原}(산악사진가), 윤두선^{尹斗善}(전 설악산 백담산장 주인)이었다.

일행은 마침 점심때인지라 구례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식당을 찾아 비빔밥을



■ 한국전쟁 후 무장경찰관의 호위를 받으며 최초로 지리산 등반을 하였다.
뒷줄 왼쪽부터 무장경찰관 2명, 김학준, 홍종인, 화염사 주지, 필자, 김근원, 윤두선

먹었다. 이때의 비빔밥이 어찌나 맛이 좋았던지 일행 중 윤두선은 그 뒤 30년이 넘도록 매년 한 번씩 지리산 등반을 하면서 그 식당을 찾아 비빔밥을 먹었다고 했다.

그날 우리 일행은 점심을 먹고 나서 입산 인사차 구례경찰서를 찾았더니 정순석 서장이 깜짝 놀라면서 극구 만류했다. 그는 아직도 지리산에 빨치산이 있어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입산을 삼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회장은 초지일관이었다. 정서장은 하는 수 없이 치안국 등에 연락을 취한 뒤 결국 등산은 허락했으나 일행의 안전을 위하여 중무장한 전투경찰 1개 소대의 호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당국의 폐를 끼치면서까지 부담스러운 등산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사정사정하여 경찰관 3명의 호위를 받기로 최종 합의를 보았다. 그날은 곡우날이어서 사찰 주변은 약수를 마시러 모여든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사찰 주변을 돌아보고 첫날 밤을 사사자^{四獅子} 석등 뒤의 탑전에서 묵었다.

처음 본 버너와 코펠

이튿날 일행 9명은 불안한 마음과 흥분 속에 비장한 각오로 화엄사 쪽에서 등반을 시작했으니 이것이 6·25후 첫 지리산 등반이 된 셈이다. 이때 서울 대원들의 차림새는 신기하고도 화려했다. 그러나 이 보다는 그들의 산행 매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우선 홍회장에 대한 극진한 예우라든지 두 사람이 서로 다투어 짐을 지고 말없는 가운데 척척 일을 분담해 나가는 팀워크, 물자를 아껴 쓰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그들의 거동 하나 하나가 우리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일행이 지고 온 장비도 거의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휘발유 버너, 코펠은 말할 것도 없고 밤에는 닭털침낭에서 자는 것을 보니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등산길에 잠깐 쉬게 되면 홍회장의 룩색을 받아놓고 한 사람은 물을 길러 가고 다른 사람은 버너에 불을 피워 물이 끓으면 봉지를 던져서 빨갯게 우러난 홍

차를 마시니 이것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산행에 있어서는 높이 오를수록 홍 회장의 집을 털어서 나누어 지고 가는데 결코 홍회장을 앞질러 가는 법이 없었다. 선배를 정성으로 모시는 산악인 정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김근원은 사진기와 부속품 등 무거운 짐을 더 지고도 중형무진으로 뛰면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우리보다 갑절은 더 걷는 것 같았다.

그들에 비해 광주에서 간 우리 대원들의 차림새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작업복에 운동모자를 썼고 신발은 농구화 그리고 보이스카우트에서 빌린 배낭에 다 담요 한 장씩, 군용 A텐트와 비옷, 냄비와 쌀 그리고 반찬은 단무지에 된장이 고작이었다. 쌀을 일기 위해 바가지를 룡색에 매달고 갔는데 마치 “북간도 이민 가는 행색 같다.”는 홍회장의 지적에 화엄사에서 버렸다.

첫 지리산 산행에서 우리는 본격적인 훈련을 받은 산악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천신만고 끝에 ‘코재’에 이를 무렵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폭풍우로 철수

빗속에서 노고단에 도착하여 설영을 마치고 저녁밥을 지어 먹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심한 폭풍우로 변했다. 4월 하순인데도 기온은 빙점 이하로 내려가 추위마저 겹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일행은 야밤중에 부득이 천은사 쪽으로 대피기로 하고 천막과 짐을 꾸려 하산을 시작했다. 이때 경찰관들이 천은사까지의 밤길을 무사히 안내해 주어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 함께 온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이리하여 6·25후 이 지방 산악회가 발족되면서 처음 시도한 지리산 등반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으며 또 그때의 스틸과 흥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마 완전무장한 경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등산을 한 것은 등반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등반길에서 알게 된 김근원과 윤두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산악활동을 계속하여 원로 산악인으로서 후진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김근원은 산악사진가로서 개성적인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윤두선



■ **지리산 코재에서**

심한 폭풍우로 산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때의 산행은 산악인의 정신을 일깨워 준 좋은 계기였다. 맨 오른쪽이 필자, 김근원, 윤두선, 홍종인, 김학준, 경찰관, 강희복

은 설악산 백담산장을 맡아 산악안전과 조난 구조에 헌신하다가 1991년 지리산 등반 중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다.

이 무렵 구례에서는 우종수^{禹鍾秀}, 손재훈, 김열준 등이 중심이 되어 연하반^{燃霞伴}이라는 산악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지리산 등반로 개척, 명승고적 조사 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리산 등산 안내도를 작성하여 많은 등산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였다. 화엄사, 천은사 등에서부터 천왕봉에 이르는 등산로 이정표 3백60여개를 설치하는 활동도 하였다. 그 뒤에도 지리산의 국립공원 지정, 자연자원의 보호, 등반안내 및 산악구조, 지리산 소개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

잊을 수 없는 산악인 이남렬 李南烈

무등산악회의 지난 날을 더듬어보면 실로 많은 산악인들이 내 기억을 스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잊혀지지 않는 분이 바로 이남렬 형이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거리낌 없는 웃음과 금니, 어느 좌석에서나 분위기의 중심을 이루는 서글서글한 품성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서민적인 기질을 우리들은 무척 좋아했다.

그는 투병의 고통 속에서도 얼굴에 그늘진 데가 없었으며 웃음과 독특한 유머를 잃지 않았다. 몸져눕기 전까지는 산악회의 모임에 빠지지 않았으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다.

비록 50세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폭넓은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잘 알고 있다.



■ 1960년 1월 1일 새해맞이 등산길에
오른편부터 이남렬, 필자, 박원식



■ 충장로 5가에 있었던 신생청년회관
신생청년회는 정치에 초연한 문화운동단체였다.

그는 해방 후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친구들과 신생청년회^{新生青年會}를 조직하여 정치에 초연한 문화운동단체로서 문화 예술을 통한 자체교육과 계몽 활동에 주력했다.

한국전쟁 때에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피난 길이 막힌 인사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시국이 안정되자 무등산악회의 창립에 참여했다.

그는 각종 산악운동과 캠페인에 앞장섰으며 어느 모임에서나 풍부한 상식과 유머,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심성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산을 사랑하고 산악인을 사랑했던 그를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초기 산악운동의 기억들

최고의 자랑인 지리산과 한라산 등정 60년대 초 광주지역 산악회의의 가장 큰 행사는 지리산과 한라산의 장기 등반이었다. 설악산

은 교통문제로 엄두도 못 내고 지리산이나 한라산을 다녀와야 산악인 대접을 받았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히말라야 트래킹 정도에 비유될 만 했다.

전남대 산악회는 1958년 8월과 1961년 8월에 한라산을, 1959년 8월과 1961년 8월에 지리산을 등반하고 1962년에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무등산악회와 합동으로 동계 한라산 등반을 했다. 7월에는 농대산악회 최동식, 김용옥이 지리산을, 공대 산악회 박윤성과 장하송 등이 한라산 등반 후 바로 지리산을, 무등산악회도 7월과 8월 제3차와 제4차 하기 등반을 전남대 산악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선대 산악회에서도 창립이후 1965년에 한라산을, 66년 지리산, 67년 한라산을 매년 추계 등반과 1월 적설기 등반으로 분리 실시했다.

일고 산우회와 너털산악회도 한라산과 지리산 등반 러시를 이루었으나 모두가 어려운 산행이었다. 한라산 등반은 배가 목포에서 격일로 출항했다.

59년에 최동식 일행은 한라산 등반 후 사라호 태풍으로 배편이 막혀 일주일 동안 발이 묶였다. 62년 전남대 산악회의 8월 한라산 등반 때도 큰 고초를 겪었다.

최초의 산악 조난 사고 농대 산악회가 1959년 7월말께 김훈봉을 대장으로 고무석, 최원열외 5명과 목포에서 사라호 태풍으로 묶여 제주행 배를 기다리다 광주일고의 김양기, 조광용, 최임일 외 4명 등 모두 15명이 합류하게 되어 등반이 이루어졌다. 하산 후 이들은 태풍으로 물이 불어난 탐라계곡을 건너려다가 홍수에 휩쓸려 사망한 전남공대 오태근(장성출신) 조난사고 소식을 접했다. 그들은 제주도립병원 영안실을 찾아 조문하는 한편 조난 경위를 조사하여 이를 무등산악회에 전보로 보고했다. 급보를 접한 무등산악회 최명섭이 전남대 앰블런스를 목포 부두에 대어 장성까지 운구했다.

그러나 제주의 일행 15명은 돈이 모자라 7명만 먼저 가고 8명은 경리를 맡은 고무석과 최원열의 인솔로 여분의 쌀을 팔아 부둣가 ‘광주집’에서 23일 동안 머물렀다. 김훈봉 대장은 무등산악회 회원인 영풍상사 지사장을 만나 돈을 구해 2일 후 제주에 다시 가서 대원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당시 한라산 등정은 늘 어

려움이 뒤따랐고 많은 일화 중에서도 오태근의 조난사고와 윤구는 초창기 산악인의 동지적 우정의 생생한 사례로서 무등산악회의 자부심이며 보람이었다.

민간 산악회 활동

너덜산악회 1962년 무등산악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오종태, 최명섭 등이 창립기념 지리산 등반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산악운동을 전개했다.

지리산악회 연하반 1963년 구례의 연하반 산악회가 조직되어 우종수 회장을 중심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에 앞장섰다. 196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리산악회로 개칭, 지리산국립공원을 가꾸는데 전념하였다.

우보회 정상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양의 알피니즘보다는 자연 사랑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우보회가 1968년에 창립되었다. 초대회장에 정두하를 추대했는데 무등산을 소 걸음처럼 오르자는 슬로건에 동조하는 회원들이 100명에 이르렀다.

푸른숲 산악회 1970년 전남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푸른숲 산악회를 창립, 초대회장에 송규호를 추대하였다.

바자울 1971년 10월 24일 김성진, 장준길, 김병용, 오세근, 최창돈, 류조하, 윤장현, 최창렬 등이 창립, 초대회장에 김성진을 추대했다. 주로 하얀 산(눈 덮인 히말라야)을 지향했으며 근교의 암장, 빙벽 훈련과 준비과정을 통한 인격도야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광주지방의 초기 해외 원정사는 거의 바자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1~72년에 최초로 최창돈과 오세근이 히말라야 마나슬루 원정대에 참여했다.

일고 산우회 1961년 고광민 선생 지도하에 오병수, 김장영, 최창돈, 송용남 등이 광주일고 산악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2학년인 김양진을 선출했다. 1964년에 일고 출신 대학 산악 회원과 함께 일고 산우회를 결성해 산악 신흥운동을 기도했다.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광주 · 전남의 특징적 지역성을 일컬어 흔히들 문향^{文鄉}이나 예향^{藝鄉}, 혹은 의향^{義鄉}이라고들 한다. 광활한 평야지대의 풍요로움이 예^禮와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정신과 예악^{藝樂}을 즐기는 한량정신의 토양이 되었으니 그것이 곧 문향이나 예향으로 회자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평야지대의 풍요로움이 가림주구나 지주들의 착취를 불러 저항정신의 근원이 되었을 터이니 그것이 곧 의향의 연유일 것이다.

그러나 ‘문’과 ‘예’의 지역적 특성은 농도의 풍요로움이라는 인문지리적 풍토의 특성이지만 ‘의’는 이 인문지리적 풍토에 더하여 예로부터 일관되어 온 저항의 역사성이 이루어 낸 지역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원래 전라도 사람은 유약해 보인다. 그렇지만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휘어지는 단면을 배신과 변절로, 그리고 꺾이지 않는 대목을 기질적 부정심리로 왜곡하는 악의적인 역사를 겪어왔다.

호남의향의 본보기로 제봉 고정명^{齊峯 高敬命}은 자신과 두 아들과 딸, 그리고 두 동생과 질부, 두 노비까지 일가 9명을 임진왜란의 전선에서 나라에 바쳤다. 세계 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애국 충절이라 할 것이다. 3·1운동의 전기가 되었던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은 최원순^{崔元淳}을 비롯한 이고장 선각자들이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1920년대 초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인권운동, 즉 형평사^{衡平社}운동은 어떠한가.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인 이 형평사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획기적인 인권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까지 합세함으로써 항일운동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했다. 특히 광주는 형평사 운동 탄압의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렇게 깊숙이 자리한 저항의 역사성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연원이라 할 것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6월 초의 일이다. 광주시민들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인들로부터 모금한 위문금이 왔다. 당시 이 위문금은 광주 제17육군병원, 전남대 의과대학병원, 조선대의과대학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에 배분되었는데 이는 항쟁기간 동안 부상 시민들에 대한 의료 구급활동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광주 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광주기독병원 위문단을 맡았다. 허진득 원장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차남으로 필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허원장은 당시 시내의 험악한 상황을 직접 보고 겪은 바는 없지만 시시각각 병원으로 밀려드는 위급한 부상자들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짐작했다. 그는 부상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위문객들로부터 들은 이러저러한 사연들을 늘어놓으면서 내게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몇몇 시민들 사이에 끼어 한 여학생이 부상환자를 호송해왔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는 부상자를 부축하거나 병원 들것에 싣고 나르는 일을 거들고 있었다. 소녀티를 아직 벗지 못한 그 여학생은 앳되고 예쁘장한 모습이었다. 허원장이 특별히 그 여학생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상시민 호송을 거들던 그녀를 따로 줄 지어선 시민들의 헌혈 대열에서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넘쳐나는 부상 시민들로 말미암아 병원마다 피가 모자라 시민들의 헌혈을 받고 있었는데 부상 시민의 호송을 거들던 바로 그 여학생이 그 헌혈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며 서있었던 것이다. 이 광경을 본 허원장은 남몰래 가슴속으로 위대한 광주 시민정신에 대하여 경의를 표했다.



5 · 18 광주민주화운동

끊임없이 실려 오는 부상 시민을 돌보느라 허리를 펴 사이도 없이 하루를 보낸 허원장은 해질 무렵에 실려 온 또 한 사람의 부상 시민을 맞았다. 한 여학생이었다. 허원장은 이 환자를 마주하는 순간 마치 고압선에 감전된 듯 강한 충격을 받았다. 바로 오전에 부상 환자의 호송을 거들며 또 헌혈대열에 줄지어 서있던 바로 그 여학생이었다.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채 꽃봉오리로 머물어 있던 소녀의 교복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부상 시민의 호송을 거들던 바로 그 여학생이 이제는 주검이 되어 들것에 실려 들어온 것이다.

허원장의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내 가슴을 찔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3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새겨져 있다. 광주 5·18 민주항쟁의 실상과 광주 시민정신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광주 항쟁의 특징

1980년 5·18은 광주라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낸 세계사에 기록될 전 시민적 민주항쟁이었다.

항쟁의 규모나 희생의 정도 외에도 5·18은 우리 역사상의 민란이나 세계의 저항운동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항쟁을 이끄는 주동자나 지도자가 없었고 시위의 배후조직이나 동원조직·지휘체제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역사상 대소 민란이나 농민혁명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항쟁이라 할 것이다.

둘째는 계층이나 세대·남녀노소를 초월한 전 시민적인 항쟁으로 매일 수만 명의 시민과 학생이 전남대학과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 집결한 것이 불문율의 약속이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시위 현장도 최종 집결지는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이었지만 시민들이 골목을 나서 도로에 이



■ 유네스코 민주인권로

광주광역시에는 옛 전남도청에서 금남로3가 사거리에 이르는 518m를 2011년 9월 5일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로 지정했다.



■ **시민군들에게 주먹밥과 식수를 나눠주는 주부들**

거리거리마다 주부들이 시위 군중에게 김밥이나 주먹밥을 이어 나르고, 모퉁이마다 곳곳에 식수를 공급했다. ©나경택

르면 작은 집단을 이루고 몇 개 집단이 합류하면서 시위 군중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군중이 도청 앞 분수대 광장으로 행진하며 진압군과 맞섰고 시위는 전 시가지로 분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거리거리마다 주부들이 시위 군중에게 김밥이나 주먹밥을 이어 나르고, 모퉁이마다 곳곳에 식수를 공급했다.

셋째로 광주의 평화적인 민중시위가 계엄군의 의도적인 과잉진압에 맞서 결사적인 무장 항쟁으로 끝까지 저항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엄군의 진압작전은 평화적인 사태 수습의 한계점을 넘김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국군에 의한 전후후 무한 동족상잔이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넷째로 계엄군이 퇴각한 1980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는 교통과 통신·전력의 차단, 그리고 경찰력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암흑의 무법천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완벽한 치안유지와 사회질서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광주 시에는 7백여 금융기관의 금고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무장한 시

민군들 중에는 부랑자 시설의 수용자나 우범자로 오인될 만한 사람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그러나 단 한군데도 금고 피해를 입은 곳이 없었으며 현금 보유액 1,500억원이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일반사범이나 강·절도 등의 잡범도 평상시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도 광주 시민 정신의 위대함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5·18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에 의해 참혹하게 진압 되었지만 1987년 6월 항쟁의 뿌리가 되었다. 이후 1988년 5공 청문회를 거쳐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광주민중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광주 시민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1997년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유네스코는 2011년 5월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고 9월 5일 광주시에 UN인증서를 전달했다.





부 록

광주 1백년 연표





■ 1894년 ~ 1904년	176
■ 1905년 ~ 1914년	194
■ 1915년 ~ 1924년	229
■ 1925년 ~ 1934년	258
■ 1935년 ~ 1944년	293
■ 1945년	314

1894년

■ 광주·전남

- 2.15. -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일어남
- 4.3. - 동학군^{東學軍} 백산^{白山}에 웅거하면서 4대 강령^{綱領} 발표
- 4.27. - 동학농민군 광주 점령
- 4. - 동학군, 장성군 황룡에서 관군을 격파함
- 6.1. - 동학군 전주성^{全州城} 점령
- 6.12. - 동학군, 관군과 협상하여 자진 해산함
- 8. -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겸 상도수군 통제사에 김철규^{金撤圭} 임명
- 9. - 동학군, 각지에서 재차 봉기
- 12.7. - 동학군 공주^{公州} 접전에서 관군에게 크게 패함
- 12.28. - 전봉준^{全奉準} 순창^{淳昌}에서 체포되어 한성(서울)으로 압송됨
- 이 해에 - 광주목사 이희성^{李義性} 임명(~1895)



■ 전봉준

■ 국내·외

- 2.27. - 한성신보 漢城新報(일본어 판) 창간
- 3.29. - 김옥균 金玉均 상해 미국조계 上海 美國租界의 동화양행에서
홍종우 洪鍾宇에게 암살됨
- 7.25. - 청일전쟁 淸日戰爭 일어남
- 7.27. - 갑오경장 甲午更張이 시작되고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를 설치함
- 7.31. - 개국기원 開國紀元을 사용(고종 31년은 개국 503년이 됨)
- 12.17. - 중추원 中樞院 설치(군국기무처와 승정원은 폐지함)
- 12. - 의정부 議政府를 고쳐 내각 內閣이라 함



■ 청일전쟁

청일전쟁 때 제물포항에 상륙하는 일본군

1895년

■ 광주·전남

- 4.23. - 전봉준 등 동학지도자 처형됨
- 4. -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배유지^{裵裕祉} (Eugene Bell, 1868~1925)
목사 부부 나주로 이주함
- 6.18. -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나주관찰부^{羅州觀察府} 설치
초대 관찰사에 채규상^{蔡奎常}이 임명됨
 - 전국을 23부제^{府制}로 개편하면서 광주목은 나주부 관할이 됨
 - 당시 전라도는 전주·남원·나주·제주의 4개 관찰부가 있었음
- 7. - 광주목이 광주군이 됨
 - 광주군수에 김정규^{金敬圭}(~1897), 광주판관에 원종의^{元宗義}이 임명됨
- 9.17. - 광주 소학교(수업연한 3개년) 개교 (한국 정부의 소학교령에 의함)



■ 배유지

광주·전남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배유지 목사(1868~1925)

■ 국내·외

- 4.17. - 청일^{淸日} 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조인
- 4.19. - 을미개혁^{乙未改革} 단행(3.25~3.30. 개혁안 34건을 의결 공포함
재판소가 설치되어 행정과 사법이 처음으로 분리됨)
- 5.8. -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주로 하되 한자를 섞어 쓰도록 함
- 6.17. - 일본, 대만에 총독부를 설치
- 10.8. - 을미사변^{乙未事變} 일어남.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 대원군을 받들고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민비(훗날 명성왕후로 추존)를
시해함
 - 의병항쟁 시작됨
- 10.26. - 태양력 사용 결정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로 변경함)
- 12.30. - 단발령^{斷髮令} 공포(우선 9부 관원 및 군인·순찰 등에게 단발을 시행)
 - 연호^{年號} 제정. 개국 505년을 건양^{建陽} 원년으로 함

1896년

■ 광주·전남

- 1.28. - 광주 경양역景陽驛 폐지됨
- 2.6. - 나주에서 단발령에 항거하는 민란이 일어나 나주 관찰부 참사관
안중수安宗洙 피살됨
 - 나주 관찰사에 조한근趙漢根이 임명됨
- 2.16. - 나주 우체사郵遞司 개국(전주·남원과 함께 전라도에 처음 설치됨)
- 5. - 전라남도 경무서警務署를 광주 훈련청 자리에 세움
 - 1909년 동문통(현 충장로2가 자리)에 청사를 신축 이전함
- 8.4. - 전라남도가 창설되고(광주에 전라남도 관찰부를 둠) 칙령 제36호에
의해 지방행정제도 개혁으로 전국 23부府가 13도道 7부府 1목牧 33
개군郡으로 바뀜. 초대 전남관찰사에 군부협판軍部協辦 윤웅렬尹雄烈 취임
이때 광주군 인구 32,235명(호수 8,229호)
- 8.6. - 우체사郵遞司 관제 개정. 우체사 등급제 실시(1등사司 전주, 2등사 남원·
나주·제주)
- 8.26. - 전남관찰사 윤웅렬을 전남재판소 판사 겸임 발령함
- 8.27. - 전남재판소를 나주에서 광주로 옮기고(법부령 제5호) 광주를 비롯한
30개군을 관할함으로써 광주가 사법의 중심지가 됨

전라남도 33군

1896년 8월 현재

- 1등급: 광주군, 순천군, 나주군, 영암군, 영광군, 제주목
- 2등급: 보성군, 홍양군興陽郡, 장흥군, 함평군, 강진군, 해남군,
무장군茂長郡, 담양군
- 3등급: 능주군, 낙안군, 무안군, 남평군, 진도군, 흥덕군, 장성군
- 4등급: 창평군, 광양군, 동복군, 화순군, 고창군, 옥과군, 곡성군,
완도군, 지도군智島郡, 돌산군突山郡.
- 5등급: 대정군, 정의군

*광주군은 전남 33군 중 1등급이며 관찰사 유고시에는 광주군수가 대행하게 했다.

이 해에 -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 성재 기삼연^{省齋 奇參衍} 등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항거해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킴

■ 국내·외

- 1. - 전국 각지에서 의병봉기
- 역찰방제^{驛察訪制}를 혁파함
- 4.7. - 서재필^{徐載弼}이 독립신문을 창간(주 3회 발행. 1898년 4월 윤치호^{尹致昊}
에 인계되어 7월 1일부터 일간으로 발간되었으나 1891년 1월 중순
폐간됨)
- 7. - 일본의 제18은행 부산에 지점 설치
- 7.2. - 서재필·윤치호 등 독립협회 설립
- 11.21. - 독립협회 발기로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독립문 건립(1897.11.20. 준공)
- 이 해에 - 관관제도 없어짐
- 궁중^{宮中}과 행정부 간에 전화 교환시설 설치



■ 서석초등학교

전라남도 관찰부 공립소학교는 1896년 광주향교 사마재에서 문을 연 광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으로 1906년 명칭을 공립광주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 1907년 현 전일빌딩 자리로 옮겼다가 1927년 서석동으로 다시 이전했다. 1938년 광주 서석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1941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초등학교 제도실시에 따라 광주서석공립국민학교로 개칭했다.

1897년

■ 광주·전남

- 3.23. - 광주 우체사^{郵便司}(2등 우체사)를 칙령 제17호에 의하여 설치
- 3. - 배유지 선교사 목포에 옴
- 10.1. - 목포항 개항^{開港}
- 10.14. - 일본 승려 오쿠무라 엔싱^{奥村圓心}(일본 대곡파 본원사^{大谷派 本願寺} 승려)과 그 누이 오쿠무라 이호코^{五百子}(일본 애국부인회를 창설) 목포를 경유해 광주에 옴
- 11.1. - 나주 우체사를 광주로 옮겨(농상공부령 제22호) 30개 군을 관할케 함 (12월 25일 업무 개시)
- 11.16. - 목포 일본영사관에 우편취급소 개설
- 12.25. - 무안우체사를 목포에 설치(12월 29일 업무 개시)
- 12.26. - 목포 일본영사관 경찰서 개설(전라남북도 관할. 서장은 경찰사무 이외에 영사 재판소의 검사 사무 및 영사관 부설 감옥서^{監獄署}의 감독 사무도 취급함)
 - 광주에는 일본 순사 1명을 파견하여 머물게 함
- 이 해에 - 광주 군수에 김천수^{金天洙} 임명(~1898)
 - 목포 감리^{木浦監理} 및 무안 부윤^{務安府尹}에 진상언^{秦尙彦} 임명

■ 국내·외

- 1.1. - 서울 시내에 처음으로 가로등(석유등) 등장
- 2.19. - 김종한^{金宗漢}, 이보응^{李普應} 등이 한성은행(훗날 조흥은행) 창립
은행장 이재완^{李載完}
- 3.22. - 경인철도 부설공사를 인천 우각재^{牛角峴}에서 처음 시작함
(1896년 미국인 모스에게 경인철도 부설을 허가함
1897년 3월 29일 기공식
1898년 12월 모스, 부설권을 일본에 매각함
1898년 9월 인천 제물포~노량진 간 약 33km 완공 및 개통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 준공
1900년 11월 12일 서울~인천 간 개통)
- 8.14. -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침(고종 34년을 광무원년으로
8월 16일 시행)
- 12.12. - 옛날 남별궁^{南別宮} 터에 원구단^{圓丘壇}을 짓고 황제 즉위식 거행
왕후 민씨를 명성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개칭
- 이 해에 - 사과나무 처음 식재
미국 선교사 프레이저가 미 캘리포니아에서 옮겨 심음

1898년

■ 광주·전남

1. - 일본 승려 오쿠무라 엔싱^{奥村圓心}, 광주 포교소 설립
(서성정^{西城町} 12번지, 부지 1천626평, 건평 32평)
- 2.7. - 무안 전보사^{務安 電報司} 개국(현 목포시 죽동 목포우체국 관사 자리)
4. - 배유지·오웬(Dr. Clement.C.Owen)목사, 목포에 양동^{陽洞} 교회를 세움
7. - 목포 북교동에 천주공교회 설립
- 10.1. - 일본 제일은행 목포출장소 개업(뒤에 조선은행 목포지점이 됨)
- 11.17. - 오쿠무라 이호코, 흥간지 오쿠무라실업학교^{本願寺奥村實業學校} 설립
11. - 오쿠무라가 보낸 최초의 일본 시찰단(광주의 최간진^{崔幹鎭}·최세필^{崔世八}을 2개월 간 일본에 파견)
- 이 해에 - 전라남도 관찰사에 민영철^{閔泳喆}, 광주군수에 권재구^{權在久}(~1900) 임명
 - 목포 한국인 상인들, 목포상객주회^{木浦商客主會}(후에 목포사상회^{木浦土商會}) 조직
 - 일본 상인들은 목포상화회^{木浦商話會}(상공회의소 전신) 조직
 - 목포감리^{木浦監理} 및 무안군수^{務安郡守}에 이준영^{李準榮}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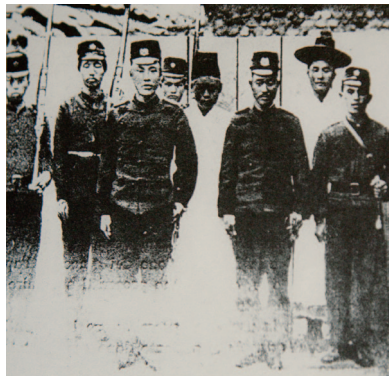
■ 국내·외

- 2.22.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죽음
- 5.29. - 서울 종현^{鐘峴}성당(현 명동성당) 준공
- 10.2. - 배화^{培花}학당 설립
10. - 미국인 이스트 하우스 남대문에서 가스등으로 프랑스 파데사의 단편영화 상영(국내 최초의 영화 상영)

1899년

■ 광주·전남

- 1.15. - 진위대^{鎭衛隊} 편제를 칙령 제2호에 의해 개정하고 광주에 진위대지방
대대 설치(제4대대=2개중대, 병력 400명. 진위대 광주지방대대장
에 우기정^{禹冀鼎}을 임명함. 우기정은 1907년 군대 해산 후에 의병장
으로 활약함)
- 3. - 대한천일은행 목포지점 개점
- 5.30. - 무안항^{務安港} 재판소(법률 제3호) 설치
- 6.13. - 목포신보^{木浦新報}(일본어 신문) 창간, 발행인 야마모토^{山本岩吉},
매월 1·6·11·16·21·26일에 발행. 4·6배판 8쪽 4단 신문
1906년 4월 1일 5단 신문 발행. 1907년 7월 1일 격일 발행
1907년 8월 자본금 1만엔의 목포인쇄주식회사를 창립
여기서 ‘목포신보’ 경영. 1909년 2월 1일 일간신문으로 발행
- 7.15. - 목포 산정동에 천주교회 건립
초대 주임신부 조 알베르(Albert Deshayes, 프랑스인)
- 12.31. - 목포 일본인 상업회의소 설립 인가
- 이 해에 - 목포 감리 및 무안 군수에 현명윤^{玄明運} 임명



■ 한국군 진위대 군인들

■ 국내·외

- 1.30. -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훗날 한국상업은행의 전신) 창립
(자본금 5만6천원, 은행장 민병석^{閔丙奭})
- 5.4. - 서대문~청량리 간 전차궤도 완공 시운전(5.17 개통식 거행)
- 5.12. - 칙령 제19호로 상무사 장정^{商務社章程} 공포
- 9.14. - 서울 황토제^{黃土峴}에 최초의 양약국 일신의원^{日新醫院} 개점
(주인 김덕진^{金德鎭})
- 9.18. - 인천~노량진간 철도 개통(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1900년

■ 광주·전남

- 1. - 목포 시립도서관 유달 분관 기공(9월 준공)
- 5.1. - 목포우체국에서 소포·우편 사무 취급
- 9. - 목포 상업회의소 설립
 - 목포체육회 창립
- 12.19. - 전라남도 제주목^{濟州牧}에 진위 1대대 의 설치를 공포·시행
- 이 해에 - 전남 관찰사로 조종필^{趙鍾弼} 부임
 - 전남 관찰사 윤웅렬^{尹雄烈} 재임
 - 광주 군수에 송종면^{宋鐘冕}(~1901)
 - 일본 오사카^{大阪} 소재 오사키^{尾崎} 상선회사가 목포에 취급점을 두고 오사카-인천 간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목포에 기항함
 - 목포감리 및 무안부윤에 조종서^{趙鍾緒} 임명

■ 국내·외

- 4.10. - 한성^{漢城} 전기회사, 서울 종로에 가로등 3개 설치
(미국기업 시공. 최초의 민간 가로등)
- 7.5. - 한강 철교 준공. 경인철도 완전 개통(11월 12일 개통식)
- 7. - 최초로 경인간^{京仁間} 시외전화 개통
- 10.27. - 전 남산영^{前 南山營}에 초혼단^{招魂壇=奠忠壇} 설치
 - 태극기^{太極旗} 규정 발표
- 12. - 덕수궁 석조전^{石造殿} 기공

1901년

■ 광주·전남

11.18. - 광주에 무안전보사 지사 설치

이 해에 - 광주군수에 권중은^{權重殷, 在允}(~1905) 임명 (권율^{權율} 도원수의 10세손)

- 가을부터 전남산 재래면^{在來綿}을 목포항에서

일본 오사카^{大阪} 항으로 수출하기 시작

- 나주공립보통학교 개교

■ 국내·외

1.9. - 유두표 (최초의 한국인 상인), 하와이로 건너감

7. - 전국이 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하여 한국정부는

방곡령^{防穀令}을 반포하고 미곡 수출을 금지함(11월 15일 해제)

8.17. - 서울 시내 전등 시점식을 동대문 밖 한성전기회사에서 거행

8.20. - 경부철도 부설공사 북부기공식을 영등포에서 거행

9.21. - 부산 초량^{草梁}에서 경부철도 부설공사 남부 기공식 거행

1902년

■ 광주·전남

- 1.23. - 광주 전보사 설치. 무안항(목포)~광주 간 처음으로 전보 개통
- 7.10. - 목포에 일본 영사 와카마츠^{若松龜三郎} 도착
 - 도원수 충장공 권율^{忠壯公 權慄} 창의비^{倡義碑} 건립
- 9. - 무안 감리서 건축 준공(훗날 신안군청 자리)
- 이 해에 - 전라남도 관찰사에 이근호^{李根濤} 임명
 - 목포 감리 및 무안 부윤에 민영채^{閔永采} 임명

■ 국내·외

- 5.8. - 경의선 철도 중(경성^{京城}~개성 간) 기공식 거행
- 5.21. - 일본 제일은행권 발행 유통(일본국립 제일은행 부산지점이 우리나라에서 은행권을 발행하게 됨)
- 7. - 일본 고고학자 세키노^{關野貞} 고적 답사차 한국 방문
- 8. - 국가^{國歌} 제정
 - 전국에서 일본 제일은행권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어남
- 9.20. - 서울 미곡상들, 높은 세금에 항거하여 철시^{撤市}
- 10. - 제일은행권 통용금지
- 12.22. - 제1차 하와이 이민 121명 출발
- 12. - 협률사^{協律社}의 ‘소춘대유희^{笑春台遊戯}’ 공연

1903년

■ 광주·전남

- 6.6. - 목포 일본영사관 소속의 순사 주류소^{光州巡查駐留所}를 광주의 본원사^{本願寺}에 설치
- 7.3. - 무안부가 다시 무안군이 되고 목포감리서를 별도로 설치
(1906년 12월 무안군은 다시 무안부가 됨)
- 9. - 목포 면화재배협회 창립
- 9.9. - 목포 영흥^{永興}서당, 배유지 선교사, 임성옥^{任成玉}, 유내춘^{柳來春} 등의 발기로 목포 양동 86번지 유내춘의 집 사랑채에서 개교
1905년 목포 영흥학교로 개칭. 1908년 10월 10일 고등과 병설
1909년 2월 3일 석조 건물로 교사 신축 착공. 10월 10일 준공
1914년 사립 목포 영흥학교(보통과, 고등과 설립인가)
- 미국 남장로회 목포 선교회 창립



■ 일제는 면방직공업의 주원료가 되는 면화의 공급을 전남에 의존했다. 1901년 가을부터 전남산 재래면화를 목포항에서 일본 오사카항으로 빼내가기 시작했다.

- 9.15. - 목포 정명^{貞明}여학교 개교
 (1911년 9월 교사 신축 착공. 1912년 1월 준공)
 1914년 6월 사립 목포 정명여학교(보통과 · 고등과 4년) 설립인가
- 이 해에 - 목포 감리 및 무안 부윤에 김성규^{金星圭} 임명
 - 영산포에 일본 영사관 우편수취소 개설

■ 국내·외

2. - 제일은행권의 통용금지령 철회
- 2.7. - 한성은행 재설립
- 10.28. - 황성^{皇城} 기독교 청년회(YMCA) 발족
- 11.3. - 일본에서 인력거 1백대를 들여와 칩임관^{勅任官}들에게 분양하기로 결정
- 이 해에 - 최남선^{崔南善} 신작시 ‘경기철도가’^{京畿鐵道歌} 발표

1904년

■ 광주·전남

- 9. - 영산포 우편소 개설
- 10. - 목포 고하도에서 최초로 육지면 재배
 - 영산포와 목포항 사이에 범선 두 척이 손님을 싣고 운항 개시
 - 목포에서 호남철도 부설공사 착수
- 10.10. - 목포 상공학교를 목포 농공상학교로 개칭
- 11. - 해이난마루^{平南丸}(10톤급) 발동선이 여객 운송(목포~영산포) 사업 시작
- 12. - 봄에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 연회^{年會}에서 광주에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여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배유지 목사 및 오원 의사가 광주에 옴.



■ 배유지목사 임시사택

190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축하예배에 주민 200여명(방안에만도 40여명)이 참석했다.
양립교회 첫 예배와 광주 근대교육, 근대의료의 출발점

- 12.24. - 배우지 목사 임시사택(양림리)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았는데 이것이 광주 최초의 교회 예배임
- 이 해에 - 천주교 노안^{老安}교회 세움(현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
- 전라남도 관찰사에 김세기^{金世基} 임명
- 목포감리 및 무안부윤에 한영원^{韓永源} 임명
- 1904년 말 현재 전라남도 인구 490,054명
가구 124,310호. 호당 인구 3.3명(참고자료 : 『전남도지 제3권』 129쪽)

■ 국내·외

2. - 러·일전쟁 시작
- 2.23. -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조인
- 2.28. - 상무사^{商務社} 해산
- 6.12. - 서울에 공중변소 설치
- 7.20. - 일본 군사 경찰 훈령^{軍事警察訓令}에 의하여 한국의 치안을 일본이 담당함
7.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창간
- 10.17. - 일본 메가다^{目賀田 種太郎}를 탁지부^{度支部} 고문에 임명. 매가다에 의해
한국 전환국 폐지. 백동화^{白銅貨} 폐지. 제일은행권 통용
예산편성법 개정. 관세합병 등 재정. 화폐 정리에 착수
- 11.10. - 경부선 완공(1905년 1월 1일 운행개시)

1905년

■ 광주·전남

2. - 경무고문부^{警務顧問部} 광주지부 설치
일본인 마루야마^{丸山重俊}를 경무청 고문에 임명
3. - 한국 면화재배협회(한국산 면화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단체)가
일본 동경(제국호텔)에서 창립(1912년 3월 해산)
- 4.5. - 박현경^{朴賢暻}이 화순탄광을 발견함
- 4.14. - 광주의 한국군 진위대대^{鎮衛大隊}를 진위보병 제4대대로 함
대대본부-대대장^{參領}(3품), 부관^{副尉}(6품), 향관^{餉官} 각1명, 군의^{醫官}1명,
부교^{副校}5명, 참교^{參校}9명
- 러·일전쟁이 일본에 유리해지자 이츠즈^{井筒甚三郎}, 사쿠마^{佐久間時三郎} 등
일본인이 속속 광주로 이주함
(이츠즈, 최초의 잡화상을 충장로 1가에 개점)
4. - 일본인 전용 광주 우편 취급소 업무개시-초대 소장 에노모토^{榎本明治}
- 6.8. - 목포 우편국 광주 출장소 개설
우편업무를 일본인이 강제로 접수. 초대 소장 오후로^{小黒貞太郎}
- 9.8. - 사립 명진학교 설립(현 장흥초등학교)
- 9.30. - 광주 수형^{手形}(어음) 조합(교환소) 설치
11. - 목포~영산포 간 증기선 헤이안마루^{平安丸}를 비롯한 4척 운항 개시
- 광주 군수에 홍난유^{洪蘭裕}(~1913.2.) 임명
- 이때부터 일본인이 지방행정에 관여. 광주군 서무주임에 고누마^{小沼盛平},
재무주임에 츠즈미^{堤伊六} 등 일본인을 임명
- 11.16. - 사립 낙영학교 개교(여천군 삼산면 서도리의 유지 김상순^{金相淳}이
사재로 세움. 1912년 거문도 사립보통학교로 1920년 11월 5일
거문도 공립보통학교로 개칭)

- 11.16. - 나철^{羅喆} 등이 을사보호조약 체결되자 의분을 품고 매국대신^{賣國大臣}을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지도^{智島}에 유배
- 12.1. - 전남 관찰사에 주석면^{朱錫冕} 임명
- 목포감리 및 무안부윤에 김준용^{金準用} 임명
- 이 해에 - 광주 북문안 교회 건물 기공(1906년 10월 준공, 배유지 선교사에
의한 광주 최초의 교회 건물. 현 충장로3가에 위치)

■ 국내·외

- 1.18. - 화폐조례 공포(일본 화폐의 국내유통을 공인)
따라서 일본 제일은행권이 법화^{法貨}로 통용되기 시작함
- 3.24. - 평양 대동강철교 준공
- 4.1. - 일본과의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 강제 조인(통신원의 국내
우편·전신·전화를 일본에 위탁함으로써 통신권을 박탈당함)
- 4.3. - 보성^{普成}학교 설립(이때부터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남)
- 4.28. - 경의선^{龍山}(경성~신의주 간) 철도 개통
- 5.28. -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서대문에서 거행
- 7.19. - 한성 상업회의소 설립
- 8.7. - 한일은행 설립(은행장 조병택^{趙秉澤})
- 9.5. -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고려대학교 전신)를 수송동에 설립
(설립자 이용익^{李容翊})
- 러·일강화조약인 포츠머스 조약 조인. 일본은 한국보호권,
사할린^{南樺太}, 요동조차권, 남만주철도 등을 획득함

9. - 부산~시모노세키^{下關} 간에 연락선 이키마루^{壱岐丸}, 츠시마마루^{對馬丸} 취항

11.17. - 한·일협상조약(제2차 한·일조약) 조인

을사보호조약 또는 오조약^{五條約}이라고도 함

내용은 통감정치 실시, 외교권 박탈, 보호국화^{保護國化}

11.18. - 많은 군중이 대한문 앞에 쇄도하여 을사보호조약의 파기를 요구
(전 상가 철시)

-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張志淵},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 논설게재
정간처분을 당함

- 각 학교 학생들 휴교로써 을사조약에 항의

- 오적^{五賊} 암살을 기도했던 기산도^{奇山度} 등 체포됨

-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

11.20. - 광주 제중원(현 기독교병원 전신) 개원

현 광주시 양림동 246번지에서 개원. 초대 원장 놀란

(Dr. Joseph Nolan 1880~? 미국 캔터키주 크러치 출생)

12.1. -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

12.20. - 일본 한국통감부 설치령 및 이사관제 공포

이 해에 - 김인식^{金仁湜} 작곡의 ‘학도가’가 평양에서 시창됨

1906년

■ 광주·전남

- 1.31. - 목포이사청 설치로 목포주재 일본영사관 폐쇄
- 1. - 광주의 일본인 재향군인회 분회 창립
회원 35명, 회장 후지모토^{藤本元次郎}(보병 예비역 중위)
- 2.1. - 일본에 의한 통감부와 이사청 개청에 따라 목포영사관을 폐쇄
(1월 31일)하고 목포이사청 설치-초대 이사관 와카마츠^{約松兎三郎}
(~1907.6.23. 뒤에 부산부윤을 지냄)
- 3.6. - 한국정부와 면화 재배협회 면화조약 체결
- 3.30. - 광주 농공은행 설립 추진(6.30. 설립인가)
- 4. - 광주감옥(교도소)설치-법무령 제3호(12월 법무령 제19호로 전주
분감, 1907년 10월 칙령 제24호로 목포·군산 분감 설치)
- 재정 고문부 목포분서 설치
- 최익현^{崔益鉉}(당시 74세)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킴
- 6.10. -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목포 출장소(목포면작지장의 전신)를
목포 대화정^{大和町}에 설치



■ 광주농공은행

1906년 설립된 광주 최초의 은행이다. 1918년 식산은행(산업 은행의 전신)이 이 건물을 인수하여 광주지점으로 사용하다가 1956년 산업은행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없어졌다.

- 6.26. - 최익현^{崔益鉉} · 임병찬^{林炳讚} 순창에서 일본군에 체포됨
최익현 8월 18일 대마도에 유배 되어 12월 30일 순국함
- 7.1. - 목포우체국 광주출장소를 광주우체국으로 승격
- 목포 식산주식회사(자본금 10만엔) 업무 시작
- 7. - 광주 농공은행 제주지점 개점
- 8. - 광주 농공은행 목포지점 개점
- 목포~영산포 간 정기항로에 기넨마루^{紀念丸} 운항
- 9.24. - 칙령 제47호로 감리서^{監理署} 폐지에 따라 무안감리서 폐지
무안부^{務安府} 설치
- 10. - 일본 제십팔은행^{十八銀行} 목포지점 개점
- 재정고문부 광주지부 설치



■ 복문안 교회

1906년 원래 광주 관아의 복문안 사창 마당터를 얻어 문을 열었는데 1919년 3·1운동 후에 일제에 의해 폐쇄됐다.

- 10. - 광주 북문안교회 광주 최초의 ㄱ자형 기와집 교회 준공
북문통 45번지. 부지 764평, 건평 53평, 이때 교인은 70여명
- 11.1. - 공립 광주보통학교 설립 개교(서석초등학교의 전신. 수업연한 4년)
교육법의 개정공포에 의하여 공립 광주보통학교가 새로 설치되어
광주소학교를 흡수 개교했는데 1학급 모집에 학생 수는 50명. 소재
지는 광주면 향리. 광주 향교 내 사마재^{司馬齋} 가교사를 사용
- 11.21. - 사립 육영학교(현 완도초등학교) 설립
- 12.5. - 승주 사립 낙영^{樂英}학교 설립
- 12. - 목포에 치도국^{治道局} 목포출장소(뒤에 토목국 목포출장소로 개칭)를
설치하고 광주~목포 간 도로 축조공사 준비 시작
- 이 해에 - 전남 관찰사에 이도재^{李道宰} 임명
 - 전남재판소 법무령 제3호에 의해 광주에 설치
관할구역: 광주군, 순천군, 나주군, 영암군, 영광군, 보성군, 흥양군, 장흥군, 함평군,
강진군, 해남군, 담양군, 능주군, 낙안군, 남평군, 진도군, 장성군, 창평군, 광양군,
동북군, 화순군, 옥과군, 곡성군, 완도군, 지도군, 돌산군, 여수군, 구례군, 총 28개군
 - 사립 영흥학교(현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설립
 - 일본인 마부치^{馬淵繼次郎} 나주군 금천면에 처음으로 과수원 개원
(면적 7정 8단, 배·사과·복숭아 재배)
 - 목포항 축항공사 시작(1910년 완공)
 - 장렬사^{壯烈祠} 복원 설향(두암동 823-1번지. 주벽 김유신^{金庾信},
배향 김광립^{金光立}, 김일손^{金翼孫}, 1850년 호남 유림에 의해 우치동
죽방촌^{竹坊村}에 건립되었으나 1896년 훼손됨)
- 이 해에 - 한국 면업^{棉業} 주식회사가 일본 오사카에서 창립. 자본금 20만엔
목포에 지점을 둬. 뒤에 조선면업주식회사로 개칭

- 김원국^{金元國}(본명 창섭^{昌燮}이 동생 원범^{元範}과 의병 참가. 조경환을 선봉장으로 함평 · 광주 · 능주 · 동복 · 창평 · 나주 · 장성 등지에서 활동)
- 무안 부윤에 안기현^{安基鉉} 임명

■ 국내·외

- 2.9. - 일본 헌병대, 한국의 사법 경찰에 관여
- 2.16. - 기산도^{奇山度} · 이근철^{李根哲} 등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을 저격(실패)
- 2. - 통감부^{統監府} 설치-임시 통감대리 하세가와^{長谷川好直}
- 3.2. -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부임
- 4.28. - 서울에 농공은행 설립
- 4. - 조선권업모범장^{朝鮮勸業模範場}을 수원에 설치
- 7.22. - 이인직^{李人植}의 신소설 『혈의 누^{血의 누}』, 만세보^{萬歲報}에 게재됨
- 9.1. - 통감부 기관지 경성일보^{京城日報} (일문) 창간
- 10.1. - 새로운 지방관제 실시(전국을 13도 333군으로 개편
일본인 참여관^{參與官}을 두고 행정을 감독하게 함)
- 11. - 도쿄^{東京}에서 조선기독교청년회 창립
- 이 해에 - 김기호^{金基浩}가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양말공장을 세움

1907년

■ 광주·전남

- 1.1. - 목포 공립보통학교 개교(현 목포 북교초등학교)
- 1.15. - 통감부 목포이사청 광주지청 설치(지청장 平渡信, 통감부 고시 제5호)
광주지청 관할구역 : 광주 · 영광 · 무장 · 흥덕 · 고창 · 담양 · 창평 · 옥과 · 곡성 ·
동북 · 화순 · 남평 · 능주 · 낙안 · 순천 · 광양 · 여수 · 돌산 · 장성, 총 19개군
- 2.24. - 광주 금융조합 창립 총회 개최(11월 업무 개시)
- 3. - 광주 일본인회 창립-회원 68명(초대 회장 시부야^{澁谷太吉}, 그뒤에
요시무라^{吉村軌一}, 사쿠마^{佐久間時三郎}, 츠다^{津田順一}, 마츠다^{松田徳次郎}가 회장을
지냄. 1911년 해산)
- 광주~송정 간 도로 개통



■ 승일학교 첫 수업

초창기 교실이 없어 배유지 선교사 사택에서 수업을 했다. 이 건물은 처음에 의무실, 예배당으로도 쓰이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됐다. 없어진 시기는 알 수 없고 현재 사직도서관 앞 선교기념비만이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 3. - 광주천 최초의 다리인 광주교 준공
- 광주 농공은행, 벌교포^{筏橋浦} 및 영산포 지점 개점
- 3.5. - 광주 숭일학교 및 수피아학교 교육 시작
 (배유지 선교사 사택에서 3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 2명의 교사로 시작)
- 5.20. - 나주 공립보통학교(현 나주초등학교) 개교
- 6.1. - 광주 일본인회 회립^{會立} 심상고등소학교 개교(현 광주중앙초등학교)
 황금동 동본원사^{東本願寺} 가교사에서 신입생 6명으로 시작함
- 6.23. - 목포 주재 제2대 이사관 나카오오지^{中大路正雄} 임명(~1909.4.20.)
- 7.1. - 목포신보^{木浦新報} (일문) 발간(격일간)
- 7.6. - 호남학회 창립 - 회장 고정주^{高鼎柱}(창평), 교육부장 이기^{李沂}(구례)
- 7.25. - 순종 황제 즉위 축하 광주 국악경창대회 개최
- 8.9. - 한국군 진위보병 제4대대(본부 광주) 해산
- 강진분견소 부위^{副尉} 이하 사병 50명(8월 17일) 해산
- 전주분견소 정위^{正尉} 이하 사병 101명(8월 14일) 해산
- 전남북 해산 책임자 일본군 나카히라^{中平} 대위
- 8.24. - 광주지방금융조합 창립총회
- 9.1. - 공립 광주보통학교 광주면 동문통(현 금남로 1가1 광주일보사 자리)
 으로 교사 신축 이전-교실 4개, 직원실 1곳
- 10. - 일본인 마츠다^{松田 徳次郎}, 마츠다양조장(후에 광주 주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2만엔
- 소비^{相馬與作}(후에 광주상공회의소 회두 역임)
 목포 면작회사 사원으로 한국에 옴
- 광주감옥 목포분감 설치
- 11.7. - 광주 출신 의병장 신덕균^{申德均}, 고부 두승산^{古阜 斗升山}에서 순국

- 11.1. - 목포이사청 경찰서 및 무안경찰서를 목포경찰서로 병합
- 12.31. - 목포이사청 광주지소 폐쇄
- 이 해에 - 전남쌀을 목포항에서 대련^{大連}항(만주)으로 첫 수출함
 - 전남 각지에서 국채보상운동 일어남
 - 광주 잡농사^{蠶農事} (농촌근대화운동단체) 설립
 - 의병장 고광순^{高光詢} 부대, 지리산 연곡사에서 일본군과 항전하다 패전
그때 일본군이 절을 불태움
 - 무안부윤에 홍재기^{洪在棋} 임명

■ 국내·외

- 1.29. -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전국 각지로 확산
- 2.3. - 대만^{台灣} 협회(재 일본 도쿄)를 동양협회(회두 가즈라^{桂太郎})로 개칭
동양협회에서 동양협회 전문학교(식민지 경영인력 교육기관
뒤에 일본 척식대학) 경영
- 4.1. - 서울에서 국채보상 연합회의소 조직. 이기탁^{李起鐸}이 주재
231만 989엔 13전 모금
- 5.22. - 이완용^{李完用} 내각 성립

호남학회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이기^{李沂}(1848~1909. 정약용의 학통을 이었으며 동학군에도 종군)는 호남인사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남의 교육발달을 목적으로 호남학회를 결성. 1908년 호남학보 제1호를 발간했으나 이듬해 3월 제9호로 중지 당함

- 5.30. - 칙령 제33호로 ‘금융조합규칙’ 반포
- 6. - 헤이그^{海牙} 밀사 사건 일어남
- 7.14. - 이준^{李儼} 열사 헤이그에서 순국
- 7.20. - 고종 양위식^{讓位式} 거행(각처에서 유생·학생 등 봉기, 일본군과 충돌)
순종^{純宗} 황제 즉위. 연호를 융희^{隆熙}로 고치고(8월 2일)
황제^{皇帝} 영친왕 은^垠을 황태자에 책봉(8월 7일)
- 7.24. - 한·일신조약 조인-정미^{丁未} 7조약. 차관정치 시작
일본의 한국 내정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7.31. - 한국 군대 해산 조칙^{詔勅} 발표(8월 1일 훈련원에서 군대해산식)
각지에서 의병 일어남
- 7. - 궁내부 이하 각부에 일본인 차관 임명
- 8.18. - 조혼^{早婚}을 금함
- 10.9. - 일본 ‘한국에 주차^{駐紮}하는 헌병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 일본 헌병이
한국 경찰권을 장악
- 12.5. - 이은^{李垠} 황태자, 일본에 건너감
- 이 해에 - 국채^{國債}보상부인회, 감선회^{減膳會}, 탈환회^{脫環會} 등 여성단체가 조직됨
- 양장 여인^{洋裝女人}이 서울 거리에 나타남

1908년

■ 광주·전남

- 2.1. - 광주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 설립인가. 당초에는 4년제 보통학교 과정으로 개학. 숭일학교 초대 교장은 프레스톤, 수피아여 학교 초대 교장은 엄언라^{嚴彦羅}(Miss Ellene Beniagtahan)
- 2.2. - 의병장 기삼연^{奇參衍}, 담양 추월산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다 패하고 순창에서 일본군에 피체. 광주공원에서 총살되어 순국함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 3.9. - 권업모범장 목포 출장소를 독립시켜 임시 면화 재배소로 개칭
- 3.19. - 구례 사립 봉양^{鳳陽}학교(현 구례 중앙초등학교) 설립
- 3.25. - 의병장 김태원^{金泰元}, 광주군 임곡면 어등산 밑 박산마을에서 일본군 및 특설 순사대와 교전하다 전사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 4.1. - 광주 우체국, 전화 통화 및 호출 사무 개시
- 4. - 구례에서 사립 호양^{密陽}학교(4년제) 설립. 왕취환^{王粹煥} 권봉수^{權鳳洙} 왕재소^{王在沼} 박해룡^{朴海龍} 등이 발의(1917년 폐교)
- 5. - 일본인 여관 시노노메^{東雲}여관, 충장로 3가에서 개업. 광주 최초의 여관으로 2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여관이었음
- 7.16. - 한국 감옥관제^{監獄官制} 제정(1907년 12월)에 따라 광주 감옥에 전옥^{典獄} 이하 간수장, 통역, 간수, 감정^{監丁} 등 배치
- 7. - 광주에 전화 개통. 일본 기관의 군용·관용으로만 사용
- 8.1. - 전남재판소를 광주지방법판소로 개칭. 전남·북을 관할케 함 (1931년 전주 지방법원 승격 분리)
 - 전남경무서를 광주경찰서로 개칭. 동년 10월 1일 전임 경찰서장 배치
- 10.1. - 광주에 '주간신문' 창간(일문, 국판, 후에 광주일보로 개칭)
- 10.6. - 능주 육영보통학교(현 화순 능주초등학교) 개교

10. - 광주~목포 간 도로공사 착공

11.15. - 향사리 교회 예배 시작

이 해에 - 천주교 본당을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에 세움

- 일본인 요정 '기다무라로^{北村樓}' 개업. 황금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자리

- 광주읍성과 성문^{城門} 철거 작업 시작

- 광주 제증원 2대 원장에 윌슨(Dr R.M.Wilson, 한국명 우월순^{魏越尊}) 박
사 부임. 우월순은 해방 후 미군정청 보건부장(장관) 고문으로 재직
하였으며 1947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병 주치료제인 D.D.S를
가져옴

■ 국내·외

3.28. - 창경원(동물원) 준공

3. - 한국청년 장인환^{張仁煥}·전명운^{田明雲}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배한적^{親日排韓的} 외교고문 미국인 스티븐슨을 사살함

6.11. - 일본 헌병 보조원으로 한국인들을 모집함

8. - 동양척식주식회사령^{東拓令} 공포

10. - 이인직^{李人植} 작 소설 『치악산^{雉岳山}』 간행

11.1. - 최남선^{崔南善}, '소년' 창간. 최초의 신체시^{新體詩} '해^海에서 소년에게' 발표

12.28. -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1909년 1월 29일 경성 본사에서 업무 개시
이로부터 일본인의 한국 이민이 더욱 활발해짐

이 해에 - 구세군^{救世軍} 대한본영 설치

- 의병활동이 최고조에 이름

- 1908년 12월 말 현재 한국인으로 일본 중인 사람은 429명



의병장 죽봉 김태원의 동상

1909년

■ 광주·전남

- 1.20. - 광주 출신 의병장 조정환^{曹京煥}, 증심사에서 대원 50명과 함께 일본군과 교전하다 전사(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
- 음1. 15. - 단군교^{檀君敎} 창설. 1910년 7월 30일 대종교^{大宗教}로 개칭. 교주 나철^{羅喆}. 본명은 인영^{寅永}. 본관은 나주. 호는 홍암^{弘巖}. 당호는 일지당^{一之堂}. 1863년 전라도 낙안군(현 순천시) 남상면 금곡 출생. 29세에 대과^{大科}에 장원 급제. 서울 북부 재동 취운정하^{翠雲亭下} 8통 10호 6간 초옥에서 단군교 창설(금호문화 1986년 1~2월호 참조)
- 2.1. - ‘목포신보’ 격일간에서 일간으로 발행
2. - 광주출신 의병 전원범^{全元範}(전원국^{全元國}의 아우), 무등산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다 체포당하여 혀를 깨물고 자결(1968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국민장 추서)
- 2.29. - 광주 출신 의병장 강사문^{姜士文},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에서 일본 헌병과 교전하다 체포되어 광주 감옥에서 순국
- 3.1. - 사립 유신^{維新}학교(현 보성 별교 남초등학교) 개교
- 진도 공립보통학교(현 진도초등학교) 개교
3. - 광주 종묘장^{種苗場} 설치(효천면 양림리. 1910년 10월 전라남도 종묘장이 됨)
- 광주 출신 의병장 양상기^{梁相基}(양진여^{梁鎭汝}의 맏아들, 순사^{巡查} 출신), 담양군 무정면에서 일본 경찰과 교전하다 체포당함. 1910년 8월 1일 대구 감옥에서 28세로 순국
- 광주 출신 의병장 송학묵^{宋鶴默}(송제민^{宋齊民}의 후손), 체포되어 순국
- 4.5. - 의사 포사이드, 나병환자를 광주 제중원에서 원장 윌슨의 도움으로 처음 진료 시작
- 4.20. - 전남 독립 광주농림학교 설립 인가
- 목포 주재 제3대 이사관으로 마츠모토^{松本重敏}(~1910.10.1.) 부임

5. - 한국군대 해산 후 일본군 조선 임시 파견대 제2연대의 1개중대가
광주에 주둔하기 시작. 그 직후에 대대 본부 설치
초대 대대장 이가라시^{五十嵐多一} 소좌
- 목포상업회의소 주도 하에 호남철도 건설을 위한 전남 한·일인
대회 개최
- 6.10. - 전남 도립 광주농림학교(훗날 광주 농업학교 전신) 개교
본과 3년·속성과 2년. 서문밖(불로동) 옛 광주면사무소가 있었던
사립 광주측량학교 자리. 초대 교장은 관찰사 신응희^{申應熙}가 함
- 6.15. - 광주~영산포 간 객마차^{客馬車} 운행 개시



■ 초기 나병환자 수용시설

제중원에서 최초로 나환자를 치료한 것은 포사이드 의사에 의해서였다. 봉선리 나환자 요양소를 세우기 전까지 나환자를 수용하였던 벽돌가마

- 7.1. - 광주 출신 의병장 전원국^{全元國}, 대구 감옥에서 순국
(1963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단장 추서)
- 8.25. - 광주 출신 의병장 양진여^{梁鎭汝}, 담양 대전면 갑향리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어 1910년 5월 30일 대구 감옥에서 51세로 순국
- 8.30. - 동북 공립보통학교(현 화순 동북초등학교) 개교
- 8.31. - 사립 광신^{光新}학교(현 보성초등학교) 개교
- 동양척식주식회사 영산포 출장소 설치
전남 일대에서 일본인 이주 및 농지 배정 업무를 담당
- 8. - 정만조^{鄭萬朝}(호 무정^{茂亭})를 전라선유사^{全羅宣諭使}에 임명되어 광주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국민들은 의병에 가담하지 말고 정부를 믿으라’고
연설하자 군중들은 이를 비웃고 해산해 버림
- 시메노^{占野幸市} 양조장(자본금 1만6천5백엔)이 북문통(충장로)에 설립
- 9.1. - 일본군의 호남의병에 대한 전투. 소위 ‘남한 대토벌작전’ 개시
약 2개월간 일본 정규군 2개 연대와 해군 함정까지 동원. 바다와 육지에
걸쳐 3천리에 달하는 포위망을 형성하고 살육 작전을 벌였는데 그
포위망은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그리고 바다로 이어짐
- 9.29. - 의병장 안계홍^{安桂洪}(보성 출신), 광주순사대에 체포되어 순국(1963
년 건국공로훈장 국민장 추서)
- 10.9. - 함평 출신 의병장 심남일^{沈南一}, 능주 풍치에 은신 중 일본군
사다케^{佐竹} 대위가 지휘하는 부대에 체포되어 대구 감옥에서 순국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국민장 추서, 훗날 광주공원에
순국비 건립)
- 10.31. - 여수 사립 경명^{鏡明}학교 개교. 설립자 김한승^{金漢昇}. 초대 교장 곽경환^{郭景煥}
1911년 6월 15일 여수 공립보통학교(현 여수 서초등학교)로 개칭

- 11.1. - 한국 정부, 일본에 사법권을 위임함에 따라 통감부 사법청에 의해
광주지방재판소(산하에 區 재판소를 둠) 관할구역을 변경함
- 11. - 한국은행 목포출장소 설치(제일은행 목포출장소 철수)
- 통감부 감옥관제監獄官制 제정(1909년 10월)에 의해 통감부 광주감옥
이라 개칭
- 해남·강진·장흥·보성·별교·순천·하동간 국도를 수감 중이던
의병들의 노역으로 착공
- 12. - 경양소작인조합 창립. 회원은 경양 역둔토驛屯土의 소작인 159명
- 이 해에 - 전남관찰사에 신응희申應熙 임명
- 광주경찰서 청사 준공(광주 금남로2가 35번지 옛 무등백화점 자리)
부지 649평, 건평 113평 7홉, 공사비 7,938엔 89전
- 광주에 인력거 등장
- 목포 부란취병원 개원(훗날 목포의원 자리)
- 광주 부인 양잠 전습소를 남문안 군청軍廳에서 창립
(현 아시아문화전당 앞으로 옛 수협도지부 자리로 추정)
- 광주~목포 간 도로 86.5km 개통
- 구례에 사립 신명학교 설립(화엄사華嚴寺 사영寺營으로 개교)
진진응陳震應 왕경환王京煥 등이 교편을 잡고 신교육에 임했으나
불과 수 년 후 폐교됨
- 무안 부윤에 한치유韓致愈 임명

전국의 학교 수

1909년 11월 말 현재

고등보통학교: 관립 6, 사립 1 / 실업학교: 관립 4, 사립 5

보통학교: 관립 103, 사립 15, 기타 1,226 / 종교학교 828, 기타 28

총 2,216개교

■ 국내·외

- 1.29. - 동양척식주식회사 한성(서울)본점 업무 개시
- 3.4. - 민적법^{民籍法} 공포(민적사무를 경무국에 이관)
- 7.12. - 기유각서^{己酉覺書} 체결(사법권 및 감옥 사무를 일본에 위임한 각서로 사법권을 일본 통감부가 박탈함)
- 9. - 전국에 콜레라 만연
 - 청·일^{淸日} 양국, 간도^{間島}협약에 조인
- 10.26. - 안중근^{安重根} 의사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
- 10.29. - 한국은행 설립. 자본금 1천만엔. 11월 24일 영업개시
 - 일제강점 후 조선은행으로 명칭 변경
- 이 해에 - 안국선^{安國善}의 『금수회의록』 등 한국인 저작의 단행본 다수 판매 금지 됨

1910년

■ 광주·전남

- 2.26. - 석곡 공립보통학교(현 곡성 석곡초등학교) 개교
- 3. - 사립 광주 숭일^{崇一}학교 고등과 2년 병설 인가
 - 광주 양림리에 광주중묘장 설치(농상공부 소관)
 - 뒤에 전라남도 농사·임업 및 잠업 시험장 등으로 확대됨
- 4.1. - 사립 구림^{鳩林}학교(현 영암 구림초등학교) 개교
- 4.5. - 곡성 공립보통학교(현 곡성 중앙초등학교) 개교
- 4.10. - 사립 용흥학교(현 강진 병영초등학교) 개교
- 4. - 광주 경찰서장에 사토하라^{佐土原岩態}(~1911.4.) 임명
- 5.1. - 일본 철도원, 호남선 철도공사 실측 개시
- 6.15. - 영광보통학교(현 영광초등학교) 개교
- 6.20. - 사립 법성보통학교(현 영광 법성초등학교) 개교
- 6.24. - 광양 공립보통학교(현 광양 서초등학교) 개교
- 7.30. -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주군 궁삼면^{宮三面}(상곡^{上谷}=영산면, 옥곡^{郁谷}=왕곡면, 지죽^{枝竹}=세지면) 토지 14,552정 2단. 묘지 1,800여 필지 등 경선궁^{慶善宮}으로부터 시가 200만엔을 8만엔에 강제 매수

1910년 광주 물가

단위 : 엔. 전

벼(正租)	1섬(180리터)	8.00	설탕	1근(600g)	16
현미	1섬	18.50	달걀	10개	16
백미	1말(18리터)	2.30	사과	1관(3.75kg)	1.00
보리쌀	1말	1.90	청주	1되(1.8리터)	55
콩	1말	90	맥주	1타스(12병)	2.70
소금	1말	60	숯	1관	14
쇠고기	1근(600g)	15			

- 7. - 광주신보(일문) 창간. 발행인 가다오카^{片岡誠}(일본 히로시마현 출신)
- 광주 일본군 헌병대장 겸 전라남도 경무부장에 가시^{笠貞太郎}
(~1913.12.) 임명
- 9.1. - 돌산 사립 취성학교^{就成學校} 개교(현 여수 돌산초등학교)
- 9.26. - 광주 자혜병원^{慈惠病院} 개원(현 전남대 병원 자리) 의원(의사) 3명
간호부 2명. 초대원장 아키야마^{秋山虎次郎 日本陸軍 三等軍醫}. 초기에는 관찰부
서기청 건물 일부를 병원으로 사용(1915년 3월 신축 이전)
- 9. - 전라남도 장관에 노세이^{能勢辰五郎}(~1911.5. 최초의 일본인 도장관) 임명
- 광주 수피아여학교 제2대 교장으로 구애라^{具愛羅}(Miss Anna Mc Queller)
취임



■ 자혜의원

1910년 당시에는 전남관찰부의 부속건물을 온돌방으로 개조해 환자를 받았다.

1915년에 지금의 전남대학교 학동캠퍼스 자리로 옮겨 건물을 신축하였고, 1944년 광주의전을 거쳐 1950년대 초 전남대학교 의대 부속병원이 됐다.

- 10.1. - 무안부^{務安府}를 목포부로 개칭
 - 광주 종묘장을 전라남도 종묘장으로 개칭
(농상공부 소관에서 전라남도로 이관. 후에 농사시험장이 됨)
 - 광주 재판소, 북성정(동구 금남로 3가)에 청사 신축 착공
 - 통감부 광주감옥을 조선총독부 광주감옥(지금의 교도소)으로 개칭
- 12.20. - 목포 금융조합(뒤에 무안금융조합으로 개칭) 업무개시
- 12. - 영산강^{榮山江} 준설공사 시작
- 이 해에 - 이계익^{李啓翼}, 오치동에 오산정^{梧山亭}을 세움

전라남도내 경찰서 및 주재소 소재지

1910.12 현재

광주경찰서 - 西倉 長城 潭陽 昌平 玉果 谷城 同福
 나주경찰서 - 榮山浦 夢灘 法聖 靈光 咸平 綾州 和順 南平
 목포경찰서 - 鶴橋 靈岩 務安 智島
 해남경찰서 - 莞島 珍島
 장흥경찰서 - 康津 寶城 筏橋
 순천경찰서 - 求禮 光陽 麗水 突山 巨文島 羅老島 興陽 樂安
 제주경찰서 - 大靜 西歸 旌義

■ 국내·외

- 6.24. - 경찰권을 일본정부에 위임하는 각서에 조인
- 8.22. -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條約} 조인
- 8.29. - 대한제국을 조선^{朝鮮}으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 설치
 - 초대 총독 대라우찌^{寺內正毅}(~1918)
- 9.29. - 조선총독부 관제^{官制} 공포. 10월1일 시행. 행정구역을 13도 12부 317군으로 설정. 도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하고 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부·군을 두며 군에는 면을 두었다. 종전의 면^面, 방^坊, 사^社, 부^部 등의 다양한 행정구역을 면으로 통일
- 9.30. -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 이로써 토지 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1918년 완료. 토지 소유권^{土地所有權} 확정
- 12.29. - 회사령^{會社令} 공포.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함
- 이 해에 - 주시경^{周時經}의 『국어문법』 발행

1911년

■ 광주·전남

- 3.1. - 광주 나병원^{光州 痲内院} 설립. 최흥중^{崔興琮} 목사의 역설로 포사이드 의사와 우월순(R. M. Wilson) 의사가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 설립
구라^{救癩}사업 시작됨. 1926년 9월 구라시설은 여수군 율촌면 신흥리로 이전하여 여수 애양원^{愛養園}이 됨
4. - 광주 경찰서장에 나까시니^{中西青吉}(~1915.1.) 임명
- 광주 보통 전화 교환 업무 개시. 가입자 수 106명. 교환원 3명
5. - 이승만^{李承晩} 박사 강연차 광주에 옴
- 하루노야^{春乃家}(일본요정) 개업
- 전라남도 장관에 구도오^{工藤英一}(~1916.3.) 부임
- 전남도립 농림학교, 서방면 신안리^{瑞坊面 新安里} 국유 미개간지 23정보를 대여 받은 동시에 인근 민간 소유토지 2정보를 매입, 실습지로 하고 교사 신축 착공
- 수피아여학교 교사 건립



■ 봉선리 나병원 개원식(1911년)

1911년 효천면 봉선리에 세워진 요양소 완공기념 모습. 우월순 선교사의 주도로 1912년 신축된 나환자 요양소로 단층의 벽돌 기와집으로 되어 있었다.

5. 미국의 스티스(Mrs. M. L. Sternsnee speer) 여사가 친정의 어린 동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5천달러를 기증, 회색 벽돌로 3층 교사(Speer Hall)를 양림동 251번지에 짓고 수피아여학교(Jennis Speer Memorial School For Girls: 須彼亞)로 명명함
7. - 광주 재판소 및 검사국 신축 이전. 광주면 북성정 北城町(현 동구 금남로 3가 14번지). 부지 3,813평, 건평 279평, 관사 180평
- 10.1. - 호남선 철도 (목포와 대전에서 각각 기공식) 사업비 1,253만엔
목포~학교 鶴橋 간 철도 공사 착공. 1914년 1월 22일 전 구간 개통
- 10.5. - 광주 소방조 조직. 조장 組頭은 도꾸다 德田忠
- 11.1. - 독립광주농림학교를 광주공립농업학교로 개칭
- 공립광주보통학교를 광주공립보통학교로 개칭
11. - 광주 YMCA 창립. 강연차 광주에 온 이승만 박사의 권유로 광주 숭일학교를 중심으로 결성



■ 수피아 홀

- 12.15. - 목포 전등^{電燈}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50만엔. 불입자본금 275,000엔
사업목적은 목포·무안에 전등·전력 공급. 사장 아오키^{青木十三郎}
1913년 2월 영업개시
- 이 해에 - 광주 부인 잠농전습소를 ‘광주군 잠업전습소^{光州郡 蠶業傳習所}’라 개칭하고
동문^{東門}(대의동의 옛 광주지방국세청 근처) 안으로 이전
- 광주 무등다원^{無等茶園} 개원. 일본 돗토리현^{鳥取縣} 사람 오사키^{尾崎市三}가
최상진^{崔相鎭} 소유의 무등산 차밭을 차용하여 다원으로 개발
 - 목포에 인력거 처음 등장
 - 광주 제중원 건물 준공(이 건물은 1934년 화재로 불탐). 미국 그라함
의 딸 엘라 래빈 그라함(Ellen Lavine Graham)이 죽자 그를 기념
하기 위해 기부금을 보내와 50개 침상 규모의 3층 벽돌 건물을 준공
하고 E.L 그라함 기념 병원이라 함



■ 제중원

1911년 미국인 그라함이 딸의 죽음을 애도하며 보낸 기부금으로 세워 그라함 병원(Ellen Lavine Graham Hospital)이라고도 했다. 50개 침상 규모를 갖춘 3층 벽돌 건물이었으나 1930년대 화재로 소실되었다.

■ 국내·외

- 3.29. - 조선은행법 공포(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칭)
- 5.15. - 잡지 '소년' 폐간됨(23호)
- 6.3. - 조선 사찰령^{朝鮮 寺刹令} 공포(칙령 제7호로 9월 1일 시행. 선교^{禪敎} 양종의 전국 사찰을 통합하고 30개 본산으로 나누어 관장하게 함. 뒤에 31개 본산이 됨)
- 7.31. - 대한천일은행^{大韓 天一銀行}을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으로 개칭
- 8.23. - 조선 교육령 공포. 조선인을 일본 제국신민^{帝國臣民}으로 교육하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11월 1일 시행
- 10.1. - 압록강 철교개통으로 조선철도와 남만^{南滿} 철도가 직통 운행됨
- 11.5. - 한국인 최초의 방직회사인 경성직유^{京城織紐} 창립. 사장 윤치소^{尹致昭}
- 이 해에 - 구약성서 번역 출간
-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인을 러시아 정부 방침에 따라 신한촌^{新韓村}으로 이주시킴
- 중국 신해혁명 일어난다



■ 1934년 신축한 제중원

1933년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으나 직원들과 광주시민들이 힘을 모아 재건축하였다.

1912년

■ 광주·전남

- 2.20. - 간호사 서서평^{徐舒平}(본명 Miss Elizabeth J. Shepping, 1880~1934)
미국 남장로교 외국 선교국 파견으로 광주에 와서 광주제중원에 근무
- 4.1. - 광주 성내면^{城內面}, 기례방면^{奇禮方面}, 공수방면^{公須方面}, 부동방면^{不動方面}의
각 면을 합쳐 광주연합면^{光州聯合面}이라 함
- 5.16. - 여수 수산주식회사 설립. 여수 최초의 어시장으로 대표는 정길신^{政吉信}
- 5.25. - 광주연합면 초대 면장에 김치주^{金致周}(~1913.7.)
- 5. - 광주감옥, 서방면 동계리(현 동명동 200번지)에 신축 이전
부지 7,666평에 구내 2,729평
- 6.24. - 광주 전화 자석식 교환대 설치
- 9.1. - 광주농공은행 여수지점 개점. 초대 지점장 이시이^{石井理郎}
- 10. - 광주신보를 광주일보로 개제^{改題}하고 발행인 가다오카^{片岡義}의 운영권
을 아이가와^{相川保三}(전 목포신보 주필)에 이양. 동시에 남문통(현 충장로
1가)에 인쇄공장(자본금 15,000엔) 신설. 편집장은 오지마^{尾島吼夫}
- 전라남도 물산진열관^{物産陳列館} 개관(구 전남도청 맞은편 건물 관찰청사의
일부를 개수하여 1914년 5월 신축 이전)
- 11.4. - 면화취체규칙^{棉花取締規則} 전라남도령^令으로 공포
- 11.26. - 광주공립 농업학교, 신안리 유림^{柳林}(현 임동 92)에 교사 신축 이전
- 12.6. - 임병찬^{林炳贊}, 전라도에서 독립의군부 조직(1914년 대한독립 의군부로
편제 완비)
- 이 해에 - 비아시장^{飛鵝市場} 개설

- 이 해에 - 흥학관^{興學館}을 서광산동에 세움. 광주 공회당의 기능을 함
- 광주 숭일학교 보통과 6년, 고등과 4년으로 수업 연한 변경
 - 광주협률사 창단
 - 1912년 말 현재 광주 인구 10,432명
(한국인 8,477명, 일본인 1,924명, 기타 외국인 31명)

■ 국내·외

2. - 동척^{東拓}, 일본인의 조선 이민 계획 본격화
 3. - 재판소의 조직을 지방·복심^{複審}·고등법원의 3심^審 3급제^{級制}로 함
 - 조선총독부 면화재배 장려책 시달
 - 조선 민사령^{民事令} 및 형사령^{刑事令} 공포
 - 조선 부동산 등기령 및 증명령^{證明令} 공포
 - 12.6. - 서울 을지로(황금정)^{黃金町}에 전차^{電車} 운행 개시
- 이 해에 - 중화민국^{中華民國} 성립

1913년

■ 광주·전남

- 1.1. - 광주재판소를 광주 지방법원으로 명칭 변경
- 광주우편국(현 광주우체국) 신축 이전 업무 개시
(위치: 충장로 2가 16번지)
2. - 광주연합면 사무소 발족. 구 객사인 광산관 건물 일부를 차용
광산관 일부는 광주군 청사, 일부는 전라남도 회의실로 사용함
- 광주군수에 김정태^{金精泰} 취임(1918년 7월 퇴임. 마지막 한국인 군수)
- 2.4. - 목포전등주식회사^{木浦電燈株式會社} 영업 개시
- 3.21. - 송정우편소 발족. 우편·환·저금 취급 개시
3. - 광주공립농업학교의 수업연한 2년을 3년으로 학칙 변경
- 4.1. - 강진 병영^{兵營} 학교 설립
4. - 원각사^{圓覺寺}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 건립
- 광주군 행정구역 변경. 41개 면을 20개 면으로 조정
- 5.15. - 호남선 목포~학교 간 개통
- 7.1. - 호남선 목포~나주 간 개통
7. - 광주면장에 조유석^{趙由錫}(~1914.4.) 임명



■ 호남선 목포역

7. - 광주군 면작조합 창립. 조합원(육지면 경작자) 9,787명
주요사업: 면화의 공동판매, 공동 조면^{繰綿}, 자금 대여 등
- 광주~송정리 간 경편^{輕便}철도 부설허가
8. - 광주상공회(일본인 상공인 연합체) 창립. 12월 창립허가를 받음
- 광산동 요정 기쿠야^{菊屋} 화재. 피해액 2,000엔. 건물 60평 모두 불에 탐
- 광주농공은행 여수 지점 개점
9. - 이토^{伊藤}양조장이 서문통에 개업. 대표 이토^{伊藤繁} 자본금 8,000엔
- 10.1. - 호남선 철도 목포~송정리 간 개통. 송정리역 영업시작(현 광주 광산구 송정3동 1003번지) 이 역은 대전기점 198.08km 목포기점 70.06km 삼랑진기점 314.8km에 위치함

목포 전기 점등^{点燈}

수요가구 251호, 등수 1115등

요금 1개 등은 1개월 탄소선^{炭素線} 1엔 35전, 텅스텐선 1엔 5전

전구값 10촉광 1개당 탄소선 25전, 텅스텐선 1엔10전



송정리역

1913년 송정리에 처음으로 철도가 들어왔다. 이듬해 호남선의 전구간이 개통됐지만 이때만 해도 광주사람들은 도보 또는 마차나 승용차로 송정리역까지 나가야 열차를 탈 수 있었다.

- 10.3. - 조선 면화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200엔 불입자본금 1,125,000엔
사업목적: 면화재배 및 조면업. 본사 목포시 수정 1-5번지
- 11. - 광주 일본인 소학교(현 중앙초등학교자리)가 궁정(현 궁동)에 신축 이전
- 12.1. - 목포면업주식회사 설립 개업
- 12. - 광주 헌병대장 겸 전라남도 경찰부장에 우라노 浦野大藏(~1917.4. 퇴임)
임명
- 이 해에 - 광주 자혜병원 慈惠病院 학동(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전대병원 자리)
에 신축 착공. 1915년 4월 준공 이전
- 순천 매산 梅山 학교 설립
- 구동공원 龜洞公園 설정. 총면적 9,600평
1940년 총면적 22,514평으로 확장

■ 국내·외

- 이 해에 - 조중환 趙重桓의 번안소설 『장한몽 長恨夢』이 매일신보에 연재됨
-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독립운동단체인 흥사단 興土團 조직

전라남도내 경찰서 및 주재소 소재지

1913년 현재

광주경찰서 - 西倉, 坪村里, 昌平
 목포경찰서 - 海岸通, 務安, 望雲, 智島, 箕佐島, 木浦警備所
 여수경찰서 - 細洞, 羅老島, 突山, 巨文島, 大仁洞, 居金島
 강진경찰서 - 城田, 寶岩場, 兵營, 七良場, 龍井洞, 靈岩, 東倉場
 곡성경찰서 - 石谷, 於德里, 鴨綠院
 영광경찰서 - 法聖浦, 保川場, 平地里, 松川里, 沙川里
 해남경찰서 - 右水營, 松旨場, 貢稅浦, 莞島, 古今島, 甫吉島, 平日島,
 珍島, 十一市, 犢川場
 제주경찰서 - 明月洞, 金寧里, 大靜, 西歸浦, 旌善

1914년

■ 광주·전남

- 1.1. - 송정우편소, 전신·전화 통신사무 취급 시작
- 1.11. - 호남선 정읍~송정리 간 철도 준공으로 호남선(대전~목포간) 철도 전선^{全線} 개통. 3월 22일 목포역전에서 개통식 거행
- 1. - 광주군농회^{光州郡農會} 조직. 회원: 경지면적 30두락 이상의 지주 663명
- 2.1. - 영산포역 영업 개시
- 2. - 광주면 사무소 이전(후지야 요정 옆 양철지붕의 민가)
현 금남로 2가 무등빌딩 자리
- 3.1. -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목포부와 무안군 분리(금동·진례·좌촌·엄다·신노의 5개면을 함평군에 넘겨주고 나머지 13개면과 지도군의 13개면, 완도군의 팔금면과 진도군의 도초면을 병합하여 다시 무안군이라 함)
- 3.2. - 전라남도령^{全羅南道令} 제2호로 전라남도내 부·군의 명칭을 새로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 목포는 부제^{府制}를 시행
목포부·광주군·곡성군·구례군·광양군·순천군·여수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나주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완도군·진도군·제주군
- 인접군을 합병한 곳: 고흥(홍양), 화순(동북·능주), 담양(창평), 곡성(옥과), 무안(지도), 여수(돌산), 순천(낙안), 나주(남평), 제주(대정·전의)
- 4.1. - 지방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군 20개면이 15개면으로 됨
광주^{光州}, 지한^{池漢}, 석곡^{石谷}, 서방^{瑞坊}, 효천^{孝泉}, 극락^{極樂}, 비아^{飛雅}, 송정^{松汀}, 서창^{西倉}, 동곡^{東谷}, 대촌^{大村}, 우치^{牛峙}, 본촌^{本村}, 임곡^{林谷}, 하남^{河南}
- 지방 행정구역 개정 시행에 따라 성내, 기례방, 부동방, 공수방을 합쳐 광주연합면이라 하다가 광주면(신설 구역 64만평)이라 고침
- 광주면장에 박흥서^{朴興緒}(~1915.2.) 임명
- 5.1. - 광주지방법원 강진·장성 출장소(등기소) 설치

5. - 강진에서 고려도요지^{高麗陶窯址} 발견(현 사적 68호)
6. - 의병장 임병찬^{林炳贊}, 거문도로 유배
 - 사립 목포 정명^{貞明}여학교 설립 인가. 보통과 4년, 고등과 4년
 - 사립 목포 영흥^{永興}학교 설립 인가. 보통과, 고등과
7. - 광주농공은행 자본금 10만엔을 20만엔으로 증자
- 9.11. - 전남지방, 심한 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음
9. - 광주농공은행 목포지점 개점

광주군 행정구역

광주군은 1910년 당시 41개면이었으나 1913년 4월 20개면으로, 1914년 4월 다시 15개면으로 통폐합(1914년 당시 신설면 / 종전의 면)

光州面 / 城內面, 奇禮坊面, 公須坊面, 不動坊面

池漢面 / 池漢面

石谷面 / 石底面, 上大谷面, 下大谷面

瑞坊面 / 斗坊面, 瑞陽面, 梧峙面, 黃界面

牛峙面 / 牛峙面, 三所旨面

東谷面 / 東角面, 馬谷面

大村面 / 大枝面, 漆石面, 柳等谷面

孝泉面 / 孝友面, 陶泉面, 當夫面

本村面 / 甲馬保面, 石堤面

極樂面 / 德山面, 內丁面, 軍盆面

飛鵝面 / 馬池面, 泉谷面

林谷面 / 巨峙面, 召古龍面

河南面 / 瓦谷面, 黑石面

松汀面 / 牛山面, 所旨面, 古內廂面

西倉面 / 方下洞面, 船道面, 桂村面

※潭陽郡 大田面 / 광주군 大峙面, 葛田面(1914년 대치면과 갈전면은 담양군 대전면이 됨)

10. - 전남지주회 창립(회원 278명)

이 해에 - 구동공원에 광주신사^{神社} 착공

- 광주성문과 읍성^{邑城} 철거, 누문^{樓門},拱北樓^{拱北樓}는 몇년 뒤 철거

- 광주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광주에서 순교한 오원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오원기념관’ 건립. 건평 453.8평. 강연회·음악회·가극·무용·연극·영화상영 등 광주 공회당의 역할을 함

- 정낙교^{鄭洛教}, 사직공원에 양파정^{楊波亭}을 세움. 1932년 중건

■ 국내·외

8.16. - 경원선^{京元線} 완전 개통

6.28. -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시작 됨

8.23. - 일본 독일에 선전 포고

9. - 조선시장규칙^{朝鮮市場規則} 공포

- 잡지 ‘청춘^{青春}’ 창간

- 조선폰텔 낙성

광주면 행정구역: 4통^通 10정^町 5리^里

4통 = 동문통·서문통·남문통·북문통. 현 광주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동서남북의 성문에 이르는 길거리를 구분함

10정 = 동광산정^{東光山町}·서광산정^{西光山町}·서성정^{西城町}·북성정^{北城町}·중정^{中町}·금정^{錦町}·

궁정^{弓町}·부동정^{不動町}·화원정^{花園町}·수기옥정^{須奇屋町}

5리 = 서남리^{瑞南里}·금계리^{錦溪里}·향사리^{鄕社里}·성저리^{鄭底里}·누문리^{樓門里}

1915년

■ 광주·전남

1. - 광주 경찰서장에 스즈키^{鈴木貞}(~1918.2.) 임명
- 광주 우계^{牛契} 창립. 회원 100명. 축우^{畜牛} 개량 목적
- 2.9. - 광주 면장에 최상진^{崔相鎭}(~1917.9.30. 한국인 마지막 면장) 임명
- 3.15. - 광주 향사리교회(현 서현교회) 준공(검정 벽돌건물. 건평 50평)
4. - 광주 자혜병원 신축 이전. 부지 15,000여평, 공사비 70,000엔
현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자리
- 광주 최초로 야구^{野球}를 송일학교에서 시작
양림교회의 노라복·배유지·타마자 등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야구 글러브와 방망이, 유니폼 등을 가져옴
- 5.21. - 화순 무연탄주식회사 설립
- 전라남도 제주군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라 하고 도청^{島廳}을 설치
행정과 경찰을 겸무하는 도시^{島司}를 임명
- 이 해에 - 정상호^{鄭尙好}, 독일 유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축구공 등을 가져옴
(유니폼 한 벌, 공 한 개로 광주에서 처음 축구 시작)
- 1915년 12월 말 현재 광주면 인구: 총 2,225호에 10,605명(한국인 1,552호에 8,193명, 일본인 667호에 2,392명, 기타 외국인 6호에 20명)



■ 1915년 학동에 신축 이전할 당시의 자혜병원

■ 국내·외

- 4.4. - YMCA에서 경신학교^{敬信學校} 대학부 설치. 1923년 3월 연희^{延禧}전문학교로 명칭 변경
- 4. -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중앙학교를 인수
- 7.14. - 조선상업회의소령이 제정 공포되어 조선인 상업회의소와 일본인 상업회의소가 통합
- 9.11. - 조선물산공진회 개최(한일합병 5주년 기념. 경복궁 후원에서 10월 31일까지 운영)
- 9. -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 청사 준공
- 이 해에 - 백암 박은식^{白巖 朴殷植} 『한국통사^{韓國痛史}』 발간
- 일본제^{日本製} 고무신 등장

1916년

■ 광주·전남

- 3.26. - 박중빈^{朴重彬}(영광출신) 원불교^{圓佛敎} 창교(현재는 창교일을 4월 28일로 바꿔 기념)
- 3. - 광주면사무소, 정낙교^{鄭洛敎} 소유 건물(부동정 92번지)로 이전
부지 454평, 기와집 2동, 건평 42평2홉5작, 최상진^{崔相鎭} 면장 ·
김형옥^{金衡玉} · 최원택^{崔元澤} 등이 이전에 협조
- 송정리 호리노장^{堀野信吉} 정미소 개업
- 전라남도 장관 미야기^{宮木又七} 부임(~1919.9.)
- 광주 야소교회^{耶蘇敎會}(북문안 교회) 한국인 최초의 목사에
이기풍^{李基豐} 부임(평양 장로교 신학교 제1회 졸업생. ~1942.6.)
- 5.3. - 목포 송도신사^{松島神社} 준공
- 5.23. - 의병장 임병찬^{林炳贊}, 거문도 유배지에서 자결
- 6. - 목포 상업회의소 개편(일본인 상업회의소를 개칭한 것임)
- 8. - 목포에서 육지면^{陸地綿} 재배 10주년 기념대회 개최
- 10. - 광주금융조합이 충장로 4가 33번지로 신축 이전. 뒤에 광주조합
(도시조합)이 별도 창립하고 농촌조합은 광산금융조합으로 명칭 변경

광주경찰서 현황

1916년 현재

서장 스키^{鈴木貢}

순사부장 3명, 순사 24명(조선인 순사는 2명), 순사보 32명으로 총 59명

광주서 직할 / 光州 孝泉 池漢 極樂 瑞坊

송정리주재소 / 松汀里 東谷

서창주재소 / 西倉 大村

임곡주재소 / 林谷 河南

연봉정^{延峰亭}주재소 / 石谷 牛峙

비아주재소 / 飛鴉 本村

11.16. - 광주전등주식회사 설립 허가

11.30. - 광주에 주둔하던 일본군 수비대 대대(병력 150명) 철수

이 해에 - 김흥열^{金興悅}, 광주 자혜병원 의관^{醫官}으로 부임(광주서중학교 교의^{校醫},
중앙병원장 등을 역임)

- 1916년 12월 말 현재 광주면 호구 및 인구: 한국인 1,864호에
8,351명, 일본인 693호와 외국인 8호에 2,565명, 도합 10,901명

■ 국내·외

4.1. -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공업전문학교 설립

6.25. - 경복궁 터에 조선총독부 청사 기공(1926년 준공)

이 해에 - 전국의 전화가입자 1만명 돌파(한국인 677명)

1917년

■ 광주·전남

- 1.30. - 광주 북문밖 교회 (일명 종^鐘예배당 또는 Bell Church, 그 후신이 광주 중앙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
3. - 수산^{授産} 광주 잠업전습소를 전라남도 잠업강습소로 개칭함
서방면 신안리 634번지(현 임동)로 신축 이전
(건축비 1만 6천엔. 정원 25명. 수업기간 9개월)
4. - 광주 헌병대장 겸 전라남도 경찰부장에 시오자와^{鹽澤義夫}
(~1917.7.) 부임
- 전라남도 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 창설



■ 전남도청 앞

사진의 왼쪽이 현 상무관 일대이고 오른쪽이 옛 전남도청이 들어선 자리이다.

4. - 광주 전등주식회사 창립. 자본금 5만엔. 사장은 오구라^{小倉良則}
취체역은 아오키^{青木重信} · 와카바야시^{若林誠助} · 김형옥^{金衡玉},
감사는 최원택^{崔元澤} · 정재학^{鄭在學} · 우오타니^{魚谷與藏}
- 고흥군 소록도에 자혜^{慈惠}병원 설립 개원. 초대원장 아리가와^{蟻川亨}
1916년 2월 소록도 서쪽에 199,700여평의 토지매수. 동년 7월
착공. 1917년 1월 본관 외 47동이 준공됨에 따라 4월 100명을 수용
하고 개원. 1918년 말 소록도 전체를 매수하여 시설확장. 1938년
말에는 5,025명 수용. 1934년 11월 1일 소록도갱생원^{小鹿島更生園}으로
명칭 변경
- 5.1. - 여수 간이수산학교를 여수 공립보통학교 부설로 설립. 수업연한 1년
1921년 4월 여수 공립수산학교로 승격. 수업연한 2년으로 학칙 개정
1924년 3월 수업연한 3년으로 하고 교사신축이전. 1941년 4월 수업
연한 5년으로 하고 어로과 · 제조과 · 양식과를 둠
1944년 11월 국동^{菊洞}으로 교사 신축이전(수산전문대학의 전신)
- 광주신사^{光州神社} 준공
5. - 광주 전기 가설공사 착공. 8월 16일 송전 개시. 전주 200여개. 광주
면내 1천개의 전등 가운데 자혜병원 95등, 광주감옥 45등, 우편국
35등
7. - 광주 헌병대장 겸 전라남도 경무부장에 후지다^{藤田耕一}(1919. 8.) 부임
- 8.15. - 여수군청 청사 전소. 이 건물은 1479년^{成宗10}에 수군절도사의 시무청
으로 지은 것인데 이때에 운주현^{運籌軒}, 일명 簡籌堂, 결승당^{決勝堂}, 완경루
綬輕樓 등 역사적 건물이 모두 소실됨
- 10.1. - 광주면이 지정면^{指定面}이 됨. 지정면은 일본인 거류민이 많은 곳으로
지정면 면장은 거의 일본인이 맡았음

- 광주면장에 마즈다^{松田德次郎}(~1918.7.) 임명됨
- 10. - 광주 제1수원지 착공(지한면 운림리. 1920년 5월 준공)
- 12.17. - 나주 반남면 덕산리 및 신초리 백제고분 조사. 조사자 다니이^{谷井濟一}
- 이 해에 - 광주~송정리 간 승합자동차 2대가 매일 4회 운행 개시. 이들 자동차는
화원정^{花園町}에서 가토^{加藤幾三郎}가 경영함
- 김희수^{金喜洙}, 하백마을에 연파정^{蓮坡亭}을 세움. 1934년 김용학^{金容鶴}이
하은정^{荷隱亭}을, 1949년에는 백암정사^{白菴精舍}를 세움
(광주시 민속자료 제3호)
- 광주지방법원 청사 개축
- 광주면 구역 64만평, 19개 정^町·리^里의 동명^{洞名}을 일본식으로 바꿈
이때 광주면에는 한국인 1,752호에 8,267명, 일본인 762호에
2,569명이 거주하여 일본인 비율이 31.1%를 이룸
(1917년 10월 현재)

■ 국내·외

- 1.1. - 춘원 이광수, 장편소설 『무정』을 매일신보에 연재(~6.14.)
- 10.1. - 면제^{面制}(지정면)의 개정 시행으로 전국 2백여 면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본인을 면장으로 임명하기 시작
- 11.17. - 한강 인도교 준공

1918년

■ 광주·전남

- 2. - 광주 경찰서장으로 니노미야^{二宮恒藏}(~1919.12.) 부임
- 4.22. - 조선 농림주식회사 장흥^{長興}출장소(본점은 경성) 설치. 장흥군내 산림 2,500 정보를 경영
 - 광주농공은행 해산을 결의
(조선식산은행 발족과 함께 이에 합병을 전제로 함)
- 7. - 광주면장에 미우라^{三浦快哉}(~1918.11.) 임명됨
 - 광주군수에 야마사끼^{山崎信之}(~1920.8.) 임명됨
 - 조선 면화주식회사가 목포에서 설립됨. 목포 면업주식회사와 천평^{天坪}면업주식회사, 니찌맹^{日棉} 목포지사 등이 합병됨
 - 남북 면업주식회사(일본 미즈이^{三井} 재벌 계열)가 목포에 설립됨
자본금 100만엔
 - 광주 면업주식회사 설립. 공칭 자본금 10만엔, 불입 자본금 75,000엔. 사장은 나카무라^{中村再造}
- 10.1. - 조선 식산은행 광주지점 개점(광주 농공은행을 흡수하고 그 점포 사용)
- 11. - 전라남도 금융조합연합회를 광주에 설치

■ 국내·외

- 1. - 서당^{書堂}에 관한 취체령을 발포
- 6.7. - 조선 식산은행령 공포(10월 1일 조선식산은행 설립)
- 6.18. - 조선총독부 토지조사 사업 완료 (1910년 착수). 토지조사 사업 결과, 지주 9만호, 자작농 50만호, 소작 겸 자작농 100만호, 소작농 100만호, 임야 1,600만 정보 중 국유 1,300만 정보 사유 300만 정보
- 11.11. - 제1차 세계대전 휴전 조약 성립
- 이 해에 - 조선서화협회 설립

1919년

■ 광주·전남

- 1.25. - 호남창의맹소 통령인 의병장 김용구^{金容球}, 고종 사망 소식에 자결
- 2.3. - 여수 서도^{西島} 초등학교 개교
- 2. - 광주금융조합(도시조합) 개업. 이전의 광주금융조합은 농촌조합으로
하고 명칭도 광산금융조합으로 바꿈
- 3.9. - 여수 돌산^{突山} 초등학교 개교
- 3.10. - 광주 3·1 독립운동 일어남. 10일 광주 작은 장터의 만세 시위에
이어 송일·수피아·광주 농교생들이 가두시위하고 13일 큰 장날에는
장꾼들을 포함한 1천여 명이 만세를 부르고 시위 행진을 함
- 남북^{南北}면업주식회사(목포 해안동)가 업무를 시작
- 4.1. - 목포금융조합은 농촌조합인 무안금융조합으로 개편하고 도시조합
인 목포금융조합을 별도로 설립함
- 4.30. - 광주 3·1 운동 관련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결심^{結審} 공판이 열림
- 4. - 전라남도 잠업취체소 창설(5월 1일 도청 구내에서 개소. 7월 10일
충장로 3가로 신축 이전)
- 전남인쇄주식회사(본사 목포) 창립과 동시에 광주일보사 매수
- 5.1. - 광주에 잠업검사소 설치
- 6.7. - 광주일보·목포신보를 전남인쇄주식회사에서 경영
- 6.10. - 요정 니시무라로^{西村樓}에 화재. 건평 70평 모두 불탐. 피해액 4천엔
- 6. - 목포 창고금융주식회사 창립
- 7.17. - 광주 대흥수로 부동교 일대 범람
- 광주고등보통학교 기성회 조직
- 7.20. - 호남은행^{湖南銀行} 설립 발기인들이 회합
- 7.22. - 광주면장에 요시무라^{吉村軌}(~1921.2.) 임명됨
- 7. - 남조선 철도주식회사 설립

- 9.15. - 여수 전등(주)허가(10월 13일 설립, 자본 10만원) 1921년 5월 15일 개업
- 9.26. - 전라남도지사에 이스미^{玄角仲藏}(~1921.6.) 임명됨
- 10.1. - 송정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같은해 12월 16일 개교. 1938년 4월 송정동 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4월 1일 송정동공립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10. - 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 광주지소 설치
- 광주북문안교회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대거 참여하자 북문안 교회 터를 일제가 몰수해버려 교회 건물을 뜯어다가 금정^{金町} 101번지(구 협화병원 자리)에 옮기고 금정교회(일명 남문밖교회)라 함 이후 1948년 남부교회, 1952년 광주제일교회로 개칭함
- 11.1. - 동산^{東山}농사주식회사 전남출장소를 영산포에 설치
- 전남소주주식회사(목표 자본금 10만엔) 설립

조선내 미곡생산, 대일 수출량 및 1인당 소비량

연도	연평균 생산량	지수	대일 수출량	지수	1인당 소비량
1912-16	12,303천석	100	1,309천석	100	0.7188석
1917-21	14,101천석	115	2,443천석	187	0.6890석
1922-26	14,501천석	118	4,375천석	334	0.5871석
1927-31	15,798천석	128	6,616천석	505	0.4964석
1932-36	17,002천석	138	8,736천석	667	0.4017석
1937	19,410천석	158	7,201천석	550	0.5679석
1938	가장 피크로 10,000천석(일본의 쌀 보충률 73.9%)				
1939	14,300(큰가뭄)		5,500		

- 12.2. - 광주주조주식회사 설립. 마츠다^{松田} 양조장과 시메노^{占野} 양조장이 합병한 것임. 자본금 20만엔 . 청주국일광^{淸酒菊日光} 등 생산
- 12.22. - 모리히라 구미^{森平組}(토지경영업) 광주지점 개점
12. - 광주경찰서장으로 요시아^{吉屋清威}(~1920.1.) 부임
- 목포 장유^{醬油} 주식회사 (자본금 20만엔) 설립
- 간호사 서서평^{徐舒平}, 서울 세브란스병원 간호학교 교사로 있다가 3·1운동 후 다시 광주로 내려와 제중병원에 근무
- 이 해에 - 광주 인쇄직종조합 설립

■ 국내·외

- 1.21. - 고종, 덕수궁에서 승하^{昇遐}
- 2.8. - 일본 동경유학생 최팔용^{崔八鏞} · 서춘^{徐椿} · 백관수^{白寬洙} · 김도연^{金度演} · 정광호^{鄭光好} · 최원순^{崔元淳} 등 600여명이 조선 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동경유학생학우회 이름으로 독립선언문 발표(2·8.독립선언)
- 3.1. - 3·1독립운동 일어남
- 민족대표 손병희^{孫秉熙} 이하 33인 서울 태화관^{泰和館}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하여 독립요구 시위 계속. 각지로 확산(6개월 여), 총 참가자 136만명, 피살 6,670명, 투옥 52,730명
- 3.9. - 상가^{商街}동맹 파업 철시(~4월 상순까지)
- 4.10. - 민족운동지도자 30여명 상하이 프랑스계 금문신로^{金文神路}에서 제1회 임시 의정원을 개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조 채택(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 6월 중순 - 김성수^{金性洙}, 경성방직주식회사 주주 모집차 호남지방을 방문

- 8.2. -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에 따라 헌병정치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 제도를 실시. 일반관리와 교원의 급띠 두른 복장과 칼 착용을 폐지
-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도장관^{道長官}을 도지사^{道知事}로 부름
- 10.5. - 김성수 등이 경성방직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1백만엔, 불입자본금 40만엔. 사장 박영효, 전무 김성수
- 10.27. -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투^{義理的 仇鬪}’가 단성사에서 상영됨(제작 박승필^{朴承弼} 김도산^{金陶山}, 촬영 이필우^{李弼雨}, 출연 변기종^{卞基鍾})
- 백암 박은식^{白巖 朴殷植}(61세) 블라디보스토크^{海參威}에 노인단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 상해임정에 참여. 독립신문사장에 취임
- 『한국 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止血史}』 지음(1920년 발간). 1925년 3월 23일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에 선임. 11월 1일 별세

1920년

■ 광주·전남

1. - 광주~송정리~영광 간 여객자동차 운행을 개시. 최선진^{崔善鎭} 경영
 - 광주 경찰서장으로 오진다^{大仁田市太郎}(~1921.3.) 부임
- 2.9. - 주식회사 호남은행 설립 인가
2. - 광주전기주식회사가 대구의 대흥^{大興}전기회사(사장 오구라^{小倉武之助})에 흡수 합병당함. 7월 7일 대흥전기주식회사 광주출장소로 영업 개시. 1921년 지점으로 승격
3. - 조선생사^{生絲}주식회사 광주잠종사업부를 양림리(현 양림동)에 개설 (본사 대구)
- 4.4. - 광주 사립배영학교 개교
- 4.6. - 광주 사립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등학교) 설립 인가. 설립준비 위원회 대표 김형옥^{金衡玉}을 비롯한 도내 유력인사 50여명이 1920년에 13만5천엔, 1921년에 3만5천엔을 각출 부담하기로 함
- 4.15. - 강진 군동면의 동양척식회사 농장의 조선인 소작인들과 일본인 이민자들이 충돌
 - 광주 사립고등보통학교가 광산관(현 충장로1가)에서 개교
- 5.1. - 목포 공립실과여학교가 목포 공립심상소학교 일부를 임시 교사로 사용해 개교. 초대 교장 요시무라^{吉村貫之}(목포 소학교장을 겸직)
 - 1921년 4월 1일 목포 공립고등여학교로 승격
- 5.15. - 전남교육회 결성
- 5.20. - 광주 제1수원지 준공. 5월 30일 통수식 거행. 광주군 지한면 윤림리에 위치. 1917년 10월 착공. 만수면적 17.523㎡ 저수량 69.851㎥ 수심 11m
- 6.1. - 목포 공립상업전수학교 개교(1922년 4월 목포 상업학교로 승격)
- 6.5. - 전남 식산^{殖産}주식회사 설립(자본금 100만엔. 사장 이시이^{石井駒次郎})

전무 미야와키^{宮脇丈八}. 본사: 광주군 송정리 711번지. 광주·나주·담양·장성 농토 860정보 및 송정리 시내 중심지 땅 1만평 경영)

6. -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개설. 동척은 전라남도를 관할하는 지점을 목포에 두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매수함
 총 10,411정보(논 7,180정보, 밭 1,799정보, 산림 940정보, 잡종지 492정보) 목포 지점의 상근 직원은 14명이고 그 밖에 32명의 직원이 17개 농장을 관리했음. 지역별 농장 수는 영산포 4, 나주 세지 1, 담양 2, 함평 문장 1, 영광 2, 장성 1, 영암 2, 영암 삼향 2, 강진 3, 송정리 2, 광주 대촌 2, 광주 서창 1, 재창포^{在倉浦} 1, 진도 1, 장평 2, 보성 2, 벌교 3
- 동양척식주식회사 해남산업 설립(전남 보성, 농사경영, 자본금 20만엔)
- 광주청년회 조직: 회장 최종섭^{崔鍾涉}, 부회장 정인준^{鄭仁俊}, 총무 최준기^{崔駿基}, 회계 최연석^{崔煉錫}, 서기 전순협^{全淳莢}, 의사장 장경두^{張璟斗}, 지육부장 양원모^{梁源模}, 사교부장 최영욱^{崔泳旭}, 편집부장 설병호^{薛炳浩}, 경리부장 최선진^{崔善鎭}, 체육부장 최남립^{崔南立}, 교풍^{矯風}부장 전용기^{全龍基}
- 7.7. - 대흥전기(주), 광주전기(주)를 합병하고 광주출장소를 설치
- 8.16. - 주식회사 호남은행 창립 총회
- 9.1. - 광주청년회가 운영하는 여자야학이 흥학관에서 개학식 거행. 9월 2일 개학. 학장 김필례^{金弼禮}, 교사 임자혜^{林慈惠}. 홍승혜^{洪勝惠}, 입학생 4백여명. 과목은 조선문, 한문, 산술, 가정학 등
- 후쿠다^{福田}농사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100만엔. 불입자본금 50만엔
 사장 후쿠다^{福田恒}. 농토 800정보 경영. 본사: 목포시 해안통1-8번지
- 광주에 콜레라 만연. 9월 16일 현재 발병 130명, 사망60명
- 9.20. - 주식회사 호남은행 개업(광주면 북문통 9번지에서 영업 개시)

- 9. - 사립 금정교회^{錦町教會} 유치원 설립(원장 김강^{金剛})
- 10.2. - 호남은행 목포지점 개점(목포부 무안통 6번지. 1929년 상락동 1가10번지에 대지 427평, 건평 256평의 2층 벽돌 건물을 지어 이전)
- 10.15. - 광주 유도현창회(훗날 광주육영회)에서 운영하는 광주도서관 개관
도서 3,950권, 1940년 4월 광주부립^{府立}도서관(현 동구 황금동 롯데
시네마 층상점 자리)으로 이관
- 11.30. - 조선 노동공제회 전남지부 창립. 최흥종^{崔興宗} 등 102명이 광주향교 명륜
당에서 발기대회 개최. 1924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 발족에 따라 해산
- 12.11. - 송정우편소 전화·교환업무 취급 개시
- 이 해에 - 완도 조약도^{助藥島}에 사립 약산^{藥山}학교 개교. 설립자 최기열^{崔己烈} 교장
정환중^{鄭煥中} 1942.5 공립국민학교로 흡수 합병
- 사립 반남학술강습소^{潘南學術講習所} 개교. 4년제로 나주 반남면 신촌리에서
나준집^{羅駿集}이 사재를 털어 세움. 1925년 교주^{校主}의 투옥으로 폐쇄
- 광주 최초의 한국식 요리집 ‘신광원’ 개업



■ 호남은행

1920년 설립되어 1925년에 2층 벽돌 건물을 신축했다. 1942년 동일은행에 합병된 이후에 이 건물은 동일·조흥·한국은행의 지점 및 광주은행 본점으로 이용됐다.

■ 국내·외

- 3.5. - 조선일보 창간(발행인 예종석^{芮宗錫})
- 3.15. -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1차대전 후 경제적 공황에 빠짐
- 3.31. - 태형령^{荅刑令} 폐지
- 4.1. - 동아일보 창간(김성수^{金性洙} · 박영효^{朴泳孝} · 장덕수^{張德秀} 등이 발기)
- 시사일보 창간(민원식^{閔元植} 발기)
- 회사령 개정(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꿈)
- 4.15. - 당진 동면^{唐津東面}의 동양척식회사 농장의 소작인들이 일본인 이민들과 충돌
- 5.16. - 조선체육회 주최 ‘제1회 전조선체육대회’ 개최
- 6.29. - 해동은행^{海東銀行} 설립
- 6. - 잡지 ‘개벽^{開闢}’ 창간
- 7. - 조선체육회 발족
- 각도에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평의회’ 설치(의장은 도지사, 의원 3분의 2는 부, 읍, 면 평의원이 선출. 3분의 1은 도지사 임명)
- 8.24. - 조만식^{曹晩植} · 오윤선^{吳胤善} 등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 10.20. - 김좌진^{金佐鎭} · 이범석^{李範奭} 등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부대 2,500명이 만주 청산리^{靑山里}에서 일본군 연대병력을 격파(일본군 3,300여명 사살, 청산리대첩^{靑山里大捷})
- 11.10. - 조선교육령 개정.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
- 한국역사와 지리 대신 일본역사와 지리를 가르침
- 12.31. - 총독부, 대한제국 화폐의 통용을 금지시킴
- 이 해에 - 윤심덕^{尹心德}이 한국인 최초로 일본 레코드에 취입^{吹入}

1921년

■ 광주·전남

- 2.8. - 광주 면장에 후쿠다^{福田有雅}(~1923.5.)이 임명됨
- 3. - 광주 경찰서장으로 도리고시^{鳥越嘉太郎}(~1923.1.)이 부임함
- 4.1. - 목포 공립고등여학교(일본인 학생 위주) 개교
(실과 여학교를 승격시킨 것임)
- 4.4. - 최영욱^{崔泳旭}(의학박사, 해방후 미군정 때 초대 전남도지사 역임)
연구차 도미
- 4.10. - 오형남^{吳亨南}(화순 동북 출신)이 자동차 몇 대를 구입하여 광주~순천 간
(화순·동북·광천 경유) 정기운행 시작
- 광주 대동단^{大同團} 사건에 대한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림. 이 사건
은 광주출신 신덕영^{申德永}·노석정^{盧錫正} 등이 상해임시정부 자금을 조달
한 사건임
- 여수간이수산학교가 여수공립수산학교로 승격
- 5.8. - 광주~송정리 간 철도 기공(남조선철도주식회사에서 시공)
광주 정거장(구 광주역 부지)에서 기공식 거행. 1922년 7월 완공
- 5.17. - 간호사 서서평, 광주 진다리교회(현 백운교회) 설립
- 5.30. - 블라디보스토크^{海參威} 조선학생 음악·무도단, 광주 오웬기념각에서
공연
- 6.1. - 광주유치원(중앙교회 유치원의 전신) 개원(초대 원장 최흥종^{崔興宗},
교사(보모) 노마리아·임자혜^{林慈惠}·박화성^{朴花城})
- 6.2. - 여수 소라^{召羅}보통학교 개교
- 6.7. - 전라남도 도지사로 원응상^{元應常}(~1924.12.) 부임
- 6.10. - 조선공제회 광주지회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회장 서정희^{徐廷禧},
총간사 김복수^{金福洙})
- 6.28. - 도덕^{道德}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동년 10월 3일 개교, 1931년 10월

삼도^{三道}공립보통학교로 명칭 변경

- 7.1. - 전주 연초전매지국 광주출장소 설치. 총장로 3가 잠업취체소 청사 일부를 사용. 광주·담양·장성·화순·곡성·영암·순창 관할
- 7.2. - 선광상사^{鮮光商事}가 대인동에 설립됨. 창고 및 금융·도정업. 자본금 20만엔, 불입 자본금 12만엔
- 7.3. - 광주 야소^{耶蘇}교회 헌당식(이 교회는 일명 종^鍾예배당 또는 북문밖 교회라 불린 교회를 말함)
 - 흥학관에서 광주부인회 조직(회장 홍선경^{洪善卿}, 부회장 홍은희^{洪恩喜}, 총무 김필례^{金弼禮})
- 7.24. -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동우회의 순회음악회를 동아일보 광주지국 주최로 광주좌^{光州座}에서 개최. 윤심덕^{尹心悳}의 노래와 연극 '전영일^{全英一}의 사^死'를 공연하던 중 임석 경찰관의 제지로 중단되고 일동은 눈물을 머금고 해산함
- 8. - 광주 서방^{瑞坊}공립보통학교(현 광주 수창국민학교의 전신) 설립 인가 10월 3일 개교
- 9.3. - 대흥전기주식회사 광주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
- 9.7. - 광주 사립고등보통학교(현 광주 제일고등학교) 교사 신축 기공. 위치는 누문리^{樓門里}. 부지 13,000평, 공사비 4만엔
 - 목포에서 사립 명조^{明照}유치원 설립
 - 전라남도 산림회 조직(전남산림조합연합회의 전신). 회원은 전남도내 임업 관계자 1,300여명
- 10.1. - 광주 양림유치원 개원
- 10.3. - 광주 서방공립보통학교 개교. 초대 교장 후지이^{藤井幾二}, 1929년 2월 광주 제2공립보통학교로 명칭 변경(현 수창초등학교가 그 후신임)

- 이 해에 - 1921년 말 현재 광주 인구 12,533명
(한국인 9,686명, 일본인 2,798명, 기타 외국인 49명)

■ 국내·외

- 4.1. - 연초전매령^{煙草專賣令} 제정으로 전매국^{專賣局} 설치
- 5.7. - 황신덕^{黃信德} 등이 일본 도쿄에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조직
- 중국 광둥^{廣東} 정부수립 및 손문^{孫文} 대총통 취임
- 6.4. -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소위 ‘구보교수’ 망언으로 동맹 휴학
7. - 함경남도 주최 탐험대가 백두산^{白頭山} 등반. 동아일보사 민태원^{閔泰源, 호 牛步}
이 참여하여 ‘백두산행’을 동아일보에 발표. 이때 민태원은 국경경비
대원 40명, 탐험대원 44명, 조랑말 마부 20명 등 일행 100여 명
과 혜산진^{惠山鎭}을 출발. 2주 간에 걸친 캐러번 등산으로 20세기에
들어 한인등산^{韓人登山}에 첫 성공하였고, 백두산의 장엄한 풍경과 등반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기행문을 연재하였음. 이때 처음으로 백
두산 천지의 사진도 소개하였음
(촬영은 일본인 사진기자 야마가쿠^{山摘芳潔})
- 10.25. - 좌측통행제^{左側通行制} 실시 발표. 12월 1일부터 시행
- 12.3. -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설립. 당시 공식 명칭은 조선어문연구회
- 이 해에 - 홍난파^{洪蘭坡}, ‘봉선화’ 작곡. 작사가는 김형준^{金亨俊}
- 윤백남^{尹白南}, 최초의 극영화 ‘월하^{月下}의 맹세^{盟誓}’를 제작

1922년

■ 광주·전남

1. - 담양 산업조합 설립. 조합장 정용인^{鄭湧寅}, 이사 김상익^{金商翊}. 1917년 설립된 참빗계를 모체로 1920년 11월 설립한 참빗^{眞梳} 조합을 발전시켜 죽세공예품 전반을 취급하는 단체인 산업조합을 설립한 것임
- 2.4. - 광주공립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학칙 개정
2. - 시노노메^{東雲}여관(일본인 여관)이 광주 최초의 3층 목조 건물로 개축
3. - 이상재^{李商在} · 신흥우^{申興雨} · 김필수^{金弼秀} 등이 광주 YMCA조직 지도차 광주방문
 - 사립약산학교 설립(완도 고금도). 설립자 최병준^{崔秉準}
- 4.1. - 목포공립상업전수학교가 목포공립상업학교로 명칭 변경. 1924년 4월 수업연한 5년제 학교가 됨
 - 광주 사립보통학교 개교(설립자 대표 최선진^{崔善鎭}, 설립위원 김형옥^{金衡玉} · 조만선^{趙萬善} · 최상현^{崔相鉉} · 지응현^{池應鉉} · 현준호 · 정덕범^{鄭德範} · 정낙교^{鄭洛敎} 수업 연한 4년(1929년에 6년제로 바꾸고 그 뒤에 교명을 호남소학교로 개칭)
 - 사립 광주 고등보통학교가 관립^{官立}으로 바뀌고 학교 운영권이 조선총독부에 이관됨
- 4.3. - 광주 기독교청년회(YMCA) 창립(회장 최흥중^{崔興中}, 총무 김철^{金哲})
4. - 광주 금정교회 목사로 김창국^{金昌國}이 부임(1924년 10월 양림교회 분리와 함께 초대 목사로 시무하기도 함)
- 7.11. - 광주 흥학관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학생연예단(단장 정병규)이 블라디보스토크^{海參威} 흥작으로 구제금 모금차 공연
7. - 광주~송정리 간 철도 개통(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사설철도로 개설)
 - 광주역 영업 개시: 1923년 9월 사철^{私鐵}합동으로 조선철도주식회사가 경영했다가 1928년 1월부터 국유화

- 전남 수산시험장 설치. 전라남도 수산과 내에 전임기수(기사)와 조수 각 1명으로 업무 개시. 1926년 목포로 이전
- 8. - 주식회사 호남은행 순천지점 개점
- 9.1. - 비아공립보통학교 개교
- 9.8. - 영광군 염산면 일본인 호리^堀농장에서 한국인 소작인을 구타 학대한 사건에 항거한 군민대회가 열림
- 9.14. - 영암공립보통학교 학생들, 한국역사와 한국창가를 교육할 것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는 맹휴에 돌입
- 9. - 사립 광주 누문유치원 설립(북동). 원장은 정수태^{丁洙泰}
 - 강진군 군동면 소작인 공제회 결성
 - 광주 공설 전당포^{公設典當鋪} 개업(위치: 금동 41번지), 지방비(광주부 재정)에서 5천엔을 무이자로 받아 영업함. 관리자는 주하영^{朱賀永}
- 10. - 광주심상고등소학교 부설 일본인 유치원 설립. 원장 마츠다^{松田徳次郎}



■ 광주역(1920년대)

광주시내에 철도가 들어온 것은 1922년 7월이며 남조선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광주~송정리 간 철도가 처음 개통되었다. 역내에는 구름다리도 보인다. 역 건물은 지난 1969년까지 대인동 광주동부소방서 자리에 있었다.

- 11.5. -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조직
- 11. - 광주군 청사 신축 이전(대의동의 옛 전 광주지방국세청 자리)
 - 최흥중 목사, 시베리아 선교사로 떠남(1924년 봄에 귀국함)
- 12.13. - 순천군 서면 소작인 1,600여명이 지주의 횡포에 항거하여 쫓겨
 - 12월 28일 낙안면 소작인 800여 명, 12월 31일 쌍암면 소작인 1천여 명이 소작쟁의를 일으킴
- 12.20. - 송정리 소작인회^{小作人會} 창립
- 12.22. - 전라남도 금융조합 연합회 건물 준공. 광주 벽돌 건물의 효시
 - 1층 54평, 2층 46평, 1975년 9월 개축
 - 서서평, 금정교회에 부인조력회^{婦人助力會} 조직
- 이 해에 - 서서평 양림동에 '간이양성학교'(이일성경학교의 전신) 설립
 - 김흥열^{金興悅}, 중앙병원 개원
 - 임동에 광주임업묘포(전라남도 임업시험장 전신) 설치
 - 1934년 극락면 쌍촌리로 이설(현 호남대학교 자리)
 - 광주에 첫 관현악단 창단(단원: 김태오^{金泰午}, 송현영^{宋憲永}, 장맹섭^{張孟燮}, 최윤상^{崔允尙}, 유주문^{劉柱文}, 최정오^{崔淳五}, 이태식^{李泰植} 등)

■ 국내·외

- 2. - 문예지 '백조' 창간
- 4.25. -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조직
- 7. - 폭우로 전국 각지에 수해 극심
- 10.5. - 조선소년척후단(보이스카우트)창설
- 12. -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을 공포

- 이 해에 - 연희전문학생 50명이 자작회^{自作會}를 조직하고 국산품장려 운동의
선구자가 됨
- 잡지 '동명', '조선지광' 발간
 - 제1회 조선미술 전람회

1923년

■ 광주·전남

1. - 광주경찰서장으로 이와바시^{岩橋朝一}(~1924.1.) 부임
-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소작쟁의 발생
- 2.24. - 여수에서 김정^{金貞義} 등이 여권운동단체인 ‘코스모스회’를 조직
- 3.17. - 광주 송일·수피아 학생을 비롯한 1천여의 군중이 토산^{土産} 무명베로 두루마기와 저고리를 해입고 물산장려회기^{物産獎勵會旗}를 들고 악대를 앞세우며 국산품 애용의 노래를 부르며 양림리에서 누문리까지 행진함. 이 날 한국인 상점들은 모두 축기^{祝旗}를 달고 동참
- 3.21. - 광주 공립고등여학교(광주여고 전신) 설립
- 3.28. - 전남 도립 사범학교 개교. 특별사범과 2년·강습과 1년으로 광주 고등 보통학교 임시교사에서 개학(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 후 폐교됨)
- 영광군 농민들이 황무지 대부 문제로 일본인과 충돌. 군청에서 시위
- 3.31. - 광주농업학교, 수업연한으로 5년으로 학칙 개정
3. - 광주면 소작인회 창립
- 순천군 각면에서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에 항거한 소작쟁의 발생
- 4.1. - 광주 공립고등여학교 개교. 일본인 학교조합이 경영. 4월 18일 광주 심상소학교 일부를 가교사로 수업 시작. 1925년 4월 28일 본관 신축 이전. 1946년 9월 21일 광주공립여자중학교. 1951년 9월 25일 광주여자고등학교로 개칭
- 광주면 시가지 확장(23개 정^町으로 나뉘고 면적은 140만평이 됨)
(인접면인 서방·효천·지한 3개면의 각 일부를 편입)
- 4.23. - 광양군 소작인들, 소작권 조합에 대한 박해와 소작권 박탈에 항거
- 4.29. - 광주군 소작인회연합회 창립(송정·본촌·극락·서방·우치·석곡·효천·지한 소작인회의 연합체)
4. - 순천군 낙안면·해룡면·황전면 소작인들이 소작지 이동에 항거

- 5.1. - 광주공립중학교 개교(현 광주고등학교의 전신)
- 5.5. - 광주감옥을 광주형무소로 명칭 변경. 1971년 12월 31일 광주 교도소로 개칭. 1971년에 북구 문흥동 88-1번지로 이전
- 5.23. - 순천군 황전면 1백여 소작인들, 소작지 박탈에 항거
- 6.16. - 광주 출신 동아일보 정치부장 최원순^{崔元淳}과 동경여자의전^{東京女子醫專} 출신 현덕신^{玄德信}(광주 최초 여의사), 서울 종로 중앙예식장에서 김창준^{金昌俊} 목사 주례로 혼인
- 6.22. - 광주면장(명예직)에 아키바^{秋場格太郎}(~1925.1.) 임명
- 7.10. - 목포 공립고등여학교 교사 신축 이전. 부지 1,280평, 건평 429평
- 8.1. - 임곡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9월 21일 개교. 수업연한 4년. 1927년 4월 1일 6년제 인가. 1941년 4월 임곡공립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 광주 지산공립보통학교 설립. 9월 20일 개교
- 8.3. - 미국 하와이 학생 고국 방문 음악단, 광주 고등보통학교 강당에서 연주
- 8.4. - 미국 하와이 동포학생 야구단, 학동 ‘묵은바탕’에서 광주기독교청년회 팀과 경기. 13:2로 광주팀이 패함
- 9.1. - 광주 소작인연합회, 동척에 소작 조건 개선을 요구
- 9. - 금봉^{金鳳}금융조합 설립, 조합원 226명(한국인 77명, 일본인 149명)
 - 관할구역: 송정면 일원. 조합장 미야와키^{宮脇丈八}, 이사 아리가와^{有川八十治}
- 10.11. - 순천군 일대에서 농민들이 높은 소작료에 항거하기 위해 소작료 불납 동맹 및 유보 동맹을 결성하고 항쟁
- 10.27. - 광주시민 육상운동을 학동 ‘묵은바탕’에서 동아일보 광주지국 주최로 개최
- 10. - 암태도^{岩泰島} 소작인들, 소작료 인하 요구가 묵살되자 소작료 불납 동맹으로 대항, 지주측과 소작인 충돌 연일 계속됨

- 12.3. - 광주 세거인^{光州世居人}으로 '광산회^{光山會}' 창립(회장 최상진^{崔相鎭}, 부회장 조유석^{趙由錫}·최원택^{崔元澤}, 총무 최달석^{崔達錫}·최흥중^{崔興中}, 교육부장 최교일^{崔敎一}, 산업부장 정덕범^{鄭德範}, 사교부장 최종섭^{崔鍾涉}, 서무부장 정양업^{鄭良業}, 경리부장 지응현^{池應鉉}, 간사장 김태식^{金台植})
- 12.9. - 광주 고등보통학교 제1차 항일동맹 휴학.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구두 수선을 차별 대우한다는 이유가 도화선이 됨
- 12. - 광주부장^{副長}(부면장)에 정근섭^{丁根燮}(~1924.5.)이 임명됨
- 이 해에 - 광주 YMCA 임원 개선. 제2대 회장으로 최영욱^{崔永旭}이 선출됨
 - 광주여자청년회 설립
 - 유혁·김용환 등이 전남청년연맹 창설

■ 국내·외

- 1.21. - 전국 규모의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이후 전국 각지에 지부가 결성됨
- 3.16. - 방정환^{方定煥}·윤극영^{尹克榮} 등이 동경에서 '색동회' 조직
- 3. - 민립대학 기성회 발기됨
- 4.25. - 강상호^{姜相鎬} 등 진주에서 '형평사^{衡平社}' 창립(백정들의 민권운동 시작, 전국으로 확산)
- 5.24. - 진주에서 형평사운동에 반대하는 양민들의 반형평운동이 일어남
- 9.1. - 간토 대지진 발생하여 일본헌병과 경찰이 한인폭동설을 조작하여 동포 6천여 명 학살
 - 조선철도주식회사 설립
- 9.2. - 무정부주의자 박열^{朴烈}의 일본천황 암살계획이 발각되어 동경에서 검거됨
- 이 해에 - 서서평이 조선간호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에 피선(11년간 연임)

1924년

■ 광주·전남

- 1.15. - 광주경찰서장에 이wai(岩井退作)(~1925.12.) 임명됨
 - 전라남도 경무부 보안과장에 한국인 최초로 구자경(具滋璟) 경시(警視)가 임명됨
- 1.16. - 광주군 우치면 소작회원 5백여명, 소작쟁의로 구속된 소작회장 노남용(盧南鏞)의 석방을 요구하며 광주경찰서를 습격함
- 2.1. - 대촌보통학교 설립 인가. 7월 30일 개교(1962년 1월 대촌중앙국민학교로 개칭)
- 2.24. - 광주 무진(無盡)주식회사 영업 개시. 자본금 10만엔. 불입자본금 5만엔
영업구역 광주군·나주군·화순군(사장 하라다(原田巖造), 전무취체역 츠다(津田寛))
- 3.5. - 전라노농연맹 창립총회, 흥학관에서 개최. 전라남도 대표는 물론 전라북도에서 49개 사회단체를 비롯 대표자만 1백여 명 참석
3. - 여수수산학교, 수업연한 2년을 3년으로 하고 교사 신축 이전
 - 광주 전염병 격리병사 준공. 목조 기와건물 73.25평, 수용인원 21명
 - 무안군 암태도의 3천여 소작인, ‘아시(餓死)동맹’을 조직하고 지주에 항거. 단식 투쟁. 220명 검거됨
- 4.2. - 광주군 우치면 소작인들이 소작이동에 공동경작으로 대항. 과중한 공과금과 소작권 박탈에 항거하기 위해 7백여명이 소작인회를 결성함
- 4.24. - 광양군 인덕면(뒤에 광양면과 통합) 일본인 농장의 소작인 5백여명이 높은 비율의 소작료와 소작권 박탈 등에 항의하며 경찰서에서 시위하고 소작권 이동에 공동경작으로 대항
4. - 광주 제2공립보통학교 개교. (광주보통학교의 분교 형식, 여학생만 입학)
 - 호남은행 본점 신사옥 건축 착공. 1925년 3월 준공
 - 광주 신공원(사직공원) 조성
 - 구례군 일대 소작인들, 소작권 박탈에 공동경작으로 대항

- 5.27. - 전남전기주식회사 설립. 1925년 10월 20일 개업. 자본금 10만엔
공급지역 나주군 외 6개 지역. 1930년 대흥전기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됨
- 5. - 광주부장^{副長}(부면장)에 박계일^{朴葵一}(~1928.3.)이 임명됨
- 6. - 광주고보와 광주중(당시 일본인 중학교)과의 야구시합 때 편파 판정에 항의한 광주고보생 고광우 외 3명 퇴학당함
- 7.4. - 여수 화양^{華陽}보통학교 개교
- 7.9. - 암태도 소작쟁의 사건으로 농민 6백여명,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농성
- 7.19. - 광주고등보통학교 전교생 4백여명의 무기휴학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흥학관에서 도민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소집 취지문을 광주경찰서에 압수당하여 개최하지 못함



■ 시타오카 총감의 호남은행 시찰

1924년 총독부 정무총감이 호남은행 본점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 호남은행은 무송 현준호 씨(사진 맨 끝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경영을 맡으면서 경남 동래와 거창에 까지 지점을 두었다.

- 8.30. - 암태도 소작쟁의, 소작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종결됨
- 9.22. - 목포 소년척후대(보이스카우트) 조직. 대장 차남석^{車南錫}, 대원 40명
소년척후대 조선총연맹에 가입
- 9. - 담양 사립지곡^{芝谷}보통학교(남면) 설립 인가. 설립자 정통원^{鄭通源}
수업연한 3년
 - 광주수피아여학교 제3대 교장에 마정원(Miss Martin) 취임
- 10.5. - 광주양림교회 설립. 초대 목사 김창국^{金昌國}
- 11.17. - 광주~장성간 여객자동차 운행 개시. 매일 4회 왕복 정기운행
영업소: 광주면 중정^{仲亭} 16번지
- 12.1. - 전라남도 지사에 장헌식^{張憲植}(~1926.12.) 부임
 - 광주군수에 우시지마^{牛島能記}(~1928.) 부임
- 12.5. - 영광수리조합 설치. 몽리면적 2600정보. 사업비 2,018,101엔
조합장 조희경^{曹喜敬}
- 12.10. - 나주 평동^{平洞}수리조합 설치. 몽리면적 361정보. 사업비 175,506엔
조합장 미야와키^{宮脇丈八}
- 이 해에 - 병천사^{秉天洞}(정몽주^{鄭夢周}, 지용기^{池勇奇}, 정충신^{鄭忠信}, 지여해^{池여해}, 지계화^{池繼淮}
등 배향. 지금의 금호동에 건립.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11호)
 - 최상채^{崔相彩}, 광주자혜병원 의관^{醫官}으로 부임

■ 국내·외

- 3.1. - 소년척후단 조선총연맹 결성. 총재 이상재^{李商在}
- 3.31. - 시대일보^{時代日報} 발간. 사장 최남선^{崔南善}. 1926년 중외일보^{中外日報}에 흡수됨
- 5.2. - 경성제국대학 예과^{豫科} 개교
- 이 해에 - 윤극영^{尹克榮}, 동요 '반달' 발표

1925년

■ 광주·전남

- 1.27. - 광주 면장에 구라시나^{食品益太郎}(~1929.9.24.) 부임
- 1.29. - 현준호, 호남은행 두취^{頭取}(은행장)에 취임
- 2.28. - 목포에 동아고무주식회사 설립(대표 김상섭^{金商燮}, 자본금 30만엔)
- 3.1. - 호남은행 본점 행사^{行舎} 신축 준공(현 총장로 3가)
- 4.1. -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고등학교의 전신), 전라남도에서 이관되어
공립이 됨
- 4.5. - 자혜병원을 전남도립 광주의원으로 명칭 변경. 조선총독부 관할에서
전라남도로 이관(1944년 12월 17일 광주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이 됨. 초대 원장 김덕성^{金德性}, 1952년 4월 1일 국립 전남대학교 부속
병원이 됨)
- 4.15. - 광주 출신 동아일보 최원순 기자의 제창에 의해 한국 최초의 전국
기자대회(의장 이상재, 463명 참석)를 서울 천도교 기념관에서 개최



■ 전남도립 광주의원

1925년 전라남도립 광주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건물을 지었다. 1944년 12월 17일 광주 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1952년 4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최원순은 이날 밤 서울 YMCA강당에서 개최된 기념 강연회의 연사로 초청됨

- 4.16. - 일본군 비행기, 경양방죽에 추락(일본군 평양비행 제6대대 소속 정찰기 3대가 착륙예정지 송정리로 가다가 그 중 1대가 담양 방면에서 진로 착오로 추락. 인명 피해는 없었음)
- 4.28. - 광주 공립고등여학교(일본인 여학교). 광주 장동 99번지에 교사 신축 이전
- 4. - 광주공립농업학교, 유동에 벽돌 2층 건물의 교사 신축
- 전남도립 광주의원 부설 간호원 양성소 설립
- 오지호 吳之湖, 일본 동경미술학교 입학. 1931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졸업. 제1회 '녹향회 綠香會' 참가
- 5.3. - 호남은행 본점 행사^{1行舍} 낙성식 거행
- 5.30. - 해남 송지^{松脂}수리조합 설치. Mori면적 300정보. 사업비 226,613엔 조합장 오이케^{大池忠助}
- 7~8 - 광주에 대홍수(이른바 을축 대홍수^{乙丑大洪水}) 발생. 광산동의 전남도지사 관사까지 침수
- 8.4. - 광주 수해구제회, 흥학관에서 조직
- 8.9. - 수재 구호금품 모집을 위한 음악연주회를 흥학관 광장에서 개최
- 8.27. - 광주 고학생 상조회 조직(회장 왕재일^{王在日}, 서무 장한영^{張漢英}. 최일녕^{崔一寧}. 김규연^{金圭淵}, 경리 윤상길^{尹相吉}. 김용율^{金容律}, 사교 신호식^{申浩湜})
- 9. - 광주 최초의 선교사 배유지 목사 별세(1868~1925)
- 광주서석공립보통학교(석곡면) 설립
- 광주의사회 설립. 회원은 시내 개업의 (한국인 11명, 일본인 5명, 총16명)

- 10.1. - 목포 제유^{製油} 노조 창립
- 10.1. - 목포 면업노조 창립
 - 목포 자유노조(조합원 282명) 창립
 - 목포 정미노조(조합원 123명) 창립
- 10.7. - 무안 도초도^{都草島} 농민들, 소작료 불납 동맹
- 10.10. - 도초도 소작인들, 소작료를 차압한 집달리 및 경찰과 충돌
- 10.11. - 도초도 소작회 간부 피격
 - 나주 궁삼면^{宮三面} 농민들, 농민조합 조직
- 10.20. - 서울의 각 단체, 도초도 소작쟁의 지원
- 10.24. - 도초도 소작회 대표들, 피검된 간부 석방 운동차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 파견
- 11.3. - 극장 ‘광주좌’ (현 파레스 호텔 자리. 일본인 관객을 위한 일본 전통
양식의 극장인데 영화도 상영할 수 있었다) 신축 개관. 건평 120여평,
300여명 수용
- 11.24. - 수확량 닷섬^{5石}에 소작료 석섬 여섯말^{3石6斗} 등 함평지방의 무리한 동척
간평에 비난 쇄도
- 11.26. - 나주에서 동척 소작인(궁삼면 농민) 1만여명, 일본경찰과 충돌
- 11. - 광주 철공조합 설립
- 12.1. - 완도 면작조합원 수백 명, 완도군청에 쇄도
- 12. - 광주면사무소 신축 이전
(위치 : 광주시청사 자리로 당시 서광산정 28번지). 부지 430평 1흡
건평 본관 55평, 부속건물 5동 55평, 총공사비 26,377엔
 - 광주 경찰서장으로 이마나가^{今永政範}(~1926.7.) 부임
- 이 해에 - 함평~영광 간 정기여객자동차 운행

- 종^鍾예배당을 광주 중앙교회로 명칭 바꿈
- 광주 예기조합 설립
- 1925년 말 현재 광주면 인구 23,197명(한국인 18,835명, 일본인 4,178명, 기타 외국인 184명)

■ 국내·외

- 2.8. - 동아일보 사설 ‘천인공노할 동척의 죄악’으로 인해 신문 압수당함
- 2.21. - 조선일보 김준연^{金俊淵}을 모스크바 특파기자로 파견
- 4.22. -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공포

을축년 대홍수 피해상황

1925년 7월 18일 오후 4시30분 현재

한강 수위 12.99m. 사망 379명, 부상 267명, 행방불명 129명, 이재민 282,893명, 전답 유실 33,019정보, 가옥 유실 3,062동, 가옥 도괴 17,701동, 농작물 피해 180,000 정보

1926년

■ 광주·전남

- 1.3. - 무안군 자은도^{慈恩島}의 소작인 1천여 명, 소작쟁의 중 목포에서 출동한 경찰 2백80명과 충돌. 40여명 중경상, 2백여명 검거됨
 - 목포 제유^{製油}회사 제유공 1백70명,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
- 1.25. - 무안 농민연합회 제1회 임시대회 개최
2. - 전남육성회 설립(장학 및 도서관 사업). 그 전신인 ‘유도현장회’는 당초 관 주도로 조직되어 회장도 전라남도 참여관^{參與官}(초대 석진형, 2대 고원훈)이 겸임했던 것을 민간인을 참여시켜 개편 조직한 것임
 - 4월 10일 법인 설립 인가. 대표이사 고원훈^{高元勳}, 이사 고광준^{高光駿}, 현준호^{玄俊鎬}, 김시중^{金時中}, 김종익^{金鍾翊}, 이원용^{李元鎔}, 감사 박태규^{朴泰圭}, 고언주^{高彦柱}. 첫 사업으로 대학생 3명, 전문학생 9명 등 12명의 학비(숙식비 포함) 일체를 부담해 주는 장학금 지급
 - 광주 형평청년회 설립
 - 광주 정미노동조합 설립
3. - 광주 이발직공조합 설립
- 4.8. - 순천군 해룡면 소작농민들, 고율의 소작료와 소작권 이동에 불납 동맹과 불경^{不耕} 동맹을 조직하여 항거
- 4.13. - 장성 황룡^{黃龍} 수리조합 설치. 물리면적 128정보, 사업비 40,139엔 조합장 김시중
- 4.28. - 순종^{純宗} 승하 소식을 듣고 유림을 비롯한 광주시민 수백 명, 사직단에 모여 망곡^{望哭}하면서 애도요배식^{哀悼遙拜式} 거행
4. - 광주 고등보통학교들이 ‘독서회’ 조직
 - 광주 수피아여학교 제4대 교장에 김아각(Dr. D. J. Cumming) 취임
 - 한말 때 광주에 온 일본인 여자 오쿠무라 이호코^{奥村五百子}의 동상을 광주공원에 건립하고 제막(오쿠무라의 2녀 미즈코^{光子} 참석)

- 5.3. - 무안 도초도 소작쟁의의 주동자에게 징역형 선고
- 5.16. - 천주교 부^ㅈ신부(프랑스인)를 초청하여 광주에서 첫 미사 봉헌
- 5. - 전남 도시^{道是}제사 주식회사 설립. 부지 2만평, 건평 3,153평. 부수^{釜數} 459부, 종업원 696명. 자본금 2백만엔, 불입 자본금 50만엔. 연간 생산 생사량 10만4천근(현 삼익맨션아파트 및 옛 중앙여고 자리에 위치)
- 사립 용곡유치원 설립. 원장 노세^{野瀬登園}
- 6.10. - 국상일^{國喪日}에 광주 시내 상가, 시장은 전부 철시하고 상민^{商民}·지방 유림·시민 5천~6천명이 오전 10시 사직공원에 모여 호천통곡하는 가운데 요배식 및 망곡례 거행
- 7.22. - 함평~학교 간 6.1km 궤도 기공. 11월 개통(운영회사: 함평궤도 회사. 사장 에구찌^{江口保孝}. 자본금 10만엔)
- 7. - 광주경찰서장으로 와다^{和田三郎}(~1927.9.) 부임



■ 전남도시 제사공장

1926년 현 양동 삼익맨션 자리에 설립, 해방 후 적산으로 분류되어 전남대가 잠시 운영하다가 1954년 박인천이 인수하여 1970년대까지 경영했다.

- 8.4. - 김우진^{金祐鎭}과 윤심덕^{尹心惡}, 부관연락선 덕수환^{德壽丸}이 현해탄을 지날 무렵에 바다에 투신함
- 8.16. - 무안 자은도 소작쟁의 주동자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와 소요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
- 8.22. - 광주 출신 동아일보 최원순^{崔元淳} 기자가 집필한 ‘횡설수설’로 인해 검거되어 징역 3개월(구형 8개월) 복역
*문제된 ‘횡설수설’의 일부: “현하의 총독정치는 조선인을 이^利케 하고 익^益케 하는 인사는 박해하고 조선인을 해^害케 하고 불리게 하는 놈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방침이라고... 是故로 왈, 총독 정치는 악당 보호정치라고...”
- 9.1. - 광주 나병원, 여수군 울촌면 신평리의 15만 평 부지로 이전. 여수 애양원^{麗水愛養院}으로 명칭 변경
- 9.5. - 영법^{靈法}전기주식회사 설립. 1927년 2월 7일 개업. 자본금 15만엔
공급지역 : 영광면 · 법성면. 1932년 대흥전기주식회사에 흡수 합병
- 10.24. - 광주금융조합, 총장로 2가의 예전 중소기업은행 총장로지점 자리에 신축이전. 공사비 2만엔
- 10.31. - 전남 도립 수산시험장, 광주에서 목포로 청사 신축 이전
10. - 광주 숭명^{崇明}학교 개교. 위치 : 금남로5가 김두원 신경외과 자리
비정규 교육기관
- 최흥종 목사,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사로 떠남(제2차 선교여행)
- 나주 및 순천 농업보수학교 개교
- 11.1. - 육지면 장려 20주년 기념으로 목포에서 조선면업공진회 및 전라남도 물산공진회 개최(~11.25.). 전남 최초의 대규모 종합전람회로 교육 · 위생전람회 등 함께 개최

- 11.3. - 성진회^{醒進會} 조직. 광주고보생 9명과 광주농업학생 9명이 참여(총무 왕재일^{王在一}, 서기 박인생^{朴仁生}, 회계 장재성^{張載性}). 후에 조직된 광주 고보독서회와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추진체가 됨. 성진회는 독청독성^{獨淸獨醒}의 '성^醒'과 진격진군^{進擊進軍}에서 '진^進'자를 땀고, 또 민족적 자각심을 환성시키고 진격해서 국권을 쟁취하자는 뜻이었음
12. - 전라남도지사에 석진형^{石鎭衡}(~1929.1.)이 부임함
- 이 해에 - 서서평 선교사, 간이 양성학교를 광주 사립 이일^{李一}학교라 명칭 변경하고 교사 신축 이전
- 서서평, 조선간호협회 제4대 회장에 선출됨



■ 성진회 결성기념사진

성진회는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부동정(지금의 불로동)에 있던 최규창의 집에서 결성한 비밀결사단체였는데 처음 참가한 학생은 왕재일·장재성 등 10여 명이였다. 이후 중앙독서회로 개칭했다.

■ 국내·외

- 1.6. - 조선총독부 청사 준공 이전. 1916년 착공
- 2. - 조선 도량형령(度量衡令) 공포
- 4.1. -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전신) 법문학부 및 의학부 개설
5월 1일 수업 개시
- 4.26. - 순종 승하(1874~1926)
- 4.30. - 순종이 독살되었다는 풍문으로 전국 학생 망후 시작
- 6.10. - 6·10만세운동 일어남. 순종 국장일에 청년·학생들 서울에서
인쇄물을 살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침. 11일 학생 1백6명이 검거됨



■ 광주이일학교

서서평 선교사는 1926년 양림 뒷동산에 미국인 친구 조이스 니일의 원조를 받아 붉은 벽돌로 3층 교사를 짓고 '니일'의 발음을 따서 한자로 이일(李一)학교라 했다.

- 7~8월 - 조선교육회 주최로 학술탐험대가 백두산 등반. 박물학자·화가·
 기자·영화반 및 일본군 국경경비대가 동행.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은
 동아일보 특파기자로 참가하여 유명한 등산기행문 ‘백두산 근참기’를
 써서 발표함
9. - 나운규^{羅雲奎} 감독·각색·주연의 ‘아리랑’ 상영
- 10.6. - 미국에서 토키유성영화를 제작하는데 성공
- 11.4. - 조선어 연구회, ‘가갸날’ 제정
11. - 중앙일보 창간
- 12.9. - 경성방송국 개국
- 이 해에 - 영화 ‘낙화유수^{落花流水}’의 주제가 ‘강남달’ 유행

1927년

■ 광주·전남

- 1.11. - 유화레(Miss Florence E.Root),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1926년 여름 한국에 오고, 1927년 1월 광주 수피아여학교 음악교사로 부임
1. - 주단 포목상 남창상회^{南昌商會} 합명회사 설립. 자본금 1만엔. 대표 심덕선^{沈德善}
- 정미업 및 미곡판매상 환길^{丸吉} 합명회사 설립. 자본금 1만5천엔 대표 장봉익^{張鳳翼}
- 2.9. - 광주경찰서 누문동파출소 설치
- 3.4. - 송학공립보통학교(서창면) 설립 인가. 10월 4일 수업연한 4년제로 개교. 1932년 4월 1일 6년제로 인가. 1941년 4월 1일 송학공립 국민학교로 개칭
3. - 해남군 화산면의 토질병인 디스토마를 퇴치하기 위해 전라남도 경찰부 위생과에서 1백여명의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 준 결과 6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중태 또는 활동부자유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주민들이 주재소(경찰지서)에 달려가 집단 항의
- 3.20. - 해남 화산면 주민들의 집단 항의에 전남경찰부는 고등과장 이마나가^{今永}의 지휘로 목포, 장흥, 강진, 영암, 해남 등 경찰서의 순사 백여명을 동원. 해남경찰서(서장 나가자와)에 지휘본부를 두고 진압함과 동시에 기자들에 대한 취재를 적극 저지함
- 신간회^{新幹會} 광주지회 창립. 회원 약6백명. 회장 최흥중^{崔興宗}. 간부: 정수태^{丁洙泰}, 최중섭^{崔鍾步}, 진도^{全濤}, 문태홍^{文太洪}, 전용기^{全龍基}, 장석천^{張錫天}, 지역대표: 광양:김종근^{金宗根}, 나주:김병두^{金炳斗}, 벌교:김용국^{金谷國}, 송정:박하준^{朴夏俊}, 영광:조운^{曹雲}, 이을호^{李乙浩}, 완도:송내호^{宋乃浩}, 장성:송종근^{宋鍾根}, 함평:김상열^{金相烈}, 담양:강국길, 구례:고용주^{高庸柱} (초대)박해용^{朴海龍}, 목포: 장병준^{張炳俊}, 순천:한태선^{韓泰善}, 영암:김민규^{金敏奎}, 장흥:황생주^{黃生周}

- 3.20. - 광주종묘장에 축산부 부설(전라남도 축산시험장의 전신)
- 4.25. -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개교. 수업연한 4년(현 전남여고 전신)
1928년 3월 25일 교사 본관 신축 준공. 1938년 4월 1일 광주
아사히^旭 공립고등여학교, 1946년 6월 12일 전남공립여자중학교,
1950년 5월 15일 전남여자중학교, 1951년 8월 30 광주중앙
여자중학교, 1961.3.22. 전남여자고등학교로 개칭
- 5.7. - 최흥종 목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검거되었다가 석방되어
퇴거령을 받고 귀국
- 5. - 송정리 공립국민학교 개교
- 광주고보학생들이 일본인 중학교와 비교하여 너무나 초라한 물리·
화학 등 실습실의 신축을 요구. 또 ‘노예교육 철폐’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차별교육에 항의하며 제2차 동맹휴학(2~3학년 전원 참가)
- 영광 농업보습학교 개교. 수업연한 2년
- 6.28. - 광주공립보통학교(현 서석초등학교 전신), 서석동에 교사 신축 낙성.
7월 1일 금남로1가에서 이전. 부지 9,044평. 2층 목조 연건평 665평
- 여자만 교육하던 광주제2공립보통학교를 폐교하고 광주공립보통
학교와 통합
- 7. - 장성농업보습학교 개교
- 8.17. - 동경유학생 학우회, 광주·목포 등지에서 강연회 개최(광주·목포·
김해·동래 등에서 강연하였으나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당함)
- 9.5. - 신간회 나주지회(회장 김창용), 안재홍 등 참석한 가운데 나주회관
에서 설립대회 개최. 당시 창립에 참여인물 : 김창용·이항발(나주
노동 조합장)·박준삼·양장수·송상기·박공근 등
- 9.6. - 광주공립보통학생 3백여명이 맹휴 단행. 조선인 교사 지아무개^{池某}

의 면직과 교사 4명의 유임을 요구

9. - 광주경찰서장으로 다다^{多田義一}(~1930.3.) 부임
- 10.9. - 광주소년동맹을 흥학관에서 설립. 광주 의용소년단, 광주 화성단^{華成團}, 광주 혁신소년회, 웃돌소년회, 칠석노동소년회, 송정소년회의 통합 단체였음
- 11.16. - 광주치과의사회 설립. 회원은 개업의 9명
- 12.1. - 광주승명학교 교사 신축 이전. 미국인 서로득^{徐路得}(Swine Hart) 장로가 설립 기증함
- 12.15. - 광주 사립보교 강당에서 광주 재만동포^{在滿同胞} 옹호동맹을 조직
위원장 정수태^{丁洙泰}
- 12.16. - 신간회 광주지회 제2회 정기대회 회의 도중 일본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함
- 이 해에 - 무양사^{武陽祠}(최사전^{崔思全}, 최윤덕^{崔允德}, 최박^{崔薄}, 유희춘^{柳希春}, 나종덕^{羅鍾德} 등 배향)을 당시 비아면 월계리에 건립
- 광주일보사 사옥 신축 착공

■ 국내·외

- 2.15. -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新幹會}'이 서울 중앙YMCA회관에서 창립
회장 이상재^{李商在}, 부회장 홍명희^{洪命熹}, 권동진^{權東鎭}, 조사연구 간사 송내호^{宋乃浩}(완도 소안도 출신)
- 2.16. - 경성방송국 방송 개시. 호출부호 JODK
- 3.29. - 월남 이상재^{月南 李商在} 별세. 4월 7일 사회장으로 거행
- 이 해에 - 여성단체 '근우회^{槿友會}' 결성
- 이원수^{李元壽} 작사, 홍난파^{洪蘭坡} 작곡의 '고향의 봄' 유행
- 이화여전^{梨花女專} 제1회 졸업식 거행

1928년

■ 광주·전남

- 1.1. - 조선철도회사의 전남선(송정리~담양 간)을 총독부가 매수하고 광주선으로 개칭
- 1.8. - 전라남도 물산진열관을 전라남도 상품진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신축함. 1928년 3월 1일 낙성식을 거행하고 개관. 공사비 5만엔. 광주최초의 타일 벽돌 건물이었음
- 1.21. - 전남주곡^{酒福} 주식회사가 계림동에서 설립됨(자본금 12만엔, 불입 자본금 45,600엔)
- 2.27. - 하의도^{荷衣島} 상태^{上台}, 하태^{下台} 소작농민들이 지주 도쿠다^{徳田彌土}와 박춘금^{朴春琴}의 횡포에 항의하여 소작쟁의에 들어감.
- 3.1. - 광주~여수 간 철도 착공. 남조선 철도주식회사가 시공. 사장은 네즈^{根津嘉一郎}
- 4.10. - 광주상민대회 개최
- 4.14. - 광주일보사(일본어 판) 사옥 신축 낙성(금남로 1가)
- 4.25. -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전신) 교사 신축 낙성



■ 전라남도 상품진열관

1928년 3월 1일에 준공된 전라남도 상품진열관. 당시로서는 최신식 건물이었으나 훗날 도로 확장으로 헐렸다.

부지 4,900여평, 공사비 3만7천엔

- 4. - 광주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제방축조^{堤防築造} 및 직강^{直江} 공사 착수
천변도로 조성
- 영산포 실과^{實科}여학교 개교. 수업 연한 2년. 2학급 편성
- 6.1. - 목포도서관 개관
- 6.27. -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2~5학년 학생 3백여명이 전라남도외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제3차 동맹휴학에 들어감. 이에 학교 측에서는
무기정화 처분으로 맞섬
- 6.29. - 광주공립농업학교 2~4학년생 134명이 동맹휴학에 들어감. 이에
학교 측에서는 무기정화 처분으로 맞섬
- 6. - 전남정구협회 창립
- 나주 출신 김현준^{金賢準},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 광주 유지들이 학동에 광주공제조합^{光州共濟組合}
(육아복지시설. 현 무등육아원의 전신) 설립
- 7.24. - 광주군수로 이시다^{石田國祖}(부임 전에 강릉군수 지냄) 부임
- 전 광주 군수 스즈키^{鈴木兵作}는 제주도사^{島司} 겸 경시^{警視}로 전임
- 7. - 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주민들이 태봉산^{胎峯山}에 암장된 묘를 파헤치
다가 석조 태실^{石造 胎室}(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소장)과 함께 많은 유물
을 발견함으로써 태봉산의 이름을 고증하게 됨
- 8.5. -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전남소년연맹 창립대회가 일본경찰의 금지로
좌절되자 광주에 모인 지방대표 60여명이 무등산 증심사로 옮겨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다가 밤 11시경 일본경찰의 습격을
받아 40여명이 피검됨. 이 가운데 2차에 걸쳐 34명이 석방되고

유혁^{柳赫}, 조병철^{曹秉哲}, 이현^{李鉉}, 김태오^{金泰午}, 강자수^{姜子秀}, 조문환^{曹文煥}, 고장환^{高長煥}(서울), 정홍교^{丁洪敎} 등 8명이 구속되고 광주지법 검사국에 송치됨. 중심사 회환 참석자 중에는 광주 출신 박오봉^{朴五鳳}, 서재익^{徐在益}, 강석원^{姜錫元} 등도 있었음

- 8. - 호남은행 장성출장소 개점(1929년 2월 지점으로 승격)
- 9.6. - 이해 봄에 제9회 전라남도의회 회의시 “조선농촌이 극도로 피폐해 감은 보통학교를 남설^{南設}하기 때문 운운”하며 조선인 교육을 평하한 아마노^{山野龍三}(목포일보사장, 목포상의 회두)를 규탄하고 한국인 의원 5명의 사퇴서 제출에 대해 아마노의 사과로 사퇴를 철회하고 일단락 됨
- 9.22. -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망휴 3개월째 계속
- 9.24. - 함평읍^{咸平邑}과 학교^{鶴橋}에 전등용 송전^{送電} 개시
- 10.5. - 윤치호^{尹致浩}, 목포 호남동 18번지에 공생원^{共生園}(육아복지 시설) 설립
- 11. - 광주여고보생 장매성^{張梅性}, 박옥련^{朴玉蓮} 등 10여명이 광주여자학생



■ 광주시가지

급남로 2가 입구에서 무등산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다. 사진 중앙의 2층 건물은 광주 벽돌건물의 효시인 전남금융조합연합회 건물이다. 이 자리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로 편입되어 헐려버린 농협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가 있었던 곳이다. 오른쪽 멀리 광주공립보통학교(현 서석초교)가 보인다.

독립운동 모체인 소녀회^{少女會}를 조직

- 목포 주조주식회사(자본금 10만엔) 설립

12.15. - 신간회^{新幹會} 광주지부, 흥학관에서 제2회 정기총회 개최

- 임원 개선 : 회장 최흥종^{崔興宗}, 부회장 정수태^{丁洙泰}, 기타 간부 오흥근^{吳興根}

김용환^{金容煥} · 문태홍^{文泰洪} · 이영수^{李永洙} · 지창수^{池昌洙} 외 10명

본부대회 출석자 : 최흥종^{崔興宗} · 정수태^{丁洙泰} · 장석천^{張錫天} · 최종섭^{崔種涉} ·

최춘열^{崔春烈}

12. - 광주~목포 간 여객버스 운행

■ 국내·외

9.1. - 함경선^{咸鏡線} 개통

9.13. - 조선금융조합협회 창립

10.8. - 장개석^{蔣介石}, 중국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

10.9. - 한글날 제정(종전의 가갸날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

12. - 조선저축조합령 공포

이 해에 - 전수린^{全壽麟} 작곡의 '황성 옛터' 유행

광주군 관내 면장

1928년 현재

광주면장 오쿠무라^{奥村言吉}

석곡면장 장환봉^{張煥奉}

하남면장 박노필^{朴魯弼}

대촌면장 고재한^{高在漢}

극락면장 박하정^{朴夏庭}

우치면장 범재풍^{范在豐}

임곡면장 기남종^{奇南鍾}

서창면장 이회춘^{李會春}

본촌명장 최남두^{崔南斗}

송정면장 장안섭^{張安燮}

효천면장 정순환^{鄭舜煥}

지한면장 최용숙^{崔溶淑}

비아면장 김강열^{金康烈}

동곡면장 유병순^{柳秉洵}

서방면장 전상협^{全詳協}

1929년

■ 광주·전남

- 1.19. - 전라남도지사 김서규^{金瑞圭}(~1929.12.) 부임
 - 목포 양주^{釀酒}주식회사(자본금 10만엔) 설립
- 2.7. - 전남신탁주식회사 설립
 - 광주공립보통학교를 광주제일공립보통학교로 명칭 변경
- 2.23. - 광주서방^{瑞坊}공립보통학교를 광주제2공립보통학교로 명칭 변경
- 3.15. - 중국 남경정부^{南京政府}, 통일을 축하하기 위해 광주 거류 중국인들이 중국의 새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青天白日萬地紅旗}를 게양
- 4.7. - 광주수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1만5천엔. 불입자본금 3천7,150엔
- 5.13. - 나주 본량면에서 송치^{松峙}수리조합 설립. 물리면적 275정보
- 6.4. - 목포상업학교 학생들, 일본인 학생과의 차별대우에 반발하여 맹휴
- 6.15. - 목포~대전~부산 간 직통열차 운행 개시
- 6. - 광주고등보통학교 독서회^{讀書會} 조직
- 7.5. - 신간회 광주지부 임원개선. 회장 최흥종이 사임하고 정수태^{丁洙泰}가 피선
- 7.23. - 광주고등보통학교 교장실 습격사건 발생
- 7. - 광주농업학교 독서회 결성
- 9.5. - 합명회사 학파^{鶴坡}농장 창립(자본금 55만엔, 대표 현준호)
- 9.24. - 광주면장에 우쿠무라^{奥村言吉}이 임명됨
- 9. - 전남도립사범학교 독서회 결성
- 10.25. - 여수 읍촌^{栗村}보통학교 개교
- 10.30. - 광주~나주 간의 기차인 한·일 학생들이 나주역에서 충돌
- 11.3. - 광주학생독립운동^{光州學生獨立運動} 일어남. 광주시민·학생 1천여명이 시가지를 누비며 시위행진 1930년 3월까지 전국의 참가 학교 194개교, 대학1, 전문학교4, 고보136, 보통학교45, 북간도8, 참가학생

54,000여명. 퇴학처분당한 학생 582명, 무기정학 2,330여명,
 피검자 1,642명

- 전남산전^{全南産遷} 6만석 돌파 도민 경축대회 열림
- 11.4. - 신간회, 광주학생운동 조사를 위해 긴급 관련회의를 소집하고 김병노^{金炳魯} · 허헌^{許憲} · 황상규^{黃尙奎}를 광주에 파견
- 11.7. - 신간회의 '광주학생운동보고 대연설회'가 경찰의 제지로 좌절
- 11.12. -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 제2차 시위
- 11.13. - 광주학생운동 관계 신문보도 금지(12월 27일까지)
- 11.19. - 목포상업고등학교 학생들 가두시위
- 11.21. -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목포상업학교 등의 비밀결사에 가담한 학생 137명 검거
- 12.2. - 전남인쇄주식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목포신보 · 광주일보로 변경
- 12.13. - 광주민중대회 사건 일어남.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상보고와 일제탄압을 규탄하기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하던 신간회를 일본경찰이 습격하여 조병옥^{趙炳玉} · 홍명희^{洪命熹} 등 간부 40여명을 검거하고, 자매단체인 근우회 간부 447명도 검거하고 민중대회는 해산당함
- 12.10. - 전라남도지사로 우마노^{馬野精一}(~1931.9.23.) 부임
- 12.14. - 재일유학생 및 재일 신간회원들이 도쿄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비판하는 연설회를 개최하던 중 일본경찰에 의해 해산당함
- 12.27. - 나주보습학교 학생들과 나주보통학교 5~6학년생 2백여명이 격문살포 하며 시위 감행. '피압박 민족해방, 식민지 탄압정책 절대 반대, 언론 · 집회 · 결사의 자유권 획득, 치안유지법 절대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하자 나주보습학교는 휴교 하고 이창신 · 홍민우 등 수십명이 구속됨

전남 라디오 청취자 수

1929.2.26 현재.

조선인 36명, 일본인 217명, 총253명

■ 국내·외

- 4. - 여의도^{汝矣島} 및 울산^{蔚山} 비행장 개장
- 7. - 조선저축은행^{朝鮮貯蓄銀行} 설립
- 9.12. -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 개최(10월 31일까지)
- 10.24. -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주가^{株價} 대폭락하며 대공황이 시작됨
- 이 해에 - 민요 '아리랑' 금창령^{禁唱令} 내려짐
- 고복수^{高福壽}의 노래 '타향살이' 대유행
- 목포 제빙냉장주식회사 창립
- 총독부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를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개칭



■ 무등산 소풍

1929년 4월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무등산 인왕봉으로 소풍을 가서 곳곳의 기암에 올라가 기념 촬영을 하였다.

1930년

■ 광주·전남

- 1.8. - 광주 고보생 17명, 제3차 봉기계획이 발각돼 휴학 처분을 받음
- 1.18. - 광주고보, 만세운동 관련학생 48명을 퇴학시킴
- 1.28. - 광주수피아여학교 무기휴교
- 2.3. -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자 50명 예심^{豫審} 종결
- 2.12. -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림
- 2.19. -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2차 공판이 열림
- 2.26. - 광주학생운동 주동자 황남옥(광주고보) 등 50여명, 광주지법에서 징역 4년~8월을 선고받음
- 3. - 광주경찰서장에 가다야미^{片山浪藏}가 올
- 4.4. - 충장로5가(당시는 수기옥정^{須奇屋町})에서 큰 화재 발생. 정경봉^{鄭景奉}상점(고무신 도매상)에서 발화하여 건물 연건평 1,220평 소실. 피해액 98,360엔
- 4. - 조선운송주식회사^{朝鮮運送株式會社}(숙칭 마루보시. 현 대한통운의 전신) 광주영업소 개업(5월 광주지점으로 승격)
- 송정리공업직업학교 개교
- 5.2. - 보성 남철^{南鐵} 공사장 인부 1천5백여 명에게 노임지불을 하지 않음
- 5.7. - 변호사 이인^{李仁}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공판의 변론이 불온하다 하여 6개월간 정직당함
- 5. - 광주YMCA 주최 '동서고금^{東西古今}'음악·무용·가극대회 개최
- 7.17. - 광주학생 '독서회^{讀書會}' 사건 예심 종결
- 7.26. - 광주학생 '성진회^{醒進會}' 사건 예심 종결
- 7. - 광주전기주식회사와 목포전기주식회사를 합병하여 대흥^{大興}전기주식회사 광주지점으로 개편
- 광주 북동성당, 건립 부지 1,300평을 매입하고 공소를 건립

- 8.21. - 대홍수로 광주천 범람하여 건설 중이던 광주~여수 간 철도가 일부 파괴되고 부동산^{不動產} 피해를 입음(이때 전국이 폭우로 인명 2,657명, 가옥 37,438호, 선박 3,153척 등 피해 발생)
8. - 종연방직^{鐘淵紡績} 주식회사(가네보), 광주제사^{製絲} 공장을 학동에 설립
부지 6,932평. 건평 3,365평. 부수^{釜數} 200개. 종업원 320명
연간생산 생사량 36,000근
- 와카바야시^{若林}제사주식회사, 광주공장을 유동에 설립
부지 13,000평. 건평 2,500평. 부수 130개 종업원 240명
연간생산생사량 3만근
- 9.12. - 충장로 5가(당시는 수기옥정) 마영준^{馬永俊} 상점에서 화재 발생
연건평 139평 모두 소실. 피해액 4만5,550엔
- 10.2. - ‘성진회^{醒進會}’ 사건 공판 열림
- 10.5. - 현준호^{玄俊鎬}, 가정묘지 ‘무송원^{撫松園}’ 조성. 현기봉^{玄基奉}의 묘를 영암에서
광주시 동구 학운동 676번지로 이장

광주면 협의회 의원		1930년 현재
사카구치 ^{坂口喜助} , 김신석 ^{金信錫} , 우시지마 ^{牛島熊記} , 이와오 ^{岩男廣} , 소바 ^{相馬與作} , 심덕선 ^{沈德善} , 안도 ^{安藤進} , 후쿠모토 ^{福本有雅} , 후지모토 ^{藤本一二郎} , 우치야마 ^{內山重夫} , 최준기 ^{崔駿基} , 오즈 ^{大津虎八} , 김상순 ^{金相淳} , 송화식 ^{宋和植}		
송정면 협의회 의원		1930년 현재
아사노 ^{淺野保之} , 마즈이 ^{松井芳之助} , 오다케 ^{大嶺班松} , 고노 ^{河野安人} , 요시다 ^{吉田清三} , 정순조 ^{鄭純朝} , 추영명 ^{秋永明} , 김병재 ^{金炳在} , 김득만 ^{金得萬} , 박하면 ^{朴夏冕} , 박하석 ^{朴夏錫} , 윤종화 ^{尹宗華}		



■ 무덕전

지금의 상무관 근처에 있었던 무덕전은 일본 경찰들의 유도·검도 수련장이었는데 광주학생독립운동 때는 학생들의 유치장으로, 해방 후엔 광주청년단 본부, 전남 병사구 사령부로 쓰였다. 금남로 도로 확장 때 헐어버리고 근처에 상무관을 지었는데 5·18 때는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되기도 했다. 무덕전 뒤에는 일제 때 경찰학교 격인 전남순사교습소가 있었다. 아래 사진은 무덕전 뒷면(1930년)의 모습이다.

- 10.6. - 광주 소녀회(광주여고보생) 사건 인도 공판. 광주학생운동과 관련된
소녀회의 장매성 등 7명에게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 10.10. - 여수 쌍봉^{雙鳳} 보통학교 개교
- 10.18. - 광주지법, 광주학생운동에 관련된 독서회의 김상환 등 25명에게
징역 4년~3년 선고
- 10.27. - 광주지법, 광주학생운동에 관련된 성진회의 장재성 등 1백여명에게
징역 7년~1년 선고
- 11.13. - 광주 송정^{松汀} 수리조합 설립. 물리면적 1,578 정보
- 11.28. - 여수 축항공사 인부 1천9백여명, 청부업자와 하청부업자 간의
알력으로 동맹파업
- 11.30. - 보성 남철 철도공사 인부 1천여명이 총파업을 일으킴
- 12.20. - 광주공립보통학교 강당 준공. 벽돌건물. 건평 190평
- 12.21. - 전주연초전매지국 광주출장소, 대인동 2번지의 신사옥으로 이전
- 12.25. - 광주~여수 160km의 철도개통(남조선철도주식회사 소유). 이때
신 광주역(훗날 남광주역) 영업개시
* 송정~순천 119km의 철도를 경전서부선^{慶全西部線}이라 함. 여수~
시모네세키^{下關} 간 고아마루^{興亞丸}(2,500톤)와 아사히로마루^{朝博丸}(2,000톤)
이 매일 교대로 취항. 이른바 관려연락선^{關麗連絡船}이 등장함
- 이 해에 - 전남도립사범학교 폐교
- 전남철도주식회사 설립. 전남 서북부지방의 개발을 목적으로 송정리
역에서 영광을 경유, 법성포에 이르는 33마일 철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함(자본금 100만엔). 사장 미야와끼^{宮脇丈八}
- 1930년 말 현재 광주면 인구 32,547명
(한국인 26,113명, 일본인 6,199명, 기타 외국인 235명)

■ 국내·외

- 5. - 조선 상공회의소령^{朝鮮商工會議所令} 공포
- 6.9. - 조선 무진령^{朝鮮無盡令} 공포
- 11.15. - 조선 미곡창고주식회사^{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 창립
- 12.1. - 지방제도 개정(읍면제^{邑面制} 및 도제^{道制} 공포)
- 이 해에 - 이난영^{李蘭影}의 ‘목포의 눈물’ 음반 발표
- 개성^{開城} 박물관 개관

1931년

■ 광주·전남

- 1.7. - 고막원~함평 나산 간에 전등 송전 개시
- 1.26. -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자에 대한 복심법원(대구) 공판 열림
- 1. - 전라남도 어업조합연합회 광주에 설립. 1939년 2월 여수
완도·목포·제주·일본 도쿄에 출장소 개설
- 2.26. - 육아복지시설인 구도재생원(신안군 압해면의 신안보육원의 전신)을
정제현이 주축이 되어 설립
- 3.10. - 천주교 전남 감목 대리구 설정(대구교구에서 분리. 전남지역이 독
립된 교구가 됨)
- 4.1. - 광주면, 광주읍으로 승격되고 행정구역을 33개정^町으로 나누고
각 정의 명칭을 변경. 광주읍장에 오쿠무라^{奥村信吉}가 임명됨
- 4.18. - 광주 대촌수리조합 설립(무리면적 637정보)
- 4. - 광주공설운동장(5,300평), 양동시장 일대에 조성함
(그 안에 야구장·정구장을 둠)
- 5.8. - 광주 금정^{錦町}교회(현 제일교회의 전신)가 금동 126번지에 교회 신축
이전(목조 양철집, 건평 51평. 부속건물로 유치원 40평)
- 8.20. - 광주고보 운동장에서 제1회 남조선 축구대회 개최
- 9.3. - 광주 군청사 방화로 소실(피해액 2만엔)
- 9.23. - 전라남도 지사에 야지마^{矢島杉造}(~1935.2.20.)
- 9.27. - 구동 박병춘^{朴秉春}상점 화재(피해액 2만엔)
- 10.3. - 금융조합 창설기념비를 광주공원에 건립(11월 5일 제막식)
- 10. - 광주소년척후대 창설(대장 김후옥^{金厚玉})
- 11.1. - 여수면·순천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 1949년 8월 17일 각각 시로
승격
- 11.3. - 전라남도 회의실 공사 중 천정이 붕괴하여 사상자를 낸

- 11.8. - 오후 6시20분 극장 ‘광주좌^{光州座}’ 화재 발생
- 11.12. -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관련자 검거 시작
- 12. - 극장 ‘광주좌’ 화재 후 가설 건축물을 지어 광남관^{光南館}으로 개관
- 이 해에 - 영산교^{榮山橋} 기공

■ 국내·외

- 5.10. - 신간회, 전국대회 열고 해산을 결의
- 7.2. - 만보산^{萬寶山}사건 발생. 만주 장춘현 삼성보^{滿洲 長春縣 三姓堡}에서 수전^{水田} 개발을 둘러싸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충돌 발생. 이에 자극 받아 국내 각지에서 중국인 박해사건이 일어나 중국인 1백여명이 사망함
- 8. - 함경북도 무산군^{茂山郡} 주최 탐험대가 백두산 등정
(참가자: 안재홍^{安在鴻} 류홍열^{柳洪烈} 변영로^{卞榮魯} 김찬영^{金讚永} 성순영^{成純永} 김상용^{金尙鎔} 황욱^{黃澳} 등)
- 안재홍이 ‘백두산등반기’를 조선일보에 연재
- 9.18. - 만주사변 발발
- 10.28. - 조선산악회 발족. 회장 나카무라^{中村雨造} (경성대^{京城大} 교수)

1932년

■ 광주·전남

- 1.18. - 호남은행 보성지점 개업(보성면 보성리 767번지, 1940년 5월 5일 보성리 893-4번지로 신축 이전, 1942년 5월 1일 동일은행 보성지점으로 변경 1943년 10월 1일 조흥은행 보성지점으로 변경. 1958년 5월 5일 폐쇄)
- 1.19. - 송정리 공업직업학교 비밀조직인 독서회원 5명 피검됨
 1. - 광양 금광 노동자 5백여명 파업
- 2.3. - 광주 사정^{社町}시장 개설(큰장과 작은장 통합)
- 2.20. - 광주일보사 큰 화재. 피해액 16,980엔
- 2.27. - 동곡^{東谷}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4월 개교)
 2. - 덕림사^{德林寺} 월산동에 개창^{開創}
 - 광주YMCA회관 준공(충장로 5가 광주극장 옆). 이때부터 체육 프로그램(권투, 유도, 탁구, 야구, 축구) 실시 및 협동조합 운영
- 3.26. - 광주곡자^{鞠子}제조주식회사가 대인동에 설립됨
자본금 5만엔. 불입자본금 3만6,875엔
- 4.10. - 광주권번^{券番}(기생조합) 주식회사 설립. 대표 김승련^{金承鍊}
자본금 5,000엔. 불입자본금 1,250엔
- 5.18. - 하남^{河南}공립보통학교 개교
 6. - 미나카이^{三井}광주지점 개업
(광주 최초의 일본인 경영 백화점. 본사는 서울)
 - 전라남도 수산시험장 여수분장 설치
- 7.23. - 광주중학교(일본인 학교) 기숙사 화재(피해액 8천2백50엔)
10. - 전라남도령 제21호로 전라남도 종묘장을 전라남도 농사시험장으로 명칭 변경(이후 1945년 8월 국립농사시험장 광주지장, 1957년 5월 전라남도 농사원, 1962년 4월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으로 각각 명칭 변경)

11. - 가네보^{鐘紡} 광주공장과 도시^{道是}공장 여공 각 5백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일본인의 3분의1에 지나지않은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비인간적 대우, 민족적 차별 등에 항의)
- 무언극 '물레방아는 쉬었다' 공연(최계순^{崔桂淳} 작. 최흥열^{崔興烈} 연출
출연:김용호^{金容浩} 최인식^{崔仁植} 하석암^{河石岩} 오용^{吳鎔} 이득윤^{李得允} 등)
- 이 해에 - 극장 '제국관^{帝國館}' 개관(훗날 무등극장 자리). 수용인원 674명
- 전라남도 회의실 준공(광주시 유형문화재 제6호)
- 곡성~남원간 철도 착공

■ 국내·외

- 1.1. - '조선 상공회의소령'의 제정으로 '조선 상업회의소 연합회'가 해체되고 '조선 상공회의소' 발족
1. - 이봉창^{李奉昌} 의거
- 3.1. - 만주국^{滿洲國} 건국선언
- 4.29. - 윤봉길^{尹奉吉} 의사, 상해 홍구^{虹口}공원에서 거행된 일본 천황 생일 경축식장에서 폭탄을 던져 시라가와^{白川義則} 대장 등을 죽임
5. - 김성수^{金性洙}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경영권 인수
7. - 국제연맹 만주조사단^{滿洲調査團} 리튼 경^卿 일행이 서울을 통과함

1933년

■ 광주·전남

- 1.9. - 광주수피아여학교의 민족주의 비밀결사 ‘백청회^{白靑會}’ 사건 관련자 조아라^{曹亞羅} 등 9명 피검됨
- 1.23. - 조선상업은행 장흥·강진지점 개점
4. - 광주축구단 창설을 기념하여 전국축구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광주에서 개최된 최초의 전국 규모 체육행사)
 - 유화례^{柳華禮} 선교사가 광주수피아여학교 제5대 교장에 취임
- 5.29. - 광주의 첫 주임신부로 민정호^{閔正鎬} 신부가 임명되어 이때부터 광주에 천주교 신부가 상주함
- 6.1. - 평동^{平洞}공립보통학교 개교(2학급)
- 6.22. - 연일 폭우로 광주지방 대홍수
- 7.20. - 호남은행, 동래은행을 흡수해 호남은행 동래^{東萊}지점·거창^{居昌}지점 설치
- 8.23. - 영산강이 범람하여 산동교^{山東橋}에서 도선^{渡船}이 전복함
8. - 목포 동아고무공장 직공 130여명 임금인하에 항의하며 파업

광주 계유구락부^{癸酉俱樂部} 회원

최흥종 ^{崔興琮}	구형서 ^{具滢書}	김명신 ^{金明信}	심덕선 ^{沈德善}	김용환 ^{金容煥}	김희술 ^{金熙述}
최준기 ^{崔駿基}	송화식 ^{宋和植}	정상호 ^{鄭尙好}	손우채 ^{孫祐彩}	김응모 ^{金膺模}	김우영 ^{金雨英}
손이채 ^{孫二彩}	고재섭 ^{高在燮}	백남섭 ^{白南燮}	최영균 ^{崔煥均}	김흥선 ^{金興善}	김희성 ^{金喜誠}
지정선 ^{池正宣}	최영욱 ^{崔泳旭}	최경식 ^{崔興植}	고광인 ^{高光寅}	김흥열 ^{金興悅}	최선진 ^{崔善鎭}
김광진 ^{金光鎭}	최상채 ^{崔相彩}	지창선 ^{池昌宣}	김찬흠 ^{金讚欽}	최원순 ^{崔元淳}	최석휴 ^{崔錫休}
정난모 ^{鄭欄謨}	양태승 ^{梁泰承}	박기주 ^{朴琪柱}	김신석 ^{金信錫}	이종묵 ^{李鍾默}	유연상 ^{劉演相}
정문모 ^{鄭文謨}	총 37명				

- 9. - 광주소년척후대(보이스카우트), 소년척후단 조선총연맹에 가맹
당시 조선총연맹 총재 윤치호^{尹致昊} 간사장 정성채^{鄭聖采}
- 10. - 광주제증원(그라함기념병원) 화재로 불에 탐
- 11.3. - 최상채^{崔相彩}, 일본교토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음
- 12.22. - 광주공립보통학교, 강당을 제외하고 화재로 교사 모두 소실
이후 흥학관·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제2공립보통학교·구 사범
학교 등에서 분산 수업
- 이 해에 - 광주YMCA, 광주농업실습학교 창설(2년제 사회교육기관, 1934년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교사·학생이 숙식을 같이하며 실습과 인격
교육 실시)
- 증심사 노전^{極殿} 앞 5층석탑을 해체 보수하다 국보급 유물을 발견함
이때 발견된 유물은 금동석가여래입상(옛 국보 제211호), 금동보살
입상(옛 국보 제212호), 오층철탑(높이 13cm), 소형철불 2구, 수정
1개, 청옥 구슬(염주로 쓰던 것) 23개

■ 국내·외

- 1. - 상해사변^{上海事變} 일어남
- 2.20. - 조선총독부 ‘면화증산계획’ 발표
- 3.7. - 낙동강교^{洛東江橋} 준공
- 3.9. - 미국, 뉴딜정책 발표
- 3.27. - 일본, 국제연맹 탈퇴
- 4.1. - 각 도 ‘도평의원회’^{道評議員會}를 ‘도의회’^{道議會}로 명칭을 바꿈
- 4. - 조선면화협회^{朝鮮棉花協會} 설립
- 5.21. - 각 도 도의원 선거 실시

- 8.17. - 조선 금융조합연합회 발족
- 8.27. - 경성상공회의소, 1910년 이후 일본 자본의 조선투자액이 30억엔
으로 추산된다고 발표
- 8.31. - 일본 미츠이물산^{三井物産} 주식회사 산하기업으로 ‘조선맥주주식회사’
설립
- 11.4. -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
- 이 해에 -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경성여자의학강습소의 후신)를 순천출신 우석
김종익^{友石 金鍾翼}의 기부금으로 설립(해방후에 우석대학이 되었다가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34년

■ 광주·전남

- 1.12. - 아사히주조주식회사^{旭酒造株式會社} 설립. 자본금 2만엔. 불입자본금 1만 5천엔
- 2.9. - 전국 각지에서 조선미곡^{米穀} 옹호기성회 결성. 일본에서 쌀 수입을 규제하자 조선 지주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이때 전라남도에서도 도민 대회를 목포에서 개최
- 3.28. - 전라남도 경찰국, 도내 각지에서 공산주의 비밀결사 혐의자로 3백 여명 검거
- 4.10. - 천주교 성 콜롬방회가 광주에 진출. 전라남도 감목대리^{監牧代理}를 돕 광주 감목대리로 오엔 맥폴린(임^林신부)이 옴
- 5.1. - 광주세무감독국 발족(각 도 재무부를 폐지. 제주를 포함하여 전남·북도의 조세행정 관할. 전국적으로는 2부 36군 1도에 17개 세무서가 설치됨) 1943년 12월 1일 세무감독국 폐지
- 5.13. - 나주세무서 설치(나주·영암을 관할)
- 강진세무서 설치(강진·장흥·해남·완도 4개군 관할)
5. - 광주 임업묘포^{林業苗圃}(전라남도 임업시험장의 전신), 임동에서 광주군 곡락면 쌍촌리(현 호남대 쌍촌동 캠퍼스 자리)로 이전
- 6.26. - 서서평^{徐舒平}, 양림동 자택에서 서거. 광주 최초의 간호 선교사이자 여성 교육자 겸 사회사업가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김신석^{金信錫}·최원순^{崔元淳} 등 제창으로 7월 7일 오웬기념각에서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름
- 6.30. - 화순의 박현경^{朴賢景}이 화순 무연탄주식회사(속칭 화순탄광)를 종연방적 주식회사(속칭 가네보)에 매각
- 7.28. - 종연광업^{鐘淵礦業}주식회사 설립(화순탄광을 박현경으로부터 매수하여 회사 설립.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전신)

- 8.28. - 고흥^{高興}에 전기 송전 개시
8. - 신광사^{新光寺}(광주 지산동)에 개창
10. - 일본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에서 조선 내의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을 우편엽서로 투표하여 조선 팔경을 선정. 전남에서는 지리산 253만 4천표, 백양사 내장산 224만6천표, 여수~한산도 사이의 해로인 한려수도 222만5천표로 3곳이 선정됨
- 묵암 장안섭^{默菴 張安燮}, 서창면 동하마을에 만귀정^{晩歸亭} 건립(1935년 8월 수증정자인 습향각^{襲香閣}을 세움). 1951년 4월 장안섭의 유덕을 추모하여 광산군민의 이름으로 묵암정사^{默菴精舍}이 건립됨
(만귀정은 훗날 광주시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됨)
- 11.8. - 합명회사 양파농장^{楊坡農場}(자본금 28만엔) 양림정(동)에서 설립됨
- 사립 응세농도학원^{應世農道學院} 개교. 덴마크식 농사법에 의한 농촌 중견 청년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설립자 지응현^{池應鉉}. 초대 원장 백남규^{白南奎}. 위치 : 현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자리. 해방후에 이 학교를 지산동으로 옮기고 축산중학교와 수의^{獸醫}고등학교가 됨
- 이 해에 - 광주에서 독립운동의 내용을 주제로 한 연극 ‘익조^{翼朝}’ 공연(최경순^{崔敬淳} 작. 하석암^{河石岩} 연출. 최흥열^{崔興烈} 등 출연)
- 조선나병환자근절회 발기(발기인: 최흥종^{崔興宗} 국기열^{鞠琪烈} 김철^{金哲} 장영규^{張泳奎} 노종갑^{盧鍾甲} 김삼현^{金三鉉} 최상채^{崔相彩} 김흥열^{金興悅} 민병기^{閔丙祺} 고재욱^{高在旭} 현덕신^{玄德信} 김양수^{金良洙} 김정기^{金正基} 김용환^{金容煥} 최영균^{崔煥均} 김희성^{金喜誠} 박영만^{朴永晩} 신태윤^{申泰允} 이은상^{李殷相} 등 70여명)

■ 국내·외

3. - 만주국 집정 부의^{溥儀}가 황제에 즉위

4.11. - 조선 농지령^{農地令} 공포

이 해에 - 전국 쌀 총생산량 16,720,000석 중 8,910,000석이 일본으로
이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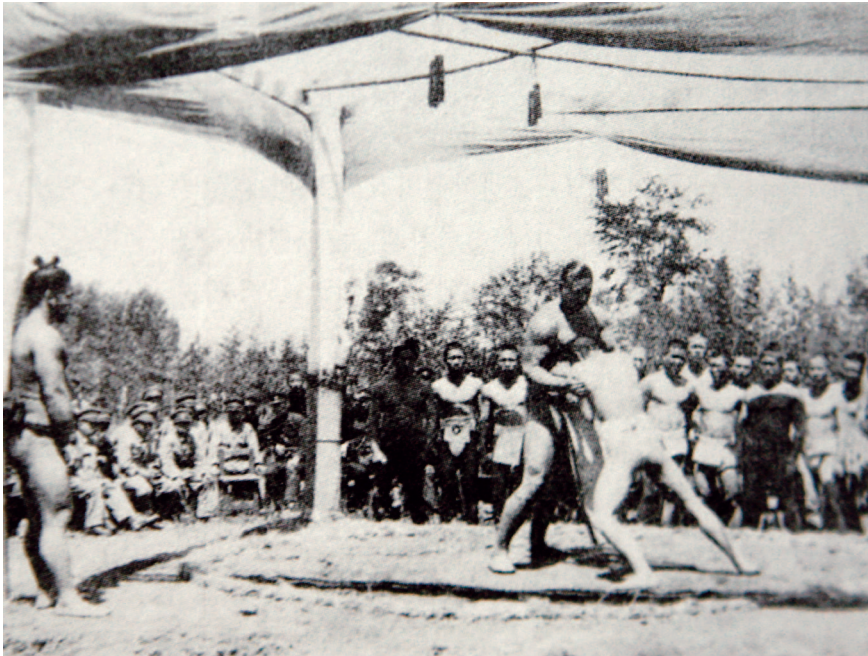
1935년

■ 광주·전남

1. - 광주 제증원(광주 기독교병원 전신) 화재 후 신축하고 재개원
(본관 및 병동 693평)
- 3.1. - 전남상사회사^{全南商會社} 설립(자본금 1만6천엔, 업종: 도정업)
- 3.7. - 최흥중^{崔興中} 목사,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오공선^{吳兢善} 박사에게 거세^{去勢} 수술을 받고 돌아와 사망통지서를 내고 무등산 오방정^{五放亭}
(뒤에 춘설헌^{春雪軒})에 은거함
- 5.1. - 양태승^{梁泰承} 등이 광주에 무등양말 공장 설립
- 7.10. - 본량^{本良}공립보통학교 개교(1941년 4월 1일 본량공립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 8.1. - 주식회사 광주극장(자본금 30만엔. 불입자본금 7만5천엔) 설립
- 합자회사 화신상회^{和信商會}(자본금 5만엔. 주단 포목 판매) 설립
8. - 종연방직^{鍾淵紡績} 주식회사 전남공장 조업 개시
9. - 광주경찰서 대의동으로 신축 이전(현 광주 동부경찰서 자리)
- 10.1. - 광주읍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됨. 지한^{池漢} 효천^{孝泉} 서방^{瑞坊}의 3개면 일부를 각각 편입하여 41개정^町이 됨
- 10.10. - 광주극장 개관. 사장 최선진^{崔善鎭}. 수용인원 1,250명
- 이 해에 - 광주 서양인 선교사들, 일제의 압력으로 귀국
- 광주 계유구락부^{癸酉俱樂部}의 주최로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에 이어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의 초청 강연회가 열림
- 목포 전등주식회사가 소화^{昭和}전기회사·보성^{寶城}전기회사를 흡수
- 해남 대흥자동차부 설립
- 경양방죽 매립반대 투쟁위원회 결성
- 1935년 말 현재 광주부 인구 52,614명(한국인 44,715명, 일본인 7,735명, 기타 외국인 224명)

■ 국내·외

- 4.20. - 경복궁^{景福宮}에서 '조선산업박람회^{朝鮮産業博覽會}' 열림
- 9. - 총독부에서 각 학교에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
- 10.4. - 우리나라 최초의 발성영화^{發聲映畫} '춘향전'이 단성사에서 개봉
(감독 이명우^{李明雨} 감독, 출연 문예봉^{文藝峰} · 한일송^{韓一松})



■ 일제시대의 체육시간(1935년)

광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스모를 배우고 있다.

1936년

■ 광주·전남

1. - 광주 제2수원지 착공(1939년 3월 준공). 공사비 50만4천엔. 급수 인구 3만명
 - 가네보 광주제사공장 종업원 전원 파업
- 2.22. - 주식회사 전남인쇄소(자본금 2만엔 불입자본금 5천엔) 설립
- 3.1. - 남조선철도주식회사가 소유한 광주~여수 간 철도 160km를 조선 총독부가 매수하여 국유화^{國有化}(매수가격 179만 7,270엔)
- 3.16. - 주식회사 조선저축은행 광주지점 개점
3. - 광주 청소사무소^{光州 清掃事務所} 설치
(위치: 양동 청소감독 2명. 상근 종업원 40명)
- 4.21. - 호남은행 영광지점 개점(영광면 백학리 20-7번지). 1942년 5월 1일 동일은행 영광지점. 1943년 10월 1일 조흥은행 영광지점으로 변경. 1953년 5월 5일 폐쇄
4. - 광주상공회의소 설립 총회(12월 22일 설립 인가)
- 5.19. - 주식회사 봉남^{鳳南}농장(토지매매업) 설립. 자본금 10만엔
- 6.25. - 합자회사 옥천농장^{玉泉農場} 설립. 대표 지응현^{池應鉉}. 자본금 9만엔 불입자본금 5만 2천엔
- 7.1. - 광주 세무감독국, 학강정에 청사 신축 이전(현 병무청 자리)
 - 합자회사 인등상회^{仁藤商會} 설립(잡화상). 자본금 1천5백엔
- 7.8. - 광주 명치정 공설시장 착공
- 8.29. - 전남 트럭운송주식회사 창립(운송업)
자본금 20만엔. 불입자본금 12만엔
- 10.1. - 전라선(이리~순천) 개통. 이로써 호남본선과 연결되어 순천역은 철도의 십자로가 됨
- 10.10. - 소록도 자혜의원을 소록도 갯생원으로 개칭



■ 손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 2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손기정 선수의 모습.
이때 동아일보에서는 일장기 삭제사건으로 수난을 겪었다.

- 10. - 광주 명치정 공설시장 개설(훗날 중앙시장의 전신). 점포 92칸
- 11.1. - 순천 철도사무소 설치(1945년 8월 1일 순천 지방운수국으로 승격)
 - 장흥 전기주식회사가 목포 전기주식회사에 흡수됨
- 11.23. - 무등양말공장, 합자회사로 개편. 자본금 1만5천엔
불입자본금 1만 4천엔. 대표 김시중^{金時中}
- 12.1. - 전남 히노데^{日乃出}자동차주식회사 개업(운수업)
자본금 50만엔. 불입자본금 25만엔
- 12.22. - 영산포역 역 건물을 신축
- 이 해에 - 남성^{南星}영화주식회사 전남지사 개업

■ 국내·외

- 6. - 안익태^{安益泰}, 애국가^{愛國歌} 작곡
- 8.9. - 손기정^{孫基禎},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마라톤 우승(세계신기록 2시간 29분 19초2). 전남출신 남승룡^{南昇龍}은 3위
- 8.29. - 동아일보 일장기^{日章旗} 말소사건으로 무기 정간
- 10.23. - 한강 인도교^{人道橋} 개통

1937년

■ 광주·전남

- 2.1. - 호남은행 담양지점 개점(담양면 객사리 249번지, 1940년 5월 5일
담양면 지침리 171번지에 신축 이전, 1954년 9월 30일 폐점)
- 3.1. - 광주 도축장^{屠畜場}, 월산동에 신축 이전
- 3.10. - 목포전기·대흥전기·조선와사전기·대전전기·남조선전기·천안
전등 등이 통합하여 남선전기주식회사 설립
- 4.1. - 광주 임업묘포를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으로 승격
- 전라남도 축산시험장 개장(전라남도 농사시험장 축산부를 분리 승격)
- 4.15. - 천주교 광주교구, 대구교구^{大邱教區}에서 분리. 초대교구장 오웬 맥폴린
(일명 임신부). 교세^{教勢}는 본당 8개소, 공소 36개소, 신자 4,016명,
한국인 신부 3명, 콜롬방노회 아일랜드인 신부 16명)
- 5.3. - 일본의 민속학자 야나기^{柳宗悅}, 광주에 옴
- 5.22. - 광주 제일공립보통학교 부설 학강^{鶴岡}간이학교 개교(1943년 4월 1일
학강국민학교로 승격)
5. - 대흥전기^{大興電氣} 광주지점을 남선^{南鮮}전기주식회사(속칭 남전^{南電} 목포
지점 광주출장소로 명칭 변경
- 6.7. - 비아^{飛雅} 공립보통학교 부설 신가^{新佳}간이학교 개교
(1943년 6월 12일 비아 남국민학교로 승격)
- 7.1. - 송정면^{松汀面} 이 읍으로 승격
- 9.6. - 광주 숭일^{崇一}학교, 수피아여학교, 배영학교, 목포 정명^{貞明}·영흥^{永興}
학교 등 4개교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됨
- 9.27. - 순천 매산^{梅山}학교, 매산여학교, 담양 광덕^{廣德}학교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됨
- 10.10. - 경양방죽 일부를 매립하여 택지조성 공사 기공
(1939년 10월 10일 준공. 호수면적 46,465평, 수심 약10m이던

것이 호수면적 16,300평, 수심 4m로 축소)

- 10. - 광주 어채도매시장-魚采都買市場 개설(금남로 5가 옛 신영극장 자리)
- 12. - 남화^{南畵}동호인 60여명을 중심으로 서화 연구 수련단체인 연진회^{鍊眞會}
발족(광주시 금동)
- 이 해에 - 보성강 수력발전소 준공(출력 3,000 km/h)
- 광주 에비슨 선교사를 일본경찰에 추방당함

광주연진회 회원

의재 허백련^{毅齋 許白鍊}, 취석 이원보^{翠石 李源甫}, 소당 오석유^{韶堂 吳錫裕}, 동강 정운면^{東岡 鄭雲莚},
 백양 조정규^{伯陽 趙定奎}, 서운 임신^{棲雲 林愼}, 유린 조덕환^{有隣 曹德煥}, 남재 민병기^{南齋 閔丙祺},
 춘파 김동곤^{春坡 金東坤}, 남사 최기일^{南史 崔奇一}, 원당 최정숙^{圓堂 崔正淑}, 우서 김병택^{又西 金炳宅},
 목정 최한영^{牧丁 崔漢泳}, 춘헌 허규^{春軒 許圭}, 청매 박하연^{靑梅 朴夏淵}, 백아 양지환^{白我 梁址煥},
 지당 박인석^{知堂 朴麟錫}, 혜정 어광선^{惠庭 魚光善}, 남계 조복순^{南溪 曹福淳}, 호당 신방우^{浩堂 申方雨},
 송헌 심상엽^{松軒 沈相燁}, 운곡 최진섭^{雲谷 崔珍燁}, 서림 김태집^{棲林 金泰軾}, 서봉 장영규^{瑞峯 張泳奎}
 -이상 1938년 가입
 소정 변관식^{小亭 卞寬植}, 백원 야노^{柏園 矢野俊二}, 목재 허행면^{木齋 許行冕}, 이당 김은호^{以堂 金殷鎬}
 -이상 1939년 가입
 근원 구철우^{楸園 具哲祐}, 수송 박영해^{秀松 朴英海}, 연재 이덕우^{淵齋 李德宇}, 남파 황태율^{南坡 黃泰律}
 -이상 1940년 가입
 소송 김정현^{小松 金正炫} -1941년 가입
 지봉 정상호^{智峯 鄭相浩} -1944년 가입

■ 국내·외

- 2.27. -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이 강제해산됨
- 7.7. - 중일전쟁 발발
- 8.9. - 영화배우 나운규^{羅雲奎} 사망
- 9.14. - 조선총독부 군수공업동원법^{軍需工業動員法} 실시를 결정
- 9. - 조선 소년척후단 강제 해산(조선소년척후대는 1922년 10월 ‘양심 있는 조선 남자는 그 의무에 충실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에 58개 호대^{虎隊}를 두어 왔는데 1937년 7월 파고다공원에서 제복항건^{制服項巾}에 새겨진 태극기 마크와 무궁화가 말쑥이 되어 엄중 문책을 받고 해산됨)
 - 압록강 수력발전주식회사 설립
- 10.1. - 조선총독부 소위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제정하여 한국인에게 강요
- 11. - 독일 · 이탈리아 · 일본 방공협정^{防共協定} 체결
- 12.27. - 조선물가조사규칙^{朝鮮物價調査規則} 공포(193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이 해에 - 박흥식^{朴興植}, 화신^{和信}백화점 건립

1938년

■ 광주·전남

- 1.1. - 총독부가 시장 개시일(開市日)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고치도록 함에 따라
광주 큰장과 작은장도 이후 양력 2·7·4·9일로 개시일을 변경함
- 3.26. - 여수 공립고등여학교(일본인 학교) 설립인가. 4월 28일 현 동초등학교 교사를 빌려 개교. 1940년 12월 5일 교사 신축 이전
- 3.31. - 관립 광주사범학교 개교(1962년 전남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개편.
1963년 3월 광주교육대학으로 분리)
- 4.1. - 광주 서정심상소학교(光州 西町尋常小學校)(현 대성국민학교의 전신) 개교
 -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광주 각급 학교 교명 변경. 이때까지 조선인 초등학교는 ‘보통학교’,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라 했는데 일제는 조선인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함께 학교 명칭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함
 - 광주 공립제1보통학교 → 광주 공립서석고등심상소학교
 - 광주 공립제2보통학교 → 광주 공립북정심상소학교
 - 광주 사립보통학교 → 광주 사립호남소학교
 - 광주 공립고등보통학교 → 광주공립서중학교
 -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 광주 공립아사히(旭)고등여학교
 - 광주 중학교(일본인 학교) → 광주 공립히가시(東)중학교
 - 광주 공립고등여학교(일본인 학교) → 광주 공립아마토(大和)고등여학교
 - 광주 공립심상소학교(일본인 학교) → 광주 공립중앙고등심상소학교
- 신광주역(新光州驛)을 남광주역으로 명칭 변경
- 여수 사립미평(美坪)심상소학교 설립인가. 설립자 김영준(金英俊) 7월 18일 개교. 1944년 4월 1일 재산 일체를 기증하여 공립학교가 됨
- 5.5. - 관립 광주사범학교 부속 심상소학교 개교
(현 광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의 전신)

- 5.20. - 광주~여수간 철도개통 10주년 기념 야구대회를 벌교에서 개최
출전팀: 광주일보·도립병원·전남도청·광주법원·전기회사·
목포·광주·순천·벌교팀. 광주팀 선수: 김희룡^{金熙龍} 이정덕^{李景德}
최호연^{崔昊衍} 김갑현^{金甲鉉} 이정옥^{李正玉} 백흥기^{白洪基} 하길담^{河吉談}
5. - 광주 비행장 완공, 이에 맞춰 신항공^{新航空}사업사가 서울~광주 간
주3회 왕복운행
6. - 광주 북동성당(벽돌건물) 낙성(1937년 10월 착공)
8. - 광주측후소^{測候所}를 광주비행장 내에 설립
9. - 남광광업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18만엔. 불입자본금 4만5천엔. 대표 최남주)
- 11.20. - 광주농업학교, 광산군 서방면 용봉리(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자리)
의 새 교지^{校地}로 이전(부지 121,696평)
- 11.21. - 전남산업주식회사(가마니·새끼 제조 판매) 설립. 자본금 50만엔
불입자본금 25만엔
- 이 해에 - 오지호^{吳之湖}·김주경^{金周經} 2인 원색화집^{原色畵集} 발간
(한국 최초의 칼라화집)
- 남선전기 송정출장소 개소
- 전라남도 수산시험장 완도분장^{莞島分場} 설치
- 광주 지방법원검사국 장흥지국 설치

■ 국내·외

- 2.26. - 조선육군지원병령^{朝鮮陸軍志願兵令} 공포(4월 3일 시행)
- 3.3. - 민족성 말살을 위한 조선교육령 개정 공포(각급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학교명을 일본식으로 변경)
- 3.10. -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서거
- 5.10. - 일본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도 적용한다고 공포
 - 공정가격제도 실시. 목면제품의 제조판매를 제한
- 11.9. - 경제^{經濟}경찰제도 실시(총독부 경찰국 경비과에 경제경찰계 신설)
- 이 해에 - 석유부족으로 인해 목탄자동차^{木炭自動車} 등장
 - 반도^{半島} 호텔 준공
 - 출판회사인 학예사^{學藝社}(광주 출신 최남주^{崔南周} 경영)에서 문고^{文庫} 발간으로 독서층 보급 확대에 기여

1939년

■ 광주·전남

1. - 조선중앙무진^{無盡}, 광주·목포·여수·순천 및 충북 무진 등을 흡수 합병(8월 광주영업소 개업)
 2. - 광주 금정시장 개설(훗날 남부시장의 전신. 개설 당시 점포 78칸)
 3. - 광주 제2수원지 준공(1936년 기공. 광산군 효지면 용연리). 송수거리 8,385km. 만수면적 58,878㎡. 저수량 504,207㎥. 수심 18m
 - 4.1. - 조선방송협회 광주출장소 개설(충장로 3가 옛 동창상회 자리)
 - 5.4. - 임곡 공립심상소학교 부설 등임^{登任}간이학교 인가. 7월 17일 개교
1944년 4월 1일 임곡 남국민학교로 승격
 - 5.18. - 나주군 반남면 덕산리 2호분 및 석실분 조사(5월 28일까지 실시)
 7. - 여수 만성리해수욕장이 여수읍 경영으로 개장
 8. - 광주 경방단^{警防團} (동분단, 서분단, 남분단) 창립
 - 10.31. - 광주시가지 계획 고시(조선총독부 고시 제 901호)
 - 11.25. - 소록도 갯생원^{小鹿島 更生院} 완공
- 이 해에 - 가난한 학생 생활수기의 작문을 영화화 한 ‘수업료’ 전국에서 개봉

1939년 광주 물가(평균 가격)

단위: 원·전					
쌀	1말 ^{18리터}	3.77	청주 ^{청종}	1병 ^{1.8리터}	1.10
콩	1되 ^{1.8리터}	48	맥주	1병 ^{1.8리터}	40
소금	1근 ^{600g}	18	달걀	열개	30
쇠고기	1근 ^{375g}	52	숯	1관 ^{3.75kg}	16
돼지고기	1근	38	광목	1필 ^{40야드}	9.20
두부	열장	60	카레라이스	1접시	28
설탕	1근 ^{600g}	28	닭고기덮밥	1그릇	25
소주 ^{35도}	1병 ^{1.8리터}	44	우동	1그릇	10

■ 벼베기 동원

전남여고(당시 명칭 아사히공립고등
여학교) 학생들이 광주농업학교
실습장에서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에 보이는 십신사지석비
十信寺址石碑는 1990년 광주시립민속
박물관 앞으로 이설되었다.



■ 국내·외

- 1.14. - 여급^{女給} · 기생^{妓生}의 파마를 금지함
- 1. - 명창 송만갑^{宋萬甲} 죽음
- 4.3. - 사학자 문일평^{文一平} 죽음
- 4.20. - 못 · 철사 · 철판 등 배급제 실시
- 4. - 경성 광산^{京城 鑛山} 전문학교 및 숙명^{淑明}여자전문학교 개교
- 7.3. - 경방단^{警防團} 규칙 공포(10월 1일 시행). 경호단 · 소방단 · 수방단을
통합하여 경방단을 조직하여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둠
- 7.8. -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공포
- 9.3. -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 9.18. - 가격통제령 공포.
- 일본으로 노무자 공출 시작(1939~1945년 노무공출 180만명. 일본
본토에 66만7,684명)
- 11.10. - 창씨개명 공포(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
- 12.27. - 쌀배급제 실시에 따라 공정가격을 공표하기 시작함
- 이 해에 - 임방울^{林芳蔚}, '동일극단'^{東一劇團} 조직
- 철 · 금은 제품의 회수 시작
- '국민정신 충동원령'에 의하여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이 단축됨

1940년

■ 광주·전남

- 4. - 광주부, 광주육영회로부터 도서관을 이관받아 광주부립도서관으로 함
(위치: 황금동 옛 제일극장 자리)
- 무학국민학교(월성동 304-1번지) 개교
- 5. - 여수상공회의소 설립
- 9. - 광주 사정^{社町} 시장을 천정^{泉町}으로 옮겨 천정시장이라 함
- 화순~복암^{福岩}간 철도착공. 구간 11.3km. 1942년 9월 준공. 10월 1일 운행 화순탄광 전용선으로 종연실업주식회사 화순광업소가 개설한 철도로 1942년 10월 국유화
- 이 해에 - 광주 제중병원, 일제의 압력으로 병원업무 중단
- 광주 연초경작조합 창립
- 광주신사 대개수^{大改修}. 이른바 기원^{紀元} 2600년 기념 사업으로 광주 신사는 국폐소사^{國幣小社}로 승격
- 1940년말 현재 광주부 인구 60,463명
(한국인 52,523명, 일본인 7,878명. 기타 외국인 72명)

■ 국내·외

- 2.11. - 창씨개명 실시
- 8.10. - 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
- 8.20. - 쌀 배급제 실시. 임의 출하 및 판매 금지(이후 식당에서 쌀밥을 볼 수 없게 됨). 생산량과 대비한 쌀공출 비중 : 1940년 42.8%, 1941년 45.2%, 1942년 55.8%, 1943년 63.9%, 1944년 60.6%
- 9. - 중국 중경^{重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光復軍} 총사령부 창설
- 10. - 국민총력연맹을 조직하여 이른바 황국신민운동 실시
- 이 해에 - 성냥 및 사탕 배급제 실시

1941년

■ 광주·전남

- 2.11. - 언론 통폐합 단행으로 광주일보와 목포일보를 합병하여 전남신보
全南新報(일본어 판) 창간
- 3.2. - 광주 서중학교 학생들이 광주 제2학생독립운동 모체인 항일단체인
‘무등회’無等會 조직
- 3.20. - 광주방송국이 사직공원(사동 177번지)에 신축 기공
(부지 2,045평. 건평95평) 한국어와 일본어로 이중 방송
- 7. - 본량 서국민학교 本良西國民學校 개교
- 9. - 서서평이 설립한 이일학교 신사참배 반대로 폐교당함
- 10.1. - 조선 수리 조합연합회 전남지부 발족(전라남도 토지개량과 내)
- 12.8. - 광주지역 외국인 신부 감금당함. 미국 국적의 신부 3명을 추방하고
맥폴린 교구장을 비롯한 아일랜드 신부들도 감금당함

■ 국내·외

- 2.12. - 조선 사상범 思想犯 예방 구금령 拘禁令 공포
- 8.30. - 홍난파 洪蘭坡, 44세로 서울에서 죽음
- 12.5. - 물자통제령 物資統制令 공포
- 12.8. - 태평양전쟁 시작
- 12.9. -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 일제에 선전포고를 함

1942년

■ 광주·전남

- 3.21. - 광주방송국 개국(출력 50w, 호출부호 1040KHz, 주파수 780Hz) 초대 국장 김학민^{金學萬}
- 4.1. - 여수 구봉^{九鳳}국민학교 설립인가. 4월 26일 개교(현 여수 중앙초등학교의 전신)
- 4.20. - 호남은행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일은행에 업무양도를 결의
- 4. - 오엔 맥폴린(Mepolin), 천주교 광주교구장을 사임하고 귀국
천주교구장 주 바오로^{朱在用} 신부가 광주교구장 대리를 겸직
- 여수 측후소^{測候所} 설립
- 광주 남초등학교 개교(현 광주 동구 소태동 566-2번지)
- 5.1. - 동일은행 광주·목포·순천·장성·보성·영광·담양·동래·거창 지점 영업 개시
- 5. - ‘무등회’ 관련자 검속
- 6. - 광주 최초의 목사 이기풍^{李基豊}(광주 북문밖 교회) 순교
- 10.1. - 완도·담양·강진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
- 11.1. - 조선방송협회 목포방송소로 개소(50w 1080Hz)
- 11. - 조선 상업은행 장흥·강진 지점이 동일은행 지점이 되고 동일은행 동래·거창 지점이 상업은행 지점이 됨
- 12.11. - 천주교 제2대 광주교구장에 와키다^{脇田}(일본인) 신부가 임명됨
(1943년 2월 6일 착좌식 거행. 교구청을 광주 북동성당으로 옮김)
- 12.14. - 광산군 임곡수리조합 설립. 몽리면적 98정보
- 이 해에 - 와키다 신부의 교섭으로 아일랜드 신부들이 석방되었으나 목포 성콜롬방지부에 구금됨

■ 국내·외

- 3. - 일반가정의 금속류 특별 회수^{供出} 시작
- 5.9. -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 실시가 시행됨
- 9.30. - 청·장년 등록제 실시
- 10. - 각 국민학교에 조선청년 훈련소 설치
- 11. - 조선어학회 회원 검거 시작



■ 광주시청 살수차(1940년)

도로 포장에 되지 않아 먼지가 시가지를 덮자 광주부청에서는 거리에 물을 뿌리고 다녔다.

1943년

■ 광주·전남

- 5.5. - 광주학강국민학교 개교
- 5.20. - 광주 서중학교 맹휴 투쟁.(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 ‘학병 반대, 창씨개명 반대, 일어 강제사용 반대, 징병 반대’를 내걸고 6월까지 동맹 휴학. 이때 서중생 350명이 체포당함. 183명이 취조받은 뒤 80명은 송치되고 주동자 3명은 고문으로 숨짐
- 7.13. - 조선수리조합연합회 전남지부 발족(조선 토지개량협회 개편)
- 10.1. - 광주지방법원 송정출장소 개소
 - 조흥은행 광주·목포·순천·장성·보성·영광·담양·장흥·강진 지점 개점(동일은행과 한성은행의 합병함에 따른 것임)
- 12.1. - 조흥은행 광주지점, 본정^{本町} 5정목 49번지(옛 삼산당약국 자리)로 이전
 - 조선은행 광주지점 개점
 - 광주 세무감독국 폐지(업무는 전라남도 재무부에 흡수됨)
세무감독국 청사는 이후 일본군 광주사단 사령부로 사용됨
 - 전주 연초전매지국 광주출장소가 광주 연초전매지국으로 승격

■ 국내·외

- 1. - 니켈동화^{銅貨} 강제 공출
- 3.1. - 조선인 징병제 공포(8월 1일부터 시행)
- 4.20. - 식량공출 사전 할당제 발표
- 5. - 조선인 해군특별지원병제 실시
- 9. - 주축국 이탈리아 항복
- 10.5. - 부산~시모노세키 간 연락선 ‘곤령마루’^{崧嶺丸}(7,500톤)이 미국 잠수함에 격침당함(544명 사망)

10.20. - 일본 육군성, 조선학생에 대한 징병유예를 폐지함

10. - 조선 식량영단^{食糧營團} 설치

11.27. - 미국·영국·중국 3국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주독립할 것을 공약(카이로 선언)

이 해에 - 최남선^{崔南善} 『고사통^{故事通}』 발간



■ 방독면 착용 훈련

태평양전쟁이 치열해지자 일본군은 여자들에게도 방독면 착용 등 군사훈련을 시켰다.

1944년

■ 광주·전남

2. - 금속회수령에 의해 광주~담양 간 철도를 철거하여 레일 공출
- 광주방송국장에 고기^{吉賀致一} 부임
3. - 광주·목포·여수 상공회의소가 해산하고 전시^{戰時} 경제통제단체인 전라남도 상공경제회 설립
- 광주권번 해산
- 3.31. - 광주 의학전문학교 설립 인가. 상해 거주 손창식^{孫昌植}·여수 김영준^{金英俊} 등이 학교 설립 당시에 110만엔을 기부함
- 4.1. - 본량서^{本良西}국민학교 개교
- 4.25. - 일제는 목포 성 콜롬방 지부에 합숙 중인 아일랜드 신부들이 해안 근처에 있으면 간첩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도 홍천으로 강제 이송함(이 과정에서 목포성당 길^吉신부 순교함)
5. - 무등산 증심사 골짜기서 항일결사대 조직. 이은상·최인식(해방후 전남건준 선전부장·호남신문 편집국장 역임). 김종선·정호용·고재휘 등 10여명 참여. 미군 상륙하면 경찰서 습격 등을 계획함
그러나 5월 하순 검거됨
- 5.7. - 송정여자중학교 개교. 수업연한 2년제(광산군 송정읍 신동 926번지)
- 5.20. - 광주의학전문학교 개교(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신) 폐교 당한 수피 아여학교를 교사로 사용
- 9.18. - 광주 제2학생독립운동인 '무등회' 관련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림
9. - 섬진강 상류에 운암^{雲岩} 발전소 준공
- 12.17. - 광주도립병원을 광주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으로 이관
- 이 해에 - 만주사^{晩州祠}(광주시 일곡동) 건립. 송병선^{宋秉璿} 외 1위 배향

■ 국내·외

- 1.20. - 조선인 전문학교 및 대학생 학병 입영 시작
- 1. - 학도 근로동원 강화(연간 4개월)
- 2. - 관공서 일요휴무제 폐지
- 3.3. - 금융기관 일요휴무제 폐지
- 4. - 농촌 노무동원 실시
- 4.23. - 여자정신대 근무령 공포 시행(만 12세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일본·만주·남양 등지로 징용)
- 8. - 미국, 일본 본토 폭격을 강화
- 10. - 일본 제2국민병제 강행
- 이 해에 - 광주 사립보통학교 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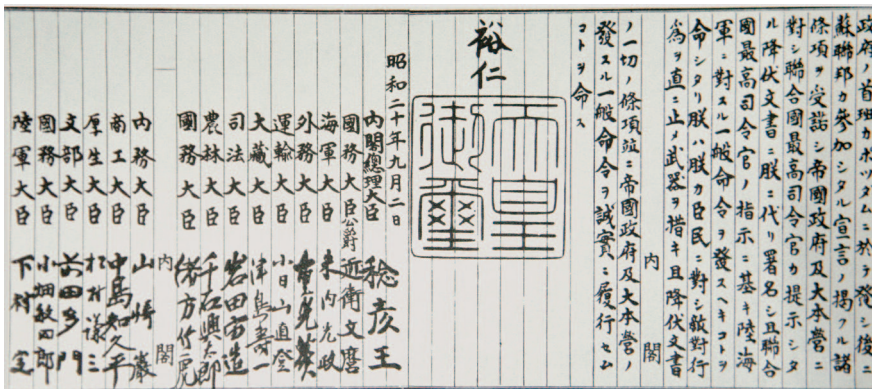
■ 근로정신대

일제 말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광주 출신의 소녀들. 이들은 나고야 미즈비시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다 해방이 되고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1945년

■ 광주·전남

7. - 전라남도 수산시험장을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 목포지장으로 명칭 변경
- 남선전기주식회사 목포지점 광주출장소를 광주지점으로 승격
- 8.1. - 장성역, 대전철도국 관할에서 순천철도국으로 편입되었다가
11월 1일 환원됨
- 순천철도사무소가 순천지방운수국으로 승격
- 8.15. - 일본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을 맞음. 전남도청 조선인 청년단 결성
(단장 김창선^{金昌宣}, 부단장 양보승^{梁寶承})
- 8.16. - 광주형무소에 구금된 정치범·경제범 출옥
- 8.17.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라남도위원회 결성(결성 장소 : 광주극장)
위원장 최흥중^{崔興中}
- 전남 건국준간부들, 야기^{八木} 전남 도지사를 방문하여 행정권 인계 요구
- 8.18. - 전남 건준 치안부 산하에 치안대 조직
- 광주청년단 결성. 광주청년단 선발대^{選拔隊}·별동대^{別動隊}·화랑단^{花郎團}
활동 개시



■ 일본 천황의 항복 문서

- 8.25. - 광주 서중 운동장에서 광주시민해방 축하대회 개최
 -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광주위원회 결성 위원장에 서우석^{徐禹錫} 선출됨
- 8.30. - 광주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33명 선출
- 8.31. - 전남신보 창간
- 9.3. - 해방 경축 전남도민대회 개최
- 9.8. - 전남 건준 개편대회 개최(위원장에 박준규^{朴準圭} 선출)
- 9.10. - 미군 제24군단의 소령이 광주에 도착. 전남도청 · 광주시청 금고와
각 은행에 출납 중지를 명령함
- 9.15. -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준비위원회 결성(옛 충장로의 용아빌딩 자리)
 - 조선국군준비대 전남지대 결성(지대장 주봉식^{朱奉植})
- 9.23. - 미군, 광주에 진주
- 9.24. - 광주 금동교회에서 광주YMCA 재건 결성대회 개최



■ 광주화랑단

광주화랑단은 해방과 함께 광주서중 졸업생 1백여명으로 조직되어 김창선을 단장으로, 이창업을 부단장으로 선출하고 곧이어 광주공원으로 가서 신사를 헐어버렸다. 사진은 1945년 9월 3일 축하행진하는 화랑단 앞줄 왼편 흰 모자에 완장을 찬 이가 김창선 단장,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이가 이창업 부단장

- 9.25. - 전남경찰 재건위원회 발족(위원장 노주봉^{盧朱鳳}). 이날 조선인 경찰관 대회를 열고 새로운 경찰 체제 확립을 결의. 위원으로 노주봉^{盧朱鳳}, 김정택^{金貞澤}, 김의택^{金義澤}, 조희인^{曹喜仁}, 홍용구^{洪鎔球} 선출. 대표 노주봉은 10월 5일 오후 6시 자택 앞에서 피격당함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라남도위원회를 조선인민위원회 전라남도 위원회로 개편(위원장 박준규)
- 10.1. - 전라민보 창간
- 10.7. - 미 킬버드 소령, 야기^{八木} 전남도지사로부터 도정 인수
- 10.9. - 해방 후 최초의 한글날 기념식 거행
- 10.10. - 광주민보 창간(뒤에 동광신문으로 제호 변경)



■ 전남도청 앞 거리 풍경(1940년대)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상공장려관으로 훗날 도로 확장공사 때 철거됐다.

- 10.15. - 제국관(무등극장 자리)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전남부인회 각 시군 대표
자회의 개최
- 10.19. - 호남매일신문 창간
- 10.22. - 최초의 미군 군정중대(미군 6사단 20보병연대 33보병중대)가 광주
에 도착
- 10.23. - 미군 제101민사부대가 광주에 도착. 피그 대령이 초대 미군정 전남
지사로 취임. 전남 일원에 미군정 실시



■ **해방 1주년 기념식**

1946년 광주시민들이 광주서중(현 광주일고) 교정에 모여 해방 1주년을 자축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경모

- 10.23. - 미군정, 전남도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각시군 인민위원회와 치안대의 해체를 명령
- 10.27. - 초대 한국인 전남지사로 최영욱^{崔泳旭} 취임
- 10.28. - 장흥에 미군 제61보병중대 진주
 - 한민당 전라남도당 결성
- 11.3.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서 이날을 ‘학생의 날’로 명명하자고 선언
- 11.5. - 전남 미군정장관으로 프라이스 육군대령 부임
- 11. - 미군정, 전라남도 인민위원회와 치안대를 해체시킴
- 12.5. - 수피아여자중학교, 양림동 66번지의 옛 송일중학교 교사 일부에서 복교함
- 12.18. - 국방경비대 전남지부 설치

■ 국내·외

- 2.11. - 알타 협정 체결
- 3. - 부산~신의주간 철도 복선 공사 완공
- 4.3. - 일본귀족원^{日本貴族院}에 조선인의원 7명을 임명
- 5.7. - 독일 무조건 항복
- 7.26. - 포츠담선언 발표(1943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함 동시에, 한민족의 독립을 공약함)
- 8.6. -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
- 8.8. - 소련 대일선전포고(9일 소련군이 두만강 건너 한반도 북부에 진입)
- 8.12. - 소련군, 청진에 상륙
- 8.15. - 일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발족(위원장 여운형^{呂運亨})

- 8.18. - 소련군, 원산에 상륙
- 8.24. - 소련군, 평양에 진주
- 8.30. - 국군준비대 결성
- 9.2. - 맥아더, 포고 제1호 발표. 북위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의 조선
점령을 발표
- 9.7. - 미군 제24군단 선발대, 인천에 상륙
- 9.9. - 미군이 군정^{軍政}을 공포함
- 9.16. - 한국민주당 결성(수석총무 송진우^{宋鎭禹})
- 9.25. - 처음으로 야간통행 금지 실시
(밤 8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통금 시행. 이후 36년간 시행하다가
1982년 1월 5일 해제)
- 10.16. - 이승만 귀국
- 11.23.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 귀국
- 12.16. -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신탁통치안을 발표
- 12.30. - 송진우 피살

광주 1백년 ③

발행일 2015년 12월 10일

지은이 박선희

펴낸곳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펴낸이 서영진

편집위원 신장용 조광철

사진담당 신장용

발행 담당 이유헌 팀장 김지원

발행부서 정책연구팀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광주문화재단 062)670-7432

만든곳 푸른커뮤니케이션

주소 61430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7

전화 062)434-8615

팩스 062)234-8615

메일 sdh8615@hanmail.net

등록 2006년 12월 22일 제 2006-000067호

ISBN 978-89-98057-18-3 93090 : 비매품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5032322)

이 책에 사용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번에 『광주 1백년』을 마무리하면서 못 다한 이야기도 몇 편 수록하였다. 항일의병운동, 광주학생운동에 가려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한 광주인권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사운동이 그것이다. 향토기업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금호 박인천 회장은 나의 인^인과 업^업이다. 더 이상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오. 광주가 사랑의 도시로서 기억해야 할 분이 고아의 어머니인 박순이 원장이라면 언론인으로서 사표는 서두성 주필이다. 흩어지고 멸실될 뻔한 자료들이 모여 문장이 되고 책으로 묶여지게 되어 다행스럽다. 그동안 자료를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미수^{未收}에 시작한 작업이어서 걱정스러웠지만 행복한 경험이었다. 이제 못다 이룬 대목은 다음 세대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저자의 말 중에서

광주 1백년³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비매품



9 788998 057183

ISBN 978-89-98057-18-3